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 (3차년도)

김은석

양안나

오찬호

장서영

하지영

송스란

KEIS



Ⅱ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제2절 연구 내용 | 4 |
| 제3절 연구 방법 | 6 |
| 제4절 연구 절차 | 7 |
| 제2장 선행연구 분석 | 9 |
| 제1절 베이비부머의 이해 | 9 |
| 제2절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 14 |
| 제3절 중고령자의 욕구와 일의 의미 | 41 |
| 제3장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조사 개요 | 52 |
| 제1절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설계의 기본 방향 | 52 |
| 제2절 조사 영역 및 내용 설정 | 54 |
| 제3절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 선정 | 58 |
| 제4절 패널관리 | 61 |
| 제4장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자료 수집과정 | 63 |
| 제1절 자료 수집 방법 | 63 |
| 제2절 자료 분석 방법 | 64 |
| 제3절 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 시 윤리적 고려 | 68 |

| | |
|--|------------|
| 제5장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 69 |
| 제1절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유형 | 69 |
| 제2절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유형별 경력경로 | 73 |
| 제3절 소결 | 154 |
| 제6장 경력경로상에서의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 변화 | 156 |
| 제1절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변화 양상 유형 | 156 |
| 제2절 소결 | 210 |
| 제7장 중요한 활동의 변화 | 213 |
| 제1절 일과 활동의 변화 | 213 |
| 제2절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 | 218 |
| 제3절 소결 | 241 |
| 제8장 삶의 변화 | 243 |
| 제1절 경력경로 변화가 베이비부머의 가치관에 미친 영향 | 243 |
| 제2절 생애사적인 ‘늙어감’에 따른 삶의 변화 | 263 |
| 제3절 주변관계의 변화 | 272 |
| 제4절 소결 | 279 |
| 제9장 결론 및 제언 | 281 |
| 제1절 결론 | 281 |
| 제2절 제언 | 287 |
| 참고 문헌 | 291 |
| [부록 1] 심층면담 사전 설문지 | 296 |
| [부록 2] 본조사 질문지 | 299 |
| [부록 3] 연구참여 의뢰서 및 동의서 | 306 |

| | |
|--|----|
| 〈표 2-1〉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상태 | 11 |
| 〈표 2-2〉 베이비부머의 직업별·산업별 퇴직가능 규모 | 13 |
| 〈표 2-3〉 베이비부머의 퇴직 규모에 따른 산업·직종별 순위 | 14 |
| 〈표 2-4〉 중고령자의 은퇴 관련 주요 변인 | 17 |
| 〈표 2-5〉 퇴직 노인의 재취업 경험과정 | 37 |
| 〈표 2-6〉 인간 일반과 중고령기 욕구론 비교·종합 | 46 |
| 〈표 3-1〉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 1차 본조사(2014년) 영역 및 내용 | 56 |
| 〈표 3-2〉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 2차 본조사(2016년) 영역 및 내용 | 57 |
| 〈표 3-3〉 베이비부머 2차 본조사(2016년) 연구참여자 표본 특성 | 59 |
| 〈표 4-1〉 개별 사례에 대한 기초분석의 예시 | 64 |
| 〈표 4-2〉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의 예시 | 66 |
| 〈표 5-1〉 베이비부머 퇴직자 유형 | 70 |
| 〈표 5-2〉 베이비부머 퇴직자 유형별 인적사항 | 71 |
| 〈표 5-3〉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73 |
| 〈표 5-4〉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특성 | 76 |
| 〈표 5-5〉 경력연계형 기술직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및 재취업 일자리 직무 비교 | 77 |
| 〈표 5-6〉 경력연계형 전문직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및 재취업 일자리 직무 비교 | 78 |
| 〈표 5-7〉 경력연계형 대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직무 | 79 |
| 〈표 5-8〉 경력연계형 단순직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일자리 직무 | 80 |

| | |
|--|-----|
| 〈표 5-9〉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 | 80 |
| 〈표 5-10〉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 중 중소기업 퇴직자 재취업 일자리 특성 · | 81 |
| 〈표 5-11〉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 중 자영업 및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일자리 특성 | 82 |
| 〈표 5-12〉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일자리 만족도 감소 사례 | 83 |
| 〈표 5-13〉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이동에 따른 만족도 변화 (대기업→ 중소기업) | 84 |
| 〈표 5-14〉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이동에 따른 만족도 변화 (중소기업→ 중소기업/공공기관 등) | 85 |
| 〈표 5-15〉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90 |
| 〈표 5-16〉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특성 | 92 |
| 〈표 5-17〉 중소기업 출신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특성 | 95 |
| 〈표 5-18〉 대기업 출신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특성 | 96 |
| 〈표 5-19〉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중소기업) | 97 |
| 〈표 5-20〉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중장년 주요 진출 직업) | 98 |
| 〈표 5-21〉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창업) | 98 |
| 〈표 5-22〉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단순노무, 생산직) | 99 |
| 〈표 5-23〉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기타) | 100 |
| 〈표 5-24〉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 | 100 |
| 〈표 5-25〉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상승 및 동일 사례) | 103 |
| 〈표 5-26〉 취업포기형 베이비부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107 |
| 〈표 5-27〉 새경력시작형 베이비부머 인적사항 | 118 |
| 〈표 5-28〉 새경력준비형 베이비부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135 |
| 〈표 5-29〉 은퇴형 베이비부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150 |
| 〈표 6-1〉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 변화에 따른 유형 | 157 |
| 〈표 6-2〉 연구대상자 기본정보(2016년 현재) | 158 |

| | |
|-------------------------------------|-----|
| 〈표 6-3〉 [2016-3-남]의 일의 의미 변화 | 163 |
| 〈표 6-4〉 [12-남]의 일의 의미 변화 | 166 |
| 〈표 6-5〉 [12-남]의 소득 변화 추이 | 169 |
| 〈표 6-6〉 [18-남]의 일의 의미 변화 | 175 |
| 〈표 6-7〉 [03-남]의 일의 의미 변화 | 184 |
| 〈표 6-8〉 [30-남]의 일의 의미 변화 | 187 |
| 〈표 6-9〉 [23-남]의 일의 의미 변화 | 191 |
| 〈표 6-10〉 [39-남]의 일의 의미 변화 | 199 |
| 〈표 6-11〉 [47-남]의 일의 의미 변화 | 203 |
| 〈표 6-12〉 [02-남]의 일의 의미 변화 | 207 |
| 〈표 6-13〉 [40-남]의 일의 의미 변화 | 209 |
| | |
| 〈표 7-1〉 중요한 활동의 개념적 구분 | 215 |
| 〈표 7-2〉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과 해당 사례자 | 216 |
| 〈표 7-3〉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 특징 요약 | 242 |
| | |
| 〈표 8-1〉 남성 베이비부머 배우자의 직업 변화 | 274 |

| | |
|---|-----|
| [그림 1-1]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의 연도별 주요 목표 및 내용 | 7 |
| [그림 1-2] 2016년도 질적 종단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8 |
| [그림 2-1] 베이비부머의 연령별 경제활동상태(2010년 기준) | 12 |
| [그림 2-2] 은퇴 후 노인의 적응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 28 |
| [그림 2-3] 노인의 은퇴 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 30 |
| [그림 2-4] 매슬로의 욕구단계 모형 | 42 |
| [그림 5-1] 사례자 [14-여] 경력경로 | 86 |
| [그림 5-2] 사례자 [57-여] 경력경로 | 87 |
| [그림 5-3] 사례자 [9-여] 경력경로 | 88 |
| [그림 5-4] 사례자 [56-여] 경력경로 | 88 |
| [그림 5-5] 사례자 [60-여] 경력경로 | 89 |
| [그림 5-6] 사례자 [24-남] 경력경로 | 101 |
| [그림 5-7] 사례자 [49-남] 경력경로 | 102 |
| [그림 5-8] 사례자 [45-여] 경력경로 | 104 |
| [그림 5-9] 사례자 [13-남] 경력경로 | 105 |
| [그림 5-10] 사례자 [22-남] 경력경로 | 106 |
| [그림 5-11] 사례자 [17-남] 경력경로 | 107 |
| [그림 5-12] 사례자 [58-여] 경력경로 | 108 |
| [그림 5-13] 사례자 [20-여] 경력경로 | 110 |
| [그림 5-14] 사례자 [53-여] 경력경로 | 111 |
| [그림 5-15] 사례자 [59-여] 경력경로 | 112 |
| [그림 5-16] 사례자 [62-여] 경력경로 | 119 |

| | |
|--------------------------------------|-----|
| [그림 5-17] 사례자 [30-남] 경력경로 | 119 |
| [그림 5-18] 사례자 [52-남] 경력경로 | 120 |
| [그림 5-19] 사례자 [2013-c1-남] 경력경로 | 121 |
| [그림 5-20] 사례자 [2013-b2-남] 경력경로 | 122 |
| [그림 5-21] 사례자 [2013-b4-여] 경력경로 | 122 |
| [그림 5-22] 사례자 [18-남] 경력경로 | 137 |
| [그림 5-23] 사례자 [27-여] 경력경로 | 138 |
| [그림 5-24] 사례자 [1-남] 경력경로 | 138 |
| [그림 5-25] 사례자 [66-남] 경력경로 | 139 |
| [그림 5-26] 사례자 [2016-3-남] 경력경로 | 140 |
| [그림 5-27] 사례자 [61-남] 경력경로 | 151 |
| [그림 5-28] 사례자 [65-남] 경력경로 | 152 |
| | |
| [그림 6-1] [2016-3-남]의 경력경로 | 159 |
| [그림 6-2] [12-남]의 경력경로 | 167 |
| [그림 6-3] [18-남]의 경력경로 | 174 |
| [그림 6-4] [18-남]의 주요 만족도 변화 | 180 |
| [그림 6-5] [03-남]의 경력경로 | 181 |
| [그림 6-6] [30-남]의 경력경로 | 185 |
| [그림 6-7] [23-남]의 경력경로 | 188 |
| [그림 6-8] [39-남]의 경력경로 | 195 |
| [그림 6-9] [47-남]의 경력경로 | 201 |
| [그림 6-10] [02-남]의 경력경로 | 205 |
| [그림 6-11] [40-남]의 경력경로 | 207 |
| | |
| [그림 7-1] 일과 활동의 변화 양상 | 215 |

요 약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는 질적 패널 자료를 통하여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3차년도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2차 본조사를 통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3~5년 정도 경과한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경력경로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경력경로상에서의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발달은 단지 직업으로써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 및 관계의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과 활동, 삶의 다양한 변화 양상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조사에 참여한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 선정 기준은 지난 2014년 1차 본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 경과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 생)로 ②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자, 취업 외의 활동을 계획하는 자에 해당하였으며, 2014년 5월 14일~6월 11일까지 약 4주간에 걸친 표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66명의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2차 본조사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참여자 66명 중에서 2차 본조사 참여를 수락한 47명과 성별과 학력을 고려하여 추가 표집한 13명을 포함, 총 6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ii 요약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1차 본조사 자료 수집은 사전질문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5명의 연구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였고, 2016년 5월 2일(월)일부터 2016년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방대한 자료의 분석은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의미를 분석하여 영역별로 기록하는 기초분석과 각 사례별 코딩 또는 범주를 상위범주로 개념화하는 심층분석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를 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의 퇴직 후 경력경로를 ‘경력연계형’, ‘경력무관형’, ‘새경력시작형’, ‘새경력준비형’, ‘취업포기형’, ‘은퇴형’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재취업에 대한 인식 및 희망 분야가 서로 다르고, 실제로 퇴직 후 전개되는 경력경로도 다음과 같이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경력연계형’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가교 일자리로 진입 시 일반적으로는 만족도 하락이 예상되며,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과거에 비해 일자리의 질과 급여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자리 만족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이들은 자신의 기술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성별에 따라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자리 만족도 차이도 드러났다. 즉 동일하게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경우, 남성의 일자리 만족도는 공통적으로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의 가능, 노후의 축적으로 인한 편안함, 이전 직장과의 별 차이 없는 기대감, 경력단절 후의 재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오히려 일자리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연구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의 취업을 원하지만, 용이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된 일자리 직무와 관련 없는 직무로 취업한 ‘경력무관형’ 사례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경력연계 일자리로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는 흔히 알려진 대로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력무관형’ 사례 발생 사유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특정한 기술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가 아닌 간접 부서에 해당하는 관리업무 종사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한 직무 및 기업 규모 등이 경력연계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지의 여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무관형’의 대부분은 재취업 후 일자리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며, 이는 기업 규모나 수입 등 외적인 조건 외에도 전문성과 상관없는 일을 ‘마지못해’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의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용이하지 않아 취업을 포기한 ‘취업포기형’은 주된 일자리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중소기업 혹은 계약직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 재취업에 단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경력무관형’과 달리 취업을 포기하는 사유 및 배경은 경제적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고, 남성에 비해 직업이 없는 것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여성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넷째, 연구참여자의 대다수가 ‘경력연계형’ 및 ‘경력무관형’에 해당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경력을 전환하여 새로운 경력을 찾기 시작한 ‘새경력시작형’과 ‘새경력준비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력전환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또는 ‘퇴직이라는 인생 사건을 맞이하여 이전과 다른 일로 제2경력을 수립해야 할 필요를 깨달아서’라는 적극적인 측면과, ‘이전 경력에서 하던 직무를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는 ‘이전 경력에서 하던 직무로 재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라는 다소 소극적인 사유로 구분된다. 이들의 새경력준비 및 시작과정에서는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필요로 하는 자격과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관련 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경력준비와 시작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관심사를 봉사활동 또는 공부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통해’ 새경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력경로상에서의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차 본조사(2014) 이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나타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변화 양상이 보다 다양하게 개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마다의 선천적·후천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오랜 시간 축적된 고

유한 경험과 함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맞닥뜨리는 일련의 변화 상황에 각기 다양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다양한 양상 가운데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 변화를 중심으로 공통된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성장욕구형’과 ‘결핍욕구형’이라는 두 개의 상위 유형하에, 자아실현의 지속과 성장을 추구하는 ‘자아실현형’, 경제적 위기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균형분투형’, 일의 통제권과 여유를 강조하는 ‘자유추구형’, 새로운 시작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만족감과 보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원점출발형’, 일의 즐거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아확장형’, 영성의 추구하고 비움 및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추구하는 ‘개조전환형’, 좌절과 퇴행을 경험하고 있는 ‘생계하락형’이라는 총 7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차 본조사 이래 2년이 지난(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지 약 3-5년) 현시점에서 나타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변화 양상이 보다 다양하고 개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적 혹은 개인적 상황을 대면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거나 유지하거나 계속 실현하기 위한 나름의 적응전략 또는 변화가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응과정에 도움이 된 주요요인은 베이비부머 사례자의 지속적인 배움, 인간관계,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건강, 운(luck), 종교생활(영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에 따라서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련의 경험과정을 통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일련의 정체성과 어떤 관성적인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일과 삶에 대한 그동안의 관점을 스스로 과감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개조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하나의 위기인 동시에 진정한 자신을 찾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다양한 차원의 변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과 발견은 향후 베이비부머 개인 여하에 따라 그들을 특징짓는 틀이 언제든지 재구조화될 수 있고, 성장 및 성숙을 향한 인간적 욕구의 발현을 통해 의미 있는 생산성의 성취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의 궤적은 경력경로 분석을 통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베이비부머의 삶을 아우르는 경력경로와 경력발달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일과 활동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삶 전체를 조망하며 베이비부머의 삶이 일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은 무엇이고, 그 양상은 어떠한 맥락에서 전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중요한 활동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전히 ‘일 중심’의 삶, ‘일과 활동의 병행’, ‘활동 중심’으로의 변화라는 세 가지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 혹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 등 여전히 일 중심의 태도와 삶을 이어가는 사례도 확인한 반면, 일과 활동을 점차 분리하거나 일 외의 활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력개발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등 일과 활동을 병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하였다. 또한 중요한 활동의 분석을 통해 친목 도모 등 취미 위주의 활동사례도 확인하였으나, 원하는 삶을 살고 좋아하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준비활동, 연구 및 학습을 중심으로 한 활동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베이비부머 대상의 생애경력개발과 고용서비스 제공 및 후속연구 수행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책 및 일자리 관련 문제는 기존의 청년층 실업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코호트를 지칭하며, 현재 약 712만 명으로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고등교육과 고도성장의 혜택을 받고, 정치적으로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으며, 30~40대에 이르러서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IMF를 경험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정경희, 2010; 손양민, 2010; 정경희, 2009). 이들 베이비부머가 경험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 변화와 시대적 특성은 개인이 처한 환경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과 맞물려 삶의 욕구와 서비스 기대 수준, 정책적 지원의 범위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작년부터는 일반적인 정년 퇴직 연령으로 간주된 58세에 다다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이며 대대적인 베이비부머의 은퇴 또는 가교 일자리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오늘날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이탈 등 현재 당면한 문제로 인해, 공공 고용서비스 영역에서도 실업자뿐 아니라 퇴직을 전후로 한 중고령자 대상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이비부머의 근로생애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퇴직에 관한 것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이들이 준비된 활기찬 노후를 향유하고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과 부담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베이비부머가 갖고 있는 양적·질적 특성에 기초하여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고민이 고령화 사회의 해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김혜영, 2010) 베이비부머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변화, 국가의 재정 문제, 은퇴와 재취업, 노후 준비 등 베이비부머가 은퇴함에 따라 바뀌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베이비부머가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돌아감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 관련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 및 중고령자의 특성과 경력 이동 등에 관한 연구는 개별 연구자에 의해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왔을 뿐, 이들의 퇴직을 전후로 발생하는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등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패널조사 자료의 경우 장기 추적조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에 특화된 연구 설계가 아니며, 더 나아가 양적조사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퇴직자의 경력경로와 퇴직에 따른 변화의 다양한 원인과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양적 패널자료의 특성상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상적인 경험과 인식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경력경로 관련 경험을 통계적 수치로 축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은 은퇴를 하나의 위기 사

건으로 보는 관점(Burgess, 1960; Miller, 1965; Thoits, 1983; Phillipson, 1993)에서 탈피하여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보는 라이프코스 관점(Atchley, 1971; George & Maddox, 1977; Kelly, 1996; Palmore, Fillenbaum, & George, 1984)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은퇴를 생애전이(transition)로서 개념화하고, 전이의 맥락(context), 시간성(temporality) 및 생애과정의 상호의존성(inter-contingent lives)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경력경로 및 퇴직과정과 관련한 역동적인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와 맥락 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의 경험, 인식, 특성을 연구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묘사함으로써 연구 대상 및 대상이 속한 환경의 맥락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새로운 이론이나 가설을 생성하기에 적합한 연구의 방법과 틀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질적 종단 연구는 연구대상의 ‘변화’를 연구의 중심에 두고 생애주기의 연속성 안에서 변화의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요인을 기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 방법 대신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질적 종단 연구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화, 경제발전, 경제위기와 같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과 삶의 궤적을 같이 한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현시점에서 생애 후반기로 전환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와 관련하여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베이비부머의 퇴직과정 및 생애전환에 관한 질적 종단 연구는 양적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며, 베이비부머의 생애 후반기 역동과 다양성을 상세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에는 베이비부머 및 중고령자 대상의 선행연구 분석과 질적 종단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설계를 목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확립하였다. 2014년 1차 본조사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 경과한 베이비부머 6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와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① 퇴직 전 경력 및 퇴직 경험 ② 퇴직 후 현재의 활동 및 경험 ③ 일의 의미와 정체성 ④ 행복한 삶의

청사진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性),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형화와 퇴직 후 재취업 외 다른 준비경험을 하는 베이비부머 대상의 심층분석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어진 2015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 본조사(2014년)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베이비부머 은퇴자 유형화, 근로생애(work life)의 굴곡과 만족도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유형화,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귀농·귀촌 선택 동기와 준비경험에 대한 주제별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사회관계적 변화 경험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1차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본조사에 해당하는 본연구에서는 2014년 1차 본조사 이후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는 질적 패널 자료를 통하여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차 본조사에 해당하는 본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베이비부머의 특성 및 중고령자 은퇴 후 적응과정 분석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와 이들의 퇴직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경제활동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중고령자의 은퇴 관련 주요 변인과 은퇴 후 적응 및 재취업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2.2. 중고령자의 욕구와 일의 의미 분석

이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매슬로

(Maslow)의 욕구단계론,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중고령기 욕구론 등 중고령자의 욕구와 일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조사 계획 수립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2차 본조사 실시를 위해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설계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 영역 및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후 조사 계획에 따라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 선정 후 패널관리 방안에 따라 2차 본조사를 수행하였다.

2.4.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분석

주된 일자리 퇴직 후 3~5년 정도 경과한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경력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사 유무, 실제 재취업 여부, 재취업 시 하기 원하는 직무, 실제 재취업 시 수행하는 직무라는 4개 요소를 기준으로 연구참가자의 퇴직 후 경력경로를 분석하였다.

2.5. 경력경로상에서의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의 변화 분석

이 연구는 1차 본조사(2014) 이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경력경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경력경로상에서의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6. 중요한 활동과 삶의 변화 분석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발달은 단지 직업으로서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 및 관계의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과 활동, 삶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3.1. 연구진 회의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진 회의를 통해 베이비부머 연구참가자를 세부 집단으로 분류할 기준 마련, 세부 집단 도출, 각 집단의 특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1차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분석 주제 및 내용을 확정하였다.

3.2. 심층인터뷰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1:1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차 본조사 연구참가자 및 신규 연구참가자에 대한 연락을 통해 2차 본조사 연구참여자를 확정하였다. 그 후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대상의 1:1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면담 내용 녹취 후 전사(transcription) 및 자료관리를 실시하였다.

3.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개인별 분석을 실시하였고,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분석을 통해 주제별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3.4. 전문가 자문

심층인터뷰 실시 후 연구진에 의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영역별 분석 결과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의미 단위 설정의 적절성 및 보완점을 점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제4절 연구 절차

2016년도 질적 중단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주요 결과물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의 연도별 주요 목표 및 내용



위에서 제시한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 및 연도별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도 2차 본조사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절차와 이에 따른 연구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2016년도 질적 중단 연구의 절차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분석

제1절 베이비부머의 이해

1.1. 베이비부머의 정의와 특성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늘어 출생아 수가 폭등하는 상황을 의미한다(통계청 인구대사전, 2006).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집단을 지칭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1955~1963년 생을 1차 베이비부머로 보고, 1969~1975년 생(김영민, 2006) 혹은 1968~1976년 생을 2차 베이비부머로 보는(김부성, 2009)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라 함은 1차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1955~1963년 출생자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시대적 맥락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선 이들 세대는 유년기(1950년)에 절대 빈곤의 시대를 지냈고, 10~20대에는(1960~1970년대)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지내야 했으며, 청년 시절에는 고등교육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격심한 경

쟁을 경험해야 했다. 20~30대에는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한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1980년대에는 민주화에 참여하였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40대에 이르러 IMF를 겪고, 경제활동에 있어 큰 타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외, 2010). 또한 이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교육을 받았지만, 중장년 시기에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는 등 사회적·정치적·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 세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일과 세대관념, 정신건강과 노후준비 측면에서 몇 가지 주요한 인식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호성·강성원·문외솔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만큼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휴일근무와 초과근무도 당연히 여기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였다. 세대 간 교환에 있어서는 소비지출 내역 중 부모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부모와 자녀 세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교육 뿐 아니라 결혼비용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덜 의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다른 인구 대비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경제위기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는 본인은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연금 이외의 마땅한 노후준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은퇴 후 보유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에 현 거주지를 처분하기보다는 계속 주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활동 면에서는 비교적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익숙해져 있기에, 노후에 문화충족욕구와 축소된 자원 간 괴리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 현황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인구는 약 7,12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568천 명(50.1%), 여성이 3,556천 명(49.9%)

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별 구성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상용직은 26%(1,887천 명), 임시직 14%(986천 명), 일용직 7%(500천 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고용주는 7%(530천 명), 자영업자 16%(1,180천 명), 무급가족종사자 5%(368천 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683천 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정년퇴직과 관계없이 일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된 일자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이동하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베이비부머의 약 26%를 차지하는 상용직근로자의 일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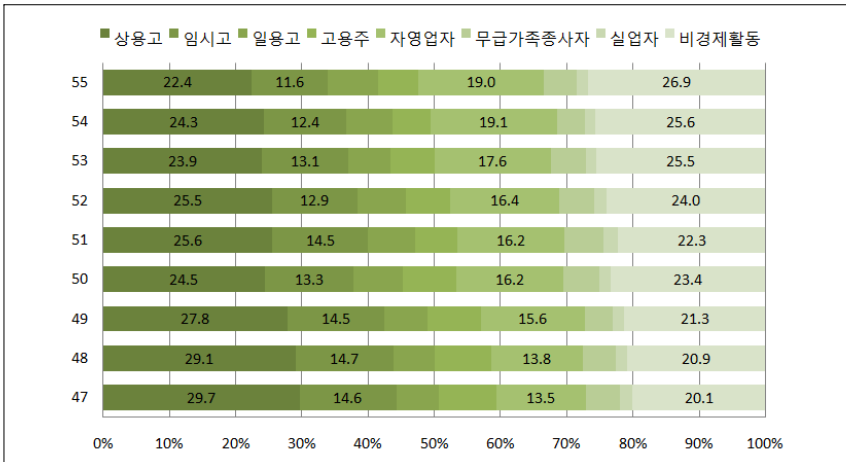
〈표 2-1〉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상태

| 구분 | | 수(천 명) | 비율(%) |
|---------|---------|--------|-------|
| 임금근로자 | 상용직 | 1,887 | 26.0 |
| | 임시직 | 986 | 13.6 |
| | 일용직 | 500 | 6.9 |
| 비임금근로자 | 고용주 | 530 | 7.3 |
| | 자영업자 | 1,180 | 16.2 |
| | 무급가족종사자 | 368 | 5.1 |
| 실업자 | | 127 | 1.8 |
| 비경제활동인구 | | 1,683 | 23.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

베이비부머의 연령별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용직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자영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상승에 따라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이 가능한 사람도 줄어들게 됨을 보여준다.

[그림 2-1] 베이비부머의 연령별 경제활동상태(2010년 기준)



자료: 권혜자(2011). 중고령자의 취업구조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p.25.

현재 2013~2020년까지 베이비부머의 정년퇴직 가능규모는 1,038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2-2>에서 베이비부머의 직업별 퇴직가능 규모를 살펴보면 기능원 및 조작원이 276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사무직 225천 명, 단순노무직 196천 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산업별 퇴직가능 규모는 제조업이 420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유통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이 각각 190천 명, 사회서비스업 131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베이비부머의 직업별·산업별 퇴직가능 규모

(단위: 천 명)

| 구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13~2020 |
|----|-----------|------|------|------|------|------|------|------|------|-----------|
| 직업 | 고위임직원 | 11 | 11 | 12 | 14 | 13 | 13 | 12 | 12 | 98 |
| | 전문가·기술공 | 15 | 16 | 18 | 20 | 21 | 22 | 22 | 24 | 158 |
| | 사무직 | 18 | 20 | 24 | 28 | 30 | 33 | 34 | 38 | 225 |
| | 판매·서비스직 | 8 | 9 | 10 | 11 | 12 | 12 | 11 | 12 | 85 |
| | 기능원 및 조직원 | 29 | 31 | 34 | 38 | 38 | 38 | 33 | 35 | 276 |
| | 단순노무직 | 23 | 23 | 25 | 27 | 27 | 26 | 22 | 23 | 196 |
| 산업 | 제조업 | 39 | 42 | 49 | 57 | 59 | 60 | 54 | 60 | 420 |
| | 사회서비스업 | 13 | 14 | 16 | 18 | 18 | 18 | 16 | 18 | 131 |
| | 건설업 | 6 | 7 | 7 | 8 | 8 | 8 | 8 | 9 | 61 |
| | 유통서비스업 | 20 | 21 | 23 | 26 | 26 | 26 | 23 | 25 | 190 |
| | 개인서비스업 | 5 | 5 | 5 | 6 | 6 | 6 | 5 | 5 | 43 |
| | 생산자서비스업 | 20 | 20 | 22 | 24 | 25 | 26 | 25 | 28 | 190 |
| | 정보통신산업 | 4 | 4 | 6 | 7 | 7 | 8 | 8 | 9 | 53 |
| 전체 | | 104 | 110 | 123 | 138 | 141 | 144 | 134 | 144 | 1038 |

자료: 권혜자(2011). 중고령자의 취업구조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p.31.

주) 근속 2년 이상 상시 순 피보험자 대상임

다음으로 산업과 직종을 교차하여 향후 9년간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높은 부문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기능원 및 조직원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제조업의 단순노무직중, 운수업의 기능원 및 조직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단순노무직, 제조업의 사무직과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베이비부머의 퇴직 규모에 따른 산업·직종별 순위

(단위: 명)

| 순위 | 산업직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1 | 제조업 - 기능원 및 조작원 | 15,318 | 16,872 | 18,989 | 22,183 | 22,984 | 23,177 | 20,259 | 22,381 |
| 2 | 제조업 - 단순노무직 근로자 | 10,133 | 10,476 | 12,044 | 13,613 | 13,901 | 13,472 | 11,458 | 12,531 |
| 3 | 운수업 - 기능원 및 조작원 | 6,900 | 6,799 | 7,152 | 7,470 | 6,954 | 6,437 | 5,429 | 5,172 |
| 4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 단순노무직 근로자 | 3,654 | 3,356 | 3,246 | 3,120 | 2,841 | 2,435 | 1,924 | 1,986 |
| 5 | 제조업 - 사무직 | 4,160 | 4,838 | 6,124 | 7,508 | 8,381 | 9,441 | 9,679 | 11,163 |
| 6 | 제조업 -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 3,441 | 3,999 | 4,408 | 4,971 | 4,888 | 4,807 | 4,117 | 3,946 |
| 7 | 제조업 - 전문가 및 기술공 | 2,994 | 3,371 | 3,987 | 4,900 | 5,449 | 5,672 | 5,302 | 5,799 |
| 8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전문가 및 기술공 | 2,365 | 2,421 | 2,821 | 3,219 | 3,482 | 3,912 | 3,869 | 4,313 |
| 9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가 및 기술공 | 2,181 | 2,262 | 2,489 | 2,542 | 2,547 | 2,608 | 2,508 | 2,844 |
| 10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단순노무직 근로자 | 1,637 | 1,521 | 1,555 | 1,681 | 1,559 | 1,434 | 1,073 | 1,176 |

자료: 권혜자(2011). 중고령자의 취업구조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p.33.

제2절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2.1. 은퇴에 관한 이론적 기초

은퇴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이론적 배경과 주된 연구 내용을 달리하기에, 중고령자의 은퇴과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은퇴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은퇴를 하나의 위기 사건으로 보는 관점(Burgess, 1960; Miller, 1965; Thoits, 1983; Phillipson, 1993)이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또는 역할/정체성 이론에 기반을 둔 이러한 관점에서는 은퇴를 직업역할 및 지위의 상실, 자아정체감의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시간,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삶의 후반기에 겪게 되는 위기이자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으로 간주한다. 즉 은퇴란 개인에게 의미와 삶의 목적을 제공하는 주요 맥락의 하나인 직업역할과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기에, 은퇴를 경험한 개인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의 위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Thoits, 1983; George, 1993).

반면 은퇴를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보는 관점(Atchley, 1971; George & Maddox, 1977; Kelly, 1996; Palmore, Fillenbaum, & George, 1984)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은퇴는 갑작스럽게 직면하는 위기 사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견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건이며,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어느 한 단계의 잠정적 과업이기에 그 결과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즉 은퇴 이후에도 이전 생활방식이나 가치관, 자긍심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은퇴가 반드시 심리적 부적응이나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Reitzes, Mutran and Fernandez, 1996; 윤지은·전혜정, 2009에서 재인용).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서 살펴보면 낮은 은퇴 연령,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 비자발적 은퇴,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은퇴라는 사건이 스트레스로 인식될 여지가 크며, 은퇴 후의 적응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볼 때에는 과도한 성취중심의 사회, 과도한 경쟁구조 안에서 은퇴를 통해 직업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새로운 제2의 인생 시작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은퇴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위기이론이나 스트레스이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나(김명자, 2003; 배문조·전귀연, 2004; 신화용·조병은, 1999, 2001; 최가영·조임현·이의훈, 2001), 이들 관점으로 은퇴경험의 역동성을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은퇴 결정 및 적응과정의 복잡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은퇴를 분석하고자 하는 실증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

였다(Kim & Moen, 2002; Szinovacz & Davey, 2004 등). 이러한 라이프코스 관점에서는 은퇴를 생애전이(transition)로서 개념화하고, 전이의 맥락(context), 시간성(temporality) 및 생애과정의 상호의존성(inter-contingent lives)에 주목하였다. 우선 맥락(context)이란 개인 생애과정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환경이자 은퇴자가 처한 환경을 의미한다. 즉 라이프코스 관점에서는 개인의 특성, 가족, 기업, 지역사회 및 사회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층위의 맥락에 관심을 기울인다. 시간성(temporality)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라이프코스적 관점에서 은퇴는 사건이 아닌 과정(process)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과 재취업의 반복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양상의 은퇴가 존재하며, 직업 역할로부터 퇴장이 은퇴 이전에 이미 시작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은퇴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 경과된 기간이 단순히 통제변수 이상의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 변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 후 현재의 상황 특성뿐 아니라, 은퇴 이전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세계의 경험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은퇴시기(timing)이다. 중년기의 은퇴나 갑작스러운 퇴출은 노년기 은퇴나 정년을 다 한 후의 은퇴와 아주 다른 경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은퇴시기의 중요성은 직업 역할로부터 퇴장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진행과 시간적 의미에서 얼마나 잘 조화(synchronize)되는가하는 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가령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녀 유무나 미혼 자녀 유무 등 자녀의 고등교육 및 결혼 여부는 은퇴경험 설명에서 중요한 예측변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라이프코스적 관점에서 부모의 은퇴 후 삶과 자녀 세대의 생애 단계와의 관련성은 생애과정의 상호의존성(inter-contingent lives)과도 연결된다. 즉 개개인의 삶의 궤적이 주변의 중요한 타자의 삶의 진행에 의해 영향 주고받으면서 구체화된다는(한경혜, 1991). 이런 맥락에서 은퇴를 부부 단위의 경험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Szinovacz & Davey, 2007), 가령 성역할 분리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이 은퇴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은퇴하지 않고 취업상태에 있는가 여부가 가지는 의미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2. 중고령자의 은퇴 관련 주요 변인

중고령자의 은퇴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은퇴와 관련된 것으로 언급된 주요 변인을 제시하면 <표 2-4>와 같이 개인 특성, 가족 특성, 직업 특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 관련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특성 관련 변인으로는 성 차이, 성역할 정체감, 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 경제적 자원, 연령, 교육정도, 자기수용, 성숙감, 은퇴 전 직업 및 가정 만족도, 일에 대한 몰입도 등이 있으며, 가족 특성 관련 변인으로는 배우자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졸업/취업/결혼 여부, 친구관계, 세대 구성, 가계 월소득, 혼인상태 등이 있다. 직업 특성 관련 변인으로는 직종, 본인 및 배우자 은퇴시기, 은퇴 전 직업 특성, 근속기간 등이 있으며, 사회문화적 특성 변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 공적연금가입 및 수급 여부, 사회구조 및 규범, 노동시장 구조, 직업세계의 변화, 경기침체 등이 있다.

<표 2-4> 중고령자의 은퇴 관련 주요 변인

| 구분 | 주요 변인 |
|----------|---|
| 개인 특성 | 성 차이, 성역할 정체감, 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 경제적 자원, 연령, 교육정도, 자기수용, 성숙감, 은퇴 전 직업/가정 만족도, 일에 대한 몰입도 |
| 가족 특성 | 배우자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졸업/취업/결혼 여부, 친구관계, 세대 구성, 가계 월소득, 혼인상태 |
| 직업 특성 | 직종, 본인 및 배우자 은퇴시기, 은퇴 전 직업 특성, 근속기간 |
| 사회문화적 특성 | 사회보장제도, 공적연금가입 및 수급 여부, 사회구조 및 규범, 노동시장 구조, 직업세계의 변화, 경기침체 |

이상에서 제시된 중고령자의 은퇴 관련 변인은 독립적이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변인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에 각 변인을 분리하여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1 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 은퇴 관련 변인

중고령자의 은퇴 관련 연구에서 남녀 간 성 차이에 따른 연구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은퇴 관련 변인을 성 차이에 따라 분석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특성과 관련하여 남성은 근로환경, 고용안정성, 고임금 등으로 특징되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가사 및 육아의 주된 책임으로 인해 시간제 직종이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은퇴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최옥금, 2011; 권승·황규선, 2004; Connelly, 1992). 하지만 은퇴 이후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족경제로 인한 가족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도 직장과 일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로 직업역할에서의 퇴장은 소외감이나 외로움으로 경험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경혜, 손정연, 2012). 이러한 특성은 경제적 부양자로서 남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남성의 경우 생계부양자로서 정체감을 직업인의 역할에 내면화시켜왔기에,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상실의 정체성 훼손을 통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여성은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감을 가족역할의 수행을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고, 노동에 대한 기대치가 남성에 비해 적기에 은퇴 경험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남성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안지선, 전해정, 2012). 이와 더불어 은퇴한 남성은 주된 일자리나 가교 일자리에 있는 남성보다 결혼만족도 및 자녀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퇴한 여성은 일을 하는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또한 양육자의 역할은 어머니 역할과 동일시되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경제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한경혜, 손정연,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에 따른 경험은 사회문화적 기대나 생애경로(life pathway)에 따라 다르기에(안지선·전해정, 2012),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20세기 후반 성역할 기대 변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세대라는 점에서 과거 경험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2.2. 건강과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은퇴 관련 변인

은퇴자들이 지닌 자원 중에서도 좋은 건강상태와 적절한 경제적 자원은 은퇴 후 생활변화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에 해당한다. 은퇴자들은 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하게 되는데,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정신건강 혹은 심리적 복지감 사이에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일관되고 보고하고 있다(송예현, 2001; Kim & Moen, 2002). 우선 경제적 자원인 소득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남녀의 자기수용과 성숙감을 낮추는 매개요인에 해당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남녀 베이비부머의 소득 감소는 결국 심리적 복지감 저하로 이어지는데,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의 불안정과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소득수준과 심리적 복지감 사이에 정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소득수준의 중요성은 베이비부머의 노후 일자리 희망비율에서 잘 드러난다. 정경희 외(2010)의 연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베이비부머의 63.9%는 노후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노후 일자리를 희망비율이 81.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 일자리 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8.5%가 소득을 위해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였고, 건강을 위해서(16.2%)와 자기발전을 위해서(14.4%)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이유로 노후에 일하고자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 외에도 건강, 자기발전, 여가활용, 사회공헌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도 41.5%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Kim & Moen(2002)은 은퇴로 인한 정신건강의 변화가 은퇴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주변 주요 타인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령 은퇴는 중년 남성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배우자와의 만족도 저하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면 은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안지선, 전해정, 2012).

2.2.3. 배우자 및 부모자녀관계와 은퇴 관련 변인

중고령자의 은퇴 관련 연구에서 배우자 및 부모자녀관계는 성 차이만큼이나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변인에 해당한다. 우선 은퇴와 부부관계 간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가령 은퇴 후 가사노동이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향상된다는 연구(김명자, 1982; 장상희, 1983; Vinick & Ekerdt, 1991; 조병은·신화용, 1997; Szinovacz, 2000), 은퇴 후 부부 간 상호작용 증가와 사생활 침해로 인해 긴장상태 및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2008; Davey & Szinovacz, 2004; Keating & Cole, 1980), 은퇴 후에도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유지되기에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습관화된 장기적 관계이기에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연구(신화용·조병은, 1999; Harris & Cole, 1985; 안지선·전혜정, 2012에서 재인용)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 자체보다도 은퇴로 인한 역할정체성 및 생활 패턴의 변화가 부부 및 자녀관계 구도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경혜(2008)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이 주변 주요 타자의 삶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구체화된다는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은퇴를 부부 단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은퇴 후 삶을 부정적이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며, 소득의 중요성은 은퇴 후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영역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일하는 아내가 벌어오는 수입이 남편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양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져 부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중요한 가계 소득원으로서의 긍정적 측면을 함께 촉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은퇴와 부모자녀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은퇴로 인해 가족에게 집중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 만족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은영, 1996)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장은정, 2006; 한경혜, 2008; 안지선·전혜정, 2012). 특히 중년 남성의 은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자녀가 졸업, 취업, 결혼 등 성인기로의 전이를 완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부양자의 역할을 해 온 아버지의 은퇴는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이로 인해 중년 남성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농어촌지역 거주자일수록,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부모자녀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0).

2.3. 중고령자의 은퇴 후 적응과정 관련 연구

앞서 분석한 중고령자의 은퇴 관련 주요 변인이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중고령자의 은퇴 후 적응과정이나 재취업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에 중고령자 대상의 질적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중고령자의 은퇴 혹은 퇴직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중고령자의 은퇴 후 적응과정을 주제로 한 연구와 재취업과정을 주제로 한 연구로 구분된다. 우선 중고령 퇴직자의 은퇴 후 적응과정을 조사한 연구로는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이가옥·이지영, 2005), 「남성노인의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김나연·김성희·정은하, 2007), 「노인의 은퇴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강지숙, 2008)이 있다. 각 연구의 목적과 대상 및 방법,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1.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이가옥·이지영, 2005)

이가옥·이지영(2005)의 연구는 남성 연소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년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의 노년기를 인식하는 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남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남성으로 한정된 이유에 대해 연구자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은퇴로 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노동중심의 ‘회사인간’으로서 가족 영역을 희생시키고 공적 영역을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은퇴 후 삶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자는 설명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표집 시, 선행연구의 요인을 선정지침으로 삼아, 은퇴 경험·연령·퇴직 후 기간·퇴직 전 직업·퇴직유형 정도를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그 결과 연령은 60세에서 69세까지 고루 분포하도록 선정하였고, 퇴직 후 기간은 이들의 적응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1년에서 10년까지 차이를 두었다. 은퇴 전후의 변화양상을 명확하게 보기 위하여 은퇴의 개념이 비교적 명확한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의 전직을 가진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는 60세에서 69세의 남성 연소노인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외 은퇴를 경험하지 않은 1명의 사례를 비교를 위해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의 연령은 60세에서 69세까지 분포하였고, 학력은 중학교 중퇴 1명, 고졸 6명, 대졸 2명, 대학원졸 3명이다. 이들의 경제상태는 상 2명, 중상 2명, 중 5명, 하 2명이다. 이들의 퇴직 후 기간은 1개월에서 10년 사이로 다양하며, 퇴직 시 연령은 51세부터 67세까지 다양하나, 대부분은 60대 초반에 퇴직하였다. 이들의 퇴직 전 직업은 생산직·일반사무직·공무원·연구직·관리직·노동운동가·수의사 등이었다. 이들의 퇴직 유형은 정년퇴직· 명예퇴직·자발적 퇴직 등이며, 은퇴 유형은 완전 비취업형·취업이동형·취업/비취업 반복형이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이가옥·이지영(2005)의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연구자는 본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적 연구 방법은 노년기로의 과정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고, 연구참여자들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의 양상과 욕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이가옥·이지영(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을 ① ‘강제’ 퇴직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단절 ② 계속되는 일에 대한 지향 ③ 사회적 가치로 평가되는 노년기 ④ 노년 의미의 동공화(洞空化) ⑤ 노년의 달라진 가치 지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강제’ 퇴직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단절

연구참여자들의 퇴직 유형은 자발적 퇴직에서 정년퇴직 그리고 명예퇴직까지 다양하였으나, 퇴직의 의미는 대체로 ‘강제적’ 퇴직으로 인식되었다. 즉 외형상의 자발적 퇴직에서부터 명예퇴직까지, 대부분의 퇴직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강제적으로 밀려난 것으로 인식되는 퇴직경험은 참여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막막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즉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설렘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다.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은퇴를 경험한 선배나 친척들의 ‘정년 후 3년을 잘 견뎌야 오래 산다’는 조언을 통하여 확산된다. 즉 은퇴 후의 몇 년 동안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사춘기와 같은 과도기로 인식되고 있었다.

나) 계속되는 일에 대한 지향

퇴직으로 사회문화적 단절을 경험하고 이전과는 다른 역할이 요구되지만, 참여자들은 여전히 일을 통한 역할을 지향하였다. 퇴직연령에 상관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싶어 하였다.

이들이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연구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가족의 지원이 가능하여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며 취업을 통해 자립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연금이나 자산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확보한 연구참여자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하였다. 일의 의미는 참여자들의 성향이나 자산 확보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나, 경제적 수단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감 확인이나 생활 통제의 역할을 꼽았다. 참여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배경으로 자신의 세대에서의 일은 지금의 세대와는 다른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회상하였다. 배고픔의 시절을 지나 산업의 역군으로 성취감을 맛본 참여자들은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그것은 ‘즐거움’이고 ‘재미’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세대는 ‘오직 일만 하고 놀 줄 모르는 바보’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재취업을 통해 사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있었지만, 이러한 욕구는 참여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었다. 크게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자신을 ‘실업자’로 간주하는 경우와 ‘퇴직자’로 간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주 직업에서 퇴직을 경험한 경우는 자신을 ‘실업자’로 간주한 반면, 60세가 넘으면 ‘노인네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신을 ‘퇴직자’로 간주하였다.

자신을 실업자로 간주한 참여자는 구직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다른 실업자와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자부심으로 시작한 도전은 한결같이 ‘나이’에 의해서 좌절로 끝났다. 은퇴 후 무언가를 이루려는 열정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은 ‘무모한’ 열정과 ‘쓸데없는’ 지식으로 간주되면서, 이제 고령 실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란, 퇴직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네 일자리’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노인네 일자리’로 눈높이를 맞춘 퇴직자라 할지라도, 그 일자리조차도 그리 쉽게 생기지는 않았다. 재취업을 위해서 “나이 많다고 힘주면 안 된다”는 취업센터 직원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고령화시대라는 이유로 젊은이도 일을 못하는 실업시대라는 이유로 받는 연령차별은 “그러려니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도, 재취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취업구조에서 발생한 연령차별이나 사회적 배제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노인임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자신이 노인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적 역할이 없다는 점은 자신을 노인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쓸모없는’ 노인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앞으로 노년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든다.

다) 사회적 가치로 평가되는 노년기

참여자들은 60대가 되면서 종종 노인대접을 경험한다. 모임에서 음식을 가져다준다거나, 모임의 회비를 안 받는다거나, 혹은 모임의 장의 역할을 물려주는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노인 대접은 노인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노인에게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역

할을 하기도 하였다. 노인 대접은 노인다운 행동을 요구하게 되고, 노인다운 행동이란 일종의 ‘체면’을 지키는 행동으로, 대부분 조용히 물러나 있는 수동적 행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노인 대접은 ‘나서지 마라’라는 압력으로 해석되었다.

퇴직과 일상생활에서의 단절의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듯한 불안감을 안겨준다. 이러한 불안감은 자신의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맞물리면서, 노년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평가에 예속되는 결과를 도출한다. 자신의 내면이 충실화의 방향으로 흐르기보다 타자에게 호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더욱 크게 작용하여, 자신이 ‘노인이 되면 어떠한 생활을 할까’라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노인이 되면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혹은 ‘노인이 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라) 노년 의미의 동공화(洞空化)

어떤 노인이 부럽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건강한 노인과 경제력 있는 노인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노인이 부럽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삶의 기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경제력 외에, 노년기의 구체적 삶의 모습에 대한 상은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노년기 삶의 구체적 상의 부재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이전 노인 세대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노인의 공간은 주로 공원이나 산이나 혹은 경로당이다. 공원이나 산을 하릴없이 어슬렁거리기, 경로당에서 쪼그려 앉아 하루 종일 화투 치기, 길거리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낮에 소주 마시기 등과 같은 모습으로 기억된다. 참여자들은 이전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무료하고 가치 없다고 평가하였다. 이전 노인에 대한 부정적 상은 닮고 싶은 노년기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고 건강유지가 계획’이라는 대답을 자주 말하였다. 건강유지라는 삶의 목표는 퇴직 후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이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가고 있

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루 생활의 시간표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생활을 통제해주며, 존재의 효용감까지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하루 생활의 시간표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생활을 통제해주고, 효용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은 앞에서 참여자들이 언급한 일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였다. 다시 말해, 일의 역할이 이제는 건강유지라는 목표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건강유지를 통한 자신의 효용성의 확인은 개인적 차원의 단순한 의미만을 부여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자체가 옛날과 비교하면 행복하기는 하지만,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마) 노년기 달라진 가치 지향

은퇴생활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은퇴생활에 적응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많이 버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빨리 노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버려야 할 것의 목록에는 이전의 지위에서 얻은 명예심이나 가족 내의 위치나 경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도 포함되었다. 지식과 경험으로 생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참여자들에게 이제껏 자신을 유지하게 해주던 경험이나 지식이 폐기처분되는 경험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열정과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은 계속되는 좌절의 경험으로 ‘무모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간주되면서, 도리어 그러한 것이 자신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한다고 깨닫는다. 따라서 적응을 빠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쓸모없는’ 노인임을 빨리 수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전의 것을 버려야 하고 ‘쓸모없는 노인’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차츰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복지관에 다니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운동을 다니면서 건강을 다지고, 농사나 단순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내면의 의미에 대한 공허함은 계속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건강유지라는 목표 외에 내면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새로운 목표로 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황혼기에 뭔가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봉사’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였으며, 그중에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확인하고 싶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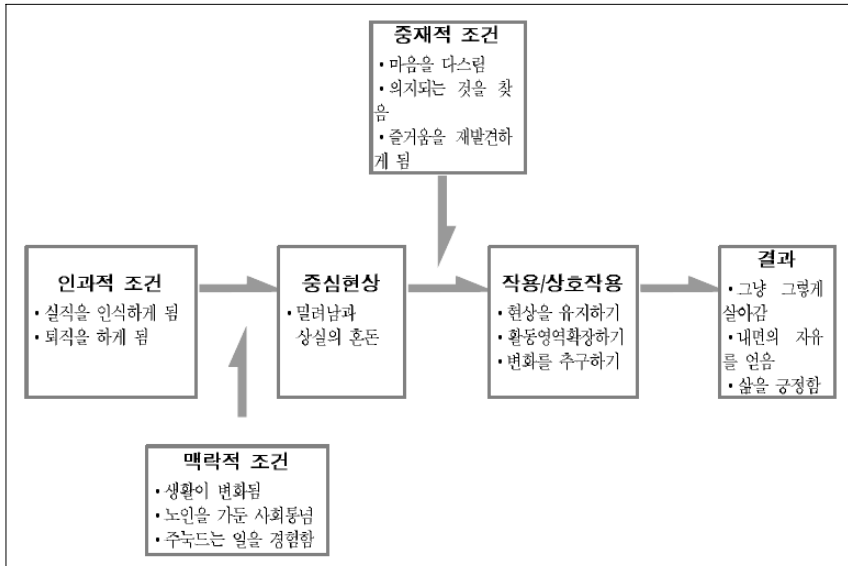
2.3.2. 남성노인의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김나연 · 김성희 · 정은하, 2007)

김나연 외(2007)의 연구는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은퇴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으며, 은퇴 후 삶의 경험과정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은퇴를 경험하였으며 이데 대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70대 전후의 노인 중에서 최소한 은퇴한 지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은퇴자이면서, 대화에 어려움이 없는 노인을 추천받아 총 9명을 인터뷰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의 연령은 만 63~74세이고, 평균 연령은 70세였다. 최종적인 은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은퇴 시 연령은 만 60~70세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은퇴 연령은 64세였다. 참여자들의 학력은 고졸 1명, 대졸 6명, 대학원졸이 2명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은퇴 전 직업은 교사, 회사원, 경찰공무원, 교장 등으로 직업 수준 또한 높은 편이었다. 본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3명의 연구자가 1:1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김나연 외(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의 보편적 은퇴 경험을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은퇴 후 노인의 적응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나연 외(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의 보편적 은퇴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가) 1단계: 혼돈의 단계

본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은퇴를 경험하기 이전부터 사회에서 대규모로 일어나는 실직에 대한 인식으로 심적 동요를 경험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소외감과 배제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충격’이란 단어로 극명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차이가 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정도 퇴직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간에 그들이 겪는 은퇴라는 사건은 남성들이 겪는 인생에서 치러야 할 홍역단계인 것이다.

나) 2단계: 상황을 정리하는 단계

참여자들은 혼란의 단계를 겪은 이후에 주어지는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이후 삶에 대한 태도와 방향을 잡아주는 기

간으로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 안에서 긍정적 요소를 발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도해보게 된다.

다) 3단계: 나를 다시 찾는 단계

이 단계를 변화를 추구하는 단계로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전에 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활동 등을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재발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은퇴의 경험으로 인한 혼란과 위축상태에서 새로운 비전을 위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적극적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

라) 4단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단계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혼란의 큰 전환점을 겪고, 그것을 경험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또 다른 삶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점을 내려놓음으로써 심적 자유를 얻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수용적 태도보다는 남은 삶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도 내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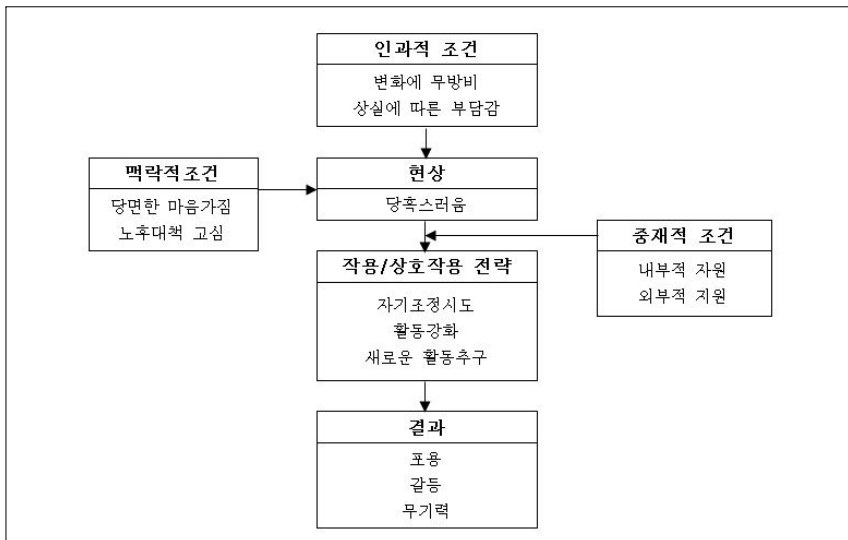
2.3.3. 노인의 은퇴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강지숙, 2008)

강지숙(2008)의 연구는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은퇴 경험과 은퇴 이후 삶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6명의 은퇴를 경험한 노인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참여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 은퇴 노인이며, 평균 연령은 64.87세로 만 60세에서 72세였다. 이 중 남성노인은 12명, 여성노인은 4명이었다. 참여자는 모두 기혼자였으나 배우자와 사별이 1명 있었고, 거주형태로는 부부만 거주한 경우가 9명,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동거가 6명, 독거로 사는 경우는 1명이었다.

참여자의 학력은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5명,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9명,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2명이었다. 참여자의 직업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은퇴 전 직업이 학교교사는 5명이었는데, 2명은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였고, 1명은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하였으며, 2명은 평교사 퇴직이었다. 은퇴 전 직업이 회사원의 경우는 4명으로 보험회사, 가스회사, 화학회사, 백화점에 각각 근무했었고, 퇴직 당시 직위는 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임원급이었다. 은퇴 전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는 4명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 1명, 간호사로서 보전직 공무원 1명, 소방관 1명, 직업군인 1명이었다.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강지숙(2008)의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적 접근의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고, 심층면접과 참여 관찰을 통해 은퇴자의 행동,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반응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강지숙(200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은퇴 적응과정을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노인의 은퇴 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지숙(200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은퇴 적응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가) 준비기

은퇴관련 준비기는 참여자들이 은퇴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은퇴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은 은퇴 전부터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준비를 하였다. 준비항목은 크게 경제적 준비와 시간활용에 대한 계획이었다. 경제적 준비로 연금수혜여부를 타진하였고, 부모의 유산이나 부동산, 은행의 금리 활용 등을 이용하여 고정적인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여유자금을 마련하였다. 직장에 할애했던 시간이 자신에게 회수되면서 여유로운 시간과 그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할 일을 미리 만들어놓으며 여가선용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때 자신이 가진 내·외부적 자원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준비기는 은퇴를 염두에 두고 노후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시간활용계획을 세움으로써, 일련의 과정인 은퇴에 대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나) 자각기

자각기는 참여자들이 현실을 판단하여 스스로의 입장이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은퇴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기로, 변화된 상황과 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실감 및 무료함과 같은 심리적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한 상태, 부담감을 실제로 깨닫게 되는 시기였다. 이는 주로 은퇴 직후 나타나며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쉬며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만, 주위의 기대와 시선으로 위축감을 겪고 자신감이 없어지며 상대방을 신경 쓰며 주눅 들게 되었을 때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유연함으로 당면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실과 변화에 대한 무방비 상태, 부담감, 당혹스러움으로 표현되는 은퇴상황에 직면하여 상실감, 허탈감, 무료함 등 불편한 심리적 변화를 인지하여 벗어나 보려고 애쓰는 갈등의 시기를 또한 포함하였다.

다) 조정기

조정기는 은퇴를 경험한 참여자들이 은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변화된 삶에 적응을 위해 현실과 협력을 시도하는 시기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은퇴

에 적응하고자 스스로의 변화를 우선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마음을 달리 먹고 변화에 맞추어 생활하기로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내부적 자원을 평가하고 외부적 지원의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즐겁게 살고자 하고, 편안해지기로 하며, 과욕을 삼가고, 자발적 관리, 분수에 맞는 생활, 알뜰한 경제활동, 무의미한 모임 정리로 전략을 구사하였다.

라) 적응기

적응기는 은퇴를 경험한 참여자들이 변화된 삶에 적응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의 역할이나 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동을 찾아 적응을 시도하는 시기였다.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평소 가사일을 거들지 않았던 것에서 가사일을 거들게 되었고, 가정일을 등한시하여 배우자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배우자를 위한 행동으로 바뀌게 되었고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필요하다면 손자녀를 돌보기도 하였고 투병 가족이 있을 경우 그 수발에 헌신을 하였다. 새로운 활동 추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가진 내부적 자원과 외부적 자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짚어보면서 자기수양과 기록정리를 통한 인생정리를 시작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 시기에 여행을다니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로 뭔가를 열심히 하며, 화초 가꾸기, 텃밭 가꾸기, 글쓰기 등 소일거리를 만들었고, 일부러 사회에 환원할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찾아 활동하기로 기존과 다른 일거리를 찾았다.

2.4. 중고령자의 은퇴 후 재취업과정 관련 연구

다음으로 중고령 퇴직자의 재취업과정을 조사한 연구로는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한국 남성노인의 구직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김미혜·이현주·서미경, 2008)와 「퇴직 남성노인 재취업과정의 의미」(송인주, 2008)가 있다. 각 연구의 목적, 대상 및 방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1.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한국 남성노인의 구직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김미혜 · 이현주 · 서미경, 2008)

김미혜 외(2008)의 연구는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한국 남성노인들의 구직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년퇴직한 한국 남성노인들의 원활하고 만족스러운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 개발에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공식직 노인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남성노인 중에서 정규직에서 정년퇴직한 후, 최소 2회 이상의 구직시도(취업장 방문, 면접 등)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자로서 현 직장에 재취업한지 6개월 이내의 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 등록한 자들 중에서 위의 기준을 만족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는 총 5명으로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이는 61~75세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1명, 중학교 졸업 2명, 대학 졸업 2명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중류 혹은 중하류층에 속하였다. 이들의 퇴직 전 직업은 사무직이 3명, 관리직이 2명이었고, 재취업 후 현 직업은 건물경비원, 사무보조원, 연구소보조원, 운전기사, 물품배달원 등이었다. 연구참가자 5명 중 4명은 퇴직 후 처음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자들이었고, 1명은 이전에 1번 재취업한 경험이 있으나 한 달 만에 그만두었다. 연구참가자의 현재 고용상태는 5명 전원이 비정규직이었으며, 보수상태는 월 60~110만 원 사이였으나, 1명을 제외한 4명이 1백만 원 미만이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본연구는 기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다. 첫째, 기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구직 경험에 대한 남성노인의 주관적인 관점, 즉 그들이 구직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기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도출된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일관된 형태로 기술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김미혜 외(2008)의 연구에서는 정년퇴직

한 60세 이상의 남성노인은 ①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한 구직에의 강한 욕구 ②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을 활용한 구직 시도 ③ 내·외적 장애에 직면, ④ 자기변화를 통한 취업장애의 극복 ⑤ 취업성공의 양면성이라는 재취업적응과정 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구직에의 강한 욕구

정년퇴직한 60세 이상의 남성노인들은 가정 내에서는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인의 불만어린 태도에서 무언의 압력을 느끼게 되며, 경제력을 상실함에 따라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 이전의 ‘배푸는’ 위치에서 ‘받는’ 위치로 전락했음을 경험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기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또한 정년퇴직한 남성노인들은 갑자기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용돈에 대한 필요와 함께 생활유지에 따른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서 재취업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되었다.

나)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을 활용한 구직 시도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기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하고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 남성노인들은 구직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하여 구직을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남성노인들은 구직과정 초기에는 가까운 주변사람이나 지역신문, 인터넷 등과 같은 비공식적 자원을 통해 노인취업서비스 제공기관을 알게 되며, 그 후 공식적인 자원인 구청 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관내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사설직업소개소, 취업박람회 등을 방문하여 구직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구직신청을 하는 등 구직 시도를 하였다.

다) 내·외적 장애에 직면

남성노인들은 구직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내·외적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내적 장애로서 이들은 직접 노인취업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구직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지 못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쓸모없고 무가치한 노인이 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들은 구직과정에서 과거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오래 종사해왔던 자신들이 건물 경비나 사무보조, 청소 등 일반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종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별로 내키지 않아하며 그로 인한 심리적 저항을 경험한다.

한편 외적 장애로서 남성노인들은 퇴직 후 구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신뢰할 만한 취업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을 찾고자 하지만 그런 기관을 쉽사리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구직과정에서 남성노인들은 노인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취업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즉 대부분의 직장에서 60세가 넘는 노인들을 꺼리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고 과거 경력이나 현재의 능력에 상관없이 몇 안 되는 열악한 직종에 종사해야 하는 노동시장의 제약을 경험한다. 이렇게 직장에서 노인을 꺼리는 현상에 대해 이들은 노인들의 능력부족 탓으로 생각한다.

라) 자기변화를 통한 취업 장애의 극복

남성노인들은 나이 제한이나 자존심 등 재취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구직을 향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재취업에 성공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남성노인들은 과거에 일했던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주어진 현실에는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가졌던 권위나 체면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나를 낮추고 마음을 비우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구직과정을 통해 남성노인들은 자신의 의지로는 변화되기 어려운 열악한 근로여건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나 업무형태,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마) 취업 성공의 양면성

남성노인들은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퇴직 후 막막하고 무기력한 생활 속에서 한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활력과 생기를 되찾게 된다. 또한 이들은 그토록 갈망하던 재취업에 성공함으로써 가정 내에서는 부인에게 가장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좀 더 떳떳하게 행동하게 되

는 등 한동안 상실해왔던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 즉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하게 된다.

한편으로 남성노인들은 새로 얻은 직장에서 낮은 보수, 노인에게는 무리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건강 악화, 비인간적인 대우와 직장의 불안정성 등 근로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직장 내에서 자신이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 비해 지위가 낮고 그로 인한 업무권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직장 내에서 연장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적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2.4.2. 퇴직 남성노인의 재취업과정의 의미(송인주, 2008)

송인주(2008)의 연구는 생산적 노년을 강조하는 사회정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자는 퇴직한 노인이 일에 재진입하면서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연구를 통해 노인들이 일을 통해서 구성해내는 노인일의 과정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대부분 현직에서 은퇴했고,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했다. 특히 퇴직 후 경과기간이 길고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경험치가 많은 노인으로 하였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에 따라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이 가정 밖에서 역할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큼에 따라, 65세 이상의 남성노인으로 연구참여자를 한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는 총 10명으로, 이들의 나이는 65~75세 사이에 분포하였다. 이들의 퇴직 전 직업은 단순노동자, 경비반장, 방문소매업, 아파트관리소장, 레스토랑 지배인, 경비, 기업이사, 경영자, 사무관리직 등이었다. 이들의 현재 직업은 지하철택배,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당직자, 참기름사업단, 숲생태해설사였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송인주(2008)의 연구는 노인 재취업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살아가는 '경험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노인이 퇴

직하고 재취업을 하는 경험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적 이해가 필요하므로, 본연구에서는 행위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해석적 분석을 하는 질적 연구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퇴직 노인의 재취업 경험 과정을 ① 사전단계 ② 전입단계 ③ 활동단계 ④ 정착단계로 구분하였고, 각 단계에 총 7개의 하위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7>과 같다.

<표 2-5> 퇴직 노인의 재취업 경험과정

| 핵심과정 | 하위주제 | 범주(32) |
|------|---------------|--|
| 사전단계 | 역할완수와 지속 | 일하지 않는 자유, 책임 완수, 홀가분함, 두려움, 이어지는 책임(5) |
| | 시간과의 전쟁 | 즐기기, 즐기기의 어려움, 무기력한 시간, 역할 희망, 생활 시간 조직화(5) |
| 전입단계 | 정체성 격하 | 구직과정 진입, 동네에서 일 찾기, 동네 밖에서 일 찾기, 경력단절, 0에서 시작하기(5) |
| | 새로운 기준 수용 | 신체적 건강, 연줄 찾기, 내 몸에 적당한 일, 내 일에 적당한 돈, 조건 맞춰 전전하기(5) |
| 활동단계 | 생산성 실험과 관계 실험 | 신체적 능력 실험하기, 고된 일 극복하기, 연줄로 일 얻기, 아는 사람 피해 가기(4) |
| 정착단계 | 업무몰입 | 깔끔한 일 처리, 업무 기대, 고참으로 자리 잡기, 동료와 친해지기, 높아진 책임감, 소통으로 문제해결(6) |
| | 생애몰입 | 즐거운 일, 나를 위한 일(2) |

가) 역할완수와 지속

연구참여자들은 이 시기를 자유로운 시기라고 일컫는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어서 여가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한 노인이 모두 역할을 완수한 것은 아니다. 아직 역할을 완수하지 못했는데도 퇴직을 마주하게 된 경우, 퇴직이라는 휴식기는 온데간데없고 또다시 일을 하기 위한 노력

이 시작된다. 이것이 역할 지속이다.

나) 시간과의 전쟁

짧거나 긴 휴식기는 연속이론의 밀월여행 기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유와 해방감은 곧 무기력감으로 돌변하여 생활을 짓누른다. 감당하기 어려운 여가 시간이 지겨워지고 집 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자꾸 짜증만 늘고 살이 찌고 몸이 아픈 것 같았다고 말한다. 이들이 느끼는 자유로움은 곧 무기력감으로 바뀐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시간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노인들은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수소문을 하든지, 광고를 찾든지, 동사무소를 찾든지 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본다. 이 단계에서 노인들은 조직화된 시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시간을 영위하게 되고, 즐기는 기간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조직화된 생활시간표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일을 찾게 되는 과정을 보인다.

다) 정체성 격하

쉬는 기간이 분명했던 참여자들은 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찾기 위해 박람회도 찾아가고 신문도 살펴보고 주변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지인으로부터 추천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쉬면서 계속 일자리를 알아봤던 유형은 처음부터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로 일을 알아보지 않고 자신의 최종직업과 관련된 일을 찾는다. 즉 이전 경력을 살리고자 했으나 결과는 여의치 않았다. 그 이유는 퇴직당시 직위, 업무성격, 업무환경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력을 살리지 못하면서 서운함과 단절감을 느꼈다. 노인들은 주요 경력 관련 직종을 찾다가 대부분 좌절을 겪고, 단절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일하지 않고 쉴 때는 몰랐던 단절감을 일을 찾으면서 느끼게 된다. 이는 노인이 일을 찾으면서 ‘노인’이라는 정체성 격하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버거(Berger, 2006)가 지적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경력은 사회적인 자아를 만들어주는 보루나 안전장치 같은 것이었다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와의 끈이 떨어진 외로운 신세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는 경력단절을 치열하게 경험한 후에야 노인 일자리에 눈을 돌린다. 퇴직 후 쉬는 시간이 1년 이상으로 길었던 경우는 쉰 후에 일을 찾을 때 곧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을 둔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노인들은 사회적인 존재인 자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단절 후의 자신을 수용한다. “나이 들어서 일을 하려면 0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 전의 생활, 그 전의 직장을 다 잊어야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의식적 노력은 경력단절에 대한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절에 대한 수용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실버지하철택배, 주차관리요원, 지하철도우미, 학교 당직사 등의 노인 사회적 일자리활동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라) 새로운 기준 수용

연구참여자들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노인구직처에서는 이전 경력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건강과 연줄이다.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자리 정보를 얻는 방법은 주변사람으로부터가 48.2%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일의 시작과 함께 노인은 그 일이 적합하고 만족할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때 비교되는 것은 임금과 노동강도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 성에 차는 일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한다.

마) 생산성 실험과 관계실험

일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이라는 생산성 척도로 평가되는 실험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주변의 관계망의 추천으로 일을 알게 되면서 관계망이 재취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은 자기 신체의 생산성을 실험하게 된다. 생산성 실험과정을 무사히 넘기면 일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일이 고되어서 그만둔 노인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생산성 실험은 노인을 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지만, 쇠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화시키는 면도 있다. 관계실험은 노인이 맺고 있는 개별적인 인간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시선과의 실험상황이다. 노인은 일하면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다. 노인은 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시선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것인데, 이런 실험도 이겨내면 일에 정착하게 된다. 관계실험도 양면성이 있다. 사회적 관계

에 의해서 일자리를 권유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일하는 노인을 껴안고
호대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도덕적 수
준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이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동기부여하고자 하지만, 일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이 괜찮은 노인의
상이라는 이중가치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바) 업무 몰입

이제 연구참여자들은 일에 정착하게 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더 좋은
여건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일을 몸이 망가질 때까지 하겠다고 한다.
일에 정착되는 것은 점차 일이 가진 재미를 알게 되고 빠져들기 때문이다. 몰
입은 일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숙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강화된다. 숙련이 되었다는 것은 고참이 된다든가, 경험자가 돼서
신참들을 가르치게 된다든가, 조장이 돼서 조원을 관리하게 된다든가, 팀장이
고참들을 인정해준다든가, 기술자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몰입
은 수동적인 종사자에 불과하던 이들이 조직발전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몰입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이 번창하고 자신을 통해서 일터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지를
생각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에 숙련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인정도 받고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사) 생애통합

몰입은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계수단이라는 도구적 생각에서 벗어나 일이 가진 본연의 즐거움을 찾는 과
정을 겪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 퇴직
전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일, 자식들 먹이기 위한 일이었다면, 지금 일은 나
를 위한 일, 즐거운 일이라고 표현한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곧 퇴
직 전까지의 노동이 가족, 사회, 국가 등 궁극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 헌신이었
다면,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는 지금에서야 일은 자기 자신만의 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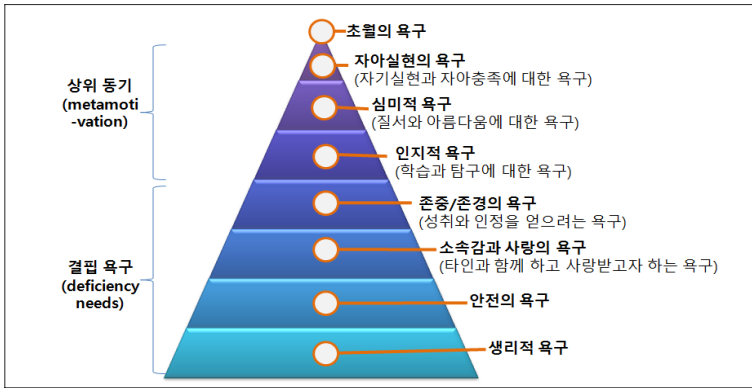
를 찾을 수 있는 일로 변화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제 연구참여자들은 나를 위한 일의 즐거움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합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의 본연의 즐거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경험하면서 일에서 소외된 자신이 아닌 일과 함께하는 자신으로 일과의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전체 삶 속에서의 일의 의미를 조망하는 시각이 생긴다. 이런 시각을 통해서 인생과 일을 일치시키고, 희노애락과 일을 결합시키고, 생애통합적인 관점을 습득하게 된다.

제3절 중고령자의 욕구와 일의 의미

3.1. 매슬로의 욕구단계론

매슬로의 욕구단계론은 인간의 일과 삶의 동기 및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이다. 그는 1943년에 발표한 논문 「A theory of human motivation(인간 동기의 이론)」을 통해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관찰된 주요한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누고 이러한 욕구 간에 위계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존중/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 사이에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를 세분화하여 7단계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말년에는 초월의 욕구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를 자아실현의 욕구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인간 삶의 완성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성재(2016)는 노년기의 초월에 대하여 “자신을 이 세상과 앞서 간 선조와 선배를 잇는 역사적 존재와 우주적 존재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죽음 이후와 영적인 것을 더 의미 있게 여기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림 2-4] 매슬로의 욕구단계 모형



매슬로는 각각의 욕구가 우성계층(hierarchy of prepotency)의 순으로 피라미드와 같이 배열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하단부의 욕구는 상단부의 욕구보다 우선하는 가운데, 하단부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상단부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욕구단계 모형의 하단에 위치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존경의 욕구는 인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본적인 욕구로서 충분히 충족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슬로는 ‘결핍욕구(deficiency needs)’로 명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핍욕구의 충족을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상위 동기’ 또는 ‘메타 동기(metamotivation)’로 명명했다(Maslow, 1943; 1954).

먼저 욕구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는 음식, 물, 성, 수면, 배설, 호흡, 항상성 등과 같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과 관련된 본능적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에서부터 불확실성, 두려움, 혼돈 등이 아닌 확실성, 평상심, 질서를 유지하려는 안전의 욕구(safety needs)가 우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타인과 함께하며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need for love and belonging)가 나타나는데, 이는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적 수준의 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소속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타인으로부터 수

용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중/존경의 욕구(need for esteem/respect)이다.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잘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이러한 존중/존경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심리적인 불균형이 있으면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self-esteem)이 낮아지거나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이렇듯 자기존중감이 낮아지는 경우 종종 명예, 명성, 위신 또는 체면 등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내적으로 안정된 자아를 찾기 전까지 진정한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핍 욕구로 명명된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의 상단에는 상위 동기 또는 메타 동기로 명명된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가 위치한다. 5단계 욕구론이 발표된 이후에 자아실현의 욕구 아래 단계로 추가된 두 가지 욕구 중, 먼저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s)는 학습과 탐구의 욕구로서 모르는 것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욕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미적 욕구(aesthetic needs)는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로서 자연과 예술에서 질서, 조화,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욕구로 이해될 수 있다. 말년에 매슬로가 초월의 욕구가 존재함을 주장하기 전까지 욕구단계의 최상단에 위치한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는 한마디로 각 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 또는 성장 잠재력을 꽃피우며 인간 사회에서 의미 있는 나눔과 기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닌 인간은 자신이 가진 역량 또는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기를 원하며 창조적인 수준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완성함으로써 잠재력의 전부를 실현하고자 한다.

매슬로는 하단부 4개의 결핍욕구는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긴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긴장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욕구 해소의 동기가 작용하는 반면에, 자아실현의 욕구는 그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 인간 잠재력의 실현 및 성장을 향한 동기의 순수 발현이라는 점에서 가장 고차원의 동기라고 하였다. 물론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욕구는 개인에 따라 여러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가며 성장하려는 의지, 분투 등이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가장 인간다운 욕구라 할 수 있다.

3.2. 앨더퍼의 ERG 이론

매슬로의 욕구단계론은 인간이 지닌 욕구를 너무 세분화한 측면이 있다는 점, 더 중요하게는 하나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보다 상위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우성계층의 원리와 관련하여, 실제 욕구가 발현되는 다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욕구와 각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인 현상, 그리고 여러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즉 개인의 욕구는 정적인 맥락이 아니라 동적인 맥락(dynamic context)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보완하고자 앨더퍼(Alderfer, 1972)는 매슬로의 5단계 욕구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간에 존재하는 공통된 부분을 묶어서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축소, 분류하였다.

먼저 존재욕구(existence needs: E)는 매슬로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생존과 직결되는 물리적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이 포함되었다.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R)는 안전의 욕구 중에서 대인관계의 안전과 관련된 욕구와 더불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존중/존경의 욕구에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의 측면을 포함한다. 그리고 성장욕구(growth needs: G)는 존중/존경의 욕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self-esteem, self-respect)의 측면과 최상단에 위치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포함한다. 요약하면 존재욕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리적·물리적 욕구라 할 수 있고, 관계욕구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라 할 수 있으며, 성장욕구는 개인의 창조적 성장을 위한 내적욕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앨더퍼는 매슬로의 욕구단계를 보다 압축적으로 재분류한 가운데 하위 욕구가 만족될수록 상위 욕구로 진행된다는 매슬로의 단계적 입장(satisfaction-progression: 만족-진행)과 달리, 욕구의 단계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느냐에 따라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고차원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되는 경우에는 저차원의 욕구를 중요시하면서 이를 더욱 만족시키려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frustration-regression: 좌절-퇴행). 또한 높은 수준의 욕구나 낮은 수준의 욕구 모두가 어느 시점에서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한 시점에서

두 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여러 욕구가 복합적으로 하나의 동기 유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Alderfer, 1972). 요컨대, 매슬로의 욕구단계론은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가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 일을 지속하거나 원하는 이유와 더불어 그 의미의 수준과 위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면서도 다소 정태적인 내용과 원리를 제공해준다. 이에 더해 앨더퍼의 ERG이론은 베이비부머에게 있어 한 시점에서 인식되는 일의 의미가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과 각기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일의 동기가 역동적·복합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3.3. 중고령기 욕구론

인간이 일을 하는 동기 및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본 설명을 제공하는 매슬로와 앨더퍼의 욕구론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욕구가 중고령기라는 생애시기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욕구가 특별히 부상 또는 강조되거나 결핍되는지를 시몬스(Simmons), 소슨(Thorson), 와스켈(Waskel), 매클러스키(McClusky)의 제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한정란, 2015에서 재인용). 먼저 시몬스는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노인이 공통적으로 가진 5가지의 욕구를 설명한 바 있다. 첫째,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장수의 욕구이다. 둘째, 여가활동을 통해 삶을 의미 있게 가꾸고 싶어 하는 여가활동의 욕구이다. 셋째, 삶의 규율과 일상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삶을 즐기고 싶어 하는 해방의 욕구이다. 넷째,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이며 무언가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참여의 욕구이다. 다섯째, 의미 있고 편안하고 명예롭게 이전의 활동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명예로운 은퇴의 욕구이다.

소슨과 와스켈은 다음의 7가지 욕구를 설명한 바 있다. 첫째,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에 잘 적응하여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욕구이다. 둘째, 계속해서 발전, 성장해갈 수 있음을 확인하려는 욕구이다. 셋째, 후세대에게 본인이 이룩한 문화적 성취를 전수하려는 욕구이다. 넷째,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성취와 자긍심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다섯째, 사회의 주변인이 아닌 사회의 성원임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여섯째,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이다. 일곱째, 타인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매클러스키의 경우에는 5가지의 욕구를 설명했다. 첫째, 환경에 적응하려는 욕구이다. 둘째, 표현적 욕구로서, 어떤 목적의 성취보다는 활동 자체가 좋아서 참여하려고 하고, 신체운동, 사회활동, 어떤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셋째, 공헌의 욕구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으려 하며 타인에게 봉사하고 새로운 능력을 발달시키려는 욕구이다. 넷째, 영향력의 욕구이다. 자기 생활의 통제력을 더 가지려 하고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지를 보내며, 사회활동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려고 한다. 다섯째, 신체적 젊음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초월적 욕구이다. 이렇듯 베이비부머의 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설명을 제공하는 욕구론을 비교·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인간 일반과 중·고령기 욕구론 비교·종합

| 인간 일반 | | 중고령기 욕구 | | |
|-------------|------|-----------------------------------|---|--------------------------------|
| 매슬로 | 앨더퍼 | 매클러스키 | 소슨 & 와스킬 | 스몬스s |
| 초월의 욕구 | 성장욕구 | 초월적 욕구 | | |
| 자아실현의 욕구 | | • 표현적 욕구 • 공헌의 욕구 • 영향력의 욕구 | • 인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는 욕구 • 문화 전수의 욕구 | • 자유롭게 자기 삶을 즐기려는 욕구 |
| 심미적 욕구 | | | | • 명예롭게 물러나고 싶어 하는 욕구 |
| 인지적 욕구 | | | | |
| 존중/존경 욕구 | 관계욕구 | | | |
|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 | | •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욕구 • 자신이 타인에게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려는 욕구 | • 집단 내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계속 남고자 하는 욕구 |
| 안전의 욕구 | 존재욕구 | 환경적응의 욕구 | 변화에 적응하려는 욕구 | 장수의 욕구 |
| 생리적 욕구 | | | | |

3.4. 자기실현적 인간상을 통해 본 일의 의미

쥬스리더십대학원 석좌교수 시올라(Ciulla, 2005)는 “인간의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점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난 후에도 스스로 일하기를 선택한다는 점”이라 하면서, 실제 일의 의미나 가치는 인간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일 자체는 문화적으로 미덕이며 일이 없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태롭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그녀는 일이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왔는지를 통시적으로 탐구하는 동시에, 그러한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을 초월한 일의 본질적 의미, 달리 말해 가장 이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상적인 유형의 노동자로서 ‘장인의 일’과 ‘전문가의 일’에 관한 논의를 통해 찾고자 했다.

시올라는 역사적 유래에 기반하여 장인의 일은 주로 손을 이용하는 일이며 전문가의 일은 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구분을 두었다. 장인의 영어표기는 최고의 공예가 또는 예술가라는 뜻의 ‘master craftsman’ 또는 ‘master artisan’으로, 예술가와 장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고 한다. 장인들은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물건을 창조해왔는데, 그러한 창조물에는 그들의 존재, 기술, 지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탁월성을 향한 자기완성의 욕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를 가리키는 영어단어는 ‘professional’로, 원래 성직에 들어가는 사람이 공식적인 선서할 때 말하는 ‘공언하다(profess)’에서 유래했다 한다. 성직자는 중세의 유일한 전문직이자 동시에 학자, 법률가, 의사이기도 했다. 이후 직업적인 분리가 이루어진 가운데 전통대로 여전히 공식적인 서약이나 맹세를 엄숙하게 해야 하는 학자, 법률가, 의사 등의 직업인들이 보통 전문가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를 가르는 기준으로는 현재에도 유효한 것으로서 첫째, 공식적인 교육과 그러한 교육을 확인시켜주는 제도적 인증과정, 둘째, 전문직에서 사용하는 기술의 존재와 발전, 셋째,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수단의 존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유래와 직업의 종류는 다를 수 있으나, 시올라는 장인과 전문가의 일이 함의하는 공통점을 다음의 4가지로 추출하였다. 첫째, 그들 모두 일과 여가(leisure)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가란 그것 자체로 좋아하는 일이고 유익한 것으로 즐기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은 삶

의 연속성을 반영하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일은 그들 존재의 직접적인 확장이라는 것이다. 그들 자신은 곧 그들이 하는 일이며, 그들은 그러한 일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셋째, 일에 대한 헌신으로 다른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넷째, 그들 모두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해 장원섭(2015)은 장인을 전통적 수공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더욱 현대적인 맥락에서 ‘일하는 사람의 전범’으로 재개념화한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전범으로서의 장인과 그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일하는 사람의 전범(archetype)이라는 것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이고 좋은 사례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러한 장인의 현대적인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 장인으로 전통적 수공업 분야(한복, 편물, 도자기)뿐만 아니라 보일러, 주조, 자동차, 양복, 이용, 제과 분야의 국가공인명장들, 전문적인 변호사와 의사, 고숙련 신직업이라 할 수 있는 IT프로그래머들, 문화예술 분야(조각, 바이올린, 뮤지컬) 전문인 16명, 국외 장인으로 일본의 염색, 그릇 장인, 독일의 자동차, 가구, 악기 장인 5명, 이렇게 총 21명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장인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은 해당 분야에서 15~40여 년간 일을 해왔고 최고의 경지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연구 결과, 장인이란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그 결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 “일을 통해 존재의 의의를 실현하는 사람”, “어떤 2차적 보상에 대한 추구 동기보다는 일 자체에서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며 그 일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몸체에 배태된 장인성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의 축적과 공간의 확장을 통해 지난하게 형성된 것으로서 다음의 8가지 측면으로 정리되었다. 첫째, ‘성장 의지’이다. 비록 일의 시작은 우연일 수 있지만 장인은 우연을 필연의 길로 만드는 열의와 힘으로 최고의 위치에 이르렀다. 둘째, ‘지독한 학습’이다. 시작 시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누군가의 친절함 안내와 가르침이 없는 가운데 하나하나 배워가며 혹독한 숙련의 과정을 거쳤다. 셋째, ‘일의 해방’이다. 다시 말해 장인은 일 그 자체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며 어떤 외적 요구보다는 일의 리듬을 자신의 고유한 리듬으로 일치시켜 일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을 해방시켰다. 넷째, ‘창조’이다. 장인은 일의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새로운 일의 전통을 창조하며 일의 지평을 넓히고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발휘하였다. 다섯째, ‘배움의 지속’이다. 장인은 최고의 숙련과 전문성을 가졌음에도 거기에 정체하지 않고 느슨하나 열린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기존의 틀을 바꾸어나갔다. 여섯째, ‘공유와 나눔’이다. 장인은 오랜 시간 평생에 걸쳐 획득한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동체와 후속 세대를 위해 기꺼이 내놓고 나눈다. 일곱째, 비유적 표현으로서 ‘정상 경험’이다. 장인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이르는 동안 거친 오르막과 가파른 내리막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정상의 기쁨과 희열을 맛본 사람이다. 이어서 여덟째, 또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고원의 삶’이다. 한 번 정상의 희열을 맛본 장인은 그 정상의 느낌을 잊지 못하고 계속 경험하고 싶어 정상 주변의 높은 지대에 머물면서 언제든 정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장원섭(2015)에 따르면 이러한 장인성을 이루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과 몸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사회화되고 구조화된 행동양식”을 뜻하는 부르디외(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5. 베이비부머의 생산성: 노년기 자아통합감의 전제

에릭슨(Erikson, 1963)은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성장·발달해가는 존재임을 전제하였다. 그는 인간의 생애를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맞이하게 되는 위기 또는 과업에 성공적으로 대처, 해결함으로써 긍정적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그가 구분한 생애발달 단계 중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가 연령상 포함되는 시기는 7단계 ‘중년기(40~65세)’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주로 관계하는 대상은 ‘직업적 관계의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다음 세대에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과업을 잘 해결해가면 ‘생산성(generativity)’이라는 심리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즉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것이 없거나 의미 있는 도움이나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느껴질 때 개인은 ‘침체(stagnation)’ 상태에 빠지게 된다.

중년기의 만족스러운 사회심리적 상태인 ‘생산성(generativity)’이란 개념은 후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제도를 발달, 유지하는 데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자신 보다는 사회와 후세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느끼고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중년기에 생산성을 성취하지 않으면 은퇴 후 노년기에 생산성을 성취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한정란(2015)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에서 은퇴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은퇴 후에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나 후세를 지원하고 보살피고 싶은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의 성공적인 적응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는 요지이다. 아울러 이러한 중년기의 생산성은 이어지는 노년기의 ‘자아통합(ego-integrity)’이라는 과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자아통합이란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상태로,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포괄적 개념이자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최수현·김혜리, 2016; 이광경·주영아, 2016). 이러한 자아통합은 노년기로 이어진 생산성의 실현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심리사회적 상태로, 중년기를 살아가면서 깊은 내면의 탐색, 삶의 의미 및 목적에 관한 실존적 영성의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중년기에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좌절과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점에 따르면,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자의든 타의든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조기퇴직은 ‘크레바스(crevasse)’라고도 불리는 일종의 끊김을 형성함으로써 행복한 노년의 자아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중년기 생산성의 성취를 조기에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크레바스란 “빙하 별판에서 느닷없이 만나는, 심연을 알 수 없는 균열 벽으로, 일단 빠지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낭떠러지”를 일컫는다(송호근, 2013). 소득원의 부재나 감소, 인간관계의 축소 또는 변화, 기회 축소 등의 상태가 지속될수록 자존감은 저하되고 일의 의미는 퇴행하기 쉬우며 각종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이 자신도 모르게 만연하여 자아가 훼손될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듯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는 필연적·본능적으로 낭떠러지를 벗어날 나뭇의 가교를 만들며 계속 걸을 수밖에 없고 걸어야 한다. 그렇게 자아를 회복하거나 확장해가면서 성장과 성숙의 길로 다시 진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에릭슨이 이야기한 바대로 생애 후반부를 그런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점철할 수 있다.

제3장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 조사 개요

제1절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 설계의 기본 방향

본연구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3년 예비조사를 거쳐 2014년 1차 본조사를 실시한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 조사 개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퇴직 혹은 은퇴과정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은퇴라는 주요 생애사건 혹은 전환과정을 경험하는 베이비부머의 심리적·행동적·정서적 대응양식에 관한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경험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들을 포함한 중장년층의 경력관리와 생애 후반기 인생 설계를 지원할 교육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본 방향 수립과 합의 도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13년에는 베이비부머 및 중장년층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질적 중단 연구 설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퇴직을 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 설계 및 심층면담을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과 시사점

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우선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재직 중인 직장과 지금까지의 경력경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퇴직경험 자체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풍부한 진술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베이비부머는 본인의 회고를 토대로 퇴직경험을 진술하게 되어 퇴직경험이 발생한 당시의 생생한 정서적·감정적 반응을 진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대상은 퇴직경험을 가장 생생하고 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로 한정하여 종단추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퇴직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 및 환경적 특성 중 성별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자아정체성과 일의 의미에서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다른 조건과 함께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표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비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베이비부머의 퇴직 준비가 매우 열악하고, 퇴직경험에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 보장을 위한 일 지향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다양한 대상자가 표집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경험에 있어 새로운 고용과 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례자가 재취업을 희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본조사에서 구직활동 혹은 퇴직 후 재취업 사례자 이외에 귀농귀촌, 봉사활동 등 다른 계획과 활동을 계획하는 연구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하여 확인된 연구의 방향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과 근면이라는 베이비부머의 공유된 자아개념 이외에,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가장과 직업·사회인이라는 베이비부머의 대표적 자아정체성 관련 틀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자아개념이 질적·양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일과 성취 지향이 매우 높은 가운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행복한 삶의 청사진의 주요 요소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여성(특히 고소득자) 베이비부머는 관계와 나눔 지향이 높으나 역설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이 아닌 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공유되는 모습으로 청사진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이들의 퇴직 후의 삶의 모습과 의미에 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게 하는 주요 요소임을 반증한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사례자들의 성별정체감을 보다 민감하게 파악하여 어떻게 이들의 자아개념과 일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퇴직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일의 의미와 정체성과 관련한 이면의 심층적인 인식과 태도, 욕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력경로 및 퇴직경험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행동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정보의 탐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객관성’의 담보 없이는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나아가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될 중단 자료의 분석에서 변화의 원인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 제시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사전질문지 및 심층면담질문지의 내용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2절 조사 영역 및 내용 설정

2014년도 1차 본조사 당시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의 조사 영역은 2013년도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 설계안을 기반으로 예비조사 및 공동연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으며, 기본 배경, 경력경로와 퇴직경험, 일의 의미와 정체성, 행복한 삶의 청사진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기본 배경은 사전 질문 및 본조사의 도입 질문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 배경, 주거 형태, 소득, 퇴직 시기, 경력사항, 보유 자격 및 기술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제반 영역에서의 주관적인 인생의 만족도와 객관적·주관적인 건강상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경력경로와 퇴직경험은 베이비부머가 어떠한 과정으로 퇴직을 경험하고 있으며 퇴직경험에 대해 어떠한 정서적·행동적 반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탐색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2013년도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베이비부머의 퇴직경험에 대한 반응은 매우 역동적이며 다면적이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퇴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와 반응을 포함하여 퇴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재취업, 가교 일자리 이행과 같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퇴직계획뿐 아니라 퇴직자의 흥미와 가치를 살리는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가 퇴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퇴직 후 무엇을 하고자 하며 퇴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퇴직 후 하고자 하는 일 또는 다양한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일의 의미와 정체성 영역은 베이비부머에게 일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현재 이들의 자아개념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의 의미 영역에서의 ‘일’이란 금전적인 보상을 얻는 직업을 포함하되,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취미와 봉사 등 개인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제반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의 의미 영역에서는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중 스스로 중요하다고 인지한 활동, 그리고 그 일의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정체성 영역은 개인의 자아개념과 삶의 목적 및 역할과 관련된 영역으로,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역할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되, 역할로서의 정체성뿐 아니라 한 개인과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퇴직과정에 따른 베이비부머의 일에 대한 의미와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일과 삶에 대한 인식, 자아의식, 가족관계, 삶의 가치 변화 양상과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의 청사진은 베이비부머가 인식하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건강, 재정요소, 가족관계, 사회적 참여 등 행복한 삶을 위한 각 요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퇴

직과정에서 경험하는 상황적이며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유지 또는 변해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표 3-1〉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 1차 본조사(2014년) 영역 및 내용

| 영역 | 내용 | | 비고 |
|----------------|--|---|------------|
| 기본 배경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배경, 주거 형태, 가구연간소득, 가구연간소득 외 수입원, 마지막 퇴직 시기, 경력사항, 보유 자격 및 기술 | | 사전 질문지 |
| | 주관적인 인생의 만족도 | 이전 직업, 현 직업, 배우자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취미 및 여가생활, 종교생활,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전반적 만족도 | 1차 본조사 질문지 |
| | 객관적 건강 측정 | 만성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 치료 또는 복용 중인 약물 | |
| | 주관적 건강 측정 |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 여부 | |
| 경력경로 및 퇴직 경험 | 과거 주요 경력 | 일자리 관련 경험 | |
| | 퇴직 시 상황 | 퇴직 배경, 퇴직 전 활동 및 계획, 퇴직 전 준비사항, 퇴직 후 주요 변화, 재취업과정, 구직 전략 및 행동,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보유 자격과 기술, 향후 원하는 직업 분야 및 희망 연봉, 희망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 일자리 마지노선 | |
| 현재의 활동 및 일의 의미 | 퇴직 후 일상적인 삶의 모습 | 퇴직 후 일상적인 삶의 모습, 현재 가장 중요한 활동(일), 현재 만족스러운 활동 | |
| | 일/활동의 의미 |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일)의 의미, 활동(일)을 통해 얻고 싶은 것,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일)의 만족도와 이유 | |
| 정체성 | 삶의 목적과 역할, 자기개념 | 자신을 잘 드러내는 사진(또는 좌우명)과 그 이유, 삶의 중요한 역할과 그 이유, 삶의 목적과 보람된(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인식 | |
| 행복한 삶의 청사진 | 행복한 삶의 모습 | 원하는 일과 살고 싶은 삶 | |
| | 행복한 삶과 각 요소에 대한 인식 | 행복한 삶의 모습과 구성요소, 행복한 삶을 위한 장애 및 도움요인 | |

2차 본조사에 해당하는 본연구에서는 2014년도 1차 본조사에 적용한 각 영역을 공통 영역으로 설정하되, 1차 본조사 이후의 변화와 변화의 맥락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짧은 기간동안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정체성 및 행복한 삶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질문 영역은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2차 본조사에서는 1차 본조사 이후 경력상의 주요 변화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파악하였고, 변화를 초래한 원인 및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3-2〉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2차 본조사(2016년) 영역 및 내용

| 영역 | 내용 | | 비고 |
|----------------|--|---|---------|
| 기본 배경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배경, 주거 형태, 가구연간소득, 가구연간소득 외 수입원, 마지막 퇴직 시기, 경력사항, 보유 자격 및 기술 | | 사전 질문지 |
| | 주관적인 인생의 만족도 | 이전 직업, 현 직업, 배우자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취미 및 여가생활, 종교생활,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전반적 만족도 | 본조사 질문지 |
| | 객관적 건강 측정 | 만성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 치료 또는 복용 중인 약물 | |
| | 주관적 건강 측정 |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 여부 | |
| 경력경로 | 경력상의 주요 변화 | 1차 본조사 이후 경력상의 주요 변화, 재취업 성공요인, 구직 전략 및 세부활동 | 본조사 질문지 |
| | 경력상의 변화에 따른 인식, 태도, 행동 변화 | 삶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화와 그 이유, 경력상의 변화로 인해 달라진 점 | |
| 현재의 활동 및 일의 의미 | 일상적인 삶의 모습 | 현재 가장 중요한 활동(일), 현재 만족스러운 활동 | 본조사 질문지 |
| | 일/활동의 의미 변화 |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일)의 의미, 활동(일)을 통해 얻고 싶은 것,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일)의 만족도와 이유, 1차 본조사 이후 달라진 일의 의미 | |

제3절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 선정

본연구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통해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에 참여할 표본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 경과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주된 일자리 경력이란 직장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다년간 일한 경우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은퇴한 경우, 혹은 같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동일 업종에서 다년간 일하다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 선정의 두 번째 기준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①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자 ②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례자 ③ 취업 외의 활동을 계획하는 사례자에 해당한다. 가령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례자의 경우에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또는 은퇴)한 후 구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못한 사례자에 해당한다. 그 외에 취업 외의 활동을 계획하는 사례자의 경우에는 일자리 외에 귀농귀촌, 창업, 취미활동, 사회공헌 등을 계획하거나 하고 있는 사례자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설계 및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의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였고, 고졸 이상의 다양한 학력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에 참여할 표본의 1차적인 표집은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표집은 2014년 5월 14일에서 6월 11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전문업체에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전국경제인연합 종합고용지원센터,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문의 및 방문, 공공 및 민간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연구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총 86명의 베이비부머 연구참여 후보자 목록을 확보하였다. 그 후 연구진은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된 일자리 경력이 짧은 30명을 제외한 56명의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대상을 확보하였다. 또한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확보한 대상 중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 관리직 또는 전문직 퇴직자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남성 사례자가 부족하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이들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

으며, 귀농귀촌 등 구직 이외의 다른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례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총 66명의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을 선정하여 1차 본조사(2014)를 실시하였다.

2차 본조사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참여자 66명 중에서 2차 본조사 참여를 수락한 47명과 성별과 학력을 고려하여 추가 표집한 13명을 포함, 총 6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3명(71.7%), 여성이 17명(28.3%)이고, 학력은 고졸 11명(18.3%), 대졸 40명(66.7%), 대학원졸 9명(15.0%)에 해당한다.

<표 3-3> 베이비부머 2차 본조사(2016년) 연구참여자 표본 특성

| ID | 성별 | 출생년도 | 학력 | 퇴직시점 | 주된 일자리 내용 |
|----|----|------|------|---------|------------------|
| 01 | 남자 | 1959 | 대졸 | 2014.03 | 구매과 |
| 02 | 남자 | 1963 | 대졸 | 2010.11 | 호텔 지배인 |
| 03 | 남자 | 1955 | 대졸 | 2013.12 | 호텔 조리팀 |
| 06 | 남자 | 1962 | 대졸 | 2013.06 | 보험, 재무컨설팅 |
| 08 | 남자 | 1963 | 대졸 | 2014.04 | 영업 및 자동제어기술 |
| 09 | 여자 | 1961 | 고졸 | 2014.03 | 카드사 콜센터 상담 |
| 10 | 남자 | 1956 | 고졸 | 2013.11 | 전자제품개발 |
| 12 | 남자 | 1963 | 대학원졸 | 2014.01 | 생명보험영업/교육/서비스 |
| 13 | 남자 | 1962 | 대졸 | 2014.01 | 영업관리 |
| 14 | 여자 | 1961 | 대졸 | 1993.12 | 조경설계, 감리 |
| 15 | 남자 | 1957 | 대졸 | 2014.03 | 물류센터 관리직 |
| 16 | 남자 | 1961 | 고졸 | 2008. | 회계, 경영, 관리 |
| 17 | 남자 | 1959 | 대졸 | 2014.04 | 회계, 세무 |
| 18 | 남자 | 1962 | 대졸 | 2014.04 | 무선와이파이 유지, 보수 |
| 19 | 남자 | 1958 | 대학원졸 | 2013.03 | 영업관리/지원, 감사 담당 |
| 20 | 여자 | 1961 | 전문대졸 | 2013.10 | 일반총무 |
| 22 | 남자 | 1962 | 대졸 | 2013.12 | 전기전자, 통신 |
| 23 | 남자 | 1959 | 고졸 | 2014.02 | 공사관리 |
| 24 | 남자 | 1961 | 대졸 | 2013.12 | 파생상품 및 트레이딩 전문가 |
| 26 | 남자 | 1960 | 대졸 | 2012.12 | 군인(정보수집 및 데이터분석) |
| 27 | 여자 | 1960 | 대학원졸 | 2013.12 | 대학교 행정직 |
| 28 | 남자 | 1962 | 대학원졸 | 2013.12 | 컴퓨터공학 연구원 |
| 30 | 남자 | 1957 | 대졸 | 2014.03 | 재무관리 |
| 32 | 남자 | 1960 | 대졸 | 2014.02 | 재무관리 |

| ID | 성별 | 출생년도 | 학력 | 퇴직시점 | 주된 일자리 내용 |
|---------|----|------|------|---------|-----------------|
| 34 | 남자 | 1957 | 전문대졸 | 2011.10 | 건물관리 |
| 37 | 남자 | 1963 | 대졸 | 2013.02 | 인사담당 |
| 39 | 남자 | 1960 | 고졸 | 2013.02 | 회계, 재무 |
| 40 | 남자 | 1959 | 대졸 | 2014.04 | 통신서비스 마케팅, 영업 |
| 45 | 여자 | 1962 | 대졸 | 2013.12 | 요양보호사 |
| 46 | 남자 | 1961 | 고졸 | 2014.04 | 전화국 전기기술직, 현장영업 |
| 47 | 남자 | 1956 | 전문대졸 | 2010.12 | |
| 48 | 남자 | 1961 | 대졸 | 2014.05 | IT소프트개발 |
| 49 | 남자 | 1955 | 대졸 | 2013.08 | 교직 |
| 50 | 남자 | 1956 | 대졸 | 2012.12 | 사업기획 및 관리 |
| 51 | 남자 | 1957 | 대학원졸 | 2014.04 | 통신사 기술개발 |
| 52 | 남자 | 1960 | 대졸 | 2014.04 | 회계, 영업 |
| 53 | 여자 | 1960 | 대졸 | 2014.02 | 영어강사 |
| 56 | 여자 | 1959 | 대졸 | 2014.01 | 전산, 통합관제실 |
| 57 | 여자 | 1963 | 대졸 | 2014.04 | 광고/시각/웹/편집 디자인 |
| 58 | 여자 | 1963 | 고졸 | 2014.07 | 총무 및 경리업무 |
| 59 | 여자 | 1957 | 대졸 | 2014.04 | 콜센터 |
| 60 | 여자 | 1962 | 대졸 | 2002.09 | 영어강사 |
| 61 | 남자 | 1957 | 대졸 | 2013.12 | 증권회사 펀드매니저 |
| 62 | 여자 | 1959 | 대학원졸 | 2014.02 | 대학교직원 |
| 63 | 남자 | 1963 | 대졸 | 2003.03 | 전자제품 연구, 설계 |
| 65 | 남자 | 1956 | 대졸 | 2013.12 | 영업 |
| 66 | 남자 | 1957 | 대졸 | 2012.06 | 건축 관련 기술직 |
| 2013-b1 | 남자 | 1954 | 대학원졸 | 2013.09 | 경영, 대표이사 |
| 2013-b2 | 남자 | 1959 | 전문대졸 | 2013.03 | 컴퓨터프로그래밍 |
| 2013-b4 | 여자 | 1955 | 대졸 | 2013.02 | 교직 |
| 2013-b5 | 여자 | 1961 | 대졸 | 2013.07 | 은행/증권/투자은행 관리직 |
| 2013-b6 | 여자 | 1958 | 대학원졸 | 2013.06 | 인사담당 |
| 2013-c1 | 남자 | 1958 | 고졸 | 2012.03 | 총무/회계/금융영업 |
| 2013-c2 | 남자 | 1956 | 대졸 | 2011.12 | 건설시공업무 |
| 2013-c4 | 남자 | 1960 | 고졸 | 2010.06 | 사업기획, 마케팅 |
| 2013-c5 | 여자 | 1957 | 대학원졸 | 2011.12 | 은행원 |
| 2016-01 | 남자 | 1960 | 대졸 | 2008. | 출판디자인 |
| 2016-02 | 남자 | 1960 | 대졸 | 2011.04 | 전산 |
| 2016-03 | 남자 | 1957 | 고졸 | 2014.08 | 주유소 관리직 |
| 2016-04 | 여자 | 1959 | 고졸 | 2016.02 | 통계업무 |

제4절 패널관리

본연구에서 유의표집을 통해 선발한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는 이번 연구 뿐 아니라 이어지는 질적 종단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대상이기에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패널관리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전략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패널을 관리하고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자 한다. 첫째, 패널 구축과정에서부터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선발하는 단계에서 연구의 목적, 심층면담 진행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 후 최종 선발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을 배정하였고, 전문조사원이 연구참여자와 최초 연락 시 자기소개, 연락 배경 및 연구참여 의사 재확인, 연구 목적 간략 소개, 심층면담 진행 방식(시간, 장소, 사례비 등), 심층면담 일정 확인, 사전질문 안내 및 받을 이메일 확인 등을 포함한 안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와 직접적인 연락 및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대상을 각 담당 연구진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연락하는 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연구참여자가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미묘한 부분은 이어지는 심층면담 및 중도탈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철저하게 개별 담당 연구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와의 접촉은 각 담당 조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전문조사원의 역량과 관리 또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1차 본조사에서는 일정한 기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조사원을 선발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연구의 개요, 연구참여자의 특성, 조사원 선발 기준 및 역할, 심층면담 질문 영역 및 세부 내용, 심층면담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구진을 중심으로 슈퍼바이저를 지정하여 심층면담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의미 있고 풍부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전문역량이 더욱 요구된다는 연구진의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본조사에서는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동연구진이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 전체에

참여함으로써 양질의 패넌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정기적인 연구진 회의를 통해 수집 자료 및 분석 결과에 대한 동료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이어지는 조사에서도 담당 전문조사원이 동일한 연구참여자를 방문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도록 배정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본연구 및 전문조사원에 대한 신뢰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진 차원에서 전문조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러한 관계를 기초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담당조사원과 연구참여자 간의 비정기적인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제4장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자료 수집과정

제1절 자료 수집 방법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의 자료 수집은 사전질문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5명의 연구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였고, 2016년 5월 2일(월)일부터 2016년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초 전화 연락을 통해 연구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연구참여 의사를 재확인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사전질문지를 발송하였고, 심층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받아 심층면담을 준비하였다. 심층면담 진행은 녹음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활용하였고, 심층면담 수행 후에는 바로 면담보고서와 함께 녹음 파일을 업로드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 당 1회 방문을 하도록 연구 설계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전화 연락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은 1회 방문 시 평균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완료된 녹취록 및 면담보고서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거주 지역, 근무지 이름 등을 기호화하여 처리하였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맞춤법과 오타를 교정하는 등 확인 작업을 실시하되, 일반적으로 응

답자의 사투리, 은어 등은 별도로 교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제2절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기초분석단계에서는 녹취록을 자세하게 읽고 1차적으로 분류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영역별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 어구, 문장, 문단 등을 파악하고 해당 면접내용의 의미를 요약하여 영역별로 기록한다. 이때 영역별로 조사대상자의 경험 내용과 속성이 자세하게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미주를 달아 면접의 실제 내용을 삽입한다. 즉 각 영역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의 중요한 진술 내용을 단어, 어구, 문장, 문단 등으로 파악하여 요약적으로 진술한 후, 해당 녹취자료를 심층분석 및 이후 연구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표 4-1〉 개별 사례에 대한 기초 분석의 예시

| 영역 | | | 내용 |
|-------------|-----------|------------|---|
| 정 체 성 | 생계 부양자 | 기초분 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성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사례자는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소득 역시 중요한 일의 의미이며 이것이 또한 본인의 존재가치 혹은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게 함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음 구체적으로 사례자는 자녀들 결혼 이후 손자/손녀의 양육에 본인들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손자/손녀의 양육에 보탬이 되기 위해 본인이 가진 재산 소진하지 않는 것, 즉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정 체 성 | 생계 부양자 | 녹취 자료1) | <p>“길게 봤을 때 내가 일을 별 소득이 없이 저는 애들 딸이나 아들이 결혼해서 5년은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끝났을 때가 이제 예순일곱쯤이라고 보는데 제가 자식을 우리나라 여건에 육아교육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봐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깐 그사이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살 수</p> |

| 영역 | | | 내용 |
|-----------|------|--|---|
| 삶의 방향성 | | | 가 있는데 그사이에 무소속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럼 있는 돈도 다 까먹고 나머지 내가 길게 설계한 것도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러긴 싫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돈이 많지도 않은 거고, 아들 장가갈 때 취버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17-남] |
| | 기초분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자는 한국에서 남자들의 삶의 모습을 “언덕 위에 마차를 끌고 가는 말”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그의 이 발언은 지금까지 일이 부여하던 방향성 혹은 목표로서의 의미를 보여준다. 방향성의 측면에서 일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목표를 제시한다.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은 자존감 혹은 존재가치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퇴직 후 일이 없는 상황은 방향성의 상실로 표현되며 이는 자존감의 상실로 연결된다 |
| | 녹취자료 | |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마부가 여자로 애들을 짐을 실어서 끌고 올라가는데, 그 말이 꼭대기에 다 올라가면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그때 다 올라가면 말을 풀어줍니다. 그 풀어주는 나이가 우리 나이라고 보거든요. 풀리는 나이가. 그럼 할 게 없고 당황합니다. 사는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득도 없이,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돈을 줄 수도 없고 애들한테도 존재감이 없어지고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으니까 잘못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 존재감이 상당히 외로워져요” [30-남] |

주) 녹취자료는 해당 녹취자료 중 일부만을 예시로 제시한 것임

각 사례에 대한 기초분석을 완료하면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심층분석은 기초분석 내용을 사례 간 혹은 시점 간 지속적인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이용하여 상위범주로 통합하는 분석과정을 지칭한다. 심층분석의 경우 1~2차년도에는 사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3차년도 이후부터는 사례 간 비교에 더하여 조사 시점 간의 비교를 실시하여 종단적 변화추이를 별도로 분석하고 기록한다. 그 이유는 최소 3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종단적 변화추이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미곤 외,

2012). 따라서 1차 본조사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 사례 간 비교를 통한 심층 분석은 주요 조사 영역에 해당하는 ‘경력경로’, ‘현재의 활동 및 일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기초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 사례별 코딩 또는 범주 안에 포함된 인과 조건, 현상, 원인, 귀결, 맥락 등에서 관련 구조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복수의 하위범주를 하나의 상위범주로 개념화하는 한편, 사례 간 차이와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요인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 4-2〉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예시

| 대영역 | 중영역 | 소영역 | 내용 |
|-------|-------------|---------------------|--|
| 일의 의미 | 일은 곧 ‘나 자신’ | 일은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한 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에 참여한 (남성) 베이비부머들은 일의 의미를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자신의 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끝나고 근대화 및 산업화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의 가정은 물론 한국 사회의 경제를 일으킨 주역으로서, 장시간 노동에 매우 익숙하고 성실히 일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면서”, “하다못해 밥 먹을 때도 회사 일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일은 “살아가는 것 자체”이자 “자아의 한 부분”이며,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렇듯 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기에, 연구에 참여한 베이비부머들은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이들에게 일은 자아의 한 부분이기에 “일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 이 자료는 ‘13년도 예비조사 심층분석 결과를 예시로 제시한 것임

이 연구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후 3차년도 자료 수집 이후부터는 사례 간 비교를 통한 주요 조사영역에 대한 심층분석에 더하여 각 사례별 중

단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 설계(김은석, 장서영, 심우정, 2013)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53~56세를 전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스스로 완전히 은퇴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구직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년퇴직과 관계없이 자신이 일하고 싶은 시기를 67~68세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직 직후인 '14년 1차 본조사 이후로 3~6년 차까지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가교 일자리 또는 다양한 활동으로의 이행이 가장 활발히 발생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에 이 기간 동안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 경험, 생애전환기 경험과 관련하여 인지적·정서적·행동적·환경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중심으로 질적 종단 분석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7~10년 차 이후로는 가교 일자리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완전한 은퇴에 도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이행과 관련한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자료수집과 분석에 있어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하였다. 첫째, 동일한 면접자가 동일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연구자가 종단으로 동일한 연구대상자의 면접내용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면접자와 연구대상자와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은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보다 진실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자료수집과 동시다발적으로 1차 분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연구진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진 회의에서 각 연구자의 해석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에 도달할 때까지 토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내용에 대한 해석을 공유할 수 있고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으나 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은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 해의 조사내용 및 분석에 관한 동료검증(peer review)을 실시하였다. 동료검증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놓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3절 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 시 윤리적 고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윤리적 이슈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윤리적 문제는 연구에 대해 올바르게 밝혔는가, 연구참여자의 동의와 이에 따른 동의서를 받았는가,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인 참여를 인지하였는가, 연구참여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가, 연구참여를 통해 받은 보상은 적당한가, 비밀보장이 되었는가 등과 관련된 이슈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 표집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연구과정에 대해 공지하였다. 또한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에게는 담당 전문조사원이 연락하여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후 다시 한 번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후 실제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와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의 범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한 뒤에 본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즉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와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와 관련된 이슈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원자료에서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고 가공된 기초분석 자료를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보고서 또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범주화 결과 및 주제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등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제5장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제1절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유형

1.1. 유형 구분 및 정의

이 장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례자 및 일자리 특성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재취업 의사 유무, 실제 재취업 여부, 취업 시 하기 원하는 직무, 실제 재취업 시 수행하는 직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여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경력경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력연계형’, ‘경력무관형’, ‘취업포기형’, ‘새경력시작형’, ‘새경력준비형’, ‘은퇴형’으로 명명하는 6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우선 ‘경력연계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취업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실제로 취업한 사례에 해당한다. ‘경력무관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취업

이 용이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관련 없는 타 직무로 취업한 사례에 해당한다. ‘취업포기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취업하기 원하지만, 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례에 해당한다. ‘새경력시작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경력을 전환하여 새로운 경력을 시작한 사례에 해당한다. ‘새경력준비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를 하고 싶지 않아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나, 아직 무엇을 할지 찾지 못하거나 관심 분야 교육에 참여하는 등 이전 주된 일자리 경력과 다른 새로운 경력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은퇴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충분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퇴직 후에는 돈벌이로서의 노동보다는 취미생활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살고자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상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유형별 기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베이비부머 퇴직자 유형

| 유형 | 재취업 희망 여부 | | 재취업 시 원하는 직무 | | 실제 재취업 여부 | | | 재취업 시 실제 수행 직무 | |
|--------|-----------|---------|--------------|------|-----------|---------|--------|----------------|------|
|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경력유관 | 경력무관 | 취업 | 취업 못함/함 | 취업 준비중 | 경력유관 | 경력무관 |
| 경력연계형 | 0 | | 0 | | 0 | | | 0 | |
| 경력무관형 | 0 | | 0 | | 0 | | | | 0 |
| 취업포기형 | 0 | | 0 | | | 0 | | | |
| 새경력시작형 | 0 | | | 0 | 0 | | | | 0 |
| 새경력준비형 | 0 | | | 0 | | | 0 | | |
| 은퇴형 | | 0 | | | | 0 | | | |

1.2. 유형별 사례자 인적사항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2차년도 본 조사 연구참여자 총 60명 중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여전히 구직활동 중이거나 주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업무를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전과 후의 경력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두 사례([2016-1-남], [2016-4-여])

를 제외한 58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들을 대상으로 퇴직 전 주된 일자리 경력과 퇴직 후 일자리를 비교 분석하여 유형화한 결과, ‘경력연계형’이 22명, ‘경력무관형’이 19명, ‘취업포기형’이 4명, ‘새경력시작형’이 6명, ‘새경력준비형’이 5명, ‘은퇴형’이 2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본연구의 참여자 중 45명(78%)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경력과 같거나 유사한 경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한 바 있다. 이 중 실제로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22명이 경력연계 일자리로 취업하였고,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23명은 주된 일자리 경력과 연계된 일자리로 취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주된 일자리 경력과 연계된 일자리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19명은 경력과 무관한 일자리로 취업하였고, 나머지 4명은 취업을 포기하였다.

한편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로 경력 전환을 희망한 사례는 11명(19%)이었는데, 이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은 새경력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나머지 5명은 새경력준비과정을 마치고 일을 시작한 사례자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참여자 중 2명(3%)은 ‘돈벌이’로서의 노동으로부터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사례자에 해당한다. 각 유형에 속한 사례자들의 인적사항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베이비부머 퇴직자 유형별 인적사항

| 유형 | 성별 | | 나이 | | | 학력 | | | |
|--------|----|----|-------|-------|-------|----|----------|----|----------|
| | 남 | 여 | 53~55 | 56~58 | 59~62 | 고졸 | 전문 대졸 | 대졸 | 대학 원졸 |
| 경력연계형 | 14 | 8 | 11 | 4 | 7 | 5 | 1 | 10 | 6 |
| 경력무관형 | 18 | 1 | 9 | 5 | 5 | 4 | 0 | 14 | 1 |
| 취업포기형 | 0 | 4 | 2 | 1 | 1 | 2 | 1 | 1 | 0 |
| 새경력시작형 | 4 | 2 | 1 | 3 | 2 | 1 | 1 | 3 | 1 |
| 새경력준비형 | 4 | 1 | 1 | 3 | 1 | 1 | 1 | 2 | 1 |
| 은퇴형 | 2 | 0 | 0 | 0 | 2 | 0 | 0 | 2 | 0 |
| 총합 | 42 | 16 | 24 | 16 | 18 | 13 | 4 | 32 | 9 |

첫째, ‘경력연계형’은 연령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중 상대적으로 저연령에 해당하는 53~55세 외에도 고연령에 해당하는 59~62세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력무관형’과 비교할 때 ‘경력연계형’에 고연령자가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주된 일자리와 같거나 유사한 직무로 재취업하는 데 있어 나이가 절대적으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이어서 제시할 심층분석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경력연계형’에 속하는 사례자는 자신의 고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나이와 상관없이 경력연계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둘째, ‘경력연계형’의 경우 대학원졸이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이들로써, 박사학위 취득 후 기업에 입사하거나(1명), 재직 중 승진에 따른 경력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 해당한다(5명). 이들의 고학력은 곧 전문성의 확보와 관련성이 높다. 반면 ‘경력연계형’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고졸자 또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공고 출신으로,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한 분야 또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해온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결국 고졸자나 대학원 졸업자 모두 해당 분야에서 기술 및 전문성을 보유한 이들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력연계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경력무관형’은 여성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남성인데 비해 ‘취업 포기형’은 모두 여성이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와 같거나 유사한 직무로 취업하기 원하지만, 취업이 안 될 경우 남성은 경력과 무관한 일자리에라도 취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여성은 취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새경력시작형’과 ‘새경력준비형’은 성별, 나이, 학력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기본 인적사항 특성에 따른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주된 일자리 직무를 더 이상 원치 않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인적사항과 관련된 사항보다는 새경력을 시작하려고 하는 각자의 고유한 동기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은퇴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연령자에 해당한다. 이에 이들 ‘은퇴형’이 노동시장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 은퇴하기 원하는 경향은 이들의 나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2절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유형별 경력경로

2.1. 경력연계형의 경력경로

2.1.1. 사례자의 인적사항

‘경력연계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취업하기를 원하거나 실제로 취업한 사례에 해당한다. 본 연구참여자 중 총 22명의 사례자가 ‘경력연계형’에 해당하였는데, 이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혼인 상태 | 가족관계 |
|--------|----|----|------|----------|--|
| [2-남] | 53 | 남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82세), 부양 · 아내(49세), 주부 · 딸(23세), 대학생, 부양 · 아들(5세), 부양 |
| [12-남] | 53 | 남 | 대학원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52세), 주부 · 딸(25세), 회사원, 반부양 · 아들(23세), 대학생, 부양 |
| [8-남] | 53 | 남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91세), 부양 안 함 · 아내(50세), 교육행정공무원 · 딸(22세), 편입준비, 부양 · 딸(21세), 대학생, 부양 |
| [37-남] | 53 | 남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92세), 부양 안 함 · 아내(50세), 학원운영, 반부양 · 아들(22세), 대학생, 부양 · 딸(17세), 고등학생, 부양 |
| [63-남] | 53 | 남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90세), 반부양 · 아내(52세), 부업 · 아들(21세), 군입대, 부양 · 딸(16세), 고등학생, 부양 |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혼인 상태 | 가족관계 |
|-------------|----|----|------|----------|---|
| [57-여] | 53 | 여 | 대졸 | 이혼 | · 부모(72세, 62세), 부양 안 함 · 아들(27세), 회사원, 부양 |
| [60-여] | 54 | 여 | 대졸 | 기혼 | · 남편(56세), 회사원, 반부양 · 아들(24세), 취업준비, 부양 |
| [46-남] | 55 | 남 | 고졸 | 기혼 | · 아내(53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아들(26세), 군입대, 부양 안 함 · 딸(24세), 직장인, 부양 안 함 |
| [2013-b5-여] | 55 | 여 | 대학원졸 | 기혼 | · 남편(59세), 퇴직, 부양 안 함 · 딸(30세), 주부, 부양 안 함 · 아들(27세), 직장인, 부양 안 함 |
| [9-여] | 55 | 여 | 고졸 | 이혼 | · 부모(79세, 79세), 부양 안 함 · 딸(33세), 주부, 부양 안 함 · 딸(30세), 주부, 부양 안 함 |
| [14-여] | 55 | 여 | 대졸 | 기혼 | · 모(81세), 부양 안 함 · 남편(55세), 회사원 · 딸(26세), 회사원, 부양 · 아들(21세), 대학생, 부양 |
| [2016-2-남] | 56 | 남 | 대졸 | 기혼 | · 부모(85세, 80세), 부양 · 아내(54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아들(27세), 대학생, 부양 · 아들(21세), 대학생, 부양 |
| [23-남] | 57 | 남 | 고졸 | 기혼 | · 아내(48세), 어린이집 운영 · 딸(23세), 취업준비, 부양 · 아들(19세), 군입대, 부양 안 함 |
| [56-여] | 57 | 여 | 고졸 | 이혼 | · 딸(34세), 주부, 부양 안 함 · 아들(32세), 한의사, 부양 안 함 |
| [2013-b6-여] | 58 | 여 | 대학원졸 | 기혼 | · 남편(59세), 퇴직 후 사업 · 아들(32세), 대학원생, 부양 안 함 |
| [2013-c5-여] | 59 | 여 | 대학원졸 | 기혼 | · 부모(87세, 83세) · 딸(33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딸(27세), 대학원생, 부양 |
| [34-남] | 59 | 남 | 전문대졸 | 기혼 | · 모(81세), 부양 안 함 · 아내(54세), 소득활동시작, 반부양 · 딸(34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딸(32세), 주부, 부양 안 함 · 딸(24세), 회사원, 반부양 |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혼인 상태 | 가족관계 |
|-------------|----|----|------|----------|---|
| [51-남] | 59 | 남 | 대학원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83세), 부양 안 함 · 아내(57세), 주부 · 아들(32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아들(28세), 무직, 부양 |
| [47-남] | 59 | 남 | 고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57세), 주부, 부양 안 함 · 딸(27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 [2013-c2-남] | 60 | 남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85세), 부양 · 아내(56세), 주부 · 아들(회사원), 부양 안 함 · 딸(회사원), 부양 안 함 |
| [3-남] | 61 | 남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59세), 주부 · 아들(32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 [2013-b1-남] | 61 | 남 | 대학원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86세), 부양 · 아내(56세), 부동산임대업 · 딸(31세), 교사, 부양 안 함 · 아들(30세), 변호사, 부양 안 함 |

2.1.2. 유사경력으로의 재취업 영향요인

본연구에서 ‘경력연계형’과 ‘경력무관형’에 해당되는 사례자는 각각 22명과 20명, 총 42명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사례자 58명의 약 72%에 해당한다. 즉 본연구 사례자 중 대부분은 재취업 시 이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한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가량은 바라던 대로 유사 직무의 일자리로 취업했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어쩔 수 없이 이전 경력과 무관한 일자리로 취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력연계형’과 ‘경력무관형’을 초래하는 주요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경력연계형’에 속한 사례자들의 주된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5-4〉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특성

| ID | 업종 | 기업규모 | 직무 | 직위 | 총 경력 |
|-------------|----------------------|--------------|-------------------------------|----------------------|------|
| [2-남] | 호텔 | 대기업 | 상품개발팀 | 국내상품 총책임자 | 25년 |
| [12-남] | 외국계 보험회사 | 대기업 | 영업/교육/서비스 | 상무 | 25년 |
| [8-남] | 알루미늄 돔 커버 시공회사 | 중소기업 | 영업부관리 | 이사 | 19년 |
| [37-남] | 소독, 방제 서비스 회사 | 대기업 | 인사/법무 총괄 | 인사실 실장 | 14년 |
| [63-남] | 빠빠, 휴대폰 제조 및 판매회사 | 대기업 | PCB 설계 | 책임연구원 | 14년 |
| [57-여] | 서즈 및 외의 도매업회사 | 중소기업 | 사이트구축 관리 | 경영기획부 웹팀 팀장 | 18년 |
| [60-여] | •대학교 •영어학원 | •대학교 •자영업 | 교무과 | •주임 •원장 | 18년 |
| [46-남] | 통신사 | 대기업 | •전력시설 관리 •고객서비스, 현장영업 | •전력팀장 •영업부서 | 34년 |
| [2013-b5-여] | 외국계/국내 은행 및 증권사 | 대기업 | 금융업 관리파트 총괄 | 상무 | 30년 |
| [9-여] | 콜센터회사 | 중소기업 | 카드발급 | 직원 | 11년 |
| [14-여] | 조경전문회사 | 중소기업 | 조경계획설계 | 설계실 과장 | 10년 |
| [2016-2-남] | 외국계 보험회사 | 대기업 | 전산 하드웨어 IT서버와 장비 관리, 운영 | 데이터 센터장 | 20년 |
| [23-남] | 건설회사 | 대기업 | 플랜트 전기공사 | 현장소장 | 36년 |
| [56-여] | ○○시청 | 공공기관 | 통합관제실 CCTV 모니터링 | 직원 | 5년 |
| [2013-b6-여] | 외국계 보험회사 | 대기업 | 인사 총괄 | 부사장 | 33년 |
| [2013-c5-여] | 은행 | 대기업 | 경영 총괄 | 본부장 | 35년 |
| [34-남] | 건물임대관리회사 | 중소기업 | 건물 관리 | 관리소장 | 30년 |
| [51-남] | 통신사 | 대기업 | 사업개발팀 | 부장 (기술직, 공학박사) | 19년 |
| [47-남] | 반도체 제조업회사 | 대기업 | 생산기술센터 | 수석 연구원 | 35년 |

| ID | 업종 | 기업규모 | 직무 | 직위 | 총 경력 |
|-------------|--------|------|--------|-------------|------|
| [2013-c2-남] | 건설회사 | 대기업 | 건설시공업무 | 주택사업부 부장 | 26년 |
| [3-남] | 호텔 | 대기업 | 조리부 | 조리장 | 33년 |
| [2013-b1-남] | 헤드헌팅회사 | 대기업 | 경영 총괄 | 대표이사 | 39년 |

이들의 주된 일자리 특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연계형’ 사례자들의 주된 일자리 직무를 살펴보면 기술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기술직은 총 5명이다. [46-남]은 공고를 졸업하고 통신사에서 전기기술자로서 전력시설관리업무를 30년 동안 수행해왔으며, [23-남] 역시 공고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플랜트 전기공사를 33년간 수행해왔고, [47-남]은 공고 출신으로 반도체제조업회사의 생산기술센터에서 35년간 일을 하였다. 또한 [63-남]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입사 이래로 계속해서 컴퓨터 PCB(Printed Circuit Board, 회로기판) 설계기술자로 일해왔고, [34-남]은 전문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후 건물임대관리회사에서 건물관리업무를 30년간 수행하였다.

〈표 5-5〉 경력연계형 기술직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및 재취업 일자리 직무 비교

| ID | 주된 일자리 | | | | 재취업 직무 |
|--------|-------------------------|-------|-----------------|-------|--------------------|
| | 업종 | 기업 규모 | 직무 | 직위 | |
| [46-남] | 통신사 | 대기업 | 전기기술직 전력시설관리 | 전력팀장 | 아파트 전기(관리)과장 |
| [23-남] | 건설회사 | 대기업 | 플랜트 전기공사 | 현장소장 | 공사설계회사 지원업무 |
| [47-남] | 반도체 제조업회사 | 대기업 | 생산기술센터 | 수석연구원 | 기술본부 총괄, 강의, 영업 |
| [63-남] | 빠빠, 휴대폰 제조 및 판매회사 | 대기업 | PCB 설계 | 책임연구원 | PCB 설계 |
| [34-남] | 건물임대관 리회사 | 중소기업 | 건물관리 | 관리소장 | 건물관리 |

한편 전문직은 총 7명이다. [2-남]은 국내 유명 대규모 호텔에서 상품개발 팀 국내상품 총책임자로 일해 왔고, [3-남] 역시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규모 호텔 조리부에서 33년을 일해왔다. [57-여]는 미대 출신으로 광고/시각디자인, 웹디자인, 편집디자인 일을 18년 동안 해왔으며, [14-여]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조경계획 설계업무를 수행해왔다. [2016-2-남]은 대학에서 컴퓨터 전산통계를 전공하고 하드웨어 IT서버와 장비를 관리 및 운영하는 일을 25년간 해왔고, [51-남]은 공학박사로서 통신사 사업개발팀에서 기술직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c2-남]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서 26년간 건설시공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5-6〉 경력연계형 전문직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및 재취업 일자리 직무 비교

| ID | 주된 일자리 | | | | 재취업 직무 |
|-------------|------------------|-------|------------------|----------------------------------|---------------------------------|
| | 업종 | 기업 규모 | 직무 | 직위 | |
| [2-남] | 호텔 | 대기업 | 국내상품 총책임자 | 상품개발 | 총지배인업무 |
| [3-남] | 호텔 | 대기업 | 조리 | 조리부 | 조리장업무 |
| [57-여] | 서츠 및 외의 도매업회사 | 중소기업 | 경영기획부 웹팀 팀장 | 사이트구축 관리 |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개발, 웹사이트 관리 |
| [14-여] | 조경전문 회사 | 중소기업 | 설계실 과장 | 조경계획설계 | 조경감리 |
| [2016-2-남] | 외국계 보험회사 | 대기업 | 데이터 센터장 | 전산 하드웨어 IT서버와 장비 관리, 운영 | 해외IT자문관, 산학협력사업단 |
| [51-남] | 통신사 | 대기업 | 부장(기술직, 공학박사) | 사업개발팀 | 감리, 기술연구 |
| [2013-c2-남] | 건설회사 | 대기업 | 주택사업부 부장 | 건설시공업무 | 종합관리, 감리 |

이와 같이 ‘경력연계형’ 사례자들은 기술직 또는 전문직 업무를 입사부터 퇴직까지 수십 년을 일관되게 지속해왔고,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같은 직무로 재취업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의 ‘전문성’ 보유가 경력연계 재취업

을 가능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력연계형’ 사례자의 주된 일자리 기업 규모 및 직위를 살펴보면,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사례(5명)가 ‘경력무관형’ 사례자(1명)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12-남]은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상무로, [2013-b5-여]는 대규모 은행 및 증권사에서 상무로, [2013-b6-여]는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부사장으로, [2013-c5-여]는 대기업 은행에서 본부장으로, [2013-b1-남]은 대기업 자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퇴직하였다.

〈표 5-7〉 경력연계형 대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직무

| ID | 주된 일자리 | | | | 재취업 직무 |
|-------------|----------|-------|---------|-----------|------------|
| | 업종 | 기업 규모 | 직무 | 직위 | |
| [12-남] | 보험회사 | 대기업 | 상무 | 영업/교육/서비스 | 영업교육, 코칭 |
| [2013-b5-여] | 은행 및 증권사 | 대기업 | 상무(COO) | 관리파트 총괄 | 준법감시, 강의 |
| [2013-b6-여] | 보험회사 | 대기업 | 부사장 | 인사 총괄 | 코칭 |
| [2013-c5-여] | 은행 | 대기업 | 본부장 | 경영 총괄 | 검사, 강의, 코칭 |
| [2013-b1-남] | 헤드헌팅 회사 | 대기업 |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HR사업 중개 |

이들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교육, 관리, 인사 부분 총괄을 담당하거나 또는 회사경영 총괄을 담당하였고, 퇴직 후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교육, 코칭, 감사 업무 등으로 경력을 연계하였다. 또한 이들은 임원으로 승진하고 활동하기까지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들이 퇴직 후 일자리 정보 및 기회를 얻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력연계형’ 사례자 중 2명은 주된 일자리에서 여성들이 주로 하는 단순업무를 했고, 따라서 별 어려움 없이 같은 업무로 재취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6-여]는 ○○시청 통합관제실에서 CCTV 모니터링 업무를 5년간 해왔고, 실업기간 이후에도 다시 같은 직무로 쉽게 재취업하였다. [9-여] 또한 콜센터회사에서 카드발급 업무를 11년간 해왔고, 쉽게 같은 직무로 재취업하였다.

<표 5-8> 경력연계형 단순직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일자리 직무

| ID | 업종 | 기업규모 | 직무 | 총 경력 | 재취업 직무 |
|--------|-----------|------|--------------------|------|--------------------|
| [56-여] | ○○시청 | 공공기관 | 통합관제실 CCTV 모니터링 | 5년 | 통합관제실 CCTV 모니터링 |
| [9-여] | 콜센터 회사 | 중소기업 | 카드발급 | 11년 | 카드발급 |

2.1.3. 재취업 일자리 특성

‘경력연계형’ 사례자들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이 재취업한 일자리의 규모가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된 일자리 기업규모는 대기업 15명, 중소기업 5명, 기타(대학, 공공기관) 2명인 반면, 이들의 최종 재취업 일자리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14명, 공공기관 2명, 창업이 2명, 프리랜서 등 1인기업이 4명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력연계형’ 사례자 중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례는 15명이었는데, 이들 중 10명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고, 1명이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취업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자영업, 1인기업(프리랜서), 자유소독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일자리 | |
|--------|-----------|-----------------|---------------|--------------------|
|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 [46-남] | 대기업 | 전기기술직 전력시설관리 | ○○아파트 | 전기(관리)과장 |
| [23-남] | 대기업 | 플랜트 전기공사 | 중소기업 | 공사설계회사 지원업무 |
| [47-남] | 대기업 | 생산기술센터 | 고등학교, 중소기업 | 기술본부 총괄, 강의, 영업 |
| [63-남] | 대기업 | PCB 설계 | 프리랜서, 중소기업 | PCB 설계 |
| [2-남] | 대규모 호텔 | 상품개발 | 중소규모 호텔 | 총지배인 업무 |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일자리 | |
|-------------|--------|----------------------------------|-------------------|----------------------------|
|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 [3-남] | 대기업 | 조리 | 골프장 직원식당 | 조리 |
| [51-남] | 대기업 | 사업개발팀 | 중소기업 | 감리, 기술연구 |
| [2013-c2-남] | 대기업 | 건설시공업무 | 중소기업 | 종합관리, 감리 |
| [2013-b5-여] | 대기업 | 금융업 관리파트 총괄 | 공공기관, 대학, 중소기업 | 준법감시, 강의 |
| [2013-c5-여] | 대기업 | 경영 총괄 | 공공기관, 중소기업 | 감사, 강의, 코칭 |
| [2016-2-남] | 대기업 | 전산 하드웨어 IT서버와 장비 관리, 운영 | •공공기관 •대학교 | •해외IT자문관 •산학협력 중점 교수 |
| [12-남] | 대기업 | 영업/교육/서비스 | 자영업 (2인 법인) | 영업교육, 코칭 |
| [2013-b6-여] | 대기업 | 인사 총괄 | 프리랜서 | 코칭 |
| [2013-b1-남] | 대기업 | 경영 총괄 | 자유직업소득 | HR사업 중개 |
| [37-남] | 대기업 | 인사/법무 총괄 | •중소기업 •1인기업 | •인사, 총무 •헤드헌팅, 강의 |

다음으로 ‘경력연계형’ 사례자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사례자 5명은 모두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 중 중소기업 퇴직자 재취업 일자리 특성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일자리 | |
|--------|--------|-------------|---------|---------------------------------|
|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 [34-남] | 중소기업 | 건물관리 | 중소기업 | 건물관리 |
| [57-여] | 중소기업 | 사이트구축 관리 | 중소기업 |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개발, 웹사이트 관리 |
| [14-여] | 중소기업 | 조경계획설계 | 중소기업 | 조경감리 |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일자리 | |
|-------|--------|--------|------------------|-------|
|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 [8-남] | 중소기업 | 영업부 관리 | 소기업, 자영업 (3인) | 관리 총괄 |
| [9-여] | 중소기업 | 카드발급 | 중소기업 | 카드발급 |

마지막으로 ‘경력연계형’ 사례자 중 2명은 자영업(영어학원을 운영)을 하거나 공공기관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였고, 이들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해당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 중 자영업 및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일자리 특성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일자리 | |
|--------|--------------|--------------------|----------------|------------------------|
|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 [60-여] | •대학교 •자영업 | •교무과 •학원 운영 | •고등학교 •프리랜서 |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광통역안내사 |
| [56-여] | 공공기관 | 통합관제실 CCTV 모니터링 | 공공기관 | CCTV 모니터링 |

2.1.4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경력연계형’ 사례자를 대상으로 퇴직 전 경력만족도와 퇴직 후 경력만족도 비교를 통해 만족 혹은 불만족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력연계형’ 사례자의 최종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 만족도보다 재취업 일자리 만족도가 더 내려간 ‘감소’가 10명, 주된 일자리 만족도와 재취업 일자리 만족도가 같은 ‘동일’이 3명, 주된 일자리 만족도보다 재취업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은 ‘상승’이 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취업한 15명 사례 중 ‘감소’가 9명, ‘동일’이 3명, ‘상승’이 3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가 하락했을 때 이들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급여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담당하는 자리도 자신의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하기보다는 일부의 능력만 활용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가진다. 또한 주된 일자리를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전성기로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인해 주된 일자리에 대해 여전히 높은 만족도를 갖기도 한다.

〈표 5-12〉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일자리 만족도 감소 사례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일자리 | | 일자리 만족도 |
|-------------|--------|-------------|----------------|---------------------|---------|
|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
| [47-남] | 대기업 | 생산기술센터 | 고등학교, 중소기업 | 기술본부 총괄, 강의, 영업 | 감소 |
| [63-남] | 대기업 | PCB 설계 | 프리랜서, 중소기업 | PCB 설계 | 감소 |
| [2-남] | 대규모 호텔 | 상품개발 | 중소규모 호텔 | 총지배인 업무 | 감소 |
| [2013-c2-남] | 대기업 | 건설시공업무 | 중소기업 | 종합관리, 감리 | 감소 |
| [2013-b5-여] | 대기업 | 금융업 관리파트 총괄 | 공공기관, 대학, 중소기업 | 준법감시, 강의 | 감소 |
| [12-남] | 대기업 | 영업/교육/서비스 | 자영업 (2인법인) | 영업교육, 코칭 | 감소 |
| [2013-b6-여] | 대기업 | 인사 총괄 | 프리랜서 | 코칭 | 감소 |
| [2013-b1-남] | 대기업 | 경영 총괄 | 자유직업소 득 | HR사업 중개 | 감소 |
| [37-남] | 대기업 | 인사/법무 총괄 | ·중소기업 ·1인기업 | ·인사, 총무 ·헤드헌팅 강의 | 감소 |

그러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하락’했어도, 일자리 만족도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사례도 6명이나 있다. ‘상승’ 사례의 상승 사유를 살펴보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23-남]은 공고를 졸업하고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플랜트 전기공사 업무를

33년간 수행하다 정년퇴직하였고, 이후 건설설계를 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업무, 계약직으로 취업하였다. 그의 비유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와 재취업한 일자리는 모두 “집을 짓는 일”을 하는 회사지만, 전자는 “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후자는 “디자인 도면 그리는 회사”로 매우 다르다. 따라서 입사 초기 그는 회사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공사현장 경험이 많은 자신이 잘 알고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잘 못하는 부분을 풀어”주게 되어 회사에서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51-남]의 경우에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희망하는 제조업 연구개발 분야로 취업하는 데 성공하였고,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자신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2016-2-남]은 사실상 퇴직 후 직장을 다변화시킨 사례자라 할 수 있다. 그는 대기업 퇴직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해외IT자문관으로 일했고, 이후에는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은 산업체와 학교 간의 “코디네이트하는” 일에 해당하는데, 대학에서 “(이 일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례자에게 업무적합성이 높은 일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 “너무 기가 막히게” “딱딱 준비된 것 같은” 이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표 5-13〉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이동에 따른 만족도 변화(대기업→중소기업)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일자리 | | 일자리 만족도 |
|------------|--------|----------------------------------|---------------|----------------------------|------------|
|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
| [23-남] | 대기업 | 플랜트 전기공사 | 중소기업 | 공사설계회사 지원 업무 | 상승 |
| [51-남] | 대기업 | 사업개발팀 | 중소기업 | 감리, 기술연구 | 상승 |
| [2016-2-남] | 대기업 | 전산 하드웨어 IT서버와 장비 관리, 운영 | •공공기관 •대학교 | •해외IT자문관 •산학협력 중점 교수 | 상승 |
| [46-남] | 대기업 | 전기기술직 전력시설 관리 | ○○아파트 | 전기(관리)과장 | 동일 |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일자리 | | 일자리 만족도 |
|-------------|--------|-------|---------------|---------------|---------|
|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
| [3-남] | 대기업 | 조리 | 골프장 직원식당 | 조리 | 동일 |
| [2013-c5-여] | 대기업 | 경영 총괄 | 공공기관, 중소기업 | 감사, 강의, 코칭 | 동일 |

한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기타 사례(자영업 → 프리랜서, 공공기관 단순직 → 공공기관 단순직)의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면 하강이 2명, 상승이 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감소’는 모두 남성에게 해당하며 상승은 모두 여성에게 해당한다.

[34-남]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절반가량 차이 나는 현실, [8-남]은 소득에 대한 불만족과 재취업한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반면 [14-여], [57-여], [9-여], [56-여], [60-여]는 일자리 만족도가 오히려 상승하였다. 그 이유는 남성의 경력경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경력경로와 관련이 있다. 이들의 ‘또 다른’ 경력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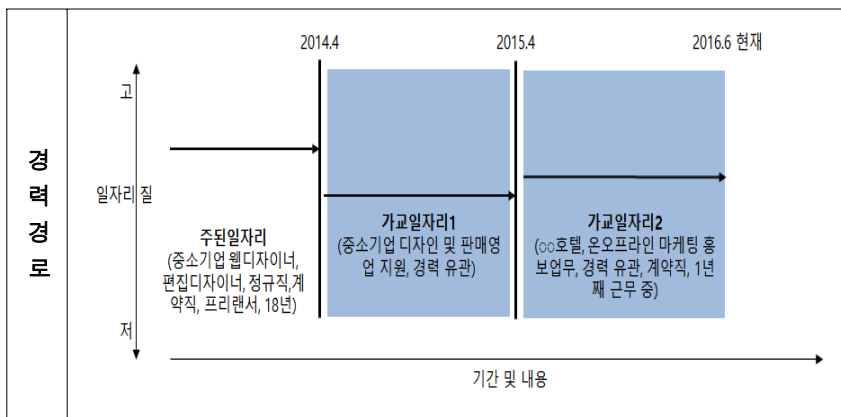
〈표 5-14〉 경력연계형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이동에 따른 만족도 변화(중소기업 → 중소기업/공공기관 등)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일자리 | | 직업 만족도 |
|--------|--------|----------|-------------------|---------------------------------|--------|
|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
| [34-남] | 중소기업 | 건물관리 | 중소기업 | 건물관리 | 감소 |
| [8-남] | 중소기업 | 영업부 관리 | •중소기업 •자영업(3인) | 관리 총괄 | 감소 |
| [14-여] | 중소기업 | 조경계획설계 | 중소기업 | 조경감리 | 상승 |
| [57-여] | 중소기업 | 사이트구축 관리 | 중소기업 |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개발, 웹사이트 관리 | 상승 |
| [9-여] | 중소기업 | 카드발급 | 중소기업 | 카드발급 | 상승 |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일자리 | | 직업 만족도 |
|--------|--------------|-----------------------|----------------|----------------------------|--------|
|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
| [56-여] | 공공기관 | 통합관제실 CCTV 모니터링 | 공공기관 | CCTV 모니터링 임시제 공무원 | 상승 |
| [60-여] | ·대학교 ·자영업 | ·교무과 ·학원 운영 | ·고등학교 ·프리랜서 | ·영어회화 전문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 상승 |

[14-여]는 중소기업에서 10년 동안 조정설계 업무를 하다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고, 이후 재취업부터는 3개의 중소기업을 거치면서 비상근으로 조정감리업무를 16년째 수행해왔다. 그녀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비상근직을 오히려 환영하였고, 경력이 쌓임에 따라 노하우가 생겨 일을 하는데 더 “편해져”서 오히려 직업 만족도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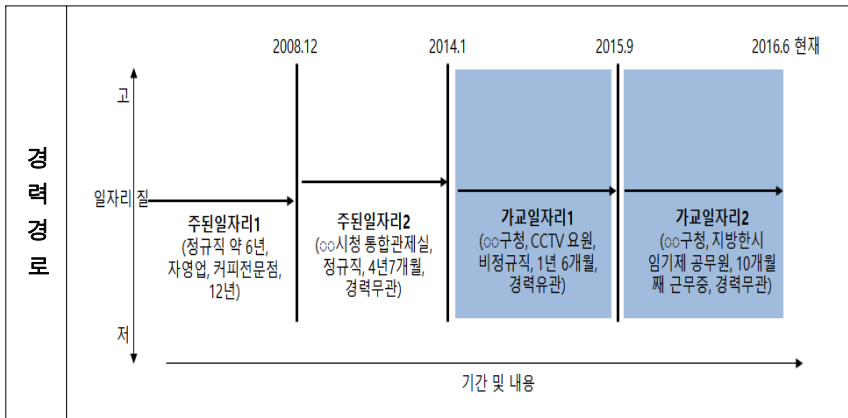
[그림 5-1] 사례자 [14-여] 경력경로



사례자 [57-여] 또한 여러 개의 중소기업에서 웹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사이트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18년 동안 해왔다. 이후에도 2개의 중소기업을 거치면서 디자인 및 판매영업지원,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개발, 웹사이트 관리 등의 같은 업무를 2년째 해오고 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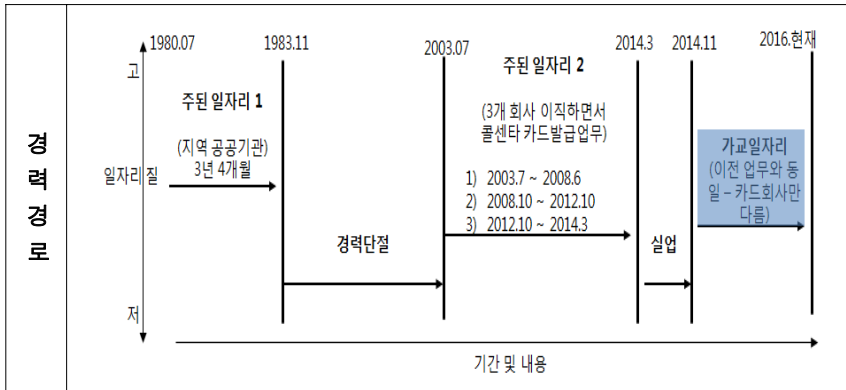
그는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업계의 “아웃사이더”였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춘 기업에서 경력에 걸맞은 지위와 연봉을 받는 경력경로를 밟아오지 못했다. 그렇기에 그는 재취업 일자리에 대해 이전 일자리에 비해 특별히 다를 것이 없고, 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질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업체에서 “나를 기억하고 다시 부르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일감을 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그는 직업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그림 5-2] 사례자 [57-여]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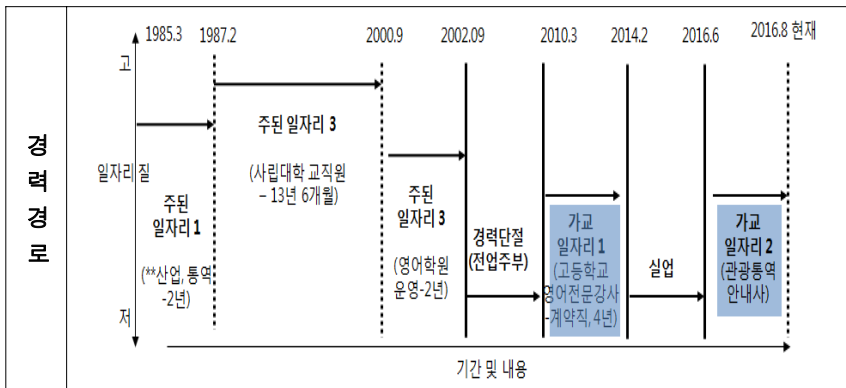
사례자 [9-여]는 결혼 전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임신하면서 12년 동안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후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였다. 그는 3개 중소기업을 이직하면서 약 10년 동안 콜센터 카드 발급 업무를 지속해왔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가 갑자기 낮아지자 퇴직하였다. 그러나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자 소득 창출이 필요하였고, “쉬다 보니”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도 없고”, “(주중에) 돈을 벌면서 주말에 어디를 (놀이) 가는 게 최고”라고 느껴 다시 콜센터에 재취업하였다. 이러한 실업경험은 그의 재취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림 5-3] 사례자 [9-여]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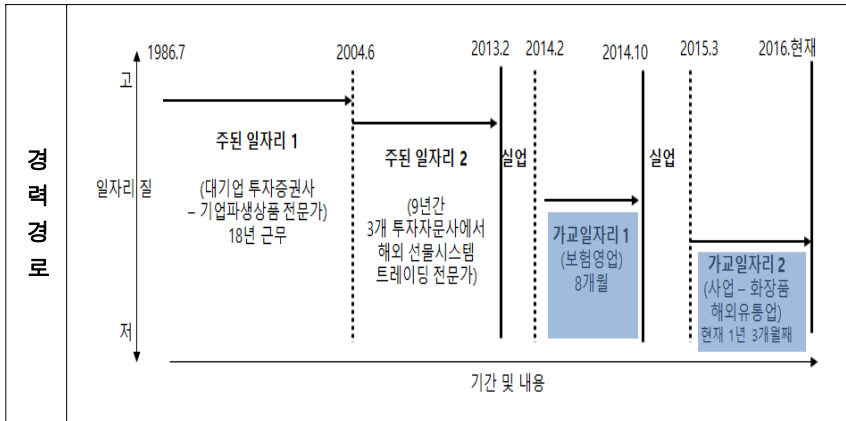
[56-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약 6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녀양육 문제로 사직하였다. 이후 이혼을 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커피전문점을 차려 12년 동안 운영하였다. 커피전문점을 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였고, 결국 ○○시청, ○○구청 통합관제실에서 각각 4년 7개월, 1년 6개월 동안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구청에서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10개월째 일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직장의 복지혜택, 임금,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까지 갖게 되어 과거보다 직업만족도가 상승하였다.

[그림 5-4] 사례자 [56-여] 경력경로



사례자 [60-여]는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번역 및 통역 업무를 수행하다가 출신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이직하여 13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 자아발전이 없는 조직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여러 질병을 앓으면서 체력 문제, 육아 문제 등이 겹쳐 퇴직한 그는 영어학원 운영을 시도했으나 결국 2년 만에 문을 닫고 약 8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다. 이후 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계약직)로 취업하여 4년 동안 일하였으나, 교사 보조 성격이 강한 것이 싫고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 계약 만료 후 재지원을 포기하였다. 2년 공백 후 관련 시험에 합격하여 관광통역안내사(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그는 영어전문교사에 비해 관광통역안내사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고, 특히 “긍정적 기운이 넘치는” 여행객을 만나서 좋은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에서 현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림 5-5] 사례자 [60-여] 경력경로



대부분의 남성 사례자가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또는 같은 직무로 20~30년을 종사하다 퇴직하는 데 비해, 위에 언급한 5명의 여성 사례자들의 경력경로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노동시장 재진입, 잦은 이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 사례자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시 직장 규모나 보수 등에서 크게 ‘추락’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주된 일자리와 이후 재취업 일자리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실망할 것이 별로 없으며, 남성의 경력경로를 기반으로 하는 ‘주된 일자리’ 개념이 이들 여성 사례자들에게는 사실상 적절히 들어맞지 않는다. 이렇듯 전혀 다른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경력경로로 인해 이들 여성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 만족도 및 만족요인은 남성과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2. 경력무관형의 경력경로

2.2.1. 사례자의 인적사항

‘경력무관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의 취업을 원하지만, 용이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된 일자리 직무와 관련 없는 직무로 취업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총 58명 중 19명의 사례자가 ‘경력무관형’에 해당되며, 이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5-15〉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혼인 상태 | 가족관계 |
|--------|----|----|--------------|----------|---|
| [28-남] | 54 | 남 | 대학원졸 (석사) | 기혼 | ·아내(50세), 고교 교사, 부양 안 함 ·딸(20세), 대학생, 부양 ·아들(17세), 고등학생, 부양 |
| [45-여] | 54 | 여 | 대졸 | 사별 | ·아들(26세), 회사원, 부양 안 함 ·딸(24세), 대학 휴학 중, 부양 |
| [13-남] | 54 | 남 | 대졸 | 기혼 | ·모(79세), 부양 안 함 ·아내(54세), 중학교교사, 반부양 ·딸(27세), 취업준비 중, 부양 |
| [22-남] | 54 | 남 | 대졸 | 기혼 | ·모(88세), 부양 안 함 ·아내(54세), 아르바이트, 반부양 ·아들(30세), 회사원, 부양 안 함 ·아들(28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 [6-남] | 54 | 남 | 대졸 | 기혼 | ·아내(55세), 카페운영, 반부양 ·아들(29세), 회사원, 반부양 ·아들(25세), 군입대예정, 부양 |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혼인 상태 | 가족관계 |
|-------------|----|----|----|----------|---|
| [24-남] | 55 | 남 | 대졸 | 기혼 | ·부모(85세, 82세), 부양 안 함 ·아내(52세), 영어과외, 반부양 ·아들(24세), 로스쿨 진학준비, 부양 |
| [48-남] | 55 | 남 | 대졸 | 기혼 | ·모(81세), 부양 안 함 ·아내(56세), 사레자사무실동업 ·딸(22세), 대학생, 부양 ·아들(19세), 재수생, 부양 |
| [16-남] | 55 | 남 | 고졸 | 기혼 | ·아내(54세), 식당아르바이트 ·딸(27세), 회사원, 부양 안 함 ·아들(25세), 부양 |
| [37-남] | 55 | 남 | 고졸 | 기혼 | ·아내(54세), 신생아관리사 ·딸(31세), 중학교교사, 부양 안 함 ·딸(29세), 대학생, 부양 |
| [40-남] | 56 | 남 | 대졸 | 기혼 | ·모(89세), 부양 안 함 ·아내(56세), 주부 ·아들(29세), 공무원시험준비, 부양 ·딸(27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 [2013-c4-남] | 56 | 남 | 고졸 | 기혼 | ·아내(48세), 주부 ·아들(23세), 대학생, 반부양 ·아들(15세), 중학생, 부양 |
| [32-남] | 56 | 남 | 대졸 | 기혼 | ·모(84세), 부양 안 함 ·아내(56세), 병원상담원, 부양 안 함 ·아들(28세), 회사원, 반부양 |
| [26-남] | 56 | 남 | 대졸 | 기혼 | ·모(79세), 부양 안 함 ·아내(51세), 주부 ·딸(24세), 음악학원강사, 반부양 ·아들(22세), 대학생(유학), 부양 |
| [17-남] | 57 | 남 | 대졸 | 기혼 | ·부모(86세, 82세), 부양 안 함 ·아내(53세), 주부 ·아들(28세), 행사 연수 중, 부양 안 함 ·아들(25세), 대학생, 부양 |
| [19-남] | 58 | 남 | 대졸 | 기혼 | ·아내(58세), 주부 ·아들(32세), 취업준비, 부양 ·아들(29세), 대학원생, 부양 |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혼인 상태 | 가족관계 |
|--------|----|----|----|----------|---|
| [15-남] | 59 | 남 | 대졸 | 기혼 | ·부(88세), 부양 안 함 ·아내(54세), 판매직, 부양 ·아들(24세), 대학생 |
| [10-남] | 60 | 남 | 고졸 | 기혼 | ·모(83세), 부양 ·배우자(60세), 주부, 부양 안 함 ·자녀(37세), 개인사업, 부양 안 함 ·자녀(36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 [50-남] | 61 | 남 | 대졸 | 기혼 | ·아내(58세), 회사원, 반부양 ·딸(27세), 기자(수습), 반부양 ·아들(25세), 군 제대, 부양 |
| [49-남] | 61 | 남 | 대졸 | 기혼 | ·부모(89세, 81세), 부양 안 함 ·아내(60세), 주부 ·딸(33세), 공무원, 부양 안 함 ·딸(회사원), 부양 안 함 |

2.2.2. 유사경력으로의 재취업 실패 영향요인

앞에서는 ‘경력연계형’ 사례자들의 주된 일자리 특성 분석을 통해 이들이 주된 일자리 유사 직무로 재취업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는 ‘경력무관형’ 사례자들이 주된 일자리 유사 직무로 재취업하지 못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 ‘경력연계형’ 사례자들의 주된 일자리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5-16〉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특성

| ID | 업종 | 기업규모 | 직무 | 직위 | 재직회사 수, 총 경력 |
|--------|----------------------|------|----------------|------------------|-----------------|
| [28-남] | 셋톱박스 전문회사 | 중견기업 | 셋톱박스 연구, 개발 | 연구기획팀장 & 연구소장 | 2개 회사 20년 |
| [45-여] | 노인전문 요양병원 | 중소병원 | 요양보호사 | 직원 | 5년 |
| [13-남] |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회사 | 중소기업 | 스테인레스 영업 | 영업부 이사 | 3개 회사 28년 |

| ID | 업종 | 기업규모 | 직무 | 직위 | 재직회사 수, 총 경력 |
|-------------|--|------|--------------------------------|-----------------------|-----------------|
| [22-남] | 터치판넬용 LCD 액정유리 제조회사 | 중소기업 | 생산, 개발, 영업 | 생산본부장 | 4개 회사 24년 |
| [6-남] | 컨설팅회사 | 중소기업 | 해외영업, 마케팅, 기획, 무역, 재무 | 임원 | 3개 회사 26년 |
| [24-남] | 증권사 | 대기업 | 파생상품 및 해외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 전문가 프로젝트 형태로 일함 | 4개 회사 27년 |
| [48-남] | 오픈소프트웨 어 개발/공급,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회사 | 중소기업 | IT전문가 프로그래머 | 부소장 | 5개 회사 29년 |
| [16-남] | 반도체 제조업회사 | 대기업 | 재무관리, 회계 | 부장 | 30년 |
| [37-남] | 완구무역회사 | 중소기업 | 재무, 인사, 총무 | 이사 | 4개 회사 30년 |
| [40-남] | 통신사 | 대기업 | 마케팅, 기업고객 관리 | 영업팀장 | 27년 |
| [2013-c4-남] | 휴대폰, GPS 생산 전자회사 | 중소기업 | 마케팅 | 마케팅팀장 | 3개 회사 23년 |
| [32-남] | 건설회사 | 중견기업 | 회계, 재무파트 관리 총괄 | 상무 | 3개 회사 28년 |
| [26-남] | 군대 | 군대 | 정보수집, 데이터분석 | 정보수집관리 처장 | 29년 |
| [17-남] | 통신사 | 대기업 | 회계, 세무, 자산임대관리 | 부장 | 28년 |
| [15-남] | 유아용품회사 | 대기업 | 인사, 법무, 회계 | 물류센터장 | 26.5년 |

| ID | 업종 | 기업규모 | 직무 | 직위 | 재직회사 수, 총 경력 |
|--------|------------------------|------|-------------------------------------|------------|------------------------------|
| [19-남] | 석유화학회사 | 대기업 | 영업관리, 영업지원, 감사담당 | 감사담당 상무 | 2개 회사 25년 |
| [10-남] |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회사 | 중소기업 | 전자회로설계 | 부장 | 5개 회사 26년 |
| [50-남] | 화학, 중공업, 정보통신 회사 | 대기업 | 신규사업 기획, 기술관리, 채권관리, 영업 | 부장 | 3개 회사 31년 개인사업 2.5년 |
| [49-남] | 사립고등학교 | 학교 | 역사 과목 강의 | 정교사 | 31.5년 |

‘경력무관형’ 사례자의 주된 일자리 특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무관형’ 사례자들의 주된 일자리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대기업 출신이 7명, 중견/중소기업 출신이 10명, 기타(군, 학교) 2명으로 나타난다. ‘경력연계형’의 경우 대기업 출신이 15명, 중소기업 출신이 5명, 기타가 2명인 것과 비교할 때 ‘경력무관형’ 사례자들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출신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력무관형’ 중소기업 출신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기업 출신들이 한 직장에서 20~30년을 꾸준히 일해 왔던 것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대기업에 입사하였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고, 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기를 반복하여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 같은 직무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경력연계형’ 대기업 출신의 사례자들이 퇴직 후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경력무관형’ 중소기업 출신의 사례자들은 경력연계 취업이 어려워 경력과 무관한 일자리로 취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5-17〉 중소기업 출신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특성

| ID | 업종 | 기업규모 | 직무 | 직위 | 재직회사 수, 총 경력 |
|-------------|--|------|--------------------------------|------------------|-----------------|
| [28-남] | 셋탑박스 전문회사 | 중견기업 | 셋탑박스 연구, 개발 | 연구기획팀장 & 연구소장 | 2개 회사 20년 |
| [13-남] |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회사 | 중소기업 | 스테인레스 영업 | 영업부 이사 | 3개 회사 28년 |
| [22-남] | 터치판넬용 LCD 액정유리 제조회사 | 중소기업 | 생산, 개발, 영업 | 생산본부장 | 4개 회사 24년 |
| [6-남] | 컨설팅회사 | 중소기업 | 해외영업, 마케팅, 기획, 무역, 재무 | 임원 | 3개 회사 26년 |
| [48-남] | 오픈소프트웨 어 개발/공급,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회사 | 중소기업 | IT전문가 프로그래머 | 부소장 | 5개 회사 29년 |
| [37-남] | 완구무역회사 | 중소기업 | 재무, 인사, 총무 | 이사 | 4개 회사 30년 |
| [2013-c4-남] | 휴대폰, GPS 생산 전자회사 | 중소기업 | 마케팅 | 마케팅팀장 | 3개 회사 23년 |
| [32-남] | 건설회사 | 중견기업 | 회계, 재무파트 관리 총괄 | 상무 | 3개 회사 28년 |
| [10-남] |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회사 | 중소기업 | 전자회로 설계 | 부장 | 5개 회사 26년 |
| [45-여] | 노인전문 요양병원 | 중소병원 | 요양보호사 | 직원 | 5년 |

둘째, ‘경력무관형’ 사례자들의 주된 일자리 직무를 살펴보면 간접 부서에 해당하는 관리 업무 종사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대기업에서 일을 했더라도 재무, 회계, 자산임대 관리, 인사, 총무, 법무, 감사, 신규사업 기획,

고객관리, 영업지원 등 간접 부서에 속해 일을 해왔다. 이는 ‘경력연계형’이 주된 일자리에서 주로 특정한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직무로 일해왔던 것과 크게 대조가 된다. 결국 ‘경력무관형’에 간접 부서 직무 종사자가 많다는 사실은 간접부서 직무는 재취업 시 같은 직무로 연계하여 취업이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표 5-18〉 대기업 출신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특성

| ID | 업종 | 기업규모 | 직무 | 직위 | 재직회사 수, 총 경력 |
|--------|--------------------|------|------------------------------|------------|------------------------------|
| [16-남] | 반도체 제조업 회사 | 대기업 | 재무관리, 회계 | 부장 | 30년 |
| [40-남] | 통신사 | 대기업 | 마케팅, 기업고객관리 | 영업팀장 | 27년 |
| [17-남] | 통신사 | 대기업 | 회계, 세무, 자산임대관리 | 부장 | 28년 |
| [15-남] | 유아용품회사 | 대기업 | 인사, 법무, 회계 | 물류센터장 | 26.5년 |
| [19-남] | 석유화학회사 | 대기업 | 영업관리, 영업지원, 감사담당 | 감사담당 상무 | 2개 회사 25년 |
| [50-남] | 화학, 중공업, 정보통신회사 | 대기업 | 신규사업기획, 기술관리, 채권관리, 영업 | 부장 | 3개 회사 31년 개인사업 2.5년 |

2.2.3. 재취업 일자리 특성

그렇다면 ‘경력무관형’ 사례자들은 과연 어디로 취업하였을까? 이들은 퇴직 후 한 개 일자리에서 계속 경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직종의 일자리 출입을 반복하였다. 이들의 최종 재취업 일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중 5명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다. 이들의 직무를 살펴보면 [26-남]은 재무, 급여 등을 포함한 경영 총괄을 하고 있고, [15-남]은 소독/구충/방제업체에 취업하여 식당, 학교, 오피스텔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독약을

뿌리는 외근현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8-남]과 [6-남]은 각각 헤드헌터와 체리티단체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성과급을 받는 캠페이너로 일하고 있다. [19-남]은 대표와 자신으로 구성된 2인기업에서 네트워크유통사업을 시작하였다.

〈표 5-19〉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중소기업)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 |
|--------|-----------|-----------------------|---|--|
| | 업종 | 직무 | 업종 | 직무 |
| [26-남] | 군대 | 정보수집, 데이터분석 | •여론조사 전문기관 •중소기업 취업 | •데이터분석 프로젝트 수행 •조직관리, 재무, 급여, 4대보험, 후생복지경영 총괄 |
| [15-남] | 유아용품 회사 | 인사, 법무, 회계 | 중소기업(소독, 구충, 방제업체) 취업 | 외근현장직 |
| [28-남] | 셋톱박스 전문회사 | 셋톱박스연구, 개발 | 헤드헌팅회사 | 헤드헌터(프리랜서) |
| [6-남] | 컨설팅회사 | 해외영업, 마케팅, 기획, 무역, 재무 | •보험회사 •외국계 세일즈마케팅회사 | •보험영업 •charity단체 후원 캠페이너 |
| [19-남] | 석유화학 회사 | 영업관리, 영업지원, 감사담당 | •중소기업 취업 •소셜네트워크 마케팅활동 •네트워크 유통회사(2인) | •감사 •소셜네트워크 마케팅 활동 •입/출고 정산업무 등 |

둘째, 이들 6명은 소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이 취업하기 용이한 직업’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취업하였다. 즉 이들은 청소원, 택시 운전, 주유원, 학교지킴이, 학원통학차 운행, 차량검사대행으로 취업하였다.

〈표 5-20〉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중장년 주요 진출 직업)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 |
|-------------|----------------------|----------------------------------|--|-------------------------------|
| | 업종 | 직무 | 업종 | 직무 |
| [45-여] | 노인전문 요양병원 | 요양보호사 | 학원 | 통학차 운행 |
| [13-남] |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회사 | 스테인레스영업 | ·개인병원 ·패스트푸드점 ·○○대공원 | ·사무장 ·주방, 카운터 업무 ·청소원 |
| [37-남] | 완구무역회사 | 재무, 인사, 총무 | ·중소기업 ·부동산 경매 ·택시회사 | ·재경관리 ·부동산경매 ·택시운전 |
| [2013-c4-남] | 휴대폰, GPS 생산 전자회사 | 마케팅 | ·○○IT(창업) ·카서비스 대리 점 | ·중국산 아이패드 수 입판매 ·차량검사대행 |
| [50-남] | 화학, 중공업, 정보통신회사 | 신규사업 기획, 기술관리, 채권관리, 영업 | ·서비스 용역 회 사(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 업) ·주유소 | ·문서수발 ·주유원 |
| [49-남] | 사립고등학교 | 역사 과목 강의 | 고등학교 | 배움터지킴이(경비) |

셋째, 이들 중 4명은 공인중개소, 호프집 등 점포 창업을 하거나 또는 개
인사업을 시작하였다.

〈표 5-21〉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창업)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 |
|--------|---------------------------|-------------------------------|--|-----------------|
| | 업종 | 직무 | 업종 | 직무 |
| [22-남] | 터치판넬용 LCD 액정유리 제조회사 | 생산, 개발, 영업 | Factory Automation 기술제공회사(공동 창업) | 대표이사, 경영 총괄 |
| [24-남] | 증권사 | 파생상품 및 해외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 ·보험회사 ·화장품 해외유통업 사업(창업) | ·보험영업 ·경영 총괄 |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 |
|--------|-------------------------------|-------------|--|---|
| | 업종 | 직무 | 업종 | 직무 |
| [48-남] | 오픈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회사 | IT전문가 프로그래머 | 공인중개소 운영(창업) | 운영 총괄 |
| [16-남] | 반도체 제조업회사 | 재무관리, 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물류회사 ·중소기업 프레스 부품 제조 회사 ·삼겹살집 운영(창업) ·호프집 운영(창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경력과 다른 업무 ·경영 상무 ·운영 총괄 ·운영 총괄 |

넷째, 건설노동시장 일용직과 같이 단순노무직이나 생산직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2명이 있다.

<표 5-22>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단순노무, 생산직)

| ID | 주된 일자리 | | 재취업 | |
|--------|---------------|--------------|---|--|
| | 업종 | 직무 | 업종 | 직무 |
| [40-남] | 통신사 | 마케팅, 기업고객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된 일자리 소규모 위탁사업(창업) ·건설노동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총괄 ·건설노동시장 일용직 |
| [10-남] |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회사 | 전자회로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충전소 ·오리고기 가공업체 ·닭고기 가공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유원 ·생산직 ·생산직 |

그 외에 기타 사례로 취업을 포기하고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동생 사업을 지원하려고 준비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표 5-23〉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특성(기타)

| ID | 업종 | 기업규모 | 직무 | 직위 | 재취업 직무 |
|--------|------|------|-------------------|----|---------------|
| [17-남] | 통신사 | 대기업 | 회계, 세무, 자산임대관리 | 부장 | 전업주식투자 |
| [32-남] | 건설회사 | 중견기업 | 회계, 재무파트 관리 총괄 | 상무 | 동생사업 지원 준비 |

2.2.4 재취업 일자리 만족도

‘경력무관형’ 사례자의 최종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 만족도보다 재취업 일자리 만족도가 더 낮은 ‘감소’가 14명, 주된 일자리 만족도와 재취업 일자리 만족도가 같은 ‘동일’이 1명, 주된 일자리 만족도보다 재취업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은 ‘상승’이 3명, 기타가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만족도를 ‘경력연계형’의 만족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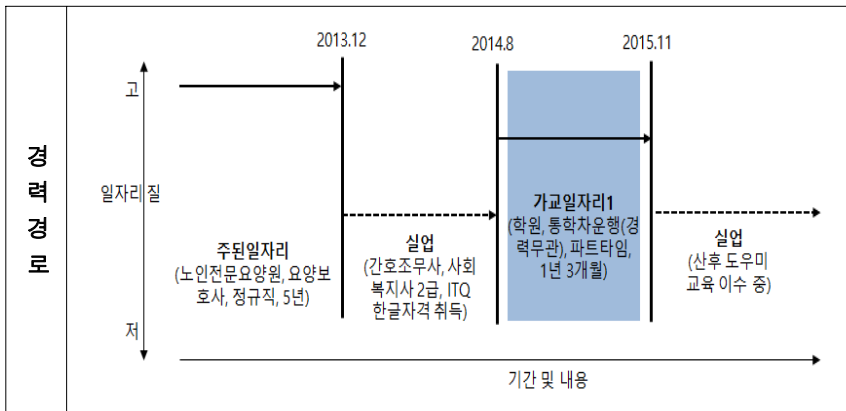
〈표 5-24〉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

| 만족도 | 경력연계형 | 경력무관형 |
|-----|-------|-------|
| 감소 | 10 | 14 |
| 동일 | 3 | 1 |
| 상승 | 9 | 3 |
| 총합 | 22 | 19 |

첫째, ‘경력무관형’의 대부분은 재취업 후 일자리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력연계형’과 비교해볼 때 ‘경력무관형’의 만족도 ‘감소’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력연계형’과 마찬가지로 주된 일자리와 비교해서 볼 때 이들 ‘경력무관형’의 재취업 일자리는 회사 규모와 수입 면에서 크게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의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주된 이유는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종사해왔던 직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전문성과 상관없는 일을 ‘마지못해’ 하게 되면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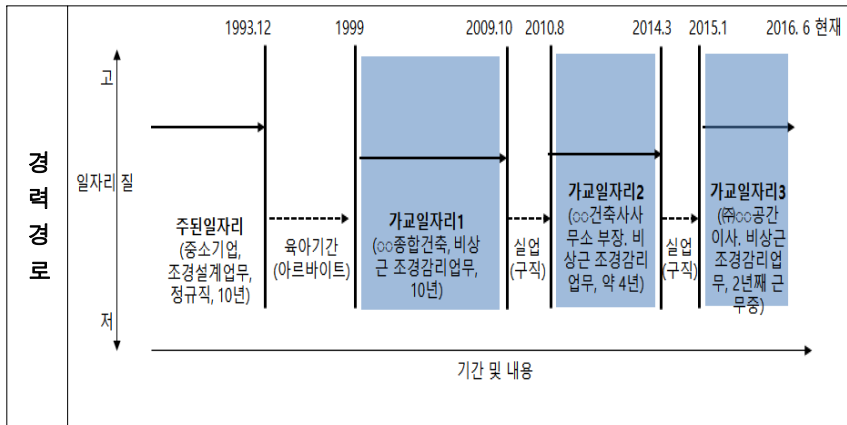
가령 파생상품 및 트레이딩 전문가로서 27년간을 일해온 사례자 [24-남]은 파생상품 전문가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독보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자부심이 강하였다. 퇴직 후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해외선물시스템 트레이딩’ 1인 전문가로 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보험회사에서 보험영업에 하였다. 그는 보험영업에 대해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똥한 데서 처음 문턱을 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다. 결국 그는 8개월 만에 보험영업을 그만두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현재 그는 화장품을 중국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보험영업을 할 때 알게 된 사람이 제안을 해서 우연하게 하게 된 일로서, 자신이 지금껏 해오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 기존의 일에서 갖춘 노하우가 적용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투명성을 가치로 일하던 기존의 일과 정반대로 장사라는 일종의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자조한다. 그럼에도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이 3년 내 안정권에 접어들면 다시 시스템 트레이딩 사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림 5-6] 사례자 [24-남] 경력경로



사례자 [49-남] 또한 마찬가지로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사립고등학교에서 31년 6개월을 역사 과목 정교사로 일해왔고, 따라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매우 강했다. 그는 처가 쪽 사업에 보증인으로 참여했다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둘째 딸의 결혼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결국 퇴직금 정산을 목적으로 퇴직하였다. 퇴직 시 그는 기간제교사로 계속 교사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 첫 6개월만 원래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었고, 이후 수백 곳에 지원을 했지만 구직에 실패하였다. 결국 그는 나이 많은 자신에게 교직의 문이 열려 있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교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경비직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경비직 중에서 더 “괜찮은” 자리인 초등학교 보안관조차도 “내 주제에 사치”임을 발견하여 만만한 배움터지킴이로 눈을 낮추었으나, 이 자리조차 급여가 너무 낮아 힘들어하고 있다.

[그림 5-7] 사례자 [49-남] 경력경로



한편 ‘경력무관형’ 사례자 중 주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같거나 더 상승한 사례는 총 4명이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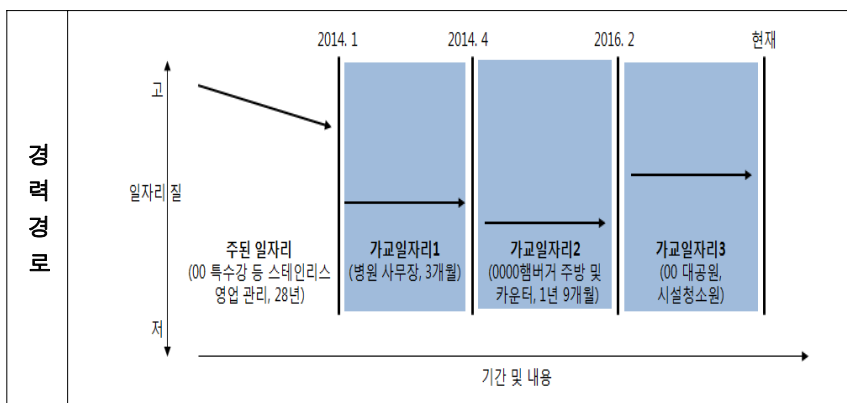
〈표 5-25〉 경력무관형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상승 및 동일 사례)

| ID | 기업규모 | 직무 | 기업규모 | 직무 | 직업만족도 |
|--------|------|-------------------|-------|-------------------------------------|-------|
| [45-여] | 중소병원 | 요양보호사 | 학원 | 통학차 운영 | 상승 |
| [13-남] | 중소기업 | 스테인레스 영업 | ○○대공원 | 청소원 | 상승 |
| [22-남] | 중소기업 | 생산, 개발, 영업 | 공동창업 | Factory Automation 기술제공 회사 | 상승 |
| [17-남] | 대기업 | 회계, 세무, 자산임대관리 | - | 전업 주식투자 | 동일 |

[45-여]는 결혼 후 배우자가 하는 치과기공소 업무를 돕다가, 남편 사별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사회생활을 두려워하는 편이고, 지친 몸을 충전하고 싶어 당시 모아놓은 돈을 쓰기로 하고 쉽의 시간을 가졌다. 5년 후 그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 없겠다는 생각에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간 근무하였다. 그러나 따르던 팀장이 휴직되고 사례자는 다른 층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4년 넘게 일했는데 이 조직에서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서운한 감정”이 들고 재미도 없어져서 퇴직하였다.

이후 그는 사회복지사 일자리를 찾았으나 경력이 부족하여 구직에 어려움을 겪자, “뭐든 일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학원 통학차 운행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는 상사나 동료들 간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학원 통학차 운행 일은 자신에게 “다 일임”하는 일이고, “간섭”이나 “위계질서”가 없어서 더 만족스럽다며 일자리 만족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림 5-8] 사례자 [45-여]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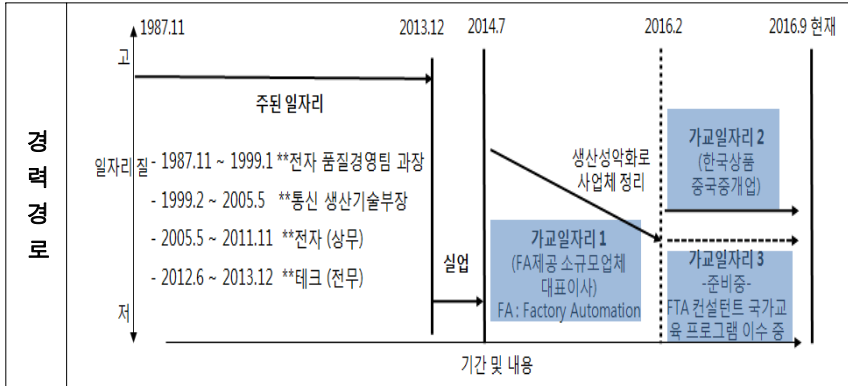


사례자 [13-남]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거쳐 총 28년 동안 스테인리스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원래 생산업무를 원했으나 첫 직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영업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영업업무가 자신의 성격 및 적성에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경력전환을 시도하지 못하고 결국 28년을 일하게 되었다. 이에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퇴직 후에 그는 영업업무는 물론 경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반 관리 업무, 생산직 업무에도 지원했으나 계속 구직 실패를 겪고, 결국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 취업하여 주방 업무와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동시에 그는 기술을 배워 새로운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로 야간 기술원에 다니면 자동차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나이 많은 신입자의 한계로 인해 취업에 실패하였다.

그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대공원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일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이후 5년 동안 축적적으로 일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어서 보너스, 복지카드, 중고등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또한 주된 일자리와 달리 영업스트레스가 없고, “맡은 구역만 (일하면) 별문제 없”고 스트레스받을 일이 없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언급한다. 물론 그는 자신이 이 나이가 돼서 청소일과 햄버거 만드는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가

면서 먹고살아야 하는구나”라는 자괴감도 있었지만, “일에서 손놓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5-9] 사례자 [13-남] 경력경로



사례자 [22-남]은 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통신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려 대기업에서 생산기술부장, 품질본부장직을 수행하며 안정된 직장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대기업에서 다른 대기업으로 스카우트되어 자신이 직장을 “초이스를 해서” 이직할 정도로, 이직에 대해 “행복한 고민”을 했다고 언급하여 자신의 과거 경력을 “잘나가던” 경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후 그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하였으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회사의 워크아웃 시기에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에 퇴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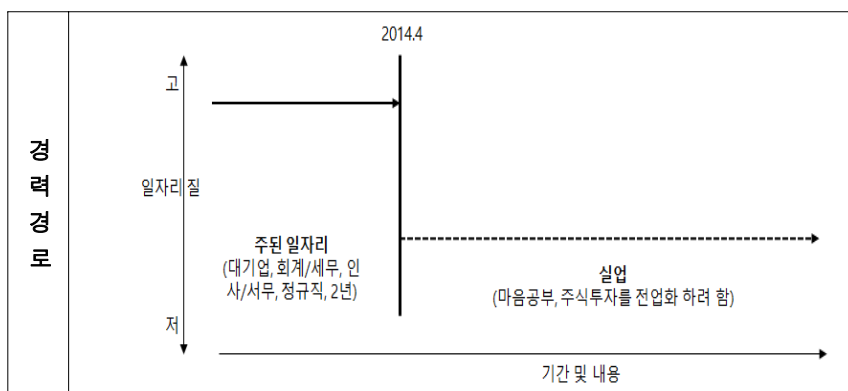
이후 그는 친구로부터 공장자동화 사업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월급받는 대표이사직으로 공동창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아쉬웠던 직장경력을 만회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안 좋아 니즈가 없어져서 그는 “버티고 버티다” 1년 6개월 만에 사업을 정리하였다. 그는 기업체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눈을 돌려” 여러 구직활동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력을 “두 갈래”로 구상, 준비 중이다. 즉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정을 만회하기

위한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는 현재 FTA 및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교육 이수 중이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 해외진출 판로를 찾지 못한 한국 상품을 본인의 인맥을 동원하여 중국시장에 연결하는 ‘수출 중개’ 일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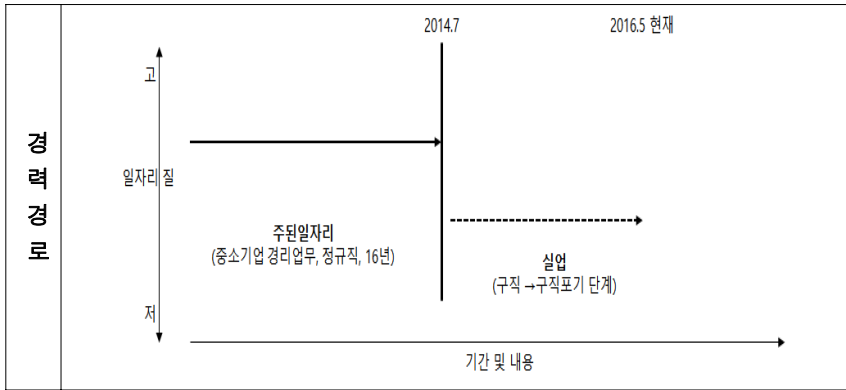
그의 퇴직 후 일자리 만족도는 그가 창업을 하여 대표이사로 일할 때의 만족도이다. 그는 퇴직 전 일자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퇴직할 수밖에 없던 아쉬움이 커서 만족도가 낮은 데 비해, 퇴직 후 시작한 창업은 비록 자신의 펼치고자 했던 꿈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재취업이 힘든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자신에게 나름대로 좋은 경험과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더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5-10] 사례자 [22-남] 경력경로



사례자 [17-남]은 대기업 통신사에서 28년을 근무하였으나 말년에는 판매, 영업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의미 없고 재미없는 일은 그만두자는 생각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퇴직 후에는 특별히 하는 활동 없이 “마음 공부”로 시간을 보내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다. 그는 주된 일자리와 전업주식투자에 대해 둘 다 10점 만점을 언급하였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마음공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11] 사례자 [17-남] 경력경로



2.3. 취업포기형의 경력경로

2.3.1. 사례자의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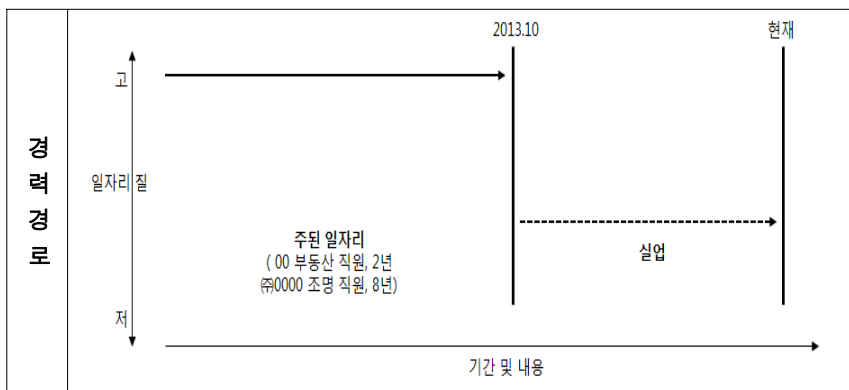
‘취업포기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의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용이하지 않아 취업을 포기한 사례에 해당한다. [58-여], [20-여], [53-여], [59-여] 4명의 사례자가 ‘취업포기형’에 해당된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5-26> 취업포기형 베이비부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혼인상태 | 가족관계 |
|--------|----|----|------|------|---|
| [58-여] | 53 | 여 | 고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58세), 기술직 공무원 아들(30세), 회사원, 비동거 딸(26세), 영어강사, 동거 |
| [20-여] | 55 | 여 | 전문대졸 | 이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딸(32세), 결혼, 비동거 딸(30세), 취업, 동거 |
| [53-여] | 56 | 여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63세), 공무원 퇴직 아들(33세), 외국 대학원 박사과정 중, 비동거 |
| [59-여] | 59 | 여 | 고졸 | 미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92세), 동거 |

사례자 [58-여]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는 여상을 졸업하고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다가 결혼 및 출산으로 퇴직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하였다. 이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총 16년 동안 3개의 중소기업을 거치면서 무역 및 경리업무, 총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직하던 회사에서는 10년을 근무하여 애정도 있었지만 “나이는 어린데 직급이 높은 남자 직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알력”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래서 경영 악화로 퇴직 권유를 받았을 때 미련 없이 퇴직을 수용했다. 퇴직 후 같은 직무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면접조차 연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퇴직 2년 차인 현재는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을 수용하고 취업을 포기한 상태이다.

[그림 5-12] 사례자 [58-여] 경력경로



사례자 [58-여]는 자신의 구직 및 취업포기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흔다섯이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그 이후는 서류 자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분야에 얼마나 오래 있었고 그런 경력이 중요치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접할 기회도 안 오니까. 그건 곧 서류에서부터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1년 가까이 해봤는데 (종락)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업주부로 있는 거죠.” [58-여]

[20-여]는 전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41세에 이혼하기까지 전업주부로 지냈다. 이혼 후 생계를 위해 부동산 직원으로 취업하였는데, 직원 월급보다는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었다. 즉 당시 IMF로 인해 부동산이 활발했고, 사례자는 “(재테크)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 버는 재미”를 누렸다. 그러나 결핵에 걸리는 바람에 2년 만에 사직하고 약 3년 동안 실업상태로 지냈다. 이후 아는 사람의 소개로 중소기업 총무로 취업하였는데, 사례자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태도, 열정이 있고 헌신적인 성향으로 인해 계속해서 승진하다가 갑상선 암에 걸려 8년 만에 퇴직하였다.

이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1동을 하였으나 할 수 있는 일은 육체노동뿐이고, 그나마 그것마저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젊은데 안 받아줘서 써먹을 데가 없”음에 분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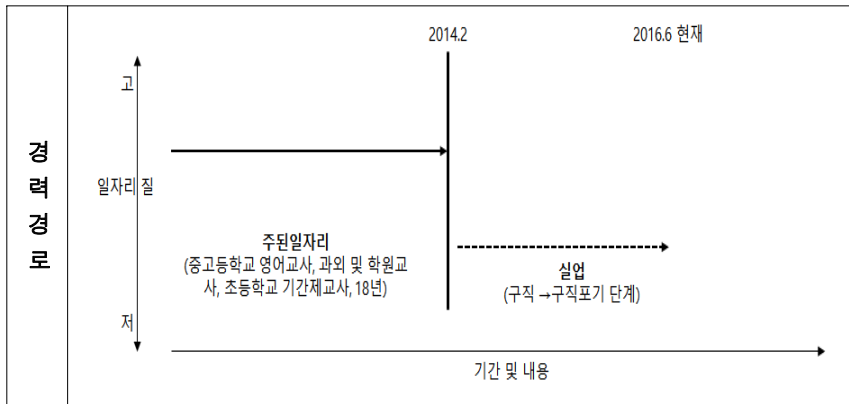
“그런 데 전화하면 몇 살이냐고. 딱 ‘50’ 그러면 땡이야. 그런데 사실 나는 젊어요. 젊고 의욕도 강해. 그리고 젊은 사람들보다 정신력도 강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부해. 그런데 이 웬수 같은 나이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는 거야. 거기 면접을. 나는 면접만 오라고 하면 당침될 것 같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 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중략) 이걸 면접도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20-여]

그는 나이 들었다고 써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건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나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기”로 맞대응하였다. 즉 그는 주택연금, 본인의 국민연금, 전 남편의 국민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 60세까지는 “어떻게든 개겨보다가, 그때 가서 연금 받고”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려고 해도 늙었다고 쳐주지도 않고.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 어?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도 잔머리 굴리는 거지. ‘아, 나는 60살까지 어떻게든 개겨보다가 그때 가서 연금 받고 살 수밖에 없다.’” [2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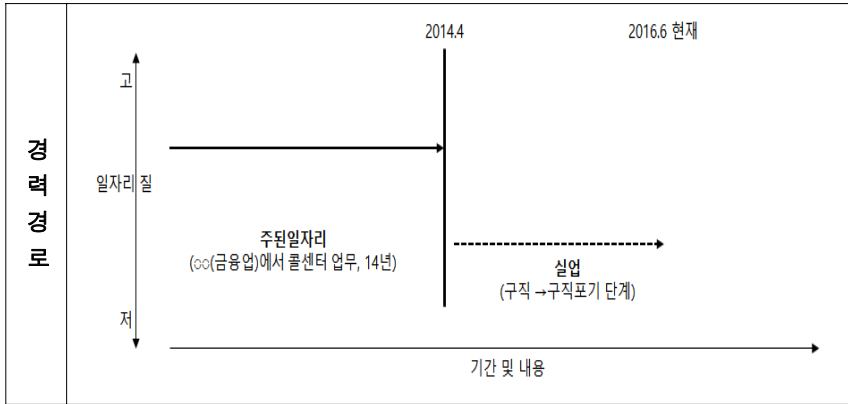
그는 현재 적은 수입과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돈 없으면 안 쓴다”는 자세로 살고 있다.

[그림 5-13] 사례자 [20-여] 경력경로



사례자 [53-여]는 지방국립대학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중등교사로 2년 6개월간 일하다가, 출산 후 자녀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하였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영어과외를 시작하는 것으로 경력을 재개하여 10년간 일하고 사설학원강사(1년)로도 일하였다. 경력단절로 교단을 떠난 아쉬움과 미련이 커서 50세에 기간제교사 공모에 응시하여 학교로 돌아가, 중학교 방과후교사(1년), 초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4년) 등으로 경력을 지속해왔다.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퇴직하였으며, 신체적 역량을 고려하여 집 근처 중등학교 기간제교사직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TO가 잘 나지 않거나, “젊은 영어회화강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다. 발령받지 못한 사범계 출신의 젊은 교사들이 많아서, 나이 많은 자신은 더 이상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5-14] 사례자 [53-여] 경력경로



사례자 [53-여]는 자신의 구직경험과 취업을 포기하게 된 심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계속 기간제(교사 자리)로 (원서)를 넣었는데, 기간제가요,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막 옵디다. 기간제 중등학교를 제가 원서를 넣잖아요? 면접도 보자고 안 해요.” [53-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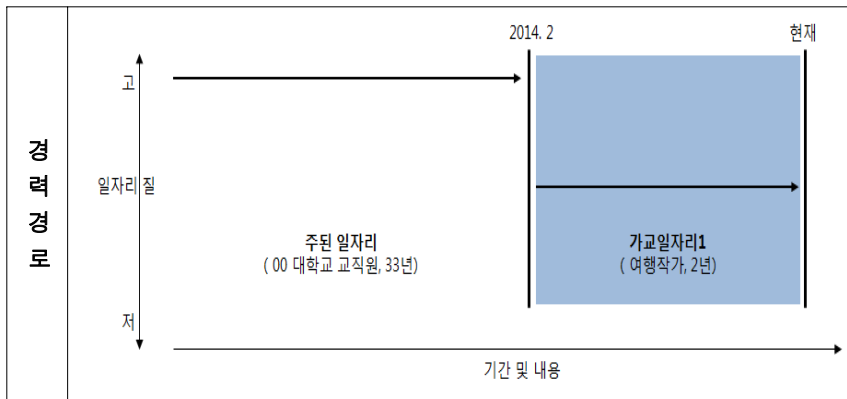
[59-여]는 고졸 미혼여성으로, 42세까지 기독교선교단체에서 간사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후 한 금융기관 콜센터에 취업하여 카드업무, 대출연체자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9년 동안 일하면서 팀장으로까지 승진하였으나, 소속 회사가 콜센터를 아웃소싱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아웃소싱업체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후 5년 동안 같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회사 퇴직 규정에 따라 57세에 정년퇴직하였다.

퇴직 후 [59-여]는 형제들로부터 다시 취업하기보다는 집에서 쉬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92세 노모를 보살피며 주기를 요구받았고, 본인도 동의하여 지금까지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퇴직 후 여러 곳에서 콜센터 일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어머니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는 사례자의 조건과 맞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였다.

“전 시간을 들이기는 어려워서 파트타임을 원하는데, 그 (파트)타임이 쉽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59-여]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다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림 5-15] 사례자 [59-여] 경력경로



2.3.2. 유사경력 재취업 실패요인

‘취업포기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취업하기 원하지만 용이하지 않아 취업을 포기한 사례로,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취업하기 원하고 실제로도 취업한 ‘경력연계형’과 대비된다. 그렇다면 ‘경력연계형’과 달리 ‘취업포기형’이 취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의 공통점 및 ‘취업연계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퇴직 전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다. [58-여]와 [53-여]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었고, 재취업하여 퇴직하기까지 각각 16년을 일하였다. [20-여]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41세에 이혼 후 취업하여 경력이 10년 밖에 안 되고, [59-여]는 41세까지 기독교 선교단체 간사로 봉사활동을 하여 취업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이 14년에 불과하다. 본연구의 남성 참여자들이 보

통 25~30년의 근무경력을 가진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은 경력은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력부족은 노동시장에서 단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들은 학력이 낮은 편이고, 모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였거나 계약직으로 일하였다. [58-여]와 [20-여]은 각각 고졸, 전문대졸이고, 경력 내내 중소기업에서 일하였다. [59-여]도 고졸이고, 첫 직장은 대기업이었으나 콜센터가 아웃소싱되면서 중소기업으로 소속이 바뀌어 퇴직하였다. [53-여]의 경우 대졸로서 학교에서 근무하였으나 방과후교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직이었다. 보통 ‘경력연계형’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중소기업 또는 계약직 일자리로 하향 취업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은 더 이상 하향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의 주된 일자리 경력은 ‘경력연계형’에 비해 질적으로 낮았는데, 이러한 점 또한 재취업을 어렵게 만든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3. 취업포기 사유 및 배경

‘취업포기형’은 마찬가지로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취업하기 원하지만, 용이하지 않자 경력과 다른 직무로 취업한 ‘경력무관형’과 대비된다. 그렇다면 ‘경력무관형’과 달리, ‘취업포기형’은 왜 경력과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기보다는 취업포기를 선택한 것일까? 이는 ‘취업포기형’ 사례자들의 공통점 및 인터뷰 내용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첫째, ‘취업포기형’은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남성과 달리 생계부양자가 아니고, 따라서 돈을 벌어서 가계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육체노동을 할 바에는 취업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58-여]는 남편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아파트 월세 수입을 합쳐서 연간소득이 약 6천만 원 정도 된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퇴직으로 인해 “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53-여] 또한 남편이 퇴직했지만 공무원 연금과 월세를 받아 약 5~6천만 원의 연간소득이 있다.

한편 [59-여]는 미혼이지만,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어머니 집에 들어가 함

게 살고 자신의 집을 세놓아 월세를 받고 있으며, 어머니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면 생활하기 괜찮은 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20-여]는 이혼했지만, 큰딸은 결혼, 작은딸은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는 생계부양자는 없지만 동시에 돌봐야 할 가족도 없는, 자기 자신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기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렇듯 ‘취업포기형’ 사례자들은 경제적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자신의 경력과 다른 ‘힘한 일’을 하기보다는 취업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58-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랑 파출부를 나가는 부류는 꼭 벌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안 벌면 남편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하긴 하되 못 가고, 그 다음에 아예 못 가고. 이렇게 부류가 나뉘죠.” [58-여]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벌면 내 용돈을 안 쓰고 좀 줄이면 되지’ 하고 남편 벌어들인 걸로 살 수 있으니까.” [58-여]

둘째, ‘취업포기형’ 사례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또한 이들이 남성에 비해 직업이 없는 것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이렇게 집에 있어도 되나?”를 회의하고 못 견뎌서 취업을 하는 남성 사례자들이 종종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 사례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살림도 동시에 수행해왔기 때문에, ‘집 안’ 또한 자신의 공간이고, 직장 일이 없어도 ‘집안일’이라는 할 일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남녀 역할 분담으로 인해 남자는 집에 있으면 ‘논다’고 여기지만, 집에 있는 여자는 ‘전업주부’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자신의 취업포기에 대해 “본의 아니게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하는 [58-여]의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여성들은 취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회적 시선에서 상대적으로 더 편안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취업포기형’이 주된 일자리와 동떨어진 힘

든 노동을 하기보다는 취업포기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배경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취업포기형에 속한 사례자들은 왜 육체노동을 하느니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육체노동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크게 나타나는 것인가? 무엇보다 육체노동은 이름 그대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이들은 육체노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육체노동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 [20-여]는 육체노동 하는 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정신적 학대”와 육체노동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나는 사실 캐셔 이런 거 하라면 하겠어. 그런데 그거 자체가 향간에 들어보면 그 위에 있는 윗사람이 그렇게 정신적인 학대를 한다는 거야. 나이 먹어서 거기 나오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사실 내가 거기에 가서 우습게 보일 만큼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나도 성공을 한 거야. 내가 뭐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학대를 한다는 거야.” [20-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먹어서 그런 일을 하면 ‘어, 저 분 참 삶을 적극적으로 사시는구나’ 이렇게 보는게 아니라,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면 저렇게 와서 개고생을 하냐’고 (보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중략)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려면 우리같이 나이가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먹으려면 그런 마인드도 바뀌어야 돼.” [20-여]

육체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중장년층 육체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바로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게 하는 세 번째 주된 이유에 해당한다.

2.3.4 취업포기에 대한 인식 및 소회

‘취업포기형’ 사례자의 취업포기에 대한 인식은 취업포기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 노모를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59-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고 있으며, “더 일할 수 있는데 가정사정상 일을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포기도 늘어가면서 아쉬움도 줄어들어”간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경우 콜센터 중간관리자 경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입사권유를 받기도 했었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비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경우 취업포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여전히 취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58-여]는 자신이 “놀기에는 너무 나이가 적”고, 사회에서 “불필요한 잉여인력”으로 “허송세월하는” 느낌으로 힘들어하며, 개인적으로는 “일할 때는 남편과 동등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취업포기 후에는 그렇지 못해 “자존감이 낮아”졌음을 호소하였다. 그는 여전히 파트타임 일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나이 든 사람은 못 할 거야, 느릴 거야”라고 생각하고 “젊은 애들만 선호”하는 세대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나이 많은 중장년층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무사나 이런 계통에서 내가 파트(타임 일자리)로 가서, 그런 전표 분류 작업을 해서 전산입력을 한다든지 그런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일은 사실 아주 단순한 일이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운 일이지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긋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58-여]

그는 중장년층을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단순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53-여]는 자신이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즉 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고집, 집착”이 있고, 가

족에서의 역할만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아왔음을 언급한다. 그러기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은 자신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고 “자기 세계”가 없는 것을 괴로워하였다. [53-여]은 [58-여]와 마찬가지로 중장년을 위한 단시간 일자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하루 한두 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좋겠어요. 스스로 다들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거예요. 옛날 젊을 때처럼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주일에 5일을 풀로 근무한다 그건 조금 버거워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이 일 좀 쫓다가 저 일 좀 쫓다가가 아니고 이렇게 누적돼서 뭔가 성과 낼 수 있는 일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이라도 하루 한 두세 시간 꾸준히 일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53-여]

2.4. 새경력시작형의 경력경로

2.4.1. 사례자의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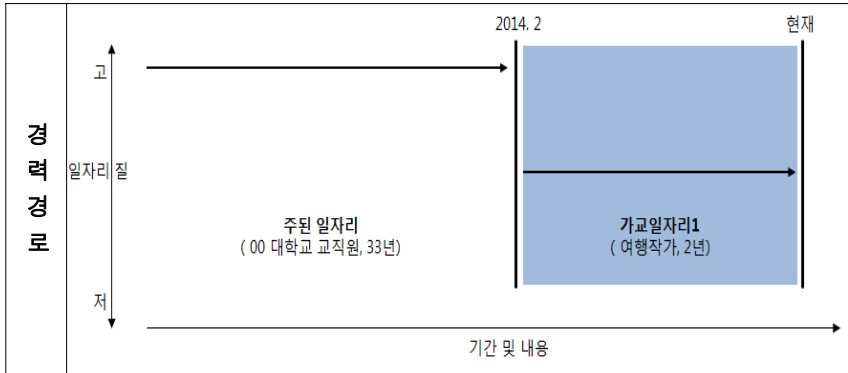
‘새경력시작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경력을 전환하여 새로운 경력을 시작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된 일자리 직무와 다른 직무의 일자리로 재취업했다는 점에서 ‘경력무관형’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경력무관형’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전 경력과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면, ‘새경력시작형’은 자발적으로 새경력을 추구하고 모색했다는 점에서 ‘경력무관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새경력시작형’에는 [62-여], [30-남], [52-남], [2013-c1-남], [2013-b2-남], [2013-b4-여] 6명의 사례자가 해당되며, 이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5-27> 새경력시작형 베이비부머 인적사항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혼인 상태 | 가족관계 |
|-------------|----|----|------|----------|--|
| [62-여] | 57 | 여 | 대학원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81세), 부양 • 남편(55세), 교수 • 딸(26)세, 대학원생, 부양 • 아들(25세), 군인, 부양 |
| [30-남] | 59 | 남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87세, 84세), 동거 • 아내(56세), 주부, 별거 • 아들(31세), 회사원, 독립 • 딸(28세), 대학 휴학 중, 별거 |
| [52-남] | 55 | 남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85세), 부양 안 함 • 아내(53세), 주부 • 딸(26세), 취업준비생, 부양 • 아들(24세), 대학생, 부양 |
| [2013-c1-남] | 58 | 남 | 고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56세), 주부 • 아들(30세), 회사원 • 딸(27세), 취업준비 중, 부양 |
| [2013-b2-남] | 56 | 남 | 전문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82세, 79세), 농사 • 아내(6세), 프리랜서 숲해설가 • 딸(25세), 회사원, 부양안 함 • 아들(24세), 대학생, 부양 • 딸(21세), 대학생, 부양 |
| [2013-b4-여] | 61 | 여 | 대졸 | 이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84세), 부양안 함 • 아들(29세), 회사원 • 아들(26세), 취업준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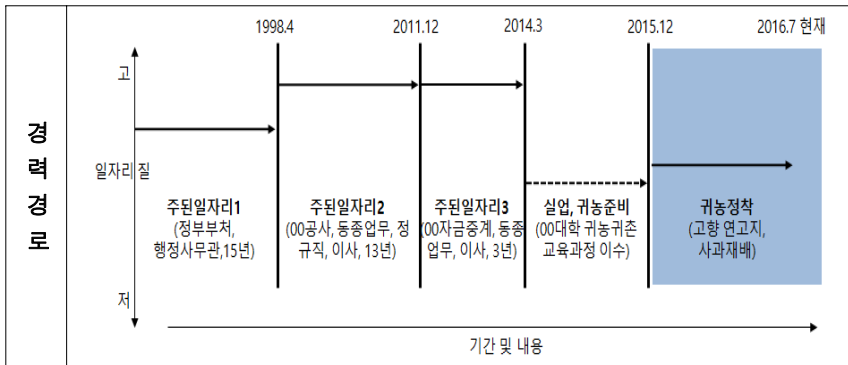
사례자 [62-여]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교직원으로 입사하며 33년을 근무하다 명예퇴직하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여행작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재직 중에 꾸준히 여행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런 준비 끝에 “이 정도면 전업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고, 61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그때는 전업작가를 시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퇴직을 “앞당겼”다. 퇴직 후 그는 출판계약을 하고 두 권의 여행책을 집필하면서 여행작가로서의 새경력을 시작하였다.

[그림 5-16] 사례자 [62-여]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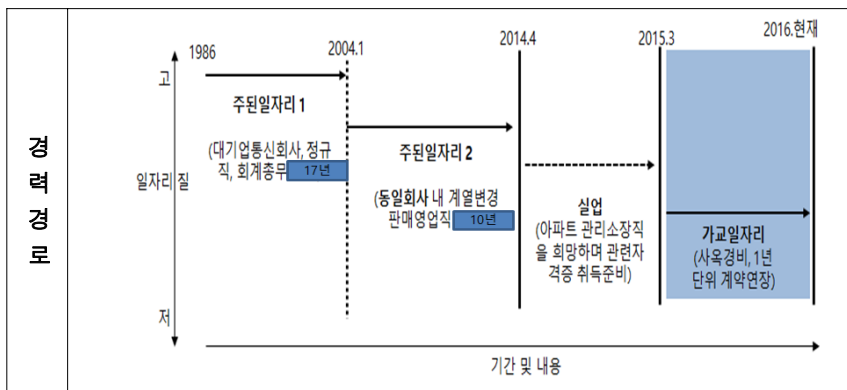
사례자 [30-남]은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1983년부터 ○○부에서 행정주사로 일하기 시작하여 행정사무관으로 총 15년을 일하였다. ○○부 금융실에서 부실채권 정리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외환위기가 발행하였고, ○○공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이직하여 13년을 근무하였다. 이때 차장, 부장을 거쳐 3년간 이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자금중개 전무이사로 이직하였고, 3년간의 임원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였다. 그는 “장남으로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2경력으로 귀농을 선택하였다. 귀농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와 대학생인 딸은 서울에 두고 본인만 고향으로 내려가 본격적으로 귀농을 실행 중이다.

[그림 5-17] 사례자 [30-남]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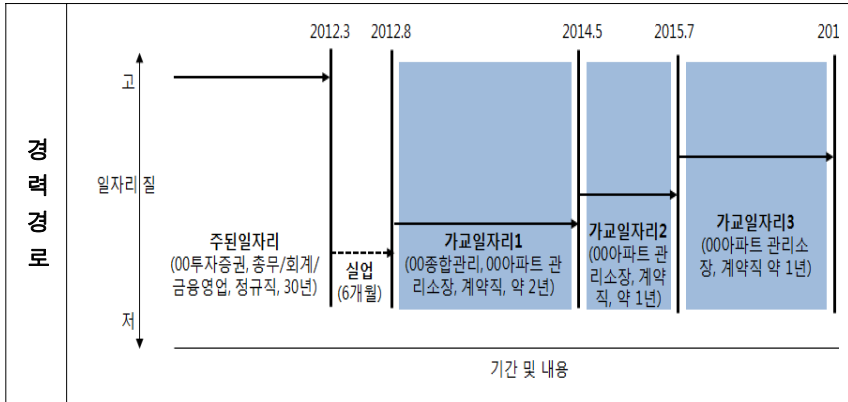
사례자 [52-남]은 통신사에서 17년간 회계, 총무로 일하다가 회사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변화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후 경쟁실적에 따른 구조조정이 잦아지는 분위기에서 영업직으로 계열을 이동하여 14년간 회사상품 판매/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례자에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회사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더 다녀보았자 2년 이상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서 퇴직을 결심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퇴직 전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자지원프로그램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영업직 시절 아파트 관리소장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제2경력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이 생각처럼 쉽지 않자, 경비 구직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1년째 건물 경비(24시간 맞교대)로 일하고 있다.

【그림 5-18】 사례자 [52-남]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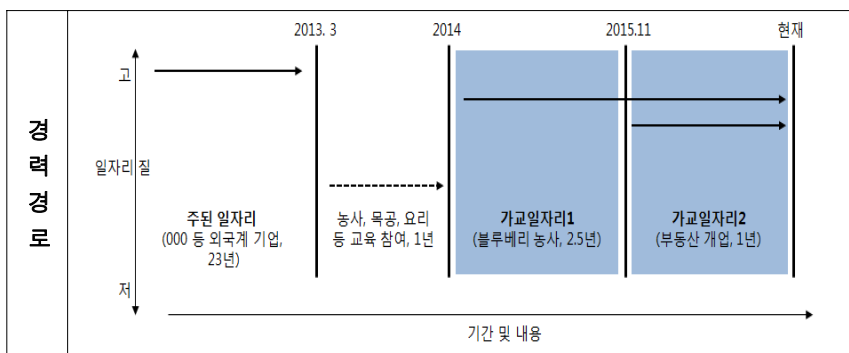
사례자 [2013-c1-남]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투자증권에서 총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금융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사가 증권사에 합병되어 퇴직 압력을 받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주택관리사 공부를 시작하여 자격증을 따고 퇴직하였다. 이후 주택관리사 학원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종합관리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아파트는 3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라 급여가 적어 그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이직하였고, 현재는 더 큰 규모의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림 5-19] 사례자 [2013-c1-남]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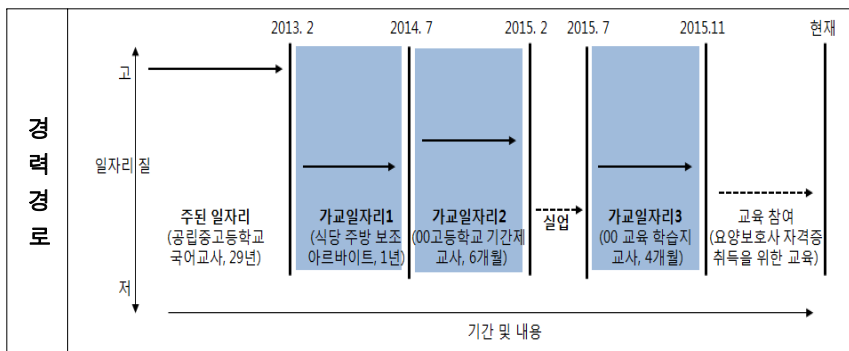
[2013-b2-남]은 전문대에서 공업경영을 공부하고, ○○자동차에서 4년 동안 전산을 이용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컴퓨터 전산 학원에서 프로그래밍과정을 이수하고 외국계 중소기업에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입사하여 10년 동안 근무하였다. 본사가 한국 지사를 매각함에 따라 회사가 바뀌어 바뀐 회사에서 9년을 근무하였고, 이 회사 또한 경영 어려움으로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함에 따라 바뀐 회사에서 3년을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그의 직무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양길로 접어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컴퓨터프로그래머로서 일하던 초기에는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았으나, 2000년 초반부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프로그램이 나옴에 따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성 제품을 도입하여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 나중에는 할 일이 적어 구매부로 부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했고, 결국 회사로부터 퇴직을 통보받았다. 퇴직 후 그는 목공, 요리, 농업 등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며 퇴직 후 할 일을 모색하였고, 마침내 농사를 제2경력으로 결정하고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자, 부동산을 개업하여 농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림 5-20] 사례자 [2013-b2-남] 경력경로



[2013-b4-여]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29년 동안 서울의 공립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해왔다. “교사 일에 지쳐” 있던 그는 명예퇴직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늦기 전에 또 다른 삶을 모색하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이후 “머리 쓰는 일만 해왔으니 육체노동을 해보고 싶어서” 식당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던 그는 1년 만에 그만두고, 고등학교 국어과 기간제교사로 6개월간 일하다가 계약 종료로 사직하였다. 이후 교사와 유사업종이라 생각하고 ○○한자 학습지교사로 일하였으나, 영업능력의 부족, 저임금, 장시간 근무 등의 이유로 4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현재는 요양보호사 직업에 “도전”해보고자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그림 5-21] 사례자 [2013-b4-여] 경력경로



2.4.2. 경력전환 희망 이유

본연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경력연계형’ 및 ‘경력무관형’과 달리 ‘새경력 시작형’은 퇴직 후 이전 경력과는 다른 새로운 경력을 갖기를 자발적으로 원하였다. 과연 이들이 자신의 경력을 전환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적극적인 사유와 ‘이전 경력에서 하던 직무를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는 ‘이전 경력에서 하던 직무로 재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라는 다소 소극적인 사유로 구분된다.

우선 [62-여]과 [30-남]은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경력을 전환한 사례이다. [62-여]는 “작가가 되고 전원에서 사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였다. 그에게 직장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40대 중반에 남편이 사업에 망하고 그가 실질적인 가장이 되면서 그는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꿈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남 보기에는 만족스러워도 “마음 한 켠에는 늘 불만족”이 있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불만족을 해소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여행작가로 경력을 전환하기를 희망하였다.

[30-남]의 경우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경력을 전환하였다.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에 올라왔고, 그때부터 막연하게나마 귀농에 대해 생각해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외지에 있다가 나이 드신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고향 친구들과로부터도 “퇴직하면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들곤 했으며, 본인도 “장남이니까 언젠가는 (부모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다. 한편 성공적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그는 자신의 경력에 대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직장생활도 잘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기에 취업하기보다는, 퇴직을 “뭔가 생활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적기”로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마치자 “부모님 봉양”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일도 하기 위하여 귀농이라는 새로운 경력을 선택하였다.

앞의 두 사례와 달리, [52-남], [2013-c1-남], [2013-b4-여]는 퇴직 전 수행 하던 직무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경력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였다.

[52-남]은 동일 회사에서 회계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다 영업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매출 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출근하는 것 자체가 싫었을 정도” 영업직이 싫었던 그는 재취업 시 영업이 아닌 다른 직무를 희망하였다. [2013-c1-남] 또한 더 이상 “돈 만지는 일을 하기 싫었”다고 자신의 경력전환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증권업무가 “적성에 안 맞고 실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했던, 고객 돈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일반 영업은 회사를 떠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경력을 찾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2013-b4-여]는 29년 동안 해온 교사 업무에 너무 지쳤고, “이제 (교사일은) 이쯤 하고”, “학교라는 공간을 졸업하고” 싶었다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기에 그가 교직이 아닌 “다른 일”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한편 [2013-b2-남]은 이전 경력에서 하던 직무로는 재취업이 안 될 것이기에 다른 업종과 직무를 찾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프로그래머가 사양길로 접어들에 따라 결국 퇴직까지 하게 된 그는 재취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경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인식하였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취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업이 사양된 업인데, 재취업을 하는 문제가 뭐 쉰 넘어서...”

[2013-b2_남]

2.4.3. 새 경력 결정과정

중장년 퇴직자가 이전 경력과 다른 경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중장년이 새로 취업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알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경력으로 무엇을 할지를 찾고 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새경력시작형’에 속하는 사례자들은 어떻게 새로운 경력을 찾고 정하게 된 것인가?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 또는 ‘중장년 퇴직자가 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주변의 사례를 보고’ 새경력을 결정하였다.

[62-여], [30-남], [2013-b4-여], [2013-b2-남]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 새경력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였다. [62-여]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여행작가’로 결정 내릴 수 있었다. 남편 사업이 실패하고 자신의 꿈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40대 중반이 그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고, “이렇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 죽는건가”라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퇴직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재밌고 만족스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삶이 끝나겠다” 싶으니 마음이 괴로웠고, 그래서 퇴직하면 뭘 해야 좋을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 “자유분방”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자신에게 맞는 여행작가였다.

[30-남]의 경우 처음부터 고향과 부모님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자신의 원하는 바’가 명확했기 때문에, ‘귀농’라는 제2경력이 명확했다. 또한 부모님이 과수원 사과 농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과 농사를 짓기로 결정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2013-b4-여]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새경력을 결정하였다. 그는 연금을 받고 있었기에 하루에 4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원하였다. 그런 배경하에서 그는 평생 “머리만 쓰는” 교사 일을 해왔기에, 이제는 “육체노동을 해보고 싶어서”, “진짜 한번 육체노동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직업으로서 육체노동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식당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2013-b2-남]은 퇴직 후 새경력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은 취업이 안 되고,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마땅치 않은 중장년 재취업의 현실’ 속에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 일(아파트 경비)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못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하자면 쉽게 취직할 수 있는 자리는 아마도 내가 못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일은 나한테 안 맡겨줄 거라고(생각했죠).” [2014-b2-남]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는 경제적으로 당장 급하지 않으니, 무엇을 할지 “너무 빠르게 결정하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1년 동안 쉬면서 뭘 해야 될지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는 1년 동안 목공, 농업, 조리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경력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마침내 그는 “취업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자신의 욕구와 조건에 가장 맞는 직업으로 농사를 선택하였다. 그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그는 농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는 “약간의 돈이 되면서 내 활동도 된”다는 점에서 농사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1년에 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면서도 여유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 취미생활, 가족과의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농사를 선택하였다.

한편 [52-남]과 [2013-c1-남]은 중장년 퇴직자가 재취업한 직업이 무엇인지 주변 사례를 보고 새경력을 결정하였다. [52-남]은 영업직으로 근무할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영업활동을 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을 많이 만나면서 “그쪽 생리를 좀 알게” 되었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과목 중 민법, 회계 등이 자신의 “전공과 비슷한 게 많”아서 퇴직 전에 이미 “만약 공부하게 되면 (이 자격증이) 괜찮겠다”고 생각했었다. 또한 회사의 퇴직자 동호회가 있어서 자격증 인터넷 강의를 지원해주는데, 다수의 사무직 퇴직자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에게 주택관리사는 낯설지 않은 자격증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제2의 경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013-c1-남]도 마찬가지로 경력 초기에 관재 업무를 담당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향 선배가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한 중장년이 취업 가능한 직종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택관리사에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 초창기...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 이야기네요. 관재 업무, 건물관리하고 신축하고 할 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를 한번 어떻게 되는 건가 연구를 했었어요. 주택관리사. 직장 다닐 때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는 건 알았어요. 업무와 조금 연결되니까 건물관리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었는데, 뭐 직장 다니니까 솔직히 관심도 없잖아요? 그때는 젊을 때고 그래서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내 위치가 그렇게 되니까, 50 넘어가면 금융권은 사실 거의 퇴물이에요. 50넘어가면.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앞으로 주택관리사가 뭐 어떤지 알아보니깐 큰 어려움은 없겠더라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2013-c1-남]

그는 제2경력을 결정할 때, 자신의 적성이나 과거 경력과의 연관성을 상관하지 않았다. 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괜찮은 수입으로 퇴직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여서 “무조건 결정”하였다.

“특별히 뭐 메리트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 퇴직하고 나서 몇 달 또는 1년 놀다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뭐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할 일이 있다는 거를 우선 잡았기 때문에” [2013-c1-남]

2.4.4 새경력준비 및 시작과정

‘새경력시작형’에 속한 사례자들이 새경력 결정 이후,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였을까?

첫째, 이전 경력과 다른 경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에 참여하여 필요로 하는 자격과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행작가를 희망한 [62-여]는 재직 중에 2년과정인 여행작가 양성과정을 다녀 작가로 등단하고, 틈틈이 글을 써서 발표하였다. 작가커뮤니티활동도 꾸준히 참여하였다. 또한 여행작가에게 필수인 사진을 배우고 사진전을 두 번이나 개최하였다. [30-남]은 퇴직을 6개월 앞둔 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찾거나 관련 서적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퇴직 후에는 ○○대학의 귀농귀촌과정에 참여하게 본격적으로 귀농을 준비하였다. [2013-b2-남] 또한 ○○대학교 농학과에 진학하였고, ‘텃밭지도사 아카데미’에도 참여하는 등 농사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하였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제2경력으로 결정한 [52-남]과 [2013-c1-남]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인터넷강의, 학원 등에서 공부하였다.

둘째, 관련 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이들이 새경력을 시작하는 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62-여]는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두 권의 책을 출판계약 맺었다. 즉 여행작가과정 주임교수가 “글이 마음에 든다고” 책을 내자고 제의해서 출판계약을 맺었고, 또 다른 한 권은 아는 여행작가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출판사에 제의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다. [2013-c1-남]은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경력이 없어 취업이 쉽지 않았는데, 주택관리사 학원의 지인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어 취업에 성공하였다. 그는 경력을 쌓기 위해

아파트 규모가 작고 급여가 적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로 “무조건” 취업했다. 이후,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그는 소속 회사 상무에게 월급이 많은 곳에 “자리가 비면 나를 추천해달라”고 로비를 하였고, 다음 해에 상무의 연결로 좀 더 월급이 많은 아파트로 옮겼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그는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세 번째 이직하였다. 그는 소속 회사의 담당 임원과 평소 유대관계를 쌓고 “자신의 존재를 평소 심어준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 [2013-b2-남] 또한 다니던 대학교수로부터 블루베리 농사를 소개받았고,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던 같은 대학의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고 농사지를 작물로 블루베리를 정하게 되었다.

2.4.5. 새경력에 대한 소회

그렇다면 ‘새경력시작형’ 사례자들은 자신의 새경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고 있는가? 본연구의 사례자 중 가장 이상적으로 퇴직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퇴직 후 계획한 대로 두 권의 책을 출판하여 여행작가 경력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62-여]는 뜻밖에도 자신의 새경력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언급하였다. 그는 여행작가를 하면 “퇴직 후 포지션도 갖고 약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여행작가로 일해보니 들어가는 노력과 경비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너무 적어 실망스럽다고 언급하였다.

“처음에는 내가 여행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정말 책 한 권 내는 데 생각 외로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고료 조금 받아서 경비 쓰고 나면 나는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아휴. 그래서 내가 '여행을 하면서 책을 계속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책을 쓰긴 쓸 건데. 도저히 경제활동이 아니고 마이너스 경제활동이다 보니까(웃음) '아, 여기에 주력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만큼 한 권 정도 쓰는 거면 모를까, 이거 맨날 쫓아다니면서 책 쓴다고 하면 인생에 너지 너무 정말 소모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2-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는 1인출판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점이 35%, 출판사가 55%, 작가가 겨우 10%를 가져가는 구조에서 작가만 “죽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여행작가 직업을 “놓고 싶지는 않”으나 “마이너스 경제를 당하면서”까지 책을 내는 것이 “의미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죽어나는 것이 작가더라고, 지금 보니까... 아휴.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은 놓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놓고 싶지는 않는데... (중략) 여행책을 내면서 이렇게 돈을, 내가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거를 고료를 받아가지고 이 많은 경비를 쓰면서 책을 내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그게 혼란스러워요. 요즘은... (중략) 그런데 그래도 이 일이 재밌기는 해서 1인출판을 하면 내가 그래도 그렇게 경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또 1인출판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야, 골치 아프게 그걸 왜 하니? 차라리 그걸 그냥 그만둬라. 그냥 놀러 다녀라. 너 꼭 책 써야 해?’ 그러는 거예요.” [62-여]

퇴직 후 2년 동안 착실하게 귀농을 준비하고 실천한 [30-남] 또한 막상 귀향을 하고 농사일을 시작해보니 처음 하는 육체노동과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이로 봐서 아무래도 육체적인 게,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어요. 그거를 젊을 때부터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그러다가 갑자기 와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육체적인 것으로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더라도 아무래도 주변 상황을 알고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30-남]

또한 귀농 전에는 귀농 후 독서, 골프, 자전거 타기, 등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막상 고달픈 농사일에 지치다 보니 “틈이 나면 눕고 싶고 쉬고 싶은 생각만” 들고 취미활동은 오히려 “바닥” 수준이 된 삶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틈이 나면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기 내려올 때는 골프연습장 보면 골프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갖다 봤지. 그다음에 자전거도 그때 좋은 걸 사다 놓고, 틈 나면 자전거도 타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럴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옆에 소백산도 있고 좋아요. ‘일부러라도 찾아올 텐데 가까이 있으니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골프도 같이 치는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몇 번째 일요일에 만나서 운동하고 그랬는데. 이게 농사라는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날씨가 되어야 하고 주기가 있고 그다음에 약 쳐야 할 때는 약 쳐야 하고, 비 오면 어차피 운동 못 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잘 안 맞더라고요. 이래저래. 책도 와서 좀 보겠노라고 책도 이런저런 책, 못 봤던 책. 서울에 올라가면 서점에 가서 몇 권씩 사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취미여가생활은 거의 바닥인 것 같은데.” [30-남]

이 외에도 [30-남]은 문화적 욕구 충족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등과 같은 귀농에 따르는 새로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귀농 2년 차인 그는 힘든 것이 10이라면 귀농에 따른 보람은 2~3 정도로 평가할 만큼 현재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이 계시니까 왔다 갔다 했을 때랑은 많이 다르죠. 여기가 주로가 되니까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문화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중략) 그리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의 접촉이 많이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가끔 약속 있고 하면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예전처럼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대화의 주제가 거기에서 생활할 때랑 여기에서 생활할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30-남]

[2013-b2-남]은 농사를 지은 지 2년 만에 “못 참고” 부동산을 개업하여 병행을 시도하였다. 그는 농사를 시작할 때 연 천만 원의 소득을 기대하였으나, 초보 농부라 수익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당장 급한 것은 아니었

지만 소득은 없고 지출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는 조바심을 느꼈다. “소비하는 쪽에 있지 말고 조금 더 생산하는 쪽에 있어서 가진 돈이 없어지는 것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는 부동산을 개업하였다. 경제적 손실 외에도 그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는 “농부라는 직업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 못 참았”다.

“확실하게 내가 농부라는 마인드가 있고 그랬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농부라는 직업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도 있고 (중략) 농부는 명함도 없고 이거(부동산) 하면 명함도 하나 만들고... 그런 것이 선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2013-b2-남]

그는 농부가 직업이라고 주변에 말했고, 가족을 위해 장 보고 요리하고 식사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매일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집에 있어도 되나?”라는 불안감을 느꼈고, 돈을 못 벌어 가장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에 위축되어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직장 다닐 때 친구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돈을 준다고 하면 출근하고 받을래, 출근 안 하고 받을래? 그러면 나는 출근하고 받는 걸 택하겠다. 왜냐하면 출근하면 놀아주기도 하지 않냐. 그런데 그냥 돈만 주면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퇴직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말하자면 농사를 짓고 있어도 매일 안 가니까 집에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불안감. ‘내가 이렇게 집에 계속 있어도 되나?’ 그런 불안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겨울에는 농사도 안 지으니까.” [2013-b2-남]

이러한 경제적·심리적 이유로 그는 농사와 병행할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농지 근처 지역에 부동산을 개업하였다. 그는 직원을 두면 양립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막상 시작해보니 부동산이 “굉장히 울

인해야 되는” 직업임을 깨닫고 몸과 마음의 고단함을 느끼고 있다.

[2013-b4-여]도 1년 만에 식당주방보조 일을 그만두었다. 식당 일에 대한 그의 감정은 양면적이다. 즉 음식 하는 법, 눈치껏 일하는 법, 몸을 재빠르게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았고, 무엇보다 부지런히 일하는 경험, 땀 흘리며 일하는 경험을 해본 것은 매우 좋았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3D 업종”을 실체를 경험하면서, 저임금, “혹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과중한 노동, 식당 매니저의 비인격적인 “구박”으로 결국 사직하였다. 이후부터 그는 “전체적인 청사진” 없이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여러 직업을 ‘시도’했다. 먼저 그는 육체노동을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 기간제교사로 6개월간 일했다. 계약 만료로 사직하게 되었으나, 당시 청년실업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퇴직교사들을 채용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소리를 듣고, 학교강사로 재취업할 것을 포기하고, ○○한자 학습지교사로 취업했다. 유사업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학습지교사가 교사 자격보다 영업능력이 더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탁자영업제’가 발로 뛰어 일하는 사람에게 너무 적은 돈을 주고 회사만 돈을 버는 노동력 “착취” 제도라고 느꼈다. 결국 장시간 근무, 저임금, 영업능력 부족의 사유로 4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이후 사회복지사인 친척에게 요양보호사에 대해 얘기를 듣고, 한번 “도전”해 본다는 생각으로 현재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과로부터 적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과외를 하거나 나이 제한이 없고 자리만 잡으면 안정적인 자영업을 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사교육을 반대하던 신념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자영업은 자신에게 맞지 않다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일을 시도해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퇴직 후 경력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 첫째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백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한 “사이드잡”이고, 둘째는 “이제부터 안 해본 일을 하”는 “도전”이다. 그렇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물러서는 단점이 있지만, 동시에 특정 직업에서 잘 안 되면 다른 직업을 찾아볼 수 있는 자유와 여유로움이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사이드잡 개념이기 때문에 배수진을 쳐야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진짜 완전히 여기에 목

을 매고 ‘이 직업으로 나는 먹고살아야 된다’ 그런 필사의 각오랄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학습지라면 영업도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는다 이랬으면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이런 적극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식당 그런 것도 막 목매고 한다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 이건 폐이도 그렇고 내 몸이 상하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물러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노인 그 요양보호사 이 일도 내가 이거 배수진을 치고 있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떤 난관이 왔을 때 또 쉽게 물러날지 이것도 또한 하나의 걱정이예요. 그런데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또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다가 잘 안 되어도 이것이 나를 치명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갖고 싶다 그러면 다른 잡을 가져보자’ 그런 자유로운 여유로움을 준 긴장점이에요.” [2013-b4-여]

앞에서 설명한 4명의 사례와 달리 [52-남]과 [2013-c1-남]은 자신의 새경력에 대해 만족스러운 편이다. 그런데 이들의 만족은 과거의 직장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퇴직 전에 실적을 내야 하는 영업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따라서 현재 일자리가 비록 몸은 고달프고 수입은 떨어졌고 사회적 위신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만족스럽다고 언급한다. [52-남]은 자신이 “지극히 행복하지는 않아도 별 불만이 없”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가기 싫죠. (중략) 나 자전거 타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옛날에는 가기 싫었어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일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중략) 압박 같은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이런저런 거로는 떨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옛날보다. (중략) 승진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경쟁 이런 데서 좀 벗어난 형태로 일을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어요.” [52-남]

“여기는 지금 내가 다니는 게 하는 일이 단순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목표라든가 그런 성취도 같은 거? 그런 거는 아직까지 그니까 자유로운, 자유로움이 있는 거지. 긴장이 없고.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돼. 뭐랄까, 업무에 충실하면 되지. 그니까 업무를 게을리했다든가 뭐 행동이 이상한 걸 했다든가 그렇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성실성만 있으면 되는 거야. (...) 이걸 단순직이니까 이런 정신적인 이런 업무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쫄임이라든가 이제 일하면서, 단순 그냥 어떻게 보면 중노동도 아니면서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현장이다, 이거지.” [52-남]

“관리소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좀 열악하죠. 그 소위, 페이도 열악하고 전반적으로 소장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족도 있고 뭐 아무래도. (그러나) 급여도 규모에 비해 괜찮고 입주자대표도 특별히 알력도 없고, 주민도 특별히 와서 소위 말해서 진상고객도 없고. 그러니까 떠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를. 10년. 내가 할 수 있으면 10년도 하고 싶은 자리예요. 여기가.” [2013-c1-남]

이들의 만족은 또한 “마음 비우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과거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건물경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추락’한 것에 대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경비직을 어떤 추락처럼 이해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짓던 경비직을 하건 다 똑 같은 거지. 남의 시선이 그런 거지 내가 느끼기에는. 말 그대로 뭐 책에서 배웠듯이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가 귀천이 있어. 안 그런가?” [52-남]

“나는 그런 거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지. 용인이 되지. 내가 또. 남의 눈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았다고. 전 직장에서는 그럴 수 없지. 생각이 바뀌었지. 전 직장에서는 넥타이 딱 메고, 소위 말해서 화이트칼라였는데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전 직장을 잊어버려야 돼요. 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이것도 못 해요. 아니 뭐, 지점장 하고 부장 했던 사람이 직원들이 와도 ‘아이고 부장님’ 이랬는데, 지금은 누가 그럴

니까. 직원들이나 관리소장님이라고 그러지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뭐 대충 있나 보다 그러지. 그거 다 내려놔야해요. 그거 생각하면 못 해요.” [2013-c1-남]

“소위 타인과의 비교가 이제는 필요 없지.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젊었으니까 타인과의 비교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뭐. 지금 뭐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지 마음을. 마음을 비우는 거지. 그러니까 편해지잖아요.” [2013-c1-남]

2.5. 새경력준비형의 경력경로

2.5.1. 사례자의 경력경로

‘새경력준비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를 하고 싶지 않아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지만, 아직 무엇을 할지 찾지 못하거나 관심 분야 교육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경력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새경력준비형’에는 [18-남], [27-여], [1-남], [66-남], [2016-3-남] 5명의 사례자가 해당되며 이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5-28〉 새경력준비형 베이비부머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혼인 상태 | 가족관계 |
|--------|----|----|--------------|----------|---|
| [18-남] | 54 | 남 | 전문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85세), 부양 안 함 • 아내(49세), 요양원 운영 • 딸(23세), 대학생, 부양 • 아들(21세), 군인, 부양 |
| [27-여] | 56 | 여 | 대학원졸 (석사) | 이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83세), 부양 안 함 • 딸(28세), 정당활동, 부양 안 함 |
| [1-남] | 57 | 남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85세), 부양 안 함 • 아내(54세), 사주카페에서 일함 • 딸(29세), 대학생(유학), 부양 • 아들(25세), 대학생(유학), 부양 |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혼인 상태 | 가족관계 |
|------------|----|----|----|----------|--|
| [66-남] | 57 | 남 | 대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56세), 교사로 일하다 퇴직 · 아들(32세), 결혼 후 분가, 부양 안 함 · 아들(28세), 대학원생(박사과정), 부양 |
| [2016-3-남] | 59 | 남 | 고졸 | 기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59세), 주부 · 딸(30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아들(29세), 회사원, 부양 안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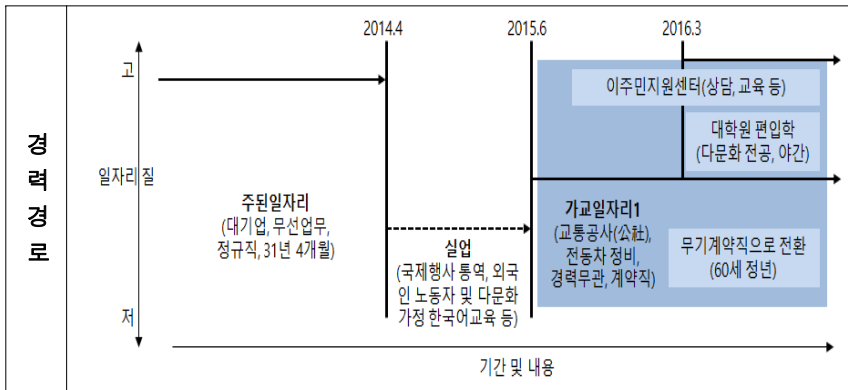
사례자 [18-남]은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 통신을 공부하고 ○○에 취업하여 교환기, 전송장비, 선로, 인터넷데이터, 물품,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31년을 재직하였다. 퇴직 전에는 무선 와이파이 유지보수 및 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학생이라고 답할 정도로 배움을 지속해왔다. 그는 직장 일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은 물론, ○○전문대학에서 실무영어, 신학대학에서 선교영어를 전공하였고, ○○사이버대학에서 한국어문화학을 전공하여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퇴직 후에도 ○○대학교에 관광학과에 편입하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또한 재직 중에 ○○전문대학에서 실무영어와 신학대학에서 선교영어를 전공하였고, ○○사이버대학에서 한국어문화학을 전공하여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국제행사에서 영어통역,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해왔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공고가 나자, 월급 때문에 위험하고 하기 싫은 일을 정년까지 더 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퇴직하고 난 후 일에 대한 밑그림이 뚜렷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에 미래, 건강, 자녀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그래서 그는 ○○교통공사에 취업하여 과거 경력과 무관한 전동차 정비업무를 하고 있고, 배우자가 1년 전 시작한 요양원 일을 돕고 있다. 한편 그는 올해 초에 ○○대학원에서 야간과정으로 다문화전공에 입학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부하며, 앞으로 관련 분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18-남]은 직장생활 외에 자신의 관심사 및 좋아하는 ‘취미활동’이 명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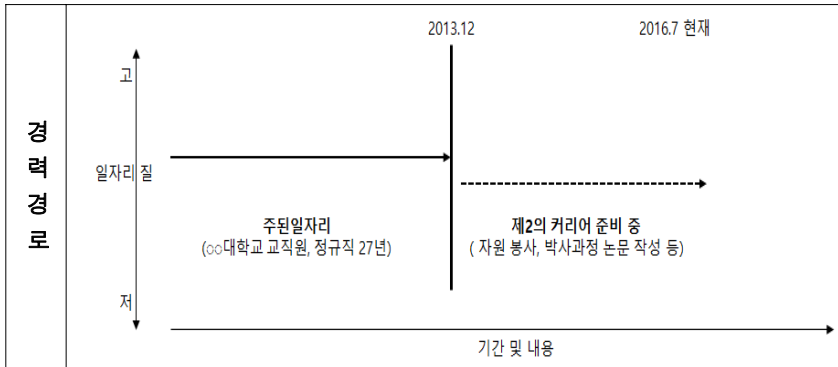
게 있었다. 그는 주된 일자리 재직 중에 대학에서 영어 및 한국어문화학을 공부하였고, 직장생활 중에도 연차를 내어 국제행사 영어 통역 자원봉사로 꾸준히 활동하고, 일요일마다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에게 한국어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그는 이제는 취미활동으로 해오던 일을 직업으로 삼기를 원하기에, 기존에 해오던 일로 취업시켜주려는 주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고 거절하였다.

[그림 5-22] 사례자 [18-남]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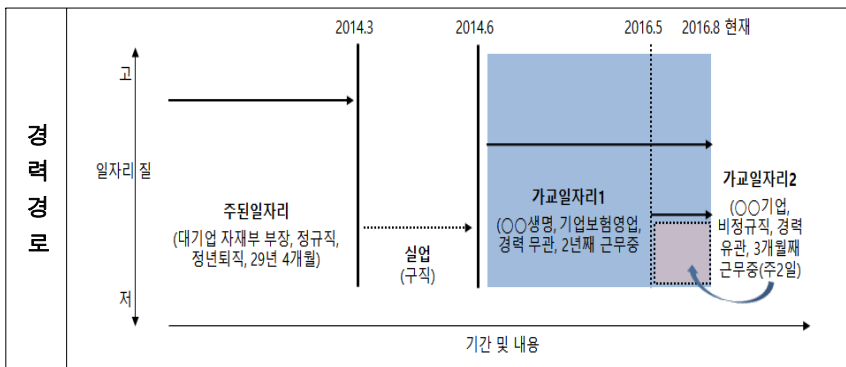
[27-여]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이래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삶을 계속해왔다. 그는 상고 졸업 후 ○○금고에 취업하여 돈을 모은 후, 퇴직금과 용자로 ○○대학교 역사학과에 진학하였다. 졸업 후 ○○대학원에서 9급 공무원(행정직)으로 5년간 일하였고, □□대학교로 이직하여 교직원으로 12년간 일하다가 경력개발센터 행정실장으로 퇴직하였다. □□대학교 재직 중 유학비 지원을 받아 일본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마쳤다. 마침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자 □□대학교를 퇴직하였고, 현재는 @@대학교에서 평생교육학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다.

[그림 5-23] 사례자 [27-여]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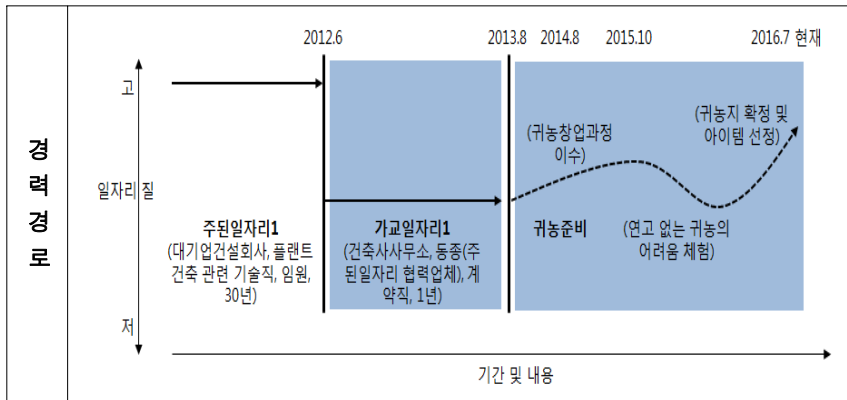
[1-남]은 대학을 졸업하고 ○○에 입사하여 동일직무로 24년을 일하다가 자재부 부장으로 55세에 정년퇴직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구 기종 재료비, 자부품 수급활동, 신/구 협력회사 육성 및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퇴직 전부터 귀농에 관심을 두고 귀농귀촌 전문학교 수강, 흙집 학교 실습, 귀농귀촌지 탐방 등 귀농을 탐색하였으나 3~5년 정도는 더 조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여 재취업을 모색하던 중, 구인구직포털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생명에서 연락을 받고, “집에서 놀기 싫어서” 보험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퇴직 후 버섯재배, 태양열발전사업, 흙집 짓기 등 귀농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조만간 귀농을 할지 또는 자녀가 유학 중인 호주로 이민을 갈지 삶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림 5-24] 사례자 [1-남] 경력경로



[66-남]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 건설 및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사원으로 입사하여 플랜트 건축 전문가로 30년간 재직하다 임원으로 정년퇴직하였다. 그는 석유화학공장, 시멘트공장 등을 건축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퇴직 후 협력업체인 ○○건축사무소에 취업하였으나 퇴직한 회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1년 만에 퇴사하였다. 그는 주된 일자리 재직 시 우연히 농촌 관련 프로젝트에 관여하면서 농촌의 주택을 그들에게 맞게 건축하는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귀농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고지 없는 귀농정착의 어려움을 실감하며 “허황된 꿈을 꾸었”다는 “좌절된 분위기”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동안 찾던 조건에 맞는 귀농지를 소개받게 되어 급속도로 귀농준비가 진행되었다. 그는 2년간 땅을 임대하였고, 내년 초에 귀농하여 감 농사를 짓다가 이후 가능성이 보이면 땅을 사서 정착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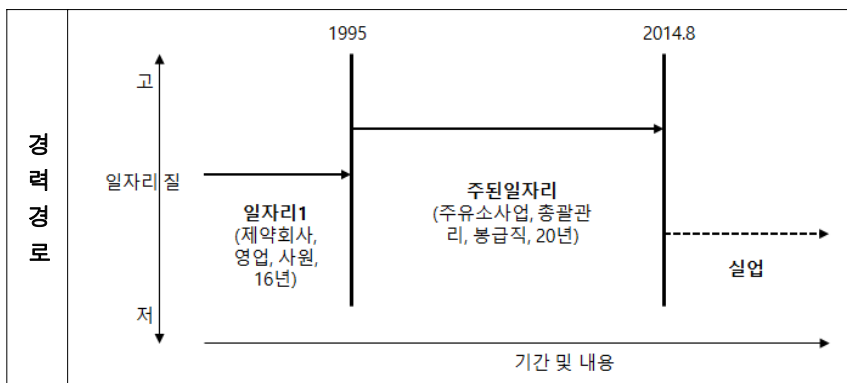
[그림 5-25] 사례자 [66-남] 경력경로



[2016-3-남]은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16년간 일하다가, 집안 아저씨의 주유소 운영 제안을 받고 이직하여 주유소 총괄관리(봉급직)를 20년간 수행하였다. 그 후 주유소를 끼고 있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주유소가 수용됨에 따라 퇴직하게 되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시골에서 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해보려는 생각도 하였으나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받아 상가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오전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집에서 보내거나 친구들과 술마시며 지내는데, 처음에는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게 지겹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그러려니” 하고 있다. 개인 불일을 볼 수 있도록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일하는 일 자리를 찾고 있는데, 마땅치 않아 그는 현재 “놀고” 있다.

[그림 5-26] 사례자 [2016-3-남] 경력경로



2.5.2. 경력전환 및 새경력 결정 이유

‘새경력준비형’은 ‘새경력시작형’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이전 경력과 다른 ‘새로운 경력’을 갖기를 ‘자발적으로’ 원하였다. 이들은 왜 자신이 경력전환을 희망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퇴직이라는 인생 사건을 맞이하여 이전과 다른 일로 제2경력을 수립해야 할 필요를 깨달아서’, ‘이전 경력에서 하던 직무를 계속하지 원치 않거나 또는 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세 가지 이유로 구분된다.

[18-남]은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고, 그래서 이를 제2경력으로 삼고 싶어서 경력전환을 원하였다. [18-남]의 어머니는 서독에 파견되어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으로서,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외국인과의 친교 및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외국인을 만나

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즐겨워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력과 별개로 영어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공부하고, 국제행사 통역 및 외국인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그는 자신이 원하고 즐겨워하는 ‘취미 활동’을 직업으로 해보고 싶은 욕구와 기대로 경력전환을 희망하였다.

한편 [27-여]와 [2016-3-남]은 이전 경력에서 하던 직무를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어서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평생을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삶을 살아온 [27-여]에게 일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해주는 도구였다. 그에게 직장은 생계 수단이었고, 그는 직장생활이 싫었지만 생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해오다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자 바로 퇴직하였다. 따라서 그는 퇴직을 “지긋지긋”하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때”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가 이전과 다른 일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그때는 이제 내 갈 길은 여긴데 돈이라는 게 묶여가지고, 아 연금 받으려니까 몇 달 더 기다려야 하고 ‘아, 정말 빨리 떠나야 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었죠.” [27-여]

“정말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특히 막판에 몇 년은 힘들었어요. 더 이상 다니기가 싫은 상태에서 억지로 억지로 그냥 정말로 죽고 싶었던 거 같아요.” [27-여]

[2016-3-남]은 20년간 운영했던 주유소가 수용되자, 경력을 살려 시골에서 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해보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높은 기름값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요즘은 주유소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 업종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남], [66-남]은 퇴직이라는 ‘인생사건’을 맞이하면서 이전과 다른 일로 ‘제2경력 수립’의 필요성을 깨닫고, 경력전환을 희망하였다. 정년퇴직한 [1-남]은 재취업해서 취업 기간을 몇 년 더 연장하기보다는, 20~30년 후를 보고 1~2년을 투자해서 “평생 밥 먹을 수 있는 제2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

는 생각에 경력전환을 희망하였다. 플랜트 건축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었던 [66-남] 또한 퇴직 후 협력업체로 재취업한 경험을 통해 플랜트 건축 분야에서 “몰려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일가견도 있고 한때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지만, 이젠 다 물려줄 때가 온 거죠. (중략) 괜히 거기서 또 집적거리고 내가 뭐 이러니저러니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66-남]

같은 분야의 일을 계속 할 경우 “나와서 다시 그쪽 일을 한다는 것은 옛날에 나왔을 때보다 더 못 하게 되는” 것이기에, 그는 플랜트 사업을 “접고” 다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5.3. 새경력 결정과정

‘새경력준비형’에 속하는 사례자들 중 [2016-3-남]을 제외한 사례자들 새로운 경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이들은 어떻게 새로운 경력을 찾고 정했을까? 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봉사활동 또는 공부로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주변 사람의 영향으로’ 새경력을 결정하였다.

[18-남]과 [27-여]는 자신의 관심사를 공부 및 봉사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새경력을 구체화한 경우이다. [18-남]의 경우 처음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었기에, 제2경력의 내용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즉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어통역, 한국어교육, 외국인 안내의 세 가지 활동을 직업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27-여] 또한 자신의 관심사를 공부를 통해 발전시켜왔다. 그의 인생관, 경력관에는 여성주의 관점이 관통하고 있다. 그의 인생은 여자라는 이유로 부모를 비롯한 가족, 사회로부터 희생을 당해온 삶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그는 지금껏 직장 일, 집안일, 공부를 병행하느라 늘 “3인분”을 살아왔다고 설명한다.

“이전에 여성주의 이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 부모조차 나를 완전히 거름으로 만들어 쓰려고, 내 인생을 썩히

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대충 알겠죠.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썩혀가지고 피어날 인생을 의도적으로 썩히는 거거든요. 내가 대학가가지고 젠더 접하고 지금까지 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맞아요.” [27-여]

이런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그는 지배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해 불행하게 살아온 여성을 위해 뭔가 사회적으로 실천적인 기여를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명감하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여성주의 커리어이론을 개발하고, 여성의 커리어를 여성주의 커리어 관점으로 사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쓰고자 하고 있다.

[66-남]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도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귀농을 새 경력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협력업체 퇴직 당시 그는 지금까지 해오던 플랜트사업을 접고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던 차에, 그는 과거 주된 일자리 재직 시 농촌 관련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졌던 농촌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떠올렸고 제2경력으로 귀농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었다. 특히 그가 ‘다른 일’을 모색할 당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여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듣고 “큰 산 앞에 있는 (나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대기업 경력, 임원 경력, 업무 관련 자격증이 ‘장애물’임을 인식하고, “과거는 다 버리”고 “다시 한 번 도전 해보자”, “(농촌으로) 가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면 성찰을 통해 그는 귀농을 제2경력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1-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제2의 직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귀농이라고 생각해서 귀농을 제2경력으로 선택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사시는 것 또한 그의 귀농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즉 그는 아버지 근처에서 황토집을 짓고 표고 원목 재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16-3-남]은 새경력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는 상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이자 좀 내고 밥 먹고살 정도는 돼”서 경제적인 절박함은 없지만, 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일을

찾고 있다. 그는 “일거리를 가지고 즐겁게” 살기 원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면 “70 아니라 80까지도 하고 싶”어 하지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모르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한 그는 더 이상 “매여”야 하는 풀타임 업무가 아니라 “내 불일”도 볼 수 있는 파트타임잡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그의 새경력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근데 직장생활을 그전같이 매여 가지고는 힘들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몇 시간씩 봐주고 내 불일도 보아야 되고, 그런 일을 찾으려니까 마땅치 않더라고요.” [2016-3-남]

2.5.4 새경력준비과정 및 소회

‘새경력준비형’에 속한 사례자들은 새경력 결정 이후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18-남]과 [1-남]은 새 경력을 일단 유예하고 재취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준비 또는 모색하였다. [18-남]은 좋아서 하던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연계하겠다는 마음으로 퇴직을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일에 대한 밑그림이 뚜렷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하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에 미래가 걱정되고 새벽에 잠이 저절로 깨질 정도로 불안을 느꼈다. 그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공사에 전동차 정비사로 취업하였고, 현재 1년째 일하는 한편, 퇴직 후 아내가 시작한 요양원 사업과 원룸 임대사업을 돕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와 동시에 제2경력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외국인 대상 통역관광가이드는 그가 “꿈꾸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방송대학에서 ○○을 공부하고 있었으나, 토익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 어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꿈이 “좀 식어지고 있”다. 반면에 이주민을 교육하는 ‘강사’로 직업을 전향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꿈이 더 강화되었다.

“그분(이주민)들이 잘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끔 길을 안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뭔가 그분

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이런 게 더 강해진 거 같아요.” [18-남]

이를 위해 그는 관련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며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있다. 즉 그는 다문화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였고, ○○대학원에 야간과정에 진학하여 현재 다문화를 전공하고 있다. 그는 경제적 안정의 토대가 되는 원룸 임대사업과 하고 싶은 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대학원 진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는 요양원 사업과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일(원룸 임대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그 일이 안정되면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직업을 이렇게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18-남]

[1-남] 또한 앞으로 3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제2경력 수립을 유예하고 재취업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퇴직 후 3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귀농을 선택하고 귀농을 준비하였다. 그는 ○○농업경영전문학교에서 7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8시간씩 수업을 들으며 귀농귀촌에 대해 공부하였고, ○○황토 흙집학교에서 흙집 짓는 것에 대해 공부하고 황토집도 지워보았다. 또한 ○○○버섯학교에서 버섯 재배에 대해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장 귀농하기보다는 3~5년은 재취업을 하고 그다음 귀농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꼭 이전에 했던 일로 재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왜냐하면 부서의 핵심리더가 된다는 것은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하보다 몰라서는 안 되고, 따라서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로는 취업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인구직포털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자 그는 “집에서 놀기 싫어서” 보험영업을 시작하여 현재 약 2년째 하고 있고, 큰 거래를 성사시켜 시작한 지 6개월만에 포상금을 받기도 하였다.

“제가 ○○농업경영전문학교라든지 황토집 짓는 거 이거 막 하면서 한 2~3개월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 잡코리아에다가 제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어요. 얼마 뒤에 ○○생명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무할 용의가 있느냐고. 그래서 삼식이 되기는 싫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1-남]

또한 선배의 요청으로 선배 회사에 주 2일씩 나가기 시작하였으나, 기업 환경의 변화로 그가 할 일이 없어져버려서 3개월 만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그는 퇴직 직후 자신에 대해 “사회에 공헌 못 한다, 인간 폐물이다, 인간쓰레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피해의식이랄까,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그의 재취업 결정은 퇴직 후 갑자기 아무 할 일이 없어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는 투자, 사업, 이민 등 다양한 각도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색하였고, 현재도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다.

“태양광발전, 버섯, 귀농, 귀촌, 그리고 이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늦어도 내년 연말 되면 확실히 쪽을 보려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근데 지금은 계속 스케치하고만 있어요, 사실은.” [18-남]

그는 2년 후에는 보험영업을 정리하고, 다른 업으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매각될 예정인 2017년 말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방향과 살 곳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후년이 돼서 저도 방향성이 철저해야 하니까, 뭐 태양광이 되든 아니면 황토집이든 아니면 뭐 버섯 재배든 과수원이든 뭔가 방향 설정해서 인생 이모작에서 사모작이 돼서 확실히 방향성이 철저했으면 싶어요.” [18-남]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그의 퇴직 전 삶은 “아침 먹으면 수저 놓자마자 옷을 빨리 갈

아침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일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소주 한잔 먹고 콧노래 불러가며 별님 달님 보면서 집에 오는” 삶이라고 표현할 만큼 일이 전부를 차지하는 삶이었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를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이 없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였고, “내가 누구에게 필요하다든 것 자체가 보람”이라고 할 정도로 일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았으며, 따라서 퇴직 후 일이 없는 자신을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인간”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견딜 수 없”어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앞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귀농 등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일이 없는 것’을 못 견뎌 재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66-남]은 귀농을 제2경력으로 결정한 후, 본격적인 귀농 준비와 계획에 들어갔다. 그는 1년간 ‘○○○농업기술원의 귀농귀촌교육’, ‘도시민을 위한 현장체험형 귀농창업과정’ 등 관련 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전국을 다니면서 귀농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농촌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으며 계속해서 그 답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농촌에 연고지가 없이 귀농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귀농창업 교육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귀농을 구상하던 계획도 멤버들의 이탈로 결국 무산되면서 큰 실망에 빠지고 “못 가겠구나”라고 “완전히 다 내려놓”는 상황에 이르렀다.

“굉장히 그랬죠.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 역시 연고지가 없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예를 들면 내 고향이 있었다면 고향을 찾아가거나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골로 내려간다는 것이 무망했었구나. 허황된 꿈을 꿔었구나.’ (...) 좀 좌절된 분위기였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귀농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재작년 가을에도 마찬가지였고. 고민이었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 분당에서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66-남]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그동안 찾던 조건에 맞는 귀농지를 소개받게 되

있고, 이후 귀농 계획의 현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는 2017년 초에 귀농하여 감농사를 짓기로 하고 땅을 2년간 임대하였다. 즉, “2년 동안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농사를 짓다가” 이후 가능성이 보이면 정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단 2년을 전제로 하려고 합니다. 2년 후에 나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2년간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아마 1년 해보면, ‘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옆에 땅을 사서 그게 지금 임대잖아요. 그 옆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정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년 1년에 결정이 나겠죠.” [66-남]

한편 귀농에 대한 그의 개념은 그사이 달라지게 되었다. 귀농을 생각하던 초기에 그는 경력전문성을 가지고 농촌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귀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당시에 건방졌”다면서, 귀농의 현실을 깨닫게 된 현재는 “거품이 사라지고” “허화망상을 다 버리”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 당시는 좀 건방졌었죠. (웃음) 생각해보면 아직 회사의 끝물이 남아 있어서 뭔가 될 줄 알고, 자꾸 되는 방향으로 큰 테두리에 놓고 하는 건방진 이야기였고, 그런데 (회사) 나온 지 3~4년 되니까 그런 거품이 사라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6-남]

“첫해는 아직 회사 물이 다 빠지지 않았을 때이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과거에 했던 것에 젖어서 나도 뭔가 새롭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아직도 비판 의식도 사라지지 않아서 내 전공으로 봤을 때, 그때 농촌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을 골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촌에 들어가면 내 전문 지식으로 내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같이하게 되면 꽤나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때가.” [66-남]

“이제는 옛날 같은 허화망상 다 버리고 실질적으로 ‘아, 가면 어떻게 살까? 그리고 어떻게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러면 가면 뭘 하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66-남]

그는 현재 “감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감 농사를 발효사업으로 연결시켜 전통주 기술 습득을 위해 전통주 주조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발효를 매개로 빵을 만들기 위해 제빵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거기 감 농장인데 감을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할까. 그런 면에서 공부하려 하고 보니까 술이 식초가 되는 거더군요요. 술을 공부해야 한다. 술을 하려고 보니까 발효를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발효학. 그다음에 전통주 막걸리 만드는 법. 식초하는 법(을) 쪽 공부하고 있고.” [66-남]

[27-여]에게 퇴직은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을 의미하고, 그는 지배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해 불행하게 살아온 여성을 위해 뭔가 사회적으로 실천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여성주의 커리어이론을 개발하고, 여성의 커리어를 여성주의 커리어 관점으로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쓰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가 퇴직 후 여성주의 커리어를 주제로 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고, 여성주의 커리어 강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여성주의 커리어로) 갔어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좀 잘 나오고 대안은 ‘아! 이 길로 가면 우리 여자들도 행복하겠네!’라는 모델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27-여]

2.6. 은퇴형의 경력경로

2.6.1. 사례자의 경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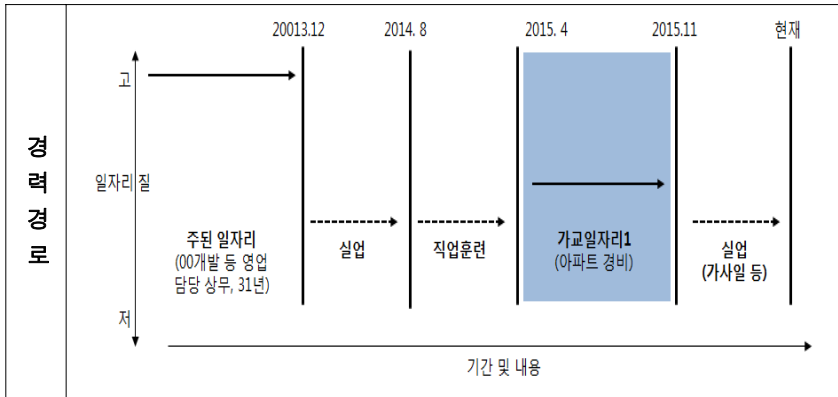
은퇴형은 주된 일자리에서 충분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퇴직 후에는 ‘돈벌이’로서의 노동보다는 취미생활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살고자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본연구에서는 [61-남], [65-남] 2명의 사례자가 은퇴형에 해당된다. 이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5-29〉 은퇴형 베이비부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 ID | 나이 | 성별 | 학력 | 가족관계 |
|--------|----|----|----|---|
| [61-남] | 59 | 남 | 대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51세), 교사 • 딸(23세), 대학생, 부양 • 아들(18세), 고등학생, 부양 |
| [65-남] | 60 | 남 | 대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58세), 커피숍 창업, 부양 • 딸(29세), 회사원, 부양 |

[61-남]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는 대학에서 ○○를 전공하고, 증권회사에서 27년 동안 지점영업, 법인영업을 해왔고, 펀드매니저,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마지막 4년 동안 지역 사업본부장(경영임원)으로 일하였다. 그는 퇴직 당시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었으며 “적어도 1~2년은 무조건 쉴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2년 반이 지난 2차 본조사 시점에도 여전히 앞으로 재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오히려 그의 퇴직 당시 주요 관심은 “어떻게 하면 (퇴직 후) 시간을 잘 보낼까?”였고, 2차 본조사 시점에도 “그동안 못 놀았으니 열심히 잘 놀자는 것이 삶의 취지”라면서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사는” 삶을 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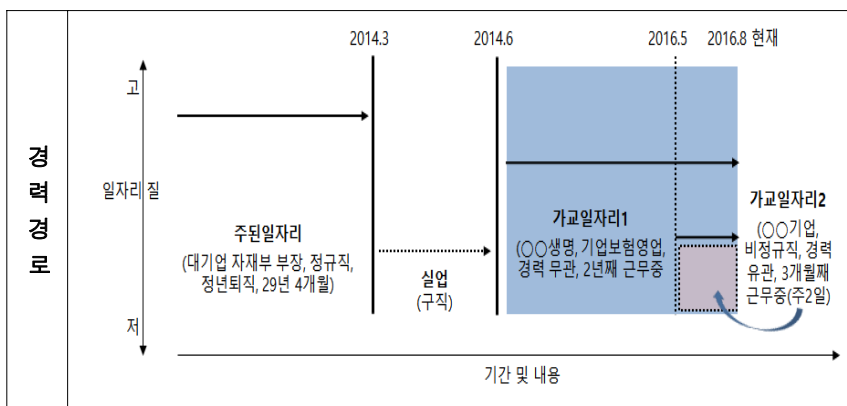
[그림 5-27] 사례자 [61-남] 경력경로



한편 [65-남]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는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직후부터 27년 동안 한 건설회사(업계순위 25위)에서 일해왔다. 그는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토목기술자로 일하면서 계속 승진해오다가, 마지막 7년간 영업담당 상무로 일했고, 임원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직하였다. 이후 다른 건설회사(업계순위 61위)에서 4년간 영업담당 전무로 일했으나 대형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자신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크게 아프면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 이후 고용센터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로 취업하였으나, 부인이 커피숍을 창업하면서 집안이 엉망이 되어 7개월 만에 퇴직하고 현재는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65-남]은 퇴직 당시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때는 돈을 받기 때문에 싫은 일도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해야 하는 일’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반복해서 언급하였고, 이러한 마음은 2차 본조사 때도 지속되었다.

[그림 5-28] 사례자 [65-남] 경력경로



2.6.2. 재취업을 원치 않는 이유 및 배경

[61-남]과 [65-남]이 재취업을 원치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된 일자리에서 충분히 힘들게 일했기 때문이다. [61-남]은 주된 일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게 일해왔”고 “너무 타이트하게” 지냈기 때문에 동종 분야에서 더 이상 일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65-남]도 영업상무로 일하면서 “수주를 따와야 되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전전공공해서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과거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61-남]과 [65-남]이 둘 다 주된 일자리에서 임원까지 했다는 것 또한 이들이 재취업을 원치 않는 이유에 영향을 미친다. 즉 승진의 정점인 임원까지 올라가서 치열하게 일해보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적다. [61-남]의 “그동안 (일하느라) 못 놀았으니 재미있게 잘 놀자는 것이 삶의 취지”라는 발언이나, [65-남]의 “임원까지 해봤으면 나름 경쟁에서 성공한 것”이고 “성공도 해봤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발언이 바로 이런 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61-남]과 [65-남]이 재취업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데에는 주된 일자리 재직 시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61-남]은 약 40억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배우자가 교사로 재직 중이어서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65-남]은 2차 본조사 당시, 15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즉시연금, 보험연금, 주식배당금 등으로 3천8백만 원의 가구소득(1년)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는 이들의 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2.6.3. 몰두하는 활동

은퇴형에 속한 사례자들은 취업 대신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 원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기 원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61-남]은 동창 및 전 직장 동료들과 골프 모임을 자주 갖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교활동이자, 삶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자, 즐거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취미활동을 확장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취업보다는 좀 취미생활을 다원화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어떤 비즈니스 쪽보다는 골프도 하고 골프도 골프지만, 뭐 또 공방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 가입을 한다든지 내가 좋아 하는 음악커뮤니티에 가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61-남]

[65-남]은 ‘가장 역할’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삼고 있다. 그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자신의 삶에 대해 “그동안 너무 가장이라는 것에 매여 살았”고, “너무 가족에게 얽매어 있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으며, 그래서 “앞으로는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가장’이나 ‘아버지’를 먼저 언급하는 다른 사례자들과는 달리, ‘나 자신’을 첫 번째로 언급할 정도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희망하였다. 이후 2년 동안 그는 이러한 희망을 실행해왔다. 전 직장 동료들과 네팔 여행을 다녀오기, 자전거 타기, 걷기, 책 읽기 등 가장으로서 ‘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이런 삶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제3절 소결

본 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3~5년 정도 경과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이들의 경력경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달라졌는지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퇴직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사 유무, 실제 재취업 여부, 재취업 시 하기 원하는 직무, 실제 재취업 시 수행하는 직무라는 4개 요소를 기준으로 연구참가자의 퇴직 후 경력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경력경로를 ‘경력연계형’, ‘경력무관형’, ‘새경력시작형’, ‘새경력준비형’, ‘취업포기형’, ‘은퇴형’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의 인적사항, 경력경로, 경력경로에 영향 미친 요소, 취업한 또는 새롭게 시작한 일자리 실태, 경력경로에 대한 만족도 및 소회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퇴직한 베이비부머는 모두가 같은 동일집단이 아니며, 다양성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즉 퇴직한 베이비부머는 재취업에 대한 인식 및 희망 직무가 서로 다르고, 실제로 퇴직 후 전개되는 경력경로도 매우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중 대다수는 자신이 평생 해온 직무와 같거나 유사한 직무를 활용하여 취업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직무로 취업하거나 또는 취업이 안 되어서, 이전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로 취업하거나 혹은 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경력 연계 일자리로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는 흔히 알려진 대로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한 직무, 퇴직한 기업의 규모 등이 경력연계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부머 퇴직자 중에는 기존 경력을 더 이상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업종과 직무에 대해 완전 ‘신참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서비스는 다른 유형이 필요로 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이들 중에는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한 경우도 있고, 단지 과거에 했던 일이 싫어 다른 것을 막연하게 찾는 사람도 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한 경우에도 그 일에 진입하고 시작하는 방법과

구직 실마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막상 원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의 실체가 기대한 것과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이전 경력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 ‘새경력시작형’과 ‘새경력준비형’에 대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돈벌이’로서의 노동을 지양하고 자신이 원하고 즐기는 활동을 하기 원하는 ‘은퇴형’은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자로 최적화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 업종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조직의 실무 및 관리 총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돈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그리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일했던 직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컨설팅해주는 일을 제2경력으로 수립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 베이비부머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같은 직무 또는 같은 업종에서 오랫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례도 있지만, 경력 단절과 잦은 이/전직을 경험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사례도 있다. 이들의 경력 패턴은 남성들의 경력과 전혀 다르고, 퇴직 후 재취업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경력경로상에서의 일의 의미와 인식 · 감정 · 행동 변화

제1절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변화 양상 유형

본 절의 목적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이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 경력 경로상에서 ‘일의 의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식 · 감정 ·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된 일자리 일의 의미를 비롯하여 2014년 1차년도에 조사된 일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선행연구(제2장) 중 ‘중고령자의 욕구와 일의 의미’에 관한 분석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을 크게 ‘성장욕구형’과 ‘결핍욕구형’으로 1차 유형화했다. 성장욕구형(growth needs)은 일의 동기에 있어서 매슬로의 욕구 5~7단계와 앨더퍼가 재상정한 성장욕구의 특성을 주로 가진 유형이다. 결핍욕구형(deficiency needs)은 매슬로의 욕구 1~4단계와 앨더퍼의 존재욕구, 관계욕구의 특성을 주로 보이는 유형이다. 그다음 본 절의 초점이 경력경로를 계속 걷고 있는 대상이며 주제의 특성상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

된다는 판단하에, 당해 2016년에 인터뷰해 사례별 1차 분석한 결과를 검토하여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벗어나 있거나, 재진입을 포기했거나, 의미 있는 변화 및 논의점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대부분이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지 2~3년 정도인 가운데, 일의 의미 차원에서 좌절-퇴행(frustration-regression)(Alderfer, 1972)의 특성을 보이는 사례의 수가 적지 않은 바, 연구자는 경력경로상에 위치하면서 대표할 만한 사례([02-남], [40-남])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제외와 선택의 과정을 통해 총 10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경력경로상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의 변화라는 차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참여자들 간 수렴되는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여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화과정 속에서 수렴된 그들의 공통점이 갖는 의미를 대변할 수 있는 명명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성장욕구형 베이비부머들은 그 변화 특성에 따라 ‘자아실현형’, ‘균형분투형’, ‘자유추구형’, ‘원점회귀형’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존 결핍욕구형 베이비부머들은 ‘자아확장형’, ‘개조전환형’, ‘생계하락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표 6-1〉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 변화에 따른 유형

| 1차 유형 | 변화 유형 | 변화의 중심 특성 | 연구참여자 |
|---|---------|--------------------------|------------------|
| 1) 성장욕구형 (매슬로의 욕구 5~7단계/앨더퍼의 성장욕구) | ① 자아실현형 | 자아실현의 지속·성장 | [2016-3-남] |
| | ② 균형분투형 | 경제적 위기감 인지 | [12-남] [18-남] |
| | ③ 자유추구형 | 일의 통제권 및 여유 강조 | [03-남] |
| | ④ 원점출발형 | 새로운 시작, but 보람 없음 | [30-남] |
| 2) 결핍욕구형 (매슬로의 욕구 1~4단계/앨더퍼의 존재, 관계욕구) | ⑤ 자아확장형 | 일의 즐거움 발견 | [23-남] |
| | ⑥ 개조전환형 | 영성의 추구와 비움 새로운 목표와 희망 | [39-남] [47-남] |
| | ⑦ 생계하락형 | 좌절과 퇴행(for just money) | [02-남] [40-남] |

〈표 6-2〉 연구대상자 기본정보(2016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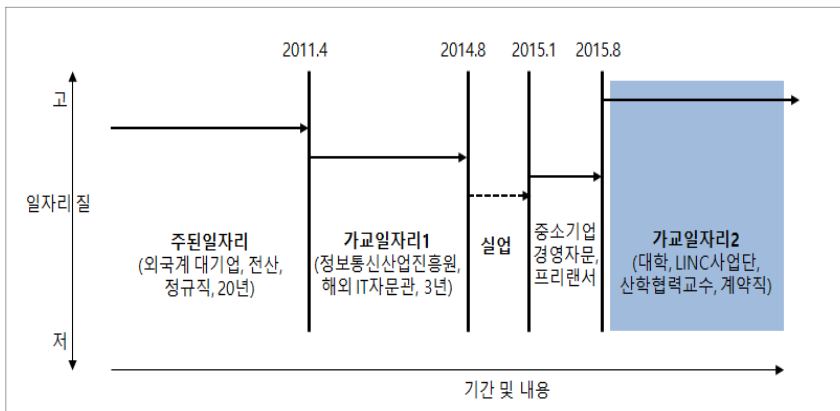
| ID | 연령 | 학력 | 가족배경 | 순자산(부동산, 현금 등) | 변화유형 |
|----------|----|----------|--|--------------------|-------|
| 2016-3-남 | 56 | 대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친(동거, 부양O) · 모친(동거, 부양O) · 배우자(동거, 부양X) · 자녀1(동거, 부양O) · 자녀2(동거, 부양O) | 가구연간소득 8천만 원 | 자아실현형 |
| 12-남 | 53 | 대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동거, 부양O) · 자녀1(동거, 부양X) · 자녀2(동거, 부양O) | 6억 | 균형분투형 |
| 18-남 | 54 | 전문 대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친(별거, 부양X) · 장모(동거, 부양O) · 배우자(동거, 부양X) · 자녀1(동거, 부양O) · 자녀2(별거, 부양X) | 7억 | |
| 03-남 | 61 | 대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동거, 부양O) · 자녀1(동거, 부양X) | 10억 | 자유추구형 |
| 30-남 | 59 | 대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친(동거, 부양O) · 모친(동거, 부양O) · 배우자(별거, 부양O) · 자녀1(별거, 부양X) · 자녀2(별거, 부양O) | 가구연간소득 7천만 원 | 원점출발형 |
| 23-남 | 57 | 고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동거, 부양O) · 자녀1(동거, 부양O) · 자녀2(별거, 부양X) | 10억 | 자아확장형 |
| 39-남 | 55 | 고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동거, 부양O) · 자녀1(별거, 부양X) · 자녀2(동거, 부양O) | 6억 | 개조전환형 |
| 47-남 | 60 | 고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동거, 부양X) · 자녀1(동거, 부양X) | 가구연간소득 4천 7백만 원 | |
| 02-남 | 53 | 대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친(별거, 부양X) · 모친(별거, 부양X) · 배우자(동거, 부양O) · 자녀1(동거, 부양O) · 자녀2(동거, 부양O) | 2억 | 생계하락형 |
| 40-남 | 56 | 대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동거, 부양O) · 자녀1(동거, 부양X) · 자녀2(동거, 부양O) | 5억 5천만 원 | |

1.1. 성장욕구형 베이비부머의 변화와 그 맥락

1.1.1. 자아실현형: 준비된 퇴직과 자아 확장

사례자 [2016-3-남]은 퇴직 2~3년 전부터 퇴직 이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착실한 배움과 관계 넓힘을 통해 퇴직 후의 경력을 준비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는 애초에 스스로가 자기 삶을 조망하며 주체적으로 구성해나간 차원이 아닌, 예상하지 못했던 조직의 구조적 위기를 미리 알게 된 ‘행운 아닌 행운’으로 실직에 대한 위기감을 강도 높게 지각했기 때문이다.

[그림 6-1] [2016-3-남]의 경력경로



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

대학에서 컴퓨터전산통계를 전공하고 미국계 대기업 전산분야에서 개발자, 개발팀장, 데이터센터장으로 성공적인 발걸음을 이어가던 중, 2008년 9월경 미국 서브프라임(금융위기)으로 모(母)그룹이 타격을 받아 주된 계열사들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한국에 진출해있던 사례자의 직장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TV를 통해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다 위험하다”는 뉴스를 보게 된 사례자는 “뒤통수

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회사가 철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직장을 잃을 텐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다른 데에 재취업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당시 연령이 48세였는데, 스카우트 되지 않는 이상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큰 충격은 그동안 해당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회사가 세계적으로 크고 탄탄한 기업인데다 한국에서도 “잘나갔”기 때문에 정년까지 무리없이 갈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계발에 굉장히 등한시했다”고 한다.

나. 자기 돌아봄, 목표수립, 배움도전과 성취

정년까지 물 흐르듯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40대 후반에 곧 실직할 수 있다는 현실자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례자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언젠가는 회사를 직장을 그만둘텐데 그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퇴직 후의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취업보다는 전문컨설팅을 하기로 확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먼저 국제자격증인 정보시스템관리사(CISA)를 취득하기 위해 토요일에 아침부터 도서관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해 시험을 보았다. 그리고 합격을 하여 자신감이 생겼다 한다. 그래서 다음 6개월 후에는 정보보안관리자 자격(CISM)을 도전해 취득하고, 뒤이어 정보시스템리스크관리자 자격(CRISC)을 차례로 취득해가다 보니 2011년 4월에 명예퇴직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한다. 미국발 위기를 “견디다 견디다” 그 2년 후에 “제일 오래된 사람순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사례자는 재직하던 “제일 오래됐고” 연봉도 높아서 퇴직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로 예상해온 바, 별 고민이나 심적 어려움 없이 “제일 먼저 신청”하여 결국 51세의 나이에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게 된다.

다. 우연이나 준비된 기회와 자신감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지 4개월 후에 해외IT자문관으로 선발된다. 사례자의 표현으로는 “아주 운이 좋”았다고 한다. CISA 등의 국제자격증을 가지고 국내 모 협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던 중에 학회부회장인 교수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나 이제 퇴직해요. 자격증 가지고 나 이제 컨설팅할 거예요”라고 말하

니까 교수가 웃더라 한다. 그 이유는 컨설팅이라는 일이 자격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박사학위는 가져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사례자가 “컨설팅 일을 배울 수 있다면 한동안은 급여를 안 주더라도 가서 일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더니, 교수가 신문에 난 해외자문단 모집광고를 보여주면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라고 권했다고 한다. 이에 사례자는 지원을 하여 약 3개월간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과하고 건강검진과 교육을 받고 출국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심이 깊은 사례자는 이 일이 자신을 위해 “너무 기가 막히게” “딱딱” 준 비된 것 같다고 했다. 왜냐하면 퇴직 전 10년간 데이터센터 센터장을 역임했었는데, 마침 해당 국가에서 데이터센터 전문가 1인을 선발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고” 지원서를 쓰거나 인터뷰를 할 때도 자신을 위한 것 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다.

라. “아직 젊” 다는 인식, 일거리의 탐색과 배움의 지속

해외IT자문관으로 3년의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당장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어서 6개월간 쉬었다. 그러나 당시 차남이 아직 대학교 1학년생으로 “이 녀석이 좀 클 때까지는 계속 수입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자신은 “아직 젊”다는 인식이 있어서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전경련, KBS연수원 주관 등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아는 사람의 제안이 있어 6개월간 프리랜서로 중소기업 컨설팅 및 경영자문 일을 했다.

마. 산학협력교수로서의 새 출발

2015년 6월, 비즈니스선교(비즈니스를 갖고 선교활동을 하는 것)와 관련한 콘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컨설팅관계로 사례자가 자문을 제공했던 인도 선교사가 주강사로 참석하여 만나게 되었다. 이 선교사가 산학협력교수를 구하고 있던 000대학 LINC사업단 단장에게 사례자를 소개하여 산학협력교수로 일하게 된다. LINC는 교육부 주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말한다. 처음에 의뢰받았을 때, 학위가 없는데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이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코디네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LINC 사업의 주요내용은 산업체와 학교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거나, 산업체 또는 지역산업체를 도와주거나, 학교가 산업체의 실제 문제를 수업으로 가져와 학생들과 프로젝트 수업(Capston Design)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례자의 역할은 한마디로 이러한 산업체와 학교 간의 “코디네이터”인 셈이다. 해당 대학이 지역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OT(Internet of things) 특성화, 글로벌라이징으로 사업수주를 했고 그동안 해외선교사들과 네트워킹을 가지며 선교역할을 해온 맥락으로 IT컨설팅, 자문, 해외경험이 있는 자신에게 ‘적절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바. 일의 의미 변화: 생계에서 만족과 보람으로

사례자는 가족배경의 차원에서 소위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전형으로 보인다. 다만 배우자(54세, 보험설계사) 역시 직업인으로서 소득을 함께 창출해왔다는 점에서 전업주부 배우자를 두어온 여타 베이비부머들에 비해 경제적 고민이나 걱정은 엇볼 수 없었다. 그는 부친(85세), 모친(80세), 두 아들(27, 21세)의 경제적 부양을 담당하는 생계부양자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지녀왔다. 세부적으로 부모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봉양의 책임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장남으로서, 아직 미혼 대학생인 자녀들에 있어서는 주된 경제적 책임을 요구받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왔다. 그러나 그런 부양의 역할을 요구받지 않는 풍족한 환경일지라도 사례자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무언가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한다. 한편 현재 경제적 상태로 자가 주택을 소유 중이고, 가구연간소득은 사례자와 배우자 수입을 합해 8천만 원 정도이며, 별도 수입원으로 월세 50만 원이 있다. 이러한 가족배경과 경제적 현황 가운데 사례자가 인식하는 퇴직 전후 일의 의미는 더욱 차원 높은 방향으로 이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6-3〉 [2016-3-남]의 일의 의미 변화

| 구분 | 주된 일자리에서의 일 |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일 |
|-------|---|---|
| 일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고살기 위”한 일 •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서 하는 것 • 자기 “만족”하고 “보람” 있는 일 •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는 일 |
| 주요활동 | 외국계 대기업 전산 부문(개발자, 개발팀장, 데이터센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IT 자문관(신교활동 병행) • 중소기업 경영자문(프리랜서) • 대학 LINC 사업단 산학협력교수 |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기 전에는 일을 “먹고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되고 퇴직 후에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퇴직 전의 직장생활은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가 표현하길 “제2의 삶”은 “가졌던 것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한다. 즉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삶에서 일이란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자기한테 만족을 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자문관 생활은 수당을 받고 가진 했지만 재능도 기부하고 보람도 느끼는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했다고 하며, 귀국 후에 컨설팅을 하고자 한 것도 자유롭고 전문적인 일이기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이었음을 설명했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중략) 일, 보람, 일이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일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할 때는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면, 제2의 삶은 제가 가졌던 것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해외자문관 생활을 함으로써 돈을 받고 가지만 volunteer같이 그런 거거든요. 자원봉사 이런 성격이 깊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 이건 나하고 코드가 맞구나 재능도 기부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도 자유로운 직업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은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후반기 인생에서의 일은 그런 자기한테 만족 주고 보람을 느끼고 하

면 수익의 많고 적고는 (안 들림OOOOO)같아요. 그게 일인 것 같아요.” [2016-2-남]

사. 과거 구조적 위기에 대한 현재의 긍정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은 당시 사례자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현재 사례자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 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는 있었겠지만 퇴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각성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회사 밖 커뮤니티활동도 하게 되었다. 아니었다면 하던 대로 집과 직장만 오가고 다른 업종의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바깥의 생활”을 몰랐을 것이라 한다. 자격증 공부를 위해 다닌 학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협회활동을 하면서 “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고나. 직업군이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 직장을 나와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과 희망,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아. 영성 있는 일의 보람과 지속 의지

사례자 [2016-3]은 인터뷰 내내 본인은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며, 그런 신앙인의 영성으로서 배우고 관계 맺고 일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여건이지만, 영성으로 하는 일의 의미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만을 위한 저차원의 의미일 수만은 없음을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실제 IT자문관으로 해외에 갔을 때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派送)되어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현지 선교사들과 재래시장에서 “버려지다시피 관리되지 않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 씻기고 찬송하고 같이 말씀 전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좀 더 공부해서 “비즈니스선교로 섬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다짐으로 OO외교통상선교회 회장도 맡고 해외자문관으로 다녀온 사람들과 ‘해외전문가포럼’를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교제하고 경험을 나누고 있다 한다(종교생활 만족도 10점). 나아가 10년 후에도 “뭔가 내 역할을 하는 사람”, 사례자의 신앙적 표현으로 “그분께서 나를 쓰는 도구로 계속 쓰임받고 싶”으

며 그 일이 “귀하고 천하고”는 관계없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일하는 모습을 행복한 미래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었다.

“10년 후에도 뭔가 내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비즈니스선교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 일을 하던지, 그분께서 나를 쓰는 도구로 계속 쓰임받고 싶어요. 그것이 귀하고 천하고 관계없이 그분이 쓰시면 그 역할을 나는 만족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2016-2-남]

1.1.2. 균형분투형: 자아실현과 생계의 퍼즐 맞추기

경력경로상 성장욕구를 충족시키며 걸어왔으나 퇴직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퇴직한 사례자 [12-남]과 [18-남]은 1차 본조사 이래 각각 “혼돈”과 “불안”의 감정을 크게 느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퇴직 후 제2의 삶은 가족에 대한 의무와 기여를 넘어 자기실현의 지속을 통한 나눔과 성장의 삶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당면한 여러 측면의 현실 여건과 미래의 불확실함은 가정경제에의 기여와 자아실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난 2년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요구되는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졸업할 수 없었음을, 장기전이 된 미래의 불확실성은 일에 있어 경제적 의미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습관처럼 발현되어온 성장에의 욕구는 쉽게 꺼뜨릴 수 있거나 유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한 욕구가 포기되거나 유보된다는 것은 그동안 맛보아서 알고 있는 고차원의 행복감을 포기하거나 유보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과 같기에, 자아실현의 지속과 경제적 문제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분투해온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 [12-남]: 바다수영의 분투와 혼돈, 그리고 고민

먼저 사례자 [12-남](53세, 대졸)은 2014년 본조사 당시, 일의 의미를 ‘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어려움을 겪는 타인을 위하는 일이라서 하고 싶은 보람된 활동’으로 말한 바 있다. 1년

후인 2015년 부가조사에서는 ‘자아실현’, ‘가치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구’라는 의미에 덧붙여 ‘여전히 가정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당해 조사에서는 ‘하고 싶고 재미있는 것’,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 ‘자신이 시간 관리자’라는 고차원적인 일의 의미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일은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표 6-4〉 [12-남]의 일의 의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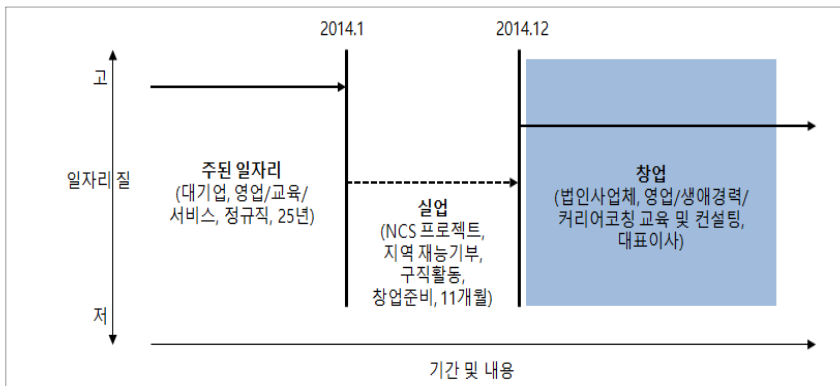
| 구분 | 2014년 조사 | 2015년 조사 | 2016년 조사 |
|-------|---|---|---|
| 일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 어려움을 겪는 타인을 위한 일이라서 하고 싶은 보람 된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실현 • 시간 관리의 자유 • 가치의 지속적 발굴과 추구 • 여전히 가정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경제적 수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고 재미있는 것 •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 • 자신이 시간관리자 •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 <p style="text-align: right;">*변화/강조지점</p> |
| 주요활동 | NCS프로젝트 지역 재능기부 | 교육·컨설팅사업 NCS 관련 활동 | 교육·컨설팅사업 NCS 관련 활동 |

[12-남]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재직 중 교육대학원 졸업)하고, 외국계 대기업 영업,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여러 직책을 담당하며 25년간 성공적으로 걸어갔다 임원 승진 직후 부서가 통폐합되는 구조조정이 있던 중에 퇴직권고를 받아 퇴직한 사례자이다. 예상보다 이르고 임원들 가운데 혼자 퇴직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퇴직 사나흘 만에 할 일을 찾아나서 NCS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지역 재능기부활동을 하며 근면하고 보람찬 일상을 이어갔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사례자가 인식하기에 ‘나이’, ‘희망연봉(7천만~8천만 원으로 기재)’, ‘단일경력’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지 11개월 만에 본인의 경험 및 능력과 무관하지 않은 교육 컨설팅 업체를 창업(법인사무실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교육 및 컨설팅 분야는 영업교육(커뮤니케이션, 질문기법, 변화혁신)과 생애경력 코칭이다. 창업을 결심하기까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아

질문과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와서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것에서 떠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한편으로 소중한 깨달음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일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70~80대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다, 주변에서 교육에 대해 원하는 바가 있어서 교육업체 창업을 선택했다 한다. 아울러 이 일은 사례자의 신앙과도 관련된 일임을 언급하였다.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제2의 인생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아 질문을 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근데 지금 보면 나와서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것에서 떠날 수는 없으니까. 경제적인 것에 기반이 갖춰졌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을 벌면서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 소중한 걸 깨달은 것은 일은 계속해야 한다.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도 일은 해야 되는데, 앞으로 70대 80대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권해서 이쪽으로 턴을 했고 이 일은 신앙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12-남]

[그림 6-2] [12-남]의 경력경로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일과 삶은 만만하지 않았다. 2015년 부가조사 시 그의 이전 직업(주된 일자리) 만족도는 8점에서 9점으로 1점 상승했고, 현재 직업(교육사업) 만족도는 7점으로 이전 직업보다 2점 낮았다. 이에 대해 그는 “나와 보니까” 즉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조직의 울타리”가 큰 것이었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서 창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현재의 삶은 “야생의 세계”로 비유되었다. 조직생활을 할 때는 그 안에서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라 할 수 있고, 조직 밖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파도가 넘실대는 망망대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퇴직 전에는 그런 실내수영장에서 몇 바퀴씩 돌았었다면, 바다에서는 20~30미터 전진도 쉽지 않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조직 안에서 배웠던 것이 실제 활용도가 적고, 크고 작은 많은 부분(이를테면 전표 끊는 행정업무부터 고정비 줄이는 일, 워드와 파워포인트 작업 등)을 새로 배우거나 직접 하는 가운데 다른 전문가들과 경쟁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나와 보니까 조직의 울타리가 크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는 완전히 야생의 세계잖아요. (중략)보호받는 구역에서 야생의 세계로, 아 옛날 직장이 훨씬 더 좋았구나. (중략) 내가 비유해서 이야기 하면 조직생활을 하는 건 조직 내에서는 힘들기는 하지만 내부에서 생활하잖아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고, 요즘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하다 보니까 바다 수영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실내수영하고 바다 수영의 차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중략) 실내수영장에서 몇 바퀴 도는 사람이 바다 수영을 하면 20~30미터 가기도 쉽지 않을 걸요 파도 때문에.” [12-남]

경제적 여건의 만족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편으로, 2015년에 6점에서 5점으로 1점 하락했다. 관련하여 2014년에는 퇴직금의 여유가 있었지만 2015년에는 법인사무실 마련과 더불어 여유가 줄었고, 가계소비지출 규모를 줄여보려 해도 배우자가 필수 월생활비로 4백만 원을 요구한다 하며,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현금자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진다고 했다. 그렇다고 활동의 반경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활동과 그에 따른 관계 맺음의 폭은 확장되어 있었다. 그는 기업 대상(B2B)의 교육뿐만 아니라 ○○○국

공인자격 SMAT전문교육원장, NCS심의위원 겸 과정개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었고, 앞으로 산학협력교수로서 그 입지 및 활동영역을 넓혀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한 “돈 이외의 가치 있는 일”이 하고 싶어서 소상공인○○공단을 통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재능기부, ‘지역 사회 소사이어티 SNS마케팅 소셜마케팅’ 교육 등 지역사회 활동도 왕성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는 편이나 집에 필요한 생활비를 일정 액수 갖다 주어야 하고 자아실현도 해야 해서 “혼돈 상태”이며 “퍼즐을 맞추려”는 형편이라 했다.

“균형이 아니라 혼돈 혼돈 상태지. 돈도 벌어야 돼야 되지, 자아 실현도 해야 되지. (중략) 퍼즐을 맞추려고 해요.” [12-남]

2016년에 조사된 이전 직업(주된 일자리) 만족도는 1점 더 높아져 10점이 되었다. 놀랍게도 고작 1년 만에 그는 사업을 그만두고 조직에 들어갈까(재취업을 의미함) 말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2015년 소득도 불만족스러웠는데 그마저 8백만 원 감소했다. 참고로 주된 일자리 퇴직 직전인 2013년 사례자의 연봉규모는 1억 4천만 원이었다. 퇴직 직후인 2014년에는 NCS프로젝트 참여로 1천만 원, 2015년에는 새로 시작한 교육·컨설팅사업을 통해 2천8백만 원을 벌었지만, 2016년에는 8백만 원 감소한 2천만 원의 소득이었다. 결과적으로 소득규모가 1/7이 줄어든 셈이다.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실비보험 등은 잘 납입 중이긴 하나, 급여생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서 내고 있는 지역의료보험료가 다소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표 6-5> [12-남]의 소득 변화 추이

| 구분 | 연별 변화사항(단위: 만 원) | | | | | | |
|-------------|------------------|--------------|------|------|-----------|-------|-------|
| | 2013 | 2014 (퇴직) | 2015 | 2016 | 16-13 | 16-14 | 16-15 |
| 가구연간 소득 | 1억 4천 | 1천 | 2천8백 | 2천 | -1억 2천 | +1천 | -8백 |
| 연구참여자 소득 | 1억 4천 | 1천 | 2천8백 | 2천 | -1억 2천 | +1천 | -8백 |

연구참여자의 소득이 곧 가구연간소득이라는 점은 여전히 사례자가 주된 생계부양자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부양하던 모친이 2015년에 별세하고 대학생이던 장녀(25세)가 원하는 아나운서(프리랜서)를 시작하긴 하였으나, 사례자가 표현하길 아직은 “반부양” 상태이다. 전업주부인 배우자(52세)는 여전히 사례자에게 필수생활비로 월 4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며, 차남(23세)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하여 사례자의 부양대상이 되었다. 배우자가 말하는 필수생활비의 주요 항목에는 보험과 연금 관련한 비용이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 줄인다고 줄여도 많이 줄이기는 어렵다 한다. 소득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소비는 줄일 수 있는 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12-남]은 최근 1년간 NCS 표준/과정 개발 FT(Facilitator) 인증을 받고, ○○○공단 신직업자격개발/보완 FT 및 전문가, ○○○신문 금융 NCS협의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 및 지위를 얻어갔다. 지역사회 활동 측면에서도 소사이어티 SNS마케팅 소셜마케팅 수석부회장, 지역 국회위원 선대위원회 위원이라는 지위 및 새로운 역할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어가는데도 소득수준이 급감하여 회복의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스럽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맥락으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사례자의 인식과 해당 직업분야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12-남]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이 아닌 “쇠퇴”로 그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서, 갈수록 일자리는 축소되고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 했다. 이는 사회학자이자 베이비붐 세대의 일원이기도 한 이상학(2016)의 전망 및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 이상학은 “고령화 폭풍”과 저출산 등이 맞물려 사회가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단계전환(stage shift), 경험해보지 못한 대격변, 사회의 운동법칙이 바뀌는 현상을 목도할 것이라 했다. 즉 우상향 곡선에 익숙하던 베이비부머가 “우하향 커브가 지배하는 전혀 낯선 상황”에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베이비부머는 이러한 “파고의 가장 전면”에 서 있는 세대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모든 경제지표가 위로만 올라가던 시대-우하향 커브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집값이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성장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가 정체 또는 하락하는 하향곡선의 시대, 바로 우하향 곡선의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와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이상학, 2016, pp.6-7)

“그렇죠. 평생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 축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성숙에서 쇠퇴로 가는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일자리리는 축소가 될 거고 기회가 많이 없을 거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는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갈 때는 실패를 하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12-남]

[12-남]은 과거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에는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이행되는 지금 시기에는 “실패를 하면 실패로 끝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인식으로, 명예퇴직 공고로 갈등하는 직장후배들이 “선배님,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오면 회사를 나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평상시에 준비해둔 것이 있는지 물어봐서, 그렇다 하면 퇴직해도 된다고 대답해주지만, 그동안 준비한 것 없이 그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표를 쓰고 나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 왜냐하면 쇠퇴로 이행되고 있는 현 구조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십중팔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겪을수록 “자꾸 인생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를 자꾸 질문하게 되어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인은 겉보기엔 승승장구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백조의 발”이라고 비유했다. “위에선 우아해 보이지만 밑에서는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퇴직자들이 “너무 많”고 마땅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도 사정이 어려워 기업에서의 교육 기회가 “계속해

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요즘 “돈 풀리는 데는 국가”뿐인데, 국가 주관의 영역 중에서도 사례자와 같은 인문계 일반 사무직 출신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NCS 쪽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한다. 그러다 보니 NCS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례자의 표현으로, 벌써 “진입장벽”이 생겨서 처음부터 참여했던 사람에게는 기회라도 가지만 새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는다 한다. 그나마 경쟁하며 참여 중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정부사업으로는 “돈이 안”된다고 한다. 전체 총액이 많지 않은 데다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다 보니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례자의 경제적 만족도가 삶의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준(6→5→6)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완전히 백조의 발이지, 위에선 우아해 보이지만 밑에서는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지.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경제에서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략)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기업들도 다 어렵잖아요. 기업들도 다 어려워가지고 계속 사람 내보내지, 예산 깎이지 하다 보니까 기업에 그런 교육의 기회 같은 것도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돈 풀리는 데는 국가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돈 풀리는 게 결국에는 NCS 쪽이고, 000부 쪽에서는 NCS 들어오고, 그다음에 00창조00부 쪽에서는 000형식센터를 통해가지고 3D프린터라든지 사물인터넷, VR 가상현실, 요 중점사업 이잖아요. 그쪽이 돈이 풀리니까 그 쪽으로 몰려. (중략)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 이쪽은 참여 못 하잖아. 할 수 있는 게 뭐야? 인문계 쪽 출신들, 이렇게 일반 사무직 출신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NCS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NCS로 사람들이 쭉 몰려오고 어느 순간엔가 이게 NCS도 한 지가 2년밖에 안됐잖아요? 벌써 진입장벽이 생긴 거지, 벌써 이제 이 일을 참여를 처음부터 했던 사람한테 기회가 가는 거지. 지금 만약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안 되는 거야.” [12-남]

주요활동 분야인 교육은 하고 싶은 분야이긴 하지만 소득구조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1인기업을 만들어 활동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대표들 너나 할 것 없이 “소득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라 전했다. 자기 개발, 콘텐츠 개발을 많이 하는데도 실제 “모든 건 영업”이라 한다. 그래서 교육사업이긴 해도 계속해서 세일즈를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규모 큰 교육회사의 경쟁상대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규모 큰 교육회사 역시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오히려 “개인 보따리 장사가 낫다”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이러한 형편으로 사례자는 지금의 교육시장을 통틀어, “꼭 찬 시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의미하는 “레드 시장(red ocean)”으로 간주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 교육컨설팅 창업을 한 이래로, 작년 2015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간 해당 분야 “전문가 인증”(2015년 10월에 NCS 전문가 자격 인증, 2016년 5월에 퍼실리테이터FT 전문가 자격 인증)을 받은 것을 경력상 가장 큰 변화로 이야기한 가운데, 일의 성격은 이렇듯 전문화되었으나 소득이 감소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일 자체는 재미있고 사명감도 갖고 있지만, 그동안 “개발한 걸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이 시점에서 잡 체인지(취업)를 시켜줘야” 하나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에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개발한 걸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이 시점에서 잡 체인지를 시켜줘야 될 시점인가,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중략) 그렇죠. 그런 거 해가지고 잡 체인지를 하려고 하면, 아니 왜냐면 또 이제 자꾸 주위에서 그런 제안이 또 오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것도 2년 동안 막 해가지고 그래도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저쪽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포기하는 건 아닌 거 같다,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를 저쪽에서 또 접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 단지 내가 이 일을 뭐 컨설팅 일을 안 하겠다뿐이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기업 쪽으로 조직 내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2-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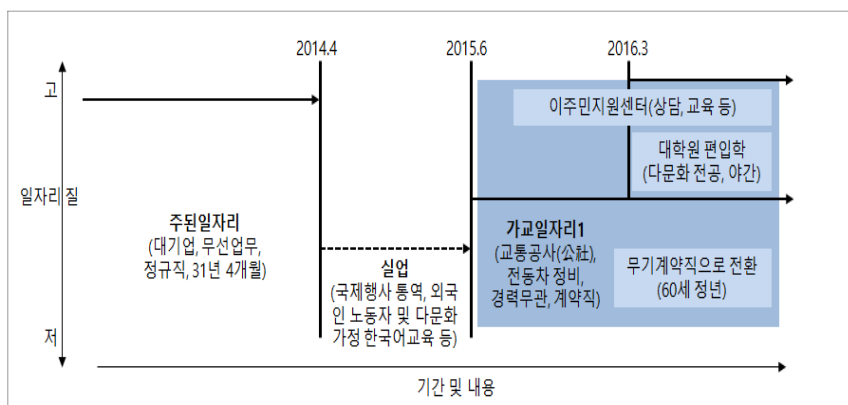
실제 주위에서 취업 관련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한다. 그에 따라 조직

내에 들어간다 해도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안 할 뿐이지 조직 일과 접목할 수 있다는 나름의 합리화 같기도 한 생각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직에 다시 들어간다면 경제력은 올라갈 것 같은데, 2014년에 비해 만족도가 상승하여 2016년 현재 9점, 10점을 보이고 있는 다른 삶의 영역(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취미여가생활, 종교생활, 건강상태)의 만족도가 낮아질 거란 예측도 하고 있다. “지금은 시소(소득 vs. 일의 재미와 시간 관리)를 타도 삶의 질 쪽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경제력은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삶의 질은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울질”을 하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 한다.

나. [18-남]: 불안과 재취업, 양 갈래의 행운과 마음안정

[12-남]이 단일한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아실현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 한다면, 사례자 [18-남]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생계와 노후를 위한 소득의 원천이 되지 못하는 맥락으로, 기존 경력과는 무관한 직종으로 재취업을 한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의 전문화와 직업화를 피하며 ‘두 갈래의 길’을 내어가고 있다. 이러한 행로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과 조력이 함께 하고 있어 또한 [12-남]의 사례와 구분된다.

[그림 6-3] [18-남]의 경력경로



이러한 양 갈래의 길을, 퇴직에 따른 새로운 변화로 보기에겐 어렵다. 주된 일자리 재직 시부터 존재해왔던 양상이 그 모습만 다를 뿐,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자 [18-남]은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였으나, 재직 중에 다른 대학에서 실무영어와 선교영어를 전공하고 모 사이버대학에서 한국어 교원자격증 2급을 취득하여 주말 공휴일을 활용해 국제행사 영어통역,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해왔다. 주된 일자리에서는 주로 전송, 인터넷, 물품, 영업 일을 했으며, 퇴직 전에는 무선 업무(와이파이 시설운용 및 관리)를 하다가 2014년에 명예퇴직 공고가 나자 퇴직한 사례이다.

〈표 6-6〉 [18-남]의 일의 의미 변화

| 구분 | 2014년 조사 | | 2016년 조사 | |
|-------|--|--|--|--|
| 일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수단 (주로 ‘가족’을 위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고 싶은 것(마음이 원하는 것)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 관계 속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균형을 주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수단 (주로 ‘나’*를 위한)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본인이 번 건 본인이 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고 싶은 것(마음이 원하는 것)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배움과 발전) 관계 속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균형을 주는 것 |
| 주요 활동 | 주된 일자리에서의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영어공부와 기타 학업 국제행사 통역 및 자원봉사 이주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육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일(경력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행사 통역 및 자원봉사 이주민지원센터 활동 (진로상담, 교육 등) 대학원 학업 |

2014년 1차 본조사 당시, 사례자는 기본적으로 퇴직 이후의 삶이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명예퇴직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되고 학자금 70%도 없어진다는 점도 있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은 것, 이것이 명예퇴직의 주요 이유였다. 월급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정년(58세)

까지 연장하고 싶지 않았다. 재직 중에도 종종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는 가정만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를 다녔음을 상기시키면서 자녀들에게 “앞으로 너네 인생은 너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자녀가 유학을 언급할 때 이제는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주지시키면서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집사람이 이제 그 뭐야 가정활동, 가정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애들도 하고 했지만, 항상 우리는 나는 가정을 위해서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자주는 안 했지만 했어요.”
[18-남]

“그런 소리를 해요.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애들한테도 애엄마한테도 애들 앞에서 그래요. 아빠는 회사 했으니까, 다녔으니까, 아빠 이제는 아빠 이제 회사 없고 앞으로 없다. 앞으로 너네 인생은 너네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애가 유학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빠 이제 경제능력도 없고,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개도 그래요. 아빠한테 의지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18-남]

한마디로 주된 일자리의 일은 주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약 31년간 몸담아 오긴 했으나,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회사 일의 의미를 스스로 반추해보았는데, 좋아서 했다고보다는 월급을 받기 위해 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건강을 해쳐가면서 퇴직을 유보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 그뿐이라는 생각이었다.

“한 6년 남았는데 이때까지 가면 좋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야 이렇게 내가 좀 더 회사 일을 좋아서 했던 건지 아니면 월급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중략)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면서 월급 많이 받겠지만 좀 그쪽에 고민이 있었죠. 결국은 고민한 가운데서 내가 퇴직을 결정하긴 한 거죠.” [18-남]

“그러니까 그게 전에는 이제 그런 돈을 위해서 이제 직장을 다녔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제 저 자신?” [18-남]

반면 대학에서의 영어공부와 기타 학업, 국제행사 통역 및 자원봉사, 이주 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의 한국어교육 등과 같은 일은 사례자에게 있어 ‘하고 싶은 것(마음이 원하는 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 ‘관계 속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균형을 주는 것’이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별히 외국인과의 친교를 선호하고 국내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활력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어릴 때 모친(85세)이 서독에 간호사로 파견됐었던 배경이 본인에게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는 자기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모친은 국가유공자이며 누님 부부와 미국에 거주 중이다. 결국 [18-남]은 퇴직 이후에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가운데 노력과 수고를 통해 발전할 수 있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퇴직 전에 퇴직 후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 경제적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밀려들어 왔”다고 한다. 퇴직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미래, 건강, 자녀에 대한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그의 불안을 가중시켜 새벽에 잠이 저절로 깨질 정도라 했다.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자녀를 계속 설득은 하는데, 가야 되겠다 하고 있고, 행복한 미래 삶으로 그렸던 ‘나를 위한 삶’, ‘자유로운 직업생활’은 요원해져갔다. 당장의 불안감이 문제였다.

“변화가, 심적으로 변화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가 어떻게? 건강적인 것도 그런 곳도 있고.” [18-남]

“네. 어느 순간에, 그때는 한 번인가 그랬는데,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잠이 나도 모르게 깨지더라고. 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애들은 대학생, 군인이거든요. 한 애는 취업하고. 한 애는 또 뭐 미국 유학 간다고

그러지. 애한테도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애는, 자기는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고.” [18-남]

이러한 극도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준 것은 사회복지 일을 해오던 배우자(49세)가 요양원 운영을 앞두고 있는 것이었다. 사례자의 퇴직금과 저축액 상당을 투자했다 한다. 2014년 8월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동안(월 110만 원씩 8개월)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정말 필요하겠다 싶으면, (하기 싫지만) 주된 일자리 동종 분야로의 취업을 염두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워크넷을 탐색해보니 단순노무직밖에 없고 자격증이 있어도 연령 제한이 있었다 한다. 전기자격증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한데, 그 공부도 하고 싶지 않고 2015년에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면 고려하고자 했다. 재취업의 경우 월 2백만 원, 연봉 2천4백만 원 정도를 기대했었다.

약 1년 후인 2015년 부가조사 시, 사례자는 ○○○교통공사(전동차 정비업무)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고 배우자는 요양원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그가 좋아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교통공사는 해당 모니터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사이트 채용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어 지원해서 두 번의 시도 끝에 2015년 6월에 취업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력과 무관한 전동차 정비업무가 위험한 일인 데다 기존 직장문화와 달리 분위기가 딱딱하여 초기 적응하는 데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다. 급여는 세금 제외하고 월 155만 원 정도인데, 이는 주된 일자리 연봉의 1/4 수준이며 1차년도에 희망했던 2백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만 하기에는 불안해 하지 않는 퇴직 후의 일상이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10년 정도(나) 남았기에 ‘같이’ 계속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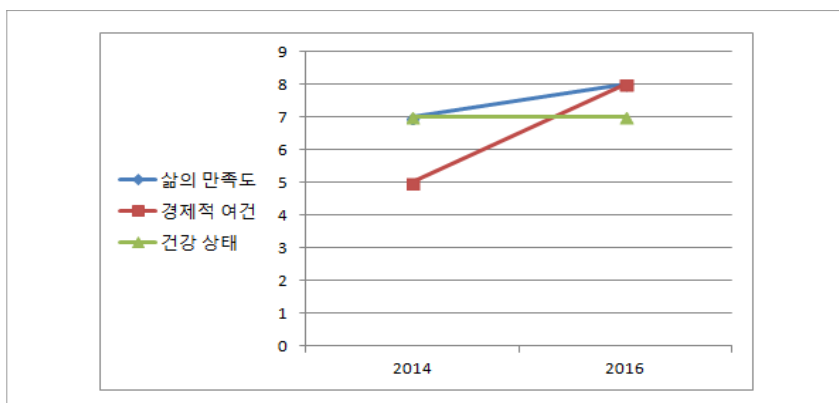
좋아하고 하고 싶은 활동인 국제행사 통역의 수입은 일당 3~6만 원 정도인 데다 고정적이지 않고,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의 수당은 월 1만 원 정도로 거의 봉사활동으로 간주해도 무방했다. 자녀 한 명이 군에 가 있다 해도 여전히 대학생들(각 23세, 21세)이다. 그리고 농사짓던 장모(81세)를 요양원에 모셔와 부양하기 시작했다. 2015년 기준, 사례자의 주거 형태는 전세, 자산규모는 요양원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9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요양원 계약에 더해 배우자가 새로 계획 중인 원룸사업 등에 3억 정도

의 부채가 발생되어 순자산은 6억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듯 일의 의미에 있어서 퇴직 전의 수준 또는 상태로 퇴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어하는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언젠가 이주민들의 직업상담과 교육을 담당하고자 학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과정과 직업상담사 자격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또 1년이 지난 당해의 인터뷰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부터 구분되어온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길’과 ‘나 자신을 위해 가고 싶은 길’, 이 양 갈래에 모두 일련의 행운과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일단 재취업한 일터에서 1년 단위 계약직이 2016년 초에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되어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변화했다. 그럼에도 그 만족도가 2015년 4점에 이어 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정시출근, 정시퇴근이라 야근이 없고, 성과이익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점은 좋은 측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직과는 달리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 차이가 많이 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빡빡한” 분위기라 한다. 또한 계약직 간에도 상하 관계를 가지려 하는데, “나이가 어리더라도 먼저 들어왔으면 자기가 고참이고 자기 밑에 자기가 부려야 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한편 요양원에 이어 배우자가 새로 추진 중이던 원룸건물이 인터뷰 일주일 전에 완공되어 기존 전셋집에서 전세를 빼서 이 건물로 이사했다고 한다. 즉 전세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된 셈이다. 5개 층에 원룸이 총 7개가 있는데 1층은 사례자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과 배우자가 옷가게를 준비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4층에 있는 원룸 하나는 딸에게 주어, 총 5개의 원룸을 세를 놓았다 한다.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방 하나가 나갔다 말하며 기대에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원룸 세로 대출이자를 갚고 있고 원룸을 다시 팔면 1억이 더해지는 가치가 있어, 요양원 수입을 제외하고 순자산 규모가 6억에서 7억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 사례자는 “아직은 문제는 없는 거 같”고 “이제 시작인거 같”다는 인식을 보인 가운데,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상승의 폭이 +3점으로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2014년 5점에서 2016년 8점)

[그림 6-4] [18-남]의 주요 만족도 변화



이렇듯 경제적인 상황과 만족도가 호전된 가운데 대학원에 입학하였다하여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 한 달 전인 2016년 3월경,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탁받아 중국동포의 적응훈련 및 교육을 하러 온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다문화 관련 전공을 할 수 있는 대학원을 소개받았다 한다. 우연한 기회였다. 신입생 모집이 끝난 상태였는데 TO가 두 명 남아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었다. 원래 다문화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를 전공하면 강의도 할 수 있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 같아서” 편입했다 한다. 배우자 역시 남편인 사례자가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를 원하던 차에 실제 강의를 하게 된다면 ○○○교통공사를 그만두고 ‘강사’로 직업을 전향할 계획이 있으며, ‘강의’라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진 것 같다고 한다. 대학원 수업이 일주일 중 이틀 야간에 개설되어 있고, 한 학기 등록금이 2백만 원 정도로 저렴하여, 소득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 낮의 일상과 하고 싶은 일과 미래를 위해 두루 적절하게 선택된 배움이자 진전을 위한 발판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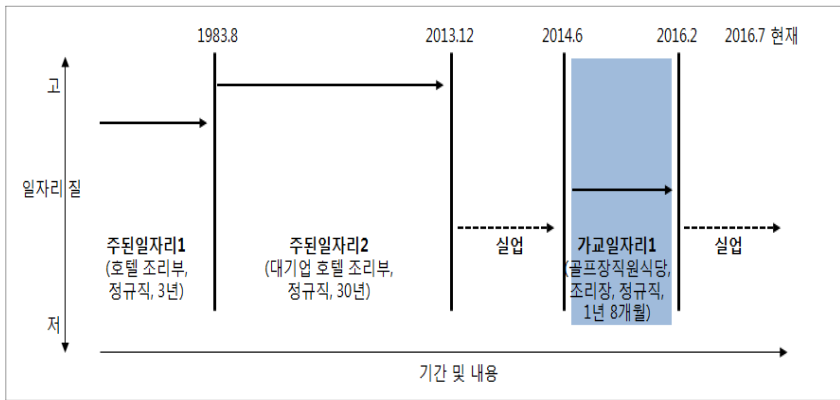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2015년 부가조사 이래의 경력경로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례자는 “(원룸건물로) 이사”한 것, “대학원 들어간” 것과 관련하여 “마음에 안정이 더 됐다”는 점을 말했다.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이사한 거, 그다음에 대학원 들어간 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정이 더 됐다는 거?” [18-남]

즉 전세에서 자가주택이자 세 수입을 내기 시작한 원룸건물로 가족이 이사하고 원하는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구참여자 개인의 자기실현을 지속해가는 과정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퇴직 이후 미래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강도 높게 나타나던 “불안”의 심리적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해석, 이해할 수 있다.

1.1.3. 자유추구형: 일의 통제권 및 여유 강조

[그림 6-5] [03-남]의 경력경로



사례자 [03-남]은 호텔 조리부에서 33년간 근무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끝에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지 6개월 만인 2014년 6월에 골프장 직원식당 조리장으로 정규직 재취업을 하였다. 그 전에 주된 일자리 퇴직을 3년 정도 앞두고 불안이 엄습하여 퇴직 준비를 하였고, 지방에서 새로 직장을 구할 생각으로 6개월전에 재취업처를 구해두었는데, 퇴직 직전에 고용이 취소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해 인터뷰에서 2016년 2월, 1년 8개월 만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현재 다시 구직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현재 자신 명의의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고, 순자산 규모가 부동산과 현금 합하여 대략 10억 정도이며, 앞으로 국민연금을 ‘다른 사람처럼’ 미리 월 98만 원씩 받지 않고, 내년(62세)부터 월 130만 원씩 받을 계획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크게 돈 쓰는 것에 애로사항은 없”으며,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 빨라진 체념: 경험과 성격의 복합적 산물

가교 일자리에서의 갑작스러운 퇴직이 주된 일자리 정년퇴직과 다른 점은 정년퇴직할 때의 “체념이 10%”라면 가교 일자리 퇴직 시에는 체념이 ‘80~90%가 빨라지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체념”이 빨랐다고는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본인도 후회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즉 가교 일자리 재직 시 타 지방에 있는 업체로부터 입직 제안을 받았으나, 기숙사생활을 해야 하는 문제와 현 직장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실망감’과 ‘후회감’은 결국 가교 일자리 내에 있을 때 경험했던 중소기업에서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사례자의 경우 주된 일자리(대기업) 재직 시에는 상사라 해도 ‘입바른 소리’를 잘하고, 그 때문에 진급도 늦었지만 “내 할 일을 똑 부러지게 하니까”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와서 일을 하면서 “너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써줬으니까, 너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스타일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로 ‘네’, ‘아니오’ 스타일로만 대응했다 한다. 대기업에 다니던 과거에는 도전을 하고 주도적으로 시도도 해보고 주변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중소기업 가교 일자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 빨리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에 의해 ‘포기’가 빨라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체념의 이면에는 사례자의 ‘오기’와 성격적인 영향도 작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젊어서는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걸 빨리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따져서, 둘째는 판단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포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밀어서 덤벼봐야 나만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에서 우러나는 소리예요. 어떤 음식 점도 그래요. 맛이 없고 바꿀 수 없으면 빨리 버리고 다시 해야 돼. 이걸 괜히 붙들고 있어야 괜히 욕만 직살라게 얻어먹어 판단력이 빨라야 해요. 젊었을 때에는…. 그게 판단력이 빠른 게 아니라서 이걸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니다가 생각해서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을 떼버리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나는 업무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고력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70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줄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큰 데 있다가 작은 데 나와서 느끼는 경험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03-남]

“그것이 판단력이고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의 생각인데 내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그만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재 밑에서 버텨볼 것이냐.” [03-남]

요컨대 사례자는 대기업 주된 일자리 정년퇴직 이후 중소기업 가교 일자리에서의 변화된 상황에 맞춰 “체념”하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네’, ‘아니오’로 대응했지만, 이때의 “체념”은 단순한 좌절이나 어쩔 수 없는 수동적 적응이 아닌, 변화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판단력’과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소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시간 여유의 중요성 부상

한편으로 일의 의미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변화가 발견되었다. 1차년도에 조사된 일의 의미는 ‘나를 성장시켜서 오늘의 내가 되게 만드는 것’, ‘돈과 관계없이도 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과거에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일을 하다 보니 일에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해온 면이 있다면, 현재는 돈도 좋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표 6-7〉 [03-남]의 일의 의미 변화

| 구분 | 2014년 조사 | 2016년 조사 |
|-------|--|---|
| 일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성장시켜서 오늘의 내가 되게 만드는 것 • 돈과 관계없이도 하고 싶은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여유의 중요성 • 자기 통제권 |
| 해당 활동 | 주된 일자리(대기업)에서의 일 | 가교 일자리(중소기업)에서의 일 |

과거 대기업에서는 연차가 보장되고 공정한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기업 가교 일자리에서의 경험은 그러한 휴가가 보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원칙 없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남들보다 더 일하는 불공정한 사례를 경험하게 되면서 시간(보장)에 대한 욕구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휴가가 아니더라도 평소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자의 입장에서 음식 제공 시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에 맞추기 위해 일찍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불만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따끈하고 막 금방 만들어야 맛있는 거.”
[03-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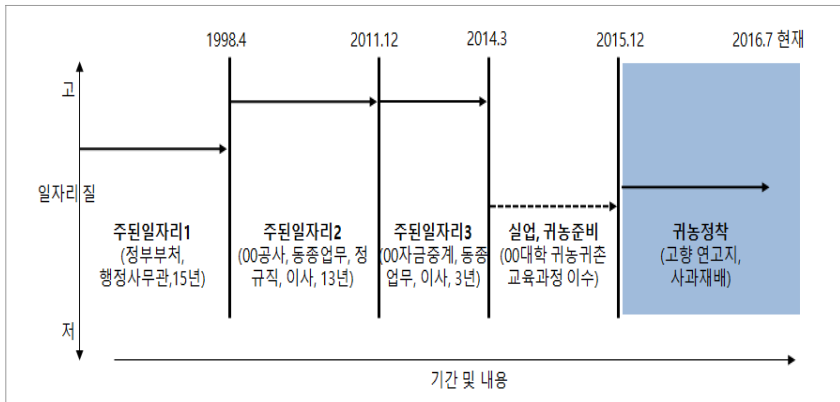
“그러면 누구나 먹는 사람도 기분 좋고, 5시라고 시간을 했으면 본인이 정한 대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시 30분에 와서 찾으니까, 천상 없이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책임자니까 밑보이지 않으려면 4시까지 만들어놔야 해. 왜? 그 사람이 오는 건 30분이지만 때로는 40분 전에도 오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취감을 얻냐고. 호텔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아왔는데.” [03-남]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대기업에 비해 규정, 원칙, 공정성, 시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열악한(가령 나이 어린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어지는 제반 사건) 중소기업 가교 일자리를 거치면서 일을 통해 추구하는 바, 혹은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바가, 바뀐 현실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그에 따른 변화와 체념, 불만을 호소하는 가운

데 여전히 마음 한 켠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례자의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사례자가 언급하는 이러한 도전정신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신을 빨리빨리 변화시켜 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례자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1.4 원점출발형: 고향 부모님 곁으로의 귀농

[그림 6-6] [30-남]의 경력경로



사례자 [30-남]은 재무관련 정부부처, 관련 공사와 조직에서 31년간 성공적으로 보이는 경력을 쌓아오다, 2014년 3월경에 임원 임기 만료로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귀농을 준비한 사례이다. 1차 본조사 당시 제2의 경력으로 귀농·귀촌을 생각하여 모 대학에서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었고, 고향 시골에 부모님과 함께 정착할 목적으로 꾸준히 귀농준비를 해왔다. 사례자에게 있어 귀농의 가장 큰 원동력은 고향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있다. 그에 따라 2015년 말에 배우자와 자녀는 서울에 머물고 사례자 혼자 귀농하여 부모님 명의의 밭에서 사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고향에는 부친 명의의 사과밭 2천평이 있었고, 예전에 부친이 농사짓다가 6~7년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던 것을 사례자가 올해 2016년부터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다. 부모님 집으로 옮긴 후 본격적인 사과 농사 시작을 위해 밭을 정리하고 오래된 사과나무를 모두

배어내고 다시 심는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사과 농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쳤다. 배우자는 현재까지 사례자를 따라 귀농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그렇다고 사례자의 귀농을 반대하지는 않음), 아직 둘째 딸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미혼이기에 함께 귀농하지 않는 점에 대해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라 한다. 사례자의 경우 현재 귀농 1년 차의 적응기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일과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생각과 다른 현실의 어려움, 자기가치 및 자존감 하락

비록 퇴직 후 약 2년간 고향으로의 귀농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내려와서 보니 육체노동도 고달프고, 주변 상황도 잘 모르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귀농하기 전에는 귀농 후 독서, 골프, 자전거 타기, 등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막상 내려와서 고달픈 일에 지치다 보니 틈이 나면 눕고 싶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귀농 전후의 경험으로 인한 사례자의 생각과 인식의 변화는 부모 부양의 실제 어려움(어릴 적 부모님을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했는데, 지금은 “옛날 방식”이라는 생각과 “여전히 애처럼” 대하고, 생활 면에서도 소소한 갈등이 있다고 함. 만족도 4점 하락), 고된 농사일, 문화적 욕구의(취미, 여가) 충족 불가, 친구와의 단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서 오는 육체적·정신적 불편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사례자의 기대치는 낮아진 상황이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이라 한다.

사례자는 귀농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막상 귀농 후 경험할 어려움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귀농하여 부딪히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터득해 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귀농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여 리스크를 가져가지 말고 일종의 시험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사례자는 막상 귀농을 하고 보니 귀농 전과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며, 그래도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점이 좋으면서도 힘든 것이 10이라면 귀농에 따른 보람은 2~3 정도로 평가할 만큼 현재로선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

다. 이와 관련하여 만족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공적인 귀농에 대한 사례자의 생각은 단순반복적인 일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도전하고, 보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먹을 거리를 통한 “사회 기여”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는 적응에 바쁘기에 이러한 비전과 바람을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추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학습 등을 통해 원하는 성공적 귀농을 실천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나. 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함

2014년 1차 본조사 당시 사례자가 인식하는 일의 의미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자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을 완성해가는 것’, 엇비슷한 표현으로서, ‘승진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조사·분석된 바 있다. 당해 조사에서도 사례자는 일의 의미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지니고는 있지만, 현재의 삶이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입장’이며 힘든 일에 “매몰”되어 있기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움, 봉사와 완성의 삶을 추구할 여력이 없어 그만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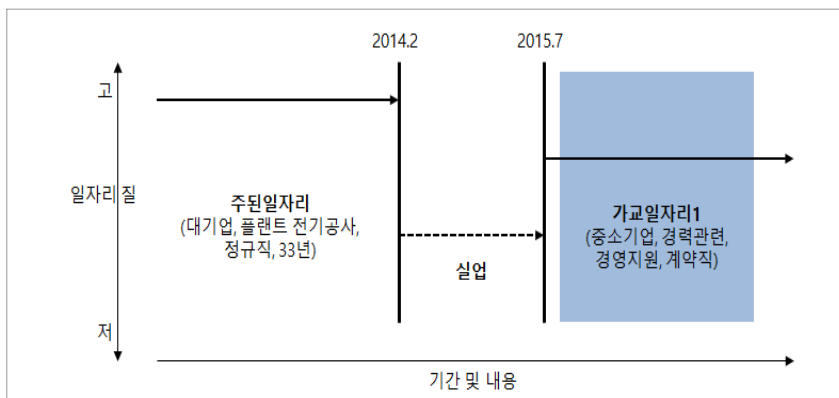
〈표 6-8〉 [30-남]의 일의 의미 변화

| 구분 | 2014년 조사 | 2016년 조사 |
|-------|--|--|
| 일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장과 발전 · 나아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자 과정 · 이를 통해 자신을 완성해 가는 것 · 승진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람을 느끼지 못함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입장’이며 힘든 일에 “매몰”되어 있기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움, 봉사와 완성의 삶을 추구할 여력이 없음) |
| 해당 활동 | 주된 일자리에서의 일 | 고향에서 부모님 부양하며 사과 재배 |

1.2. 결핍욕구형 베이비부머의 변화와 그 맥락

1.2.1. 자아확장형: 생계에서 일의 즐거움으로

[그림 6-7] [23-남]의 경력경로



가. 과거 생계전담에 대한 피해의식

사례자 [23-남]은 공업전문학교에서 전기를 전공하고 만 19세에 노동시장에 입문했다. 출생 당시에는 집안이 부유했는데 부친의 실패로 갑작스럽게 집안이 기울어, 원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은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여, 등록금이 가장 저렴해서 전문학교에 들어가고, 월급을 많이 주니 해당 직장을 선택하여 정년까지 일해온, 즉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기 전까지는 ‘돈을 따라 결정된 행로’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학교 졸업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월급 많은 데로 가야 되고, 그 월급은 바로 받기도 전에 쓸 데는 이미 정해져 있고 뭐, 그런 상황.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로만 걸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지요.” [23-남]

나. 정년채움과 자기능력에 대한 자신감, 그러나 구직실패

대기업 플랜트 전기공사 부문에서 33년간 일하고 2014년 2월에 정년퇴직했다. 최종직책이 현장소장이고 말년 연봉액이 1억 정도로 파악되었다. 정년이 연장된 여건이라서 퇴직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돈 버는 생계수단이 되고 싶지 않고 후배들의 성장과 지위향상을 생각해 퇴직을 결정했다고 한다. 2016년 당해에 추가 확인한 바, 현장 소장의 소임을 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이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점이 퇴직 결정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1차 본조사 당시, 다른 사람들은 퇴직 후에 모든 상황들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할 일 다 하고 정년퇴직을 하기에 퇴직 전부터 가족들에게 당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은 집에 있으면서 배우자가 사례자의 퇴직과 상관없이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온 어린이집 개원 준비를 돕고 오랜 지방생활(28년)로 소원해진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인의 경력을 살려 계속 일하고 싶은 생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 그러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건설 분야에 지원해보았는데 ‘건설시장이 좁고’, ‘나이’ 때문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송전선로 건설과 시공기술 또는 시공관리 부분에서 국내 1인자로 자기 평가하는 동시에 관련 대기업에 친구들이 많은 관계로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일자리가 생기면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다. 재취업과 180도 일의 의미 전환

1차 본조사 후, 사례자는 동종업계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1년 5개월 만이다. 2015년 6월 초에 주된 일자리 재직 시 갑을관계로 일하다가 친하게 알고 지내던 회사 재직자들 중 한 명이 전화를 해서 어떤 회사에 “적(籍)만 두고 있어봐라”고 했다 한다. 이는 소속은 하되 출근은 안 하고 필요할 때만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사례자는 “아주 좋다고 전화번호를 주라고” 하고 받은 번호로 전화했더니, 오너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출근을 해볼 수는 없냐”는 제안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설계회사인데 설계 일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다 한다. 이후 또 오너가 불

러서 “출근을 좀 하고 설계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하다 보면 다른 일도 아주 많이 있”다는 제안 및 설득을 해와서, 사례자는 생각을 해보다가 월급액을 조정하고 “한두 달 하다가 혹시 일이 없거나” “못 하면 적만 두고 있는” 조건으로 경영지원 팀장/부장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연봉은 5천만 원, 1년 단위 계약직이다. 재취업한 조직에서의 일 만족도를 9점으로 체크했으며, 주된 일자리와 “직종은 똑같지만 성격은 완전히 틀”린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자면, 재취업지와 주된 일자리 모두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전자는 “디자인하는 도면 그리는 회사”이고, 후자는 “공사를 하는 회사”라는 차이가 있다. 조직 구성원의 연령층은 20~60대 까지 다양하다 한다.

[23-남]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때와 현재 일하는 것의 의미가 180도 달라졌음을 이야기했다. 사례자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일은 경제적 생계수단이었음을 말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가고 일자리에서 하는 일은 ‘정신적으로 편안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어울림)을 할 수 있어 좋은 것’, ‘자발적으로 (직원 및 회사에) 해주고 싶은 것, 월급이 적더라도 다니고 싶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가 현재의 월급보다 더 작더라도 다니고 싶다 한다.

“아주 좋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보다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하고 또 거기에 또 어울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23-남]

“네, 변화가 그렇게 여기는 많지 않잖아요. 계속 그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설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실패하는 경우도 크게 실패될 수도 있고 갑자기 아주 잘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너무나 심하고 한데, 그게 젊었을 때는 다 감당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건설에서 그런 스트레스로 해서 굉장히 크게 아픈 사람도 있고, 그걸로 해서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략) 그리고 직원들이 상당히 회사에 오래 있어, 조그만 회사는 단기간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여기는 장기근속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것도 크게 회사에서 관리를 안 해도 스스로 회사가 잘 돌아가고 할 일은 다 하고 그런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나도 가서 뭔가 해주고 싶고, 내가 못하지만

내가 뭘 땀 사람보다 더 시간이 걸리면 내가 일요일에 나가서 일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부탁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시간도 맞춰주고 맞춰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설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더 적더라도 다니고 싶어요. 하하.” [23-남]

월급이 주된 일자리에 비해 절반 정도임에도 “아주 좋”다고 말하면서, “돈이 많고 적고보다는 정신적으로 편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한다. 그리고 과거 주된 일자리의 건설 영역은 변화의 폭이 커서 스트레스가 심한데, 재취업한 조직은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임에도 “장기근속자가 굉장히 많”은 정도로 직원들이 회사에 오래 있는 환경이라 한다. 그러한 편안한 환경 및 분위기 속에서 “뭔가 해주고 싶고”, 잘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면 “일요일에 나가서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월급이 적더라도, 더 적더라도 다니고 싶”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표 6-9〉 [23-남]의 일의 의미 변화

| 구분 | 2014년 조사 | 2016년 조사 |
|-------|------------------|---|
| 일의 의미 | · 경제적 생계수단 | · 정신적으로 편안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어울림)을 할 수 있어 좋은 것 · 자발적으로 (직원 및 회사에) 해주고 싶은 것 · 월급이 적어도 다니고 싶은 것 |
| 주요활동 | 주된 일자리(대기업)에서의 일 | 재취업한 가교 일자리(중소기업) 일 |

물론 재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일은 생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는 미혼인 두 자녀의 결혼이 남아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던 부친이 2015년 12월에 93세로 별세하여 기존 주택은 전세를 놓고, 원래 사례자의 소유였는데 부친이 거주하던 집에 가족이 들어갔다.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개원하긴 했지만 소득이 창출되는 상태는 아니라 한다. 부동산 가치를 합산하면 순자산이 10억 정도라 하는데, “요즘에 집 한 채

만 해도 10억 넘잖아요”라는 말로 불만족함을 나타냈다. 향후 “먹고살고 하는 건 별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두 자녀의 결혼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전혀 안 해줄 수는 없고” “뭘 조금씩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큼 하느냐 그거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 재취업으로 연간소득 5천만 원이 생겼는데도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2점 하락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자녀들의 결혼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강해서이다.

라. 자기 쓰임새의 확장과 즐거움

재취업한 중소기업 일은 세부직종이 다르고, 회사가 작으며, 거리까지 먼 데도 ‘재미있고 즐거운 일’로서 기존 주된 일자리 일의 의미와 차원이 달라졌다. 기존에 해오던 공사일이 아니라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디자인을 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설계를 전혀 모르”지만 “아주 재미있”다고 한다. “회사가 작다 보니” 사례자와 “관련이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일” “이거 저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했다. 또한 집에서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직장이라서 “아침에” “제일 먼저 가는데도” “굉장히 즐겁”다고 한다.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또 그렇게 되나 봐요.”라고 말하면서, 아침에 나갈 때 딸과 배우자가 각각 “아침에 일찍 나갈 때 즐거워?”, “아침에 그렇게 즐거워” 하고 물어보면 “난 너무나 즐거워. 진짜 즐거운 것 같아”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네, 아침에 일찍 가는 것도 제일 일찍 가지, 여기서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제일 먼저 가는데도 아, 굉장히 즐겁습니다.” [23-남]

이렇듯 사례자가 재취업한 가교 일자리에서의 일을 즐겁고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한 이유, 배경은 5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친숙한 분위기이다. 사례자는 디자인은 “전혀 못” 하지만 오래 근무를 해오던 동종 분야이다 보니까 일단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둘째, 사례자만이 잘할 수 있고 동료 및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발견한 것이다. 기존 재직자들 중에는 도면 디자인 일에 있어서는 30년 또는 35년 된 전문가들이 있긴 하지만, 작업물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 다시 말해 집 설계 도면을 그렸다면 “이 집에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를 가늠하는 일은 “굉장히 약해”서 사례자가 그런 일을 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사를 2~3년 지속하게 되면 물가와 인건비가 오를 수 있는데, 인건비가 오르면 관에서 주게 되어 있는 가운데 그 액수를 산출하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한다. 설계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거의 하지 않는데, 사례자가 “조금 해주다 보니까 다 맡기”기 시작했다 한다. 셋째, 스스로 찾아 돕고 경청하며 “젊은 사람들”과 친화하려는 사례자의 노력이다. 건설회사 사람들은 말단 행정직이나 일반 노무자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 친화력이 좋다는 점을 들면서, 다른 직원들이 바쁘면 스스로 찾아가서 도와주고, “설마 저 사람이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런 것까지 하겠느냐” 하는 일도 해주고, 측량하러 가는 길에 사례자는 정작 할 일이 없는데도 따라가서 저녁에 소주도 한잔씩 먹고 이야기도 들어주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얘기 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다. 기존 재직자들은 동종의 일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없는 편인데, 굳이 말을 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친해질 수가 있”다 했다.

넷째, 조직 특성상 내부인 중심의 업무구조로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다. 건설 업종의 주된 일자리에 있을 때는 외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뭘 만들어야 되는” 구조였지만, 지금 조직의 일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구조라서 좀 더 친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데 편안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이타적이고 크게 보는 차원에서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는 사례자의 태도이다. 무언가를 “해주면” 다른 직원과 회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 설계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좋은 거 아냐”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례자는 기존의 조직구성원들은 하기 힘든 일이지만 자신은 할 수 있고 동시에 그들 및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발견하여 업무량을 늘려갔고, 바쁜 직원들이 보이면 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 도와주고, 본인의 친화력을 기반으로 내부 직원들과 함께 하며 경청함으로써 일 및 일의 환경을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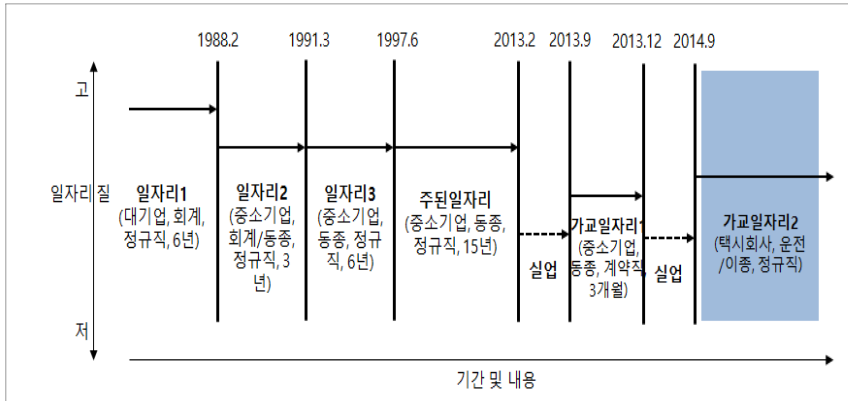
1.2.2. 개조전환형: 중심잡기와 새 사다다리

‘개조(reformatting)’는 쓰임새를 다시 용도에 맞게 만들어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무언가 거북하게 하거나 지속적인 오작동을 일으켜 삶다운 삶을 이어가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자기 결단의 행위가 개조이다. 또한 자신이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바닥 체험에서 나타나는 되돌림을 위한 용기와 활동이 개조이다. 삶을 다시 쓰게 만드는 일로써, 사람마다 체험하게 되는 삶의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 자신의 삶을 자기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조는 삶에 대한 지혜를 현실적으로 응용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지혜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이 필연임을 깨닫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의연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의미한다(한준상, 2009). 이러한 차원에서 사례자 [39-남]과 [47-남]은 각자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나름의 주관적 바닥체험을 하고 자신의 용도를 새로 만들어간 개조의 사례라 할 수 있다.

[39-남]은 주된 일자리 퇴직 전의 경력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 그의 배우자가 “막장”으로 부르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한 일을 본인 스스로 ‘자세 바로함’과 함께 시작하여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갖고 임하고 있다. [47-남]의 경우에는 하기 싫었던 주된 일자리의 일과 좋지 않은 기억, 배우자의 주식사건(incident), 건강상의 심각한 위기를 겪어온 가운데, 기존 경력과 내용상 연관이 있긴 하나 본인 스스로의 지속적인 배움과 그 전수를 통해 즐거움과 보람을 새로 얻고 있다. 아직은 덜 치유된 혹은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몸과 마음이지만, 영성과 하고 싶은 일로써 자신을 추스리며 조심스럽고 느리게나마 계속 걸어가고 있다.

가. [39-남]: 재취업은 판단착오라는 인식, 자책과 내려놓음, 그리고 새로운 선택

[그림 6-8] [39-남]의 경력경로



사례자 [39-남]은 상업고등학교에서 세무회계를 전공하고 1982년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여 네 회사를 거치며 33년간 회계업무를 해오다 2013년 2월에 주원 일자리를 퇴직했다. 주원 일자리는 완구무역업을 하던 회사였는데 경제활동은 하지 못하고 법인만 존속한 상태였다 하며, 회사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고임금자(연봉 6천만 원)인 사례자에게 퇴직 요구가 있었고 남아 있을 명분이 없어 받아들이고 명예퇴직했다 한다. “이렇게 빨리 중간에 ‘명퇴당한다’는 생각은 못 했죠”라는 언급을 통해 당시의 당황스러웠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못해도 60세까지는 회사 일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며, 오너와 마지막까지 일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20년은 일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약속이 깨진 것(약 15년 재직)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좀 더 미리 준비했다면 현재(1차 본조사 당시)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퇴직 후 7개월간은 큰딸 결혼, 모친의 암 발병 등 집안 대소사가 많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웠다 하며 배우자와 아르바이트성 일을 하면서, 10년 전 취득한 경매 분석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경매물건 분석, 법원 입찰 등의 활동을 병행했다. 이전 직장선배들의 추천으로 ○○○금융 일을 시작했지만(2013년 9월), 기대했던 소상공인 대상의 영업 일이 아닌 단순한 일을 하게 되자 그 시

간에 무언가를 배우고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3개월 만에 퇴직했다고 한다.

1차 본조사 이후 2년 1개월이 경과한 당해에 [39-남]은 그간에 있었던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가족배경의 차원에서 투병 중이던 모친(90)이 별세했고, 각종 아르바이트성 일을 하던 배우자가 신생아관리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현황의 차원에서 2016년 현재 자신 명의의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고 가구연간소득이 사례자와 배우자 소득 합하여 3천 5백만 원 정도이며, 가구연간소득 외 별도 수입원으로 상가임대 연 8백만 원이 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상태(주된 일자리 퇴직 후 7개월간의 실업기간)에서 큰딸의 혼사를 치루면서 10여 년 전에 투자용으로 사두었던 아파트 하나를 처분하고 빚을 얻게 되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에도 조금 남았다 한다. 결국 순자산 규모는 6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배우자로부터 “과거에 30년 동안 재무일”을 했으면서 (정작 본인의) “재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도 못 해놓고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사례자 역시 부동산, 현금 합해 10억 정도는 되어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무엇보다 경력경로상에서 발견된 가장 큰 변화는 33년간의 재무 일과 무관한 택시운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고자 부동산 경매를 해보긴 했는데, 경매의 과정상 정기적 고정적 수입원이 되지 못하여 “안 되겠다 해서 접고” 택시운전을 시작해 23개월 차가 되었다고 한다.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뀔 생각을 못 했는데, 계속 여기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39-남]

택시 운전의 직업을 갖기로 결심한 것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적 라이선스가 없는 가운데, 생각했던 것만큼 동종 분야로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 것에 기인한다. 직접적으로 사례자는 “33년간 그 일(재무회계)을 해왔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그거에 대한 자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생각뿐이었던 거죠”라고 밝히며, 그 분야의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생각을 이제는 “판단 착오”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쪽만 생각을 지금까지 33년간 그 일을 해왔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그거에 대한 자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생각뿐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젊은 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라이선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할 틈이 없어요. 찾아만 봤던 게 어떻게 보면 좀 판단 착오라 그럴 까.” [39-남]

이러한 현실 직시와 더불어, 보다 직접적인 사유는 우연한 계기이다. 18년 전인 1998년에 택시면허를 따놓은 것이 있었는데,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가 “우연히 정리하다” 명함처럼 코팅된 작은 면허증을 발견했다 한다. 그리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 등 구성이 좋은 택시 회사를 찾다가 지금의 회사를 찾아 취직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3개월 정도 한번 버텨보자” 했다가 계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을 시작한 초창기에 승객들이 어떻게 택시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물어보곤 하면, 위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한다. 시작 당시엔 지속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개월 차가 6개월 차(어느 정도 마음을 굳혀간 시점)가 됐으니 1년은 “버텨볼랍니다”라 했었고, “1년 버텨봐서 가능성이 있다 보면 개인택시를” 사겠다 싶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개인택시가 사례자의 실제 목표가 되었다. 참고로 36개월간 무사고운전을 하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현재 법인택시의 순수익은 평균 월 170만 원 내외로 본인의 기준인 2백만 원에 못 미치고 있는데, 개인택시를 시작하여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며 열심히만 하면 월 4백만 원의 수입과 3백만 원의 순수익이 기대된다고 한다. 더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75세까지 일을 할 생각인데, 택시 일은 앞으로 20년간 할 수 있는 일은 되겠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고정수입원의 필요와 함께 택시 일을 결심하게 한 또 하나의 동기이기도 하다.

경력전환을 한 가운데, 사례자는 오랜 기간 본인의 경력을 형성해온 일을 “과거 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정리된 마음을 내비쳤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줬던 일”로 그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1차 본조사 당시만 해도 주된 일자리를 조기퇴직하게 만든 오너에게 마음의 양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풀렸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새로운 제2의 생의 전환기’로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회사 소속이지만 개인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권리, 권한, 책임이 사례자 본인에게 있는 그런 택시운행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방향 전환을 완전히 한 거죠.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과거에 했던 일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줬던 일로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제2의 뭐라 그러죠, 생의 전환기라고 그럴까, 내 일을 찾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 자체도 회사 소속이지만 개인사업이란 똑같아요. 차만 회사에서 저한테 배정을 해놓고 계속 입출고 시간만 맞춰 놓을 뿐이지 관리는 제가 다 해야 하니까. 물론 정비라든지 기본적인 차량 사고 처리는 회사에서 다 하지만 기본적인 차에 대한 권리 권한 책임은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39-남]

180도 경력전환, 즉 택시운전을 선택하기까지는 과거의 경력, 과거에 누렸던 것,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내다 버리는”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또한 배우자의 실망감과 (배우자로부터 사례자가 들은 말이라고 하는데) “막장” 직업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사례자 스스로 거스르고 떨쳐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한다. 보통 택시기사를 하대하고 업신여기는 세간의 인식 및 태도를 언급하며, “그거는 그 사람 운전대 잡은 사람의 몫이”며 “자기가 하대받을 일을 했으면 하대받을 것이고 자기가 하대 안 받을 일을 했으면 존경은 못 받더라도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도 돼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움과 생각의 정리 속에서 경제적·심리적으로 정기적인 일이 필요하기에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수입이 창출되면 취미와 같이 즐길 수 있는 일로서 제2의 인생기에 적절한 일이라는 새로운 생각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비움, 결단, 생각은 퇴직 후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지니고 있던 많은 정체성이 야기한 “자책”과 심적 부담으로부터 개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차 본조사 당시 사례자는 한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낸 바 있었는데, 일련의 상황, 이를테면 퇴직 이후 공백기를 갖게 되고 모친의 병세가 악화되고 큰딸이 결혼을

하고 둘째딸이 투병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지금까지 “장남으로서 맏이로서 가장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뭘 해오긴 해왔는데” 도대체 해놓은게 무엇인지, 긴 시간 일을 해왔는데 왜 지금도 경제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지, “30년을 허송세월 보냈다”는 “자책”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과 그에 따른 자책이 심해짐에 뒤이어 지금까지 “맏이로서 모든 것을 책임만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마음, 가족들의 병이나 고통에 자신이 “어떻게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앙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스스로 찾아가 신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의 의미에 있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도에 조사된 일의 의미는 ‘경제적 수단’, ‘보람’, ‘건강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2016년 당해 현재 일의 의미를 질문하자, 굳이 일의 의미를 찾는 일보다는 “일은 꼭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인이 의미를 찾아보자면, 노소를 떠나 정기적인 일을 통해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서 사례자가 말하는 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괄하는 것이다. 일을 하는 동기로 고정적인 수익을 먼저 언급하긴 했으나, “수입이 있든 없든” “수입의 과다를 떠나” 기본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례자에게 있어 배우자도 예외가 아니다.

<표 6-10> [39-남]의 일의 의미 변화

| 구분 | 2014년 조사 | 2016년 조사 |
|-------|--|---|
| 일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수단 • 보람 • 건강을 주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수입원이자 지속가능한 것 • 필수적인 것 • 의무 • 삶 자체 • 건강을 주는 것 |
| 주요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일자리에서의 일 • 가교 일자리에서의 일 | 택시영업일 |

더불어 가장 바람직한 일의 의미에 대한 사례자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직업(고정적·지속적인 일)이 곧 취미(좋아하는 일)이면서 수입으로 연결되는 상태에서 진정한 행복과 건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듯 이상적인 일의 의미에 대해 나름의 관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실제 택시영업 일이 이러한 의미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자 앞으로의 관심 대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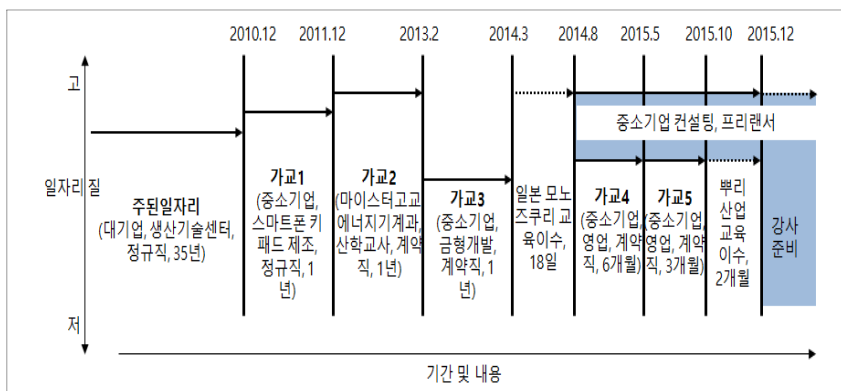
나. [47-남]: 배움과 전수의 보람, 영성의 치유

사례자 [47-남]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했다. 원래는 인문계고교로 진학하여 공무원이나 문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졌었는데, 집이 어렵다고 부친이 공고에 강제로 등록시켰다. 그런 부친은 “술주정꾼”이었고 집에 월급봉투를 갖다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한다. 사례자는 4남 3녀 중 3번째 아들이자 다섯째였지만, 큰형은 군대 가고 둘째형은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않아 모친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는 형편으로 그런 강제 입학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한다. 1974년에 모 대기업 실습기간을 거치고, 그다음 해에 고교 졸업 후 정식 입사하여 해당 기업의 생산기술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해오던 중 2008년경에 회사 정기검진에서 지방간이 간경화(간이 굳는 증상)로 갈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일과 스트레스도 많은 차에 중소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퇴직을 결심하게 된다.

2016년 당해 인터뷰 결과, 주된 일자리에서 사례자가 인식하고 느껴온 학력과 학벌에 대한 한계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사례자는 “(연구소에) 잘못 들어갔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연구소에서 일하다 보니 학력과 학벌에 대한 한계를 “계속” 느끼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한다. 일례로 연구소에 들어가 보니 소위 ○○ 출신들이 “잡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너 학교는 어디 나왔냐”, “○○○(○○고~○○대) 나왔냐”고 물었다 한다. 그리고 나이는 사례자보다 적는데 학력이 더 좋은 연구원과 직책이 같거나 그들이 “앞서”가는 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그에 따라 비서실에 가서 자신은 연구시작실, 생산책임 쪽으로 응시해서 합격한 건데 왜 연구소로 발령을 내렸냐고 이의 제기를 했더니 사례자가 필요해서 “빼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연구소의 일은 주로 텔레비전, 자동차 부품개발 업무라 했다. 35년간 연구소에서 일해온 것을 한마

다로 “따까리”를 했다고 표현했다. 연구원들이 하지 않는 각종 검사 등 몸으로 부딪히는 일을 하며 데이터를 산출해 결론만 내면, 다른 연구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것이다. 2014년 조사결과를 통해 사내대학 졸업(사내에서 전문대 수준의 학위 인정), 일본 관련 일과 출장, 정밀가공쪽 센터장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던 바, 이러한 과거 주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소 의외였다.

[그림 6-9] [47-남]의 경력경로



2016년 현재, 대기업 주된 일자리의 일 만족도(6점)에 비해 가교 및 중소기업 일자리(술 문화가 심했던 가교 일자리3 제외)의 일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마이스터고교에서 산학교사(에너지기계과)로서 일한 것과 중소기업 컨설팅 및 교육을 하는 현재의 일 만족도가 10점 만점으로 최상이었다. 이에 대해 사례자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꿈이었으며 좋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영향을 준 다차원적 요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중고령기 욕구에 관해 매클러스키가 말한 공헌의 욕구, 소손과 위스킬의 문화 전수의 욕구와 관련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르침 또는 전수의 활동에는 사례자의 지속적인 배움과 노력이 선행되었다. 다시 말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일 경험이나 연륜, 축적된 능력만으로 이러한 전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차 본조사 당시, 그 두 달 전 사례자는 산업자원부와 한일산업기술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일본의 ‘모노쯔꾸리

(物作) 교육’에 지원해 합격한 상태였다. 당해 확인 결과, 2014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18일간 일본 현지에서 2주 교육받고 국내에서도 교육을 받았다 한다. 사례자는 밝은 표정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대단히 만족했어요”라고 말했다. 모노는 “물건”을, 즈쿠리는 “만든다”는 뜻으로 ‘장인의 정신과 기술’을 의미한다 한다. 교육 내용은 기본적인 개념 교육, 과목별 품질, 생산성, 납기 등에 관한 교육, 5명씩 팀을 이루어 실제 현장의 공장들을 투어하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PPT로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이었다. 교육을 마치고는 한일○○○재단(7곳)과 한국○○협회(3곳)에서 지정, 주관한 국내 10개 중소기업의 컨설팅 및 교육에 참여했고(실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제안 및 시각적 교육), 그 이래로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지도위원/공장 운영설계사를 기본 직함으로 하여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주된 직업으로 삼았다. 그런데 2014년에는 일거리가 많았는데, 2015년에는 정부 지원이 깎여서 “일이 뚝 떨어졌”다 하며 이에 따라 몇몇 중소기업에 재취업해보기도 하였으나 영업실적이 나지 않아 자의 또는 타의로 그만두고, 모르는 새로운 분야를 배워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2015년 11월에서 12월까지 ○○○기술협회가 주관한 중장년층 대상의 뿌리산업(주조, 용접 등) 교육을 이수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기술 분야를 말하는데, 교육을 이수하고 나니 강의가 가능한 분야의 내용을 요약해 제출하라고 해서 그동안 교육받고 관련 일도 한 ‘모노즈쿠리’에 관한 특강 제안서를 내고 현재 강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결론적으로 사례자 [47-남]은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방향으로 일의 의미가 크게 전환된 가운데, 자아 확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신앙생활을 통한 영성이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자에 따르면 “제가 은혜도 조금 받고 옛날에 비해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1위예요, (정신적·내면적으로) 최고 중요”하다 하며, 나이를 먹고 몸이 좋지 않으면(현재 간경화 판정) 누구도 의지를 못 하고, 잘못하면 우울증이 오고 인생을 포기하기 쉬운데, 믿음을 가지면 의지할 데가 생기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살게 된다고 하였다.

<표 6-11> [47-남]의 일의 의미 변화

| 구분 | 2014년 조사 | | 2016년 조사 |
|-------|---|--|---|
| 일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지 않은 것 · but 경제적 수단(주로 ‘가족’을 위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 · 하고 싶은 것 · 사회적 기여를 통한 보람과 행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수단(‘나’를 위한) ·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리고 즐거운 것 · 타인을 위한 호뜻한 봉사(심리적 보상을 주는 것) |
| 주요활동 | 주된 일자리 일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가교 일자리 일 | 중소기업 컨설팅 일 |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된 일자리 퇴직 전 직장일은 ‘하고 싶지 않으나 경제적 수단’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30대에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지겹고 힘들고 때려치우고 싶은 것’으로 대답했을 것이나, 당시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퇴직 후에 일이 없는 경험을 하면서 일을 곧 “생명”으로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경로당 신세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아울러 퇴직 후의 삶에서 사례자가 무엇보다 만족한다고 말한 부분은 하고 싶은 일 또는 활동을 탐색하는 일이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운동을 하는 등 본인의 건강을 위한 일부터 여행, 드라이브, 일본방문 그리고 구직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찾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30대에는 일은 지겨운 거. 너무 힘든 거. 때려치우고 싶은 거 이랬을 거예요. (중략) 생계를 위해서 했던 일인가요? 좋은 데 있으면서 일이 세니까 그런 거고. 일이 없어서 지금은 쉬어봤잖아요. 놀면 건강하고 몸이 좋을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계속 쉬면 경로당 신세 되면 안 되니까. 일은 생명이라고 보는 거죠. 단 건강하게요.” [47-남]

아울러 일은 사회적 기여를 통한 보람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는데, 대표 사례로서 사례자가 취업에 도움을 준 마이스터고교의 제자들이 감사의 연락을 해올 때, 교육시킨 적이 있는 신입사원들이 부사장이 되고, 기

술을 가르쳐준 이가 전국기능인으로 금메달을 따는 등 사례자가 가르치고 도움을 준 이들이 잘되거나 고마움을 표할 때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다.

1차 본조사 이후 사례자는 중소기업 컨설턴트로서 직업적 전환을 이루어 갔음을 위에서 기술하였다. 이 중소기업 컨설팅은 본인은 하기 싫지만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생계형의 일이 아니라, 사례자 본인을 위한 경제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례자 본인이 쓸 건 있어야 하고 모을 건 모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례자가 말렸음에도 주된 일자리 재직 시에 과다한 주식투자로 자신이 힘들게 일하여 번 돈의 대부분을 잃게 하고 빚까지 지게 만든 배우자의 일명 ‘주식사건’ 이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감이 사라져 집에 돈을 갖다 주지 않아왔고 배우자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례자가 사랑해 마지않는 하나뿐인 딸(만족도 10점)은 회사원으로서 직업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가구연간소득이 사례자와 자녀 소득 합산하여 4천 7백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차년도에 조사된 5천만 원에 비해 3백만 원 정도 감소한 액수인데, 사례자가 언급한 대로 컨설팅 일거리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후에 받을 예정 자산으로 국민연금 월 1백만 원, 개인연금 월 30만 원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이 일(중소기업 컨설팅)이 사례자가 “가장 원하는” “가르치는” 일의 일환으로서 “즐겁”다고 하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일거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이 일은 근본적으로 사례자에게 “재밌”는 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재미는 해당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호뭇한 감”을 느낄 수 있는 봉사와 같기 때문이라 한다. 덧붙여 주된 일자리 재직 시 주식사건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례자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만든 배우자에 대한 증오가 상당했던 것으로 1차년도에 파악된 바 있었는데, 하고 싶고 즐거운 일, 딸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영성(“현재 힘을 많이 얻어요”, 종교생활 만족도 10점)과 더불어 “다 용서하고 마음을 비웠”다고 하다가도 다시 “안 돼” “응어리진 건 못 버리겠어” “그 힘들게 고생해서 그렇게까지 모아놨는데 한 방에 주식으로 다 까먹으면 사람 심리가 어땠겠어”라는 말로 완전한 치유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차 본조사 이후 결국 간경화를 판정받고 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병원에서 CT를 찍어보고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 한다. 더 나아질 수는 없고 술 마시지 않고 병원 관리받으며 악화되는 것을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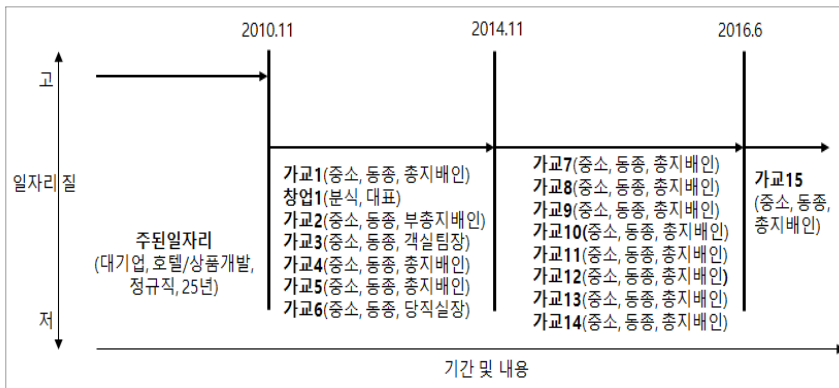
을 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사례자가 하고 싶어하는 즐겁고 보람 있는 행로로 계속 걸어가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변수라 할 수 있다.

1.2.3. 생계하락형: 좌절과 퇴행(for just money)

1차년도 본조사 당시 고차원적 성장욕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일의 의미에 있어 단일한 측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었던 사례자들 가운데에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각자 경험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경제적 동기 외에 다른 욕구들의 충족이 좌절되거나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어, 단지 별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일하는, 즉 하고 싶지 않으나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02-남]과 [40-남]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짧지 않은 시간 몸담고 각기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을 한 이들은, 저차원이나마 기존에 추구하던 일의 의미가 서로 다른 상황, 맥락 속에서 좌절됨을 경험하면서, 단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수많은 일자리를 불만족과 불만 속에서 전전하거나, 주된 일자리에 대한 분노와 해당 노동시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와중에도 건설노동시장 일용직으로 (그나마) 일을 하고 있었다.

가. [02-남]: 대기업의 자존감과 불만족 지속, 돈은 벌어야

[그림 6-10] [02-남]의 경력경로



사례자 [02-남]은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고 1985년에 노동시장에 입문하여 대기업 관련 분야에서 일했으나, 40대에 이르면 퇴직해야 한다는 조직의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에 직접적으로는 고위 상사와의 (지적에 대해 속이지 못하고 할 말 다 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거의 강제적 퇴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업계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몸담았던 경력으로 창업 경험을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중소기업 동종업으로 총 14개의 가교 일자리를 거쳤고, 인터뷰 당시만 해도 기존 일자리의 퇴사 절차를 밟고 있었다. 참고로 가교 일자리 연봉은 보통 5천만 원 미만이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사례자는 주된 일자리 이후 재취업과 퇴직을 빈번하게 반복해왔다. 그런데 이전 직업(대기업) 만족도가 2014년, 2016년 각 10점, 7점인 것에 비해 현 직업(중소기업) 만족도는 각 3점, 2점임이 반영해주듯, 사례자의 주된 일자리에 대한 강한 자존감은 1차 본조사 당시와 변화가 없어 보인다. 여전히 해당 업계에서 사례자의 경력과 전문성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 구한 일자리의 오히려 사례자의 전문성이 더 높다는 생각을 사례자 스스로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는 대기업과는 달리, 오히려 중심의 경영방식이나 오히려 가족 및 자녀의 경영 개입 등이 이루어지는 해당 업계 중소기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데, 이는 그러한 경영방식이나 문화 속에서 사례자의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불만이기도 하다. 더불어 개인 성격적 측면에서, 주된 일자리 근무 시 해당 부서 총 책임자로서 의사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사장과 다른 의견 충돌 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직언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성향이 아닌 것으로도 보인다.

이렇듯 대기업과는 다른 중소기업의 경영방식과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제 5살이 된 어린 아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는 책임감과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돈이 있다면 놀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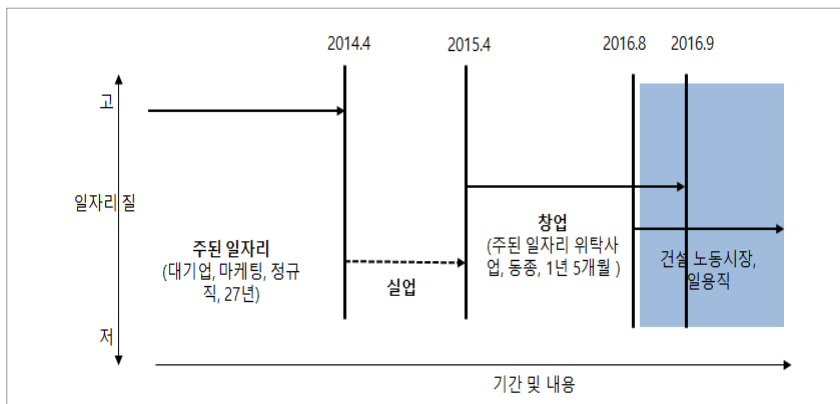
<표 6-12> [02-남]의 일의 의미 변화

| 구분 | 2014년 조사 | 2016년 조사 |
|-------|--------------------|------------------------------------|
| 일의 의미 | · 경제력과 성취를 대변하는 수단 | ·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 경제적 의미만 남게 됨 |
| 주요활동 | 주된 일자리(대기업) 일 | 가고 일자리(중소기업) 일 |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이 주된 일자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사례자는 나이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 높은 지위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상황임에도 일에 대한 의미를 더욱 찾거나 추구하지 않는다. 사례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중소기업 재직 시 오너의 횡포로 인식되는 경험으로 인해 돈이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로또를 열심히 사고 있다 한다. 사례자의 주된 일자리 소득수준에 비해 현재의 경제상황(순자산 2억)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악화 된 것은 그동안 주식투자 실패와 사업투자 손실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40-남]: 자녀 미래의 의구심과 압박감, 현실적 결단

[그림 6-11] [40-남]의 경력경로



사례자 [40-남]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기업고객 대상의 업무특성과 경쟁사와의 경쟁으로 스트레스 및 압박감을 받아온 데다 2014년 4월에 높은 연령대의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고가 시행되자,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하고 일감을 줄인다고 하기에 고민하다 퇴직하였다. 퇴직 전 퇴직 준비를 하지 않은 가운데 막연하게 귀농·귀촌을 생각하긴 했지만 배우자의 반대로 유보되고, 구직활동을 해보았으나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에 퇴직 후 1년 후인 2015년 4월경에 주된 일자리 소규모 위탁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처음 4~6개월간은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했지만 시장 상황과 이후 대리점 정책, 통신시장의 변화 등으로 수입 창출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주된 일자리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월수입이 1백만 원밖에 되지 않으며 향후 전망도 좋지 않자 정리를 결심했다.

배우자와 군 제대한 자녀 한 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회사원이던 딸이 올해 9월 말이 계약 만기로, 한국의 직장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퇴직하고 남자친구가 있는 호주로 갈 계획이라 하여 사례자가 갖게 된 생계의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현황을 참조하자면, 가구연간소득이 사업소득과 노동수당 합하여 1천만 원이 안 되고 별도 수입원 월세 50만 원이 있긴 하나, 전체 순자산은 2015년 부가조사 이후 주식으로 5천만 원 손실하여 5억 5천만 원(부동산 기반)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낭비 안 하고 검소하게” “괜찮게” 살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자녀들이 과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만약 안정적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본인 “쓰는 걸 줄여서, 나는 고통을 좀 받더라도” (“우리 시대에는 사실)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이에 2016년 8월부터 건설노동시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경력경로상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한 달에 2백만 원의 수입은 창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동”을 시작했다 한다. “힘 있을 때 노동시장 가서 부딪혀보자”, “땀 흘려서 하루하루 한 10만 원 정도 벌”어보자 하여 인터뷰 3주 전부터 노동을 해왔다 한다. 2015년 부가조사 당시 자존심이 강한 자신의 개인적 성향에 대해 이야기한 바, 현장일용직 노동을 하기로 한 선택과 실행은 놀라운 변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사례자는 이렇게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노후가 걱

정될 수밖에 없으니 “그나마 힘 있을 때 좀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및 동기를 설명하고 더불어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아직 5년이 남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표 6-13〉 [40-남]의 일의 의미 변화

| 구분 | 2014년 조사 | | | 2016년 조사 | |
|-------|----------------------|---------|-------------------------------------|----------------|----------------------------|
| 일의 의미 | · 생계 수단 · 하기 싫은 것 | 하고 싶은 것 | 타인을 돕고 배품으로써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 | 경제적 의미의 강성 | 투자한 돈을 손실하기 쉬운 어려운 일 |
| 해당 활동 | 주된 일자리 (대기업) 일 | 귀농·귀촌 | (돈이 많다면) 하고 싶은 봉사활동 |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 | 귀농·귀촌 |

이러한 맥락으로 일의 의미에 있어서 생계, 자녀 도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성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1차 본조사 당시 사례자가 인식하는 일의 의미는 ‘생계(주된 일자리 일)와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 수단’,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귀농·귀촌)’, ‘타인을 돕고 배품으로써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돈이 많다면 하고 싶은 봉사활동)’으로 조사된 바, 해당 활동은 다르나 일의 의미에 있어서 다차원적이고 [02-남]에 비해서는 훨씬 고차원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재취업의 어려움, 사업의 부진과 전망 없음, 그리고 자녀와 노후의 걱정 등으로 선택하게 된 건설노동 일용직은 그러한 맥락에서 사례자에게 경제적 수단(돈)의 단일한 의미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막장”의 노동이라도 확실한 수입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한다. 한편 경제적 차원의 스트레스와 심해진 어깨 통증 등으로 건강상태 만족도는 3점 하락하였다.

이렇듯 1차 본조사 시 사례자가 기대하고 있던 재취업과 귀농·귀촌의 염원이 여지없이 좌절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주된 일자리 퇴직 시 원했고 미래 행복한 청사진으로 꿈꿨던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전의 막연하고 낭만적인 것에서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귀농·귀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연금 나올 때까지

약 5년간은 노동을 하고 자녀들이 자립하게 되면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 없지는 않은데, 수입을 창출할 만한 일감을 찾기 어렵고 농사라는 일은 기후도 예전 같지 않은 데다 경력이 없는 이에게는 “도박”과도 같은 일로 투자한 돈을 손실하기 쉽다는 생각이다.

제2절 소결

삶의 고비마다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변화 상황부터 제대로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장 먼저 직면하도록 이끄는 주체는 바로 ‘자기’이고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가면 ‘자기실현’이 될 수 있다. 즉 미지의 변화가 내포하는 파괴성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하는 것을 바로 자기실현이라 할 수 있다. 주된 일자리 이후에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위기는 인생의 후반부에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실마리로 이용하라는 자아의 목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위기를 자기실현의 토대로 제대로 활용하면, 자기는 개성화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개성화라는 것은 자아와 무의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축을 세우는 작업이며 홀로서기의 과정이다. 이러한 홀로서기가 진정한 치유의 과정이며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다. 동시에 삶의 쓰임새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한준상, 2009).

본조사를 통해 우선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1차 본조사 이래 2년이 지난(주된 일자리를 퇴직한지 약 3~5년) 현시점에서 나타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변화 양상이 보다 다양하고 개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마다의 선천적·후천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오랜 시간 축적된 고유한 경험과 함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맞닥뜨리는 일련의 변화 상황에 각기 다양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1차 부가조사(2015)에서 논의한 바,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적·개인적 상황을 대면하는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거나 유지하거나 계속 실현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적응전략 또는 변화가 발견될 수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적응에 도움을 주어진 주요요인으로는 사례자의 지속적인 ‘배움’, ‘인간관계’, ‘배우자의 경제활동’, ‘운(luck)’, ‘건강’ 그리고 ‘종교생활

(영성)’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개인에 따라서는 기존에 지니고 있던 일련의 정체성과 어떤 관성적인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일과 삶에 대한 그동안의 관점을 스스로 과감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개조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개조의 필요성은 기성세대라 할 수 있고 특유의 경력경로를 밟아온 베이비부머에게 있어서 하나의 위기인 동시에 진정한 자신을 찾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당해 조사에서 이러한 차원의 변화 사례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

1차년도에 조사된 일의 의미상 결핍욕구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일정 기간 실업상태를 경험하다가 자신의 경험과 능력 등을 살리며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자, 일의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하며 자아 확장의 변화를 가져간 사례가 확인되어 성장욕구형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기존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긴 했으나, 과감한 자기개조로 새롭게 생산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한편, 기존 경력경로를 고려했을 때 성장욕구형으로 분류되긴 하였으나, 구조적이기도 하면서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맥락 속에서 좌절과 퇴행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례, 나름 준비하여 귀농·귀촌의 첫걸음을 떼었으나 생각보다 힘든 생활에 이전과 같이 기여와 보람의 대상을 찾을 수 없어 불만족의 수준이 높아진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사례도 다수 발견하였다. 가령 다른 이들에 비해 주된 일자리의 구조적 위기가 일찍 도래하여 보다 조기에 퇴직할 곤란에 처했지만, 오히려 조기에 위기가 있던 탓에 일찍 정신을 차리고 퇴직 준비를 착실히 하여 막상 퇴직 후에는 다른 이들에 비해 큰 굴곡이나 어려움 없이 자아실현을 이어가며 성장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생산직 고졸자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열등감을 지니며 일해온 가운데, 퇴직을 하였으나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황에 따라 퇴직 이후에는 그들이 열등감을 가졌던 대상에 비해 삶의 질이나 기회 등의 차원에서 오히려 유리하고 편안해 보이는 장면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개조의 사례로 언급했듯이 오랜 실업기간과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막막함 등 그러한 각자의 주관적인 바닥체험이 오히려 자신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게 하는 계기가 된 사례, 가족이나 친족, 친구 관계로 그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었다가 다시 생산성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의미나 성취감 획득의 차원이 아닌 일 자체의 즐거움을 발견하며 자아확장을 이루어간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확인과 발견은, 향후 베이비부머 개인 여하에 따라 그들을 특징짓는 틀이 언제든 재구조화될 수 있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것임을 환기시켜준다. 나아가 개인에 따라서는 과거나 현재의 상태가 어떠했고 어떻게든 간에 그 언제든 성장 및 성숙을 향한 인간적 욕구의 발현을 통해 의미 있는 생산성의 성취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7장

중요한 활동의 변화

제1절 일과 활동의 변화

베이비부머는 본 3차년도 종단 연구 시점인 2016년에 53~61세에 분포해 있다. 본 장은 생애주기에서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 시기를 보내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들이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생애주기에서 차지하는 연령의 특성상 지금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의든 타의든 점차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은퇴를 향해 갈 것이다. 지금까지 베이비부머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은 일이었으며 따라서 일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가장 중요했던 일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일 이외의 어떠한 활동이 대두될 것이고, 삶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차 일에서 일 이외의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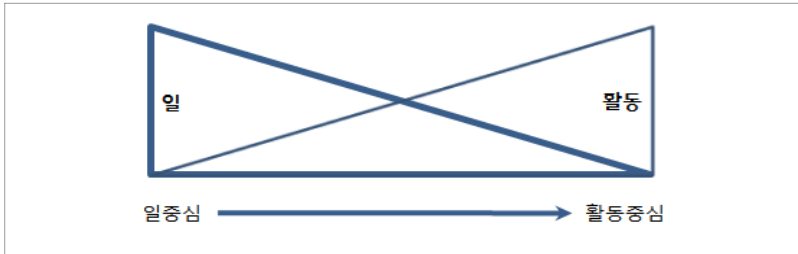
3차년도 연구에서 연구진들이 만난 사례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지 2~3년이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가교 일자리로 이동하였고, 일부는 구직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였는데 그 양상이

일률적이지 않았다. 한결같이 일 중심으로 살아온 베이비부머의 삶에 이미 일과 활동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일과 관련한 궤적은 본조사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항으로서 경력경로 분석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일 이외의 활동에 관해서는 아직 다룬 바가 없다. 베이비부머의 삶을 아우르는 경력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일과 활동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삶 전체를 조망하며, 베이비부머의 삶이 일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은 무엇이고, 그 양상은 어떠한 맥락에서 전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업종과 직업, 근무환경이 다를지라도 임금근로자로 직장생활을 해온 공통점은 베이비부머의 삶과 진로를 일정 정도 비슷해지도록 표준화해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은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를 복잡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분화되도록 촉진하였다.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두 사람의 가교 일자리는 결코 같지 않으며, 어떤 사례자는 취업을 시도하고 어떤 사례자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 주된 일자리에서 쌓은 경력을 활용하기보다는 퇴직을 해방으로 삼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례자들은 서로 다른 욕구와 서로 다른 객관적·주관적인 여건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맥락 안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활동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연구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활동은 일 중심에서 점차 나이가 들면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였다. 이때 중요한 활동은 직업(job)을 의미하는 일과 일 이외의 활동(activity, work)으로 구분하였다. 일 중심의 삶에서 활동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7-1]과 같다. 일을 의미하는 왼쪽의 삼각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일이 줄어드는 형상이다. 활동을 의미하는 오른쪽의 삼각형은 일 중심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작고 시간의 할애가 적다가, 일의 중요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활동이 늘어나는 형상으로 일 삼각형과 일부 겹쳐 있다.

[그림 7-1] 일과 활동의 변화 양상



위의 일과 활동의 변화 양상에서 중요한 활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 중요한 활동은 일 중심, 일과 활동의 병행, 활동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일 중심’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job) 중심으로 생활하고 일 이외의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는 생활이다. ‘일과 활동의 병행’은 경제활동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여가활동, 학습,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등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 중심’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일 이외의 활동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활동이란 일상생활활동,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 학습, 친목활동 등을 말한다.

<표 7-1> 중요한 활동의 개념적 구분

| 구분 | 특징 |
|-----------|--|
| 일 중심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적 활동인 일이 가장 중요한 활동임 |
| 일과 활동의 병행 | 경제적 활동과 여가활동, 학습 등 자신에게 의미 있거나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
| 활동 중심 | 경제적 활동인 일을 하지 않고 일 이외의 일상생활활동, 좋아하는 활동 중심으로 생활함 |

본연구는 개념적으로 구분한 중요한 활동이 베이비부머의 삶에서 어떻게 세분화되어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중요한 활동은 사례자의 중요한 활동에 대한 구술에 기반을 두어 일상에서 일과 활동의 시간적 분배, 일과 활동에 대한 중요도 및 의미 부여 정도, 일 행위의 내용, 활동 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구술하는 활동과 의미가 있다고 구술하는 활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구술하고 실제 일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사례자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은 일이 아닌 다른 활동이라고 구술하는 경우이다. 본연구는 이와 같은 구술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베이비부머의 중요한 활동변화 양상은 다음 <표 7-2>와 같이 나타났다.

<표 7-2>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과 해당 사례자

| 구분 | 유형 | 사례자 ID |
|-----------|----------------|---|
| 일 중심 |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 | [09-여], [15-남], [22-남], [23-남], [51-남], [2016-2-남], [2016-4-여], [2016-5-여] |
| |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 | [02-남], [03-남], [06-남], [08-남], [10-남], [12-남], [16-남], [24-남], [32-남], [39-남], [40-남], [45-여], [47-남], [48-남], [49-남], [50-남], [63-남], [2013-b2-남], [2016-1-남] |
| 일과 활동의 병행 | 일과 활동의 분리 | [13-남], [14-여], [19-남], [34-남], [46-남], [52-남], [56-여], [57-여], [2013-c1-남], [2013-c2-남], [2013-c4-남] |
| | 경력개발활동 | [01-남], [18-남], [28-남], [37-남], [2013-b5-여] |
| 활동 중심 | 나 중심의 활동 | [27-여], [30-남], [60-여], [62-여], [66-남], [2016-6-여] |
| | 일상생활 중심의 삶 | [17-남], [20-여], [26-남], [53-여], [58-여], [59-여], [61-남], [65-남], [2013-b1-남], [2013-b3-여], [2013-b4-여], [2016-3-남] |

첫 번째 ‘일 중심’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 유형과 ‘생계수단으로서의 일’ 유형이 나타났다. 두 유형에 속하는 사례자 모두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일을 꼽은 것은 같았지만, 그 배경과 일과 활동에 대한 태도, 일과 활동의 내용은 서로 사뭇 달랐다.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 유형의 사례자들은 이전 경력에서 쌓은 자신

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며 일을 하고 있다. 경력의 통합감을 느끼며 일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주된 일자리보다 가교 일자리의 조건은 모든 면에서 낮아졌지만 일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진다. 더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은 일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미활동은 나중으로 미뤄두었다.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 유형의 사례자들은 경력 무관한 저임금의 일자리,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에서 만족스러운 일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부족하여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직활동이나 경제적 활동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자리 외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적어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0대 초반까지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일 이외의 취미 활동은 “사치”이고 “취업만이 힐링”이 될 뿐이다.

‘일과 활동의 병행’에는 ‘일과 활동의 분리’ 유형과 ‘경력개발활동’ 유형이 나타났다. 두 유형에 속하는 사례자들은 일과 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점은 같았는데, 일의 내용과 활동의 내용, 일과 활동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달랐다.

‘일과 활동의 분리’ 유형의 사례자들은 일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중요한 활동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것은 일 이외의 활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지향한다.

‘경력개발활동’ 유형은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유형의 사례자들은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공부를 하며 필요한 준비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과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활동 중심’에는 ‘나 중심의 활동’ 유형과 ‘일상생활 중심의 삶’ 유형이 나타났다. 두 유형에 속하는 사례자들은 연금, 가족의 수입, 그 외 소득이 있어서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했다. 두 유형이 일 중심의 삶에서 활동 중심의 삶으로 전환한 점은 유사하지만 활동에 대한 태도, 생활방식, 활동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나 중심의 활동’ 유형의 사례자들은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례자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갈망하고 있다. 좋아하는 주제나 활동을 일로 발전시키기도 하는데 프리랜서 형태로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여가활동으로 외부활동이나 취미활동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과 관련한 연구와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

‘일상생활 중심의 삶’ 유형은 자의 또는 타의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가를 포기하는 대신 ‘일상의 여유’를 얻었다.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와도 만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즐거운 활동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허전한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2절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

2.1. 일 중심

2.1.1.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 유형의 사례자들은 가교 일자리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며 업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전 경력과 유사성이 높은 직장에 재취업하여 “베테랑답게” 일하는 경우나 “생산성” 있는 직업활동을 계속한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써 얻는 “다시 태어난 기분”과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예전보다 낮아진 연봉과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전직을 하면서, 더 이상 근로조건이나 기업규모의 상승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았고 일 자체의 즐거움과 성취감에 집중하고 있다.

이 유형의 사례자들이 망설임없이 중요한 활동을 ‘일’이라고 구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사례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가교 일자리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현장에서 “쾌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베테랑답게” 일하고 있다면 여전히 건재한 자신을 확인하기

에 필요한 조건은 일단 만들어진 셈이다.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플랜트 전기공사를 해왔고 현장소장으로 퇴직한 [23-남]은 퇴직 후 설계디자인을 하는 기업에 재취업을 하였다. 제안을 받은 기업의 직종이 자신의 기존 경력과 워낙 달라서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입직을 망설였다. 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건설회사 재직 시 습득한 업무 스킬이 설계디자인 회사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주된 일자리보다 회사규모도 작고 연봉이 줄었지만 “아침이 즐겁고”, “월급이 적더라도 다니고 싶어요”라고 할 만큼 애정이 생겼다.

사례자들이 현재 하는 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한다고 구술하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나. 사례자들이 일을 하며 기쁨을 느끼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퇴직하고 비즈니스코칭과 감사 역을 수행하는 [2016-5-여]도 자신이 하는 일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대학과 기업 전산실에서 25년, 해외IT자문관 3년, 중소기업 경영자문역 7개월을 거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2016-2-남]도 그러하다. 자신의 전문 분야, 기업임원 경력, 해외IT자문, 산업체자문 경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대학에서 ICT, IOT 관련 지역 특성화와 글로벌라이징을 하고 있다.

“내일 어디에 가서 강의해주세요. 계속 오잖아요. 내가 모르는 분야면 밤새도록 찾아서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모르면 의뢰는 받았는데 못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찌되었든 좌우지간 미약하더라도 보충하면서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새로운 부분. 그거는 은행 때 안한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요. 코칭도 그렇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2016-5-여]

“프로젝트수업으로 Capstone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산업체와 학교를 코디네이트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딱 알맞죠. 컨설팅을 그동안 해왔고, 여러 자문도 했었고 해외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중략) 지역화, 특성화 ICT라는 ICT나 IOT 특성화를 갖고

글로벌라이징하는 거거든요. 지역화·특성화와 글로벌라이징 그걸 하는 거예요.” [2016-2-남]

이 유형의 사례자들이 일을 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또 다른 지점은 바로 ‘배움의 즐거움’과 ‘성장’에 있다. 주된 일자리보다 확실히 연봉이 줄어들고 때로 일이 힘들지만, 일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움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학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51-남]은 기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 분야에 재취업을 하였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적용하여 회사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지금의 일을 좋아 한다.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15-남], [22-남], [23-남], [2016-2-남], [2016-5-여]도 마찬가지이다. 그중 [15-남]은 ‘해충연구’를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구술하였다. 다른 업종, 다른 직무로 전직한 그는 스스로 일하는 분야(해충 방제)에 대한 연구를 해가며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일을 하면서 “다시 태어난 기쁨”을 느낀다고 구술할 만큼 현장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데에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을 발전시켜 창업에 도전해 볼 생각도 갖게 되었다. 사례자의 나이가 만 59세이지만 새로운 경력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일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취미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일에 집중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에 즐기던 스포츠 등 취미 여가활동은 그나마도 휴식이나 공부 시간 뒤로 밀려나 있었다. 휴식이나 공부도 결국 일을 잘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또한 삶의 무게 중심이 일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례자들은 가교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소위 ‘욕심을 내려놓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일자리의 조건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와 체면, 자녀에 대한 책임, 명예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내려놓는’ 태도는 일 이외의 활동이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여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유형의 사례자들은 아직은 “생각뿐”, 행동으로 옮겨 취미활동을 할 여유는 없다고 느낀다. 앞에서 언급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례자들은 일하기와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살아 있음”을 느끼기 때

문에 일 이외 여가활동을 못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남지도 않는 것 같다.

심지어 [2016-5-여]는 일과 공부 이외에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한참 뒤, “나중에 총기도 흐려지고 집중이 어려워지면” 고려할 생각이다. 사례자에게 새로 시작한 일과 새 역할을 위해 공부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좋지. 뭐. 그걸 맨날 앓아가지고 그날이 그날인 것보다는 아니, 여행도 가끔 가면 재미있고 골프도 가끔 쳐야 재미있지. 뭐 맨날 치는 게 뭐 그렇게 재미있겠어요. (중략)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때 되면 골프 치러 가고, 필요할 때 여행도 또 필요하면 가고 그러는데 그게 막 너무 재미있어서 그걸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총기도 흐려지고 집중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편하게 하고 싶은 거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성과를 내는 것보다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2016-5-여]

일과 공부에 몰입하느라 자발적으로 여가활동 시간을 적게 할애하는 사례자들과 달리 [09-여]는 직장에서 “툭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일과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휴식 외 다른 시간을 내기 어렵다. [09-여]에게 여가는 결국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휴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유형의 사례자들이 선택하는 휴식이나 학습활동을 통해서도 이들의 삶의 무게 중심이 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감소를 겪는 사례자들은 씹씹이를 줄이는 대응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활동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09-여], [51-남]은 변화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전보다 외부활동을 줄였다고 구술하였다. 대기업에 재직할 때보다 절반 가까이 수입이 줄어든 [51-남]은 친목 모임에 아무래도 소극적이 되거나 “돈이 드는” 취미생활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 했다. 친구들이 대개 비슷한 경력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여건이 외부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다.

2.1.2. 생계 수단으로써의 일

이 유형의 사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활동, 즉 일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자들의 약 26%는 구직활동 중이고, 일을 하는 사례자 중 50%는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 창업을 한 네 명의 사례자 중 세 명의 사례자는 수입이 적거나 심지어 적자여서 취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한 명을 제외한 그 외 사례자들도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 여건의 주요한 변화는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고 투자 실패나 부채, 보증과 같은 문제가 가정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49-남]은 집안 내 보증 문제가 발생하여 교사로 근무하다 조기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빚을 갚았지만,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례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구술하거나 실업 상태인 경우에는 구직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꼽았다.

이 유형 사례자들의 대부분은 대기업 출신이었다. 그중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이후 규모가 작은 동종 기업으로 이동한 사례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그 외 대부분은 주된 일자리에서 쌓은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나이 장벽’을 넘지 못한 채, 낮은 임금의 경력과는 무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40-남]도 그중 한 명이다. 대기업 경력을 뒤로 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소위 ‘노가다’를 시작했다. 그나마 “힘 있을 때” 부딪혀보자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몸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3주 전부터 건설시장 있잖아요. 노동시장 인력시장 거기 가거든.
(중략) 땀 흘려서 하루하루 한 10만 원 정도 벌려고 거기 간 거야.
지금 온몸이 쑤셔요. (중략) 내가 노동을 시작한 것도 한 달에 2백씩
은 수입을 해야 해요.” [40-남]

생계를 위해 비록 지금은 경력 활용을 포기하고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일

을 하고 있지만, 일이 곧 “자존심”이자 “자부심”이었던 때를 금세 지워내기는 어렵다. [24-남], [32-남], [47-남], [48-남]은 소득도 불만족스럽지만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점이 힘들다. 지금의 일에서 불과 몇 년 전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구술했던 일의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금은 생계수단의 의미만 점점 도드라지고 있다. [24-남]은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이 내려놓고” 1인 개인사업(화장품 해외유통)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내려놓지는 못했다.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이런 삶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크죠. (원했던 삶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그니까 제일 큰 문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뭐. (일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게 가장 크죠.”
[24-남]

[10-남]은 좀 더 나은 곳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기보다 최저임금을 받는 지금의 일마저도 나이가 좀 더 들면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도 많지만 지금은 그런 아쉬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일을 한다는 자체에 감사한다. 남들에게 불품없이 보일 수 있는 최저임금의 일자리이지만 사례자에게는 밥을 주는 소중한 일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허투루 일하지 않고 진지하게 일한다. 이는 사명감, 충성심, 헌신, 성실의 키워드로 무장하여 경제 성장을 일구어 온 베이비부머를 관통하는 덕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대목이다. 대개의 베이비부머들이 그러했듯이 사례자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삶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일을 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확인해왔고 자부심도 느껴왔다. 하지만 이제 일의 내용이나 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성취감을 더 이상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즐기고 만족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별이’, ‘수단’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이 유형의 사례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활동이 시급하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일 이외의 다른 활동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비록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우스운 꼴”처럼 여겨진다. 필요한 취업을 하는 것만이 “힐링”이 될 뿐 그 외 활동은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은 퇴직하기 전에 취미생활 좀 하려고 했었죠. 악기나 이런 동아리도 하고. 섹스폰을 좀 배워볼까, 뭐 드럼 치는 걸 좀 배워볼까 이런 걸 했었어요. (중략) 지금은 집에 놀면서 낮에 그걸 하러 가는 거는 우스운 꼴이 되는 거니까. (중략) 남들 눈도 그렇고 내 자신이 그거를 사치스러운 취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그걸 배워서 뭘 할 거냐. 물론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뭘 했겠나만은, 그걸 배워서. 그래도 어쨌든 취미였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취미라고 하기에는 이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여유가 없고. 말 그대로 뭐 이거 말 그대로 마음을 힐링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했던 건데 지금은 이거를 근본적인 힐링을 하는 거나 재취업이거나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이게 힐링이 되는 거지. 지금 취미생활을 하거나 뭐하거나 뭐 아무거나 뭘 해도 아마 이 부분은 충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32-남]

또한 경제적 여건의 악화는 심리적 위축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있어서 외부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49-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친구와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신의 사정을 터놓고 알리고 싶지 않아 모임도 꺼리게 된다고 구술했다. 휴식 외에 별다른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10-남]도 비슷했지만 미래의 즐거움을 계획하고 있는 점은 달랐다. 그동안 수고해온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 생활은 미니멀하게 줄이고 즐거움은 유예하며 5년 뒤 은퇴 후를 기약하고 있다. 그때는 지금까지 살면서 스스로에게 해주지 못했던 보상을 해주려 한다. 고단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5년 동안만 일을 하며 잘 버텨볼 생각이다.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는 거는 5년, 그 뒤에는 내가 즐기고 내가 만족하는, (인터뷰어: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성취감이나 아니면 보수가 아니고 환경에, 그 내가 받는 뭐라고 그럴까 대가라고 그럴까 그것도? 금전이 아니라 어떤 대가죠. 아름다움, 그 내가 즐겁게 느낄 수 있는 내 몸 자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게 만족하기 위해서지 뭐. 네네. 몸이 만족하기 위해서지 뭐. 여지껏 노동의 댓가를 벌기 위해서 저걸(일을) 했지만 이제 움직이는 건 내 몸에 이 즐거움을 주는 (인터뷰어: 즐거움을 주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겠다. 나머지 인생은 또 그렇게 살겠다?) 그렇죠.”

[10-남]

이 유형의 사례자들은 “불안해서”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구술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사회적 체면과 관련해서는 “10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2.2. 일과 활동의 병행

2.2.1 일과 활동의 분리

‘일과 활동의 분리’ 유형은 일과 활동의 중요성을 5:5, 60:40, 6.5:3.5, 50:50과 같이 숫자로 표현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 유형은 ‘어차피 이 일에서는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일과 일 외 여가활동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가교 일자리로 옮기면서 근무조건은 낮아졌고 일은 단순해졌다. 체면은 상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은퇴 후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일자리를 수용했다. 불만족 요소를 만족 요소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을 전환하여 현 상황을 수용하는 쪽으로 타협한 것이다. 이것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은 더 이상 힘들 것이라는 체념과 관련이 있다. 후회는 하지만 별 수 없으니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중요한 건 일을 게

속하는 것”([57-여]), “사실 발전 없는 직장임을 안다”([46-남]), “(육체노동을 포함하여) 좀 어려운 일이라도 하겠다([2013-c4-남]), “좋아하는 거를 찾을 때가 아닌데”([2013-c2-남]), “어떻게 보면 큰 기대 안 하고 산다고 볼 수도 있거든”([34-남]) 등 사례자들의 이러한 일에 대한 체념과 수용은 어렵지 않게 구술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최대한 거기에 적합하게 맞춰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쉽게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깐. 그래도 고정적으로 3일 동안 가서 일을 하고, 뭐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을 개네들한테 필요한 일은 꼭 필요한 일은 해주고, 그리고 또 나 나름대로 따로 좋은, 행복한 일을 찾고. 아마 예전 같았으면 벌써 때려치웠을 텐데 안 때려치우고 있어요. 그만큼 약세인 거죠.”[57-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하고 보면 지금의 일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근무조건은 낮아졌지만 스트레스는 적기 때문에 일의 만족도는 더 낮다”([46-남]), “삼질에 가까운 노동력이 필요한 거지만 행복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57-여]), “만족하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34-남]). 사례자들은 되도록 지금의 일을 더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뭐 지금 80대 중반까지는 기본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한 앞으로 20년은 더 일해야 할 것 같은데요.” [13-남]

한편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했던 일에 대한 체념,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의 일자리 수용은 일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킨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고 일은 곧 자존심이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지금의 일은 그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너무 일만 했다”, “굳이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뜻밖에도 일 이외의 활동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례자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는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일 이외의 활동이 삶에 들어올 여지를 열게 되는 것 같다. 인

생애에는 일 말고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일과 일 이외의 즐거움을 주는 활동과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한다. 이 유형의 사례자들이 일 이외의 활동에 보여주는 태도가 그러하다. 사례자들은 자발적으로 일과 일 이외의 활동 간 중요성 정도를 5:5, 60:40, 6.5:3.5, 50:50과 같이 숫자로 표현함으로써, 일과 활동 간의 균형 있는 삶을 강조하였다. 아직까지 중요도에 있어서는 일이 우선이지만 의미 있는 것은 활동이라는 입장이 우세했다.

사례자들의 가교 일자리는 주된 일자리에서 강도 높게 일할 때와 달리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거나 퇴근 시간이 비교적 정확하다. 덕분에 일자리에 구속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자신과 가족, 친구, 여가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자들이 중요하다고 구술하거나 의미 있다고 구술한 활동은 대개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 사례자는 축구를 잘하는 아들의 뒷바라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족과 관련된 활동을 언급하였는데, 이 또한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자들이 중요한 활동으로 언급한 활동은 종교봉사활동, 친목활동, 운동, 캠핑, 춤, 축구동호회 활동, 등산, 색소폰 배우기 등으로 혼자 또는 함께하는 여가활동이다.

[57-여]는 일만 하면서 살았던 지난 시간이 후회스러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생계를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적어도 “엔조이하는 레크리에이션”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다. 별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기보다는 적게 버는 만큼 생활을 미니멀하게 바꾸었다. 일하는 시간만큼 “엔조이하는 레크리에이션”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이다.

“딱 6시가 되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탕고 음악 들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은 올 거야. (중략) 내년엔 베를린에 가서 한 3주 정도, 베를린도 멋지대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서 생활비를 줄이고, 십일조를 내는 것처럼 내가 만약 백만 원을 번다면 10만 원을 따로 저금을 하는 거죠. 저는 100% 저를 위해서 써요.” [57-여]

일과 여가의 균형점을 찾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존부터 해오

던 여가활동이지만 ‘자신의 여가’를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기업에서 조직과 일 중심의 삶을 살았던 주된 일자리 근무 시절에는 진정한 여유를 즐기며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여가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나름대로 어떤 대기업에 다니면서 직장 위주로 이제 흐르다 보니까, 이러한 저기 시간적으로라든가 이제 심적으로 여가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오픈된 마음으로 안 하는데. (여가가 오픈된 마음이 아니었다?) 구속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한 제약 조건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 시간이라는) 그렇지. 관심을 더 많이 쏟을 수가 있고 제약도 없어지니까 나름대로 이제 참여도도 높아지고. (말 그대로 자발적?) 네, 자발적인 거. 구속되는 게 없으니까 자발적으로만 참여하다 보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52-남]

인생에서 일 이외에도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46-남]은 여가를 통해 자신의 여가도 친구도 다시 만나는 중이다. 대기업 기술직, 영업관리직 등을 거쳐 명예퇴직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재취업한 [46-남]은 위낙에 가족과 캠핑을 즐기는 편이었다. 자연 속에서의 휴식도 좋고 캠핑을 하다 보면 함께 간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나누게 되는 점이 좋기 때문이다. 가교 일자리로 옮기고부터는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생겨 “이번 주말은 뭘 해서 놀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캠핑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는 맛도 괜찮다. 내친 김에 해외캠핑도 버킷리스트에 넣었다. 돈도 벌고 시간적·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진 지금이 적당히 만족스럽다.

사례자들이 구술한 “여가”, “놀이”, “엔조이” 활동은 인생에서 일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면서 무엇으로 빈자리를 채어나갈까에 대한 관심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다. 언젠가 일은 끝이 나지만 활동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중장년층에게 점점 일 이외의 활동에 관심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일이라는 건 언젠가 끝날 거고 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끝까지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할 거니까. 이게 돈, 생산적인 건 아니어도 시간 할애는 적어도, 중요도는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언젠가 끝날 거고. (인터뷰어: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이걸 내가 (색소폰을) 하는 이유가 끝까지 가져갈 내 활동이다. 이런...) 당연하죠. 나는... 그... 당연하죠. 얼마나 멋있어요. 예를 들어 80대에. 와인 한 잔하고 조금 우울할 때 색소폰 두세 곡 불면 얼마나 멋있어요.” [2013-c2-남]

2.2.2. 경력개발활동

이 유형의 특징은 가교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음 일을 준비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사례자들은 지금의 일 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며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다가가는 중이다.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을 밝히지 않았던 한 사례자는 자기계발을 위해 올해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적어도 방향은 설정한 셈이다. 사례자들이 생각하는 ‘일’은 자신의 경력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키워온 꿈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현재 일을 놓을 수 없는 사례자도 있고 그러저럭 생활은 할 만한 사례자도 있다. 각자의 맥락은 다르지만 꿈을 키우고 있으며 그 꿈을 위해 뭔가 준비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은 같다. 이 유형의 사례자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경력개발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8-남]은 상담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본인이 이전 조직에서 해왔던 일과 관련은 없지만, 퇴직 후 다른 세계를 접하면서 흥미를 느꼈고 가능성을 보았다. 아직은 교회에서 가정 사역활동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정도이지만 상담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성을 키워볼 생각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넓은 세상도 보았고 관리자로 성장도 해보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기업도 하면서 해외도 다녀보고 연구도 할 만큼 했다. 돈도 벌고 일도 많이 해보고 지위도 가져보았으니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제2의 길”을 찾아가도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례자는 나이가 들면서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보람”

을 느끼는 일을 향해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28-남]은 자신이 제2의 커리어를 찾아나서겠다는 포부를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나름대로는 어, 그렇게 대기업에서 활동도 해 보고 나름대로 뭐 전 세계 대상으로 수출기업도 하면서 해외도 다녀 보고, 그리고 어떤 관리자로도 경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 비록 좀 약간은 불만스런 면도 있겠지만, 할 건 다 많이 해봤다. 이 정도 해서 해보고 나는 앞으로 제2의 인재 길을 나 나름대로 찾아가겠다. 그리고 크게 뭐 회사에서 압박받는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크게, 크게, 어려움은 아직은 덜하니까, 요 안에서 한번 내 나름대로 살아보자.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28-남]

[18-남]은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강의를 하고 싶어 한다. 사례자의 어머니가 과거 독일 파견 간호사였던 집안 배경이 있어서 사례자는 일찍부터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주된 일자리 재직 중에도 간간히 활동을 했었지만, 31년간 근무한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1년여 동안은 본격적으로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했다. 일은 즐거웠지만 수입이 적어 불안했고, 결국 주된 경력과는 무관하지만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좀 위험하고 임금도 낮은 편이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취업으로 인해 평일에 하던 상담이나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올 3월에는 다문화전공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전문성을 키우는 편이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요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원룸 관리와 새 사업을 시작하는 배우자의 심적 조력을 하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18-남]이 처한 상황과 믿음이다.

“왜냐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중략)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그 일이 안정되면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회사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직업을 이렇게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18-남]

[37-남]은 헤드헌터 일을 하면서 전문강사를 꿈꾸고 있다. 요즘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은 전문강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다. 오전에는 헤드헌터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관련 분야 출판물 위해 집필계획에 따라 글을 쓰고 있다. 사례자는 이런 활동을 하는 시간에서 보람을 느낀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며 하락세의 경력경로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목적과 방향”이 있는 위와 같은 활동이 삶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고 싶은 사례자이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이 있는, 방향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만족은 돼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아직까지 그 희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못 견뎌요. 그 희망을 자꾸 마인드컨트롤 해요. 비전도 자꾸 그리고 나중에 강의하는 제 모습 명상도 해보고 나름대로 옛날에 제가 강의하면서 다른 사람 훈련시켰던 걸, 그때는 의미는 모르는데 저 스스로 직접 하면서 훈련도 하고 미래도 꿈도 꾸고. 지금 이 나이지만 어떤 나름대로 한번 어떤 쪽으로 해야 될지 방향도 나름대로 사회 진출생들을 위한 어떤 특화된 교육 쪽으로 가겠다고 했고 시장조사도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대부분의 강사들이 어떤 사람이 있나 보니까 뭐 박사급이고 뭐 쟁쟁해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면접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면접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게 웃긴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분야를 잘하면 내가 충분히 들어가서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고.” [37-남]

[2013-b5-여]는 외국계 금융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다. 한국 사회에서 학연, 혈연, 지연으로 얽힌 네트워크가 부족한 여성으로서 “능력을 증명하느라”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삶의 키워드가 자기 개발과 성장일 만큼 지금도 앞으로도 매일매일 새롭기 위해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발할 것이다.

“사실은 보니까 박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활동을 하니깐 박사가 아닌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내

가 수학을 전공했고, 경영학을 MBA를 했잖아요. 뭘 하겠어요. 수학으로 박사를 하겠어요. 경영으로 박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국내 회사에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눈에... 너무 관용도 없고, 표현도 없고. 내로우하고 편협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까? 그래서 제가 국제다문화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2013-b5-여]

2.3. 활동 중심

2.3.1. 나 중심의 활동

직장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다르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어본다. 꿈에 불과한 꿈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유형의 사례자들은 그 꿈을 실현해나가는 사람들이다. 당연하게도 현재 그들에게 중요한 활동은 그 꿈을 실현해가는 활동이다.

이 유형의 사례자들이 지금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적 삶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27-여]는 교직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앞으로의 삶은 여성주의적 관점의 글과 강의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 그의 바람이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사회기관에서 할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또 다른 대학의 교직원이었다 [62-여]도 33년을 근무하고 여행작가의 삶을 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2년여 동안 여행을 하며 벌써 두 권의 여행서를 출판했다. 그리고 현재는 스스로 ‘제주도에서 10년간 내 멋대로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6-6-여]는 외국계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코칭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2016-6-여]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혜택받은 것을 나누며”, 풀타임으로 일하기보다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를 바랐다. 프리랜서코칭으로 일하는 것은 경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삶의 방향을 만족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에는 내 전체 시간의 반 정도만 일하고 싶다. 주 2~3일 또는 풀로 일한다면 상반기만 일하고 싶다. 내 삶의 50%는 일하고, 30%는 여행, 20%는 봉사,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싶다.”
[2016-6-여]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조직 중심으로 사고하고 조직 중심으로 생활했다면, 이제 사례자들이 원하는 삶은 “살고 싶은 대로”살아가는 삶이다. 퇴직하고 원하는 활동 중심으로 살고 있는 [2016-6-여]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느낀다. [2016-6-여]는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내 삶의 주인... 이제는... 직장이라는 데서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책임감? 그런 부분이 컸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의미보다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온전히 내가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 선택하고 싶은 건 굳이 안 하잖아요.”[2016-6-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유형의 사례자들이 택하는 ‘일하기 방식’은 ‘일 중심’과 ‘일과 활동의 병행’에 속하는 사례자들의 그것과 다르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 하고 싶은 일이나 활동을 정하고 그것을 일과 연관시킨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정한 ‘활동’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정하는 방식인데, 독특한 것은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용환경에서 50대 중반의 여성이 기업으로의 재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이 사례자들의 경우에는 기업에 취업되기를 ‘포기’ 했다고보다는 ‘제외’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기업의 근로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6-6-여], [60-여], [27-여], [62-여]가 택한 일하기 방식은 프리랜서이다. [2016-6-여]은 프리랜서 경영코치, [60-여]은 관광통역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62-여]는 스스로 여행작가로 활동했다. [27-여]는 자신이 기획한 주제로 강의하기 위해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을 물색 중이다. 프리랜서는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귀속시킨 채 내 능력만 상대와 접속시키는 형태의 일하기 방식이다. 바로 이 점이 ‘일 중심’과 ‘일과 활동의 병행’에 속하는 사례자들이 일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조직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하게도 내가 원하는 것,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 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알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할 때’에는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오랫동안 조직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조직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세 사례자의 퇴직 후 삶을 추적해보면, 사례자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좋아하는 활동을 일과 관련지어 추진해나갈 수 있었던 힘은 휴식과 내적인 성찰과정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27-여]는 주된 일자리는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사례자는 퇴직한 후 조직생활에 지친 심신을 이끌고 양평으로 혼자 이사하여 6개월을 살았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 6개월 정말 천장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정말 행복했었어요. (인터뷰어: 내가 지금 이후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했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히죽히죽 웃고 있었어. 아~ 그런 거를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27-여]

[27-여]는 6개월 동안 양평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두 달 동안 미얀마로 위빠사나 명상수련을 다녀왔다. [2016-6-여]는 7개월

동안 혼자 유럽여행을 했고, [62-여]는 2년 동안 여행하고 사진을 찍으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특히 [27-여]는 명상을 통해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해왔던 내면의 ‘분노’와 마주하고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구술했다.

“제가 간 곳은 위빠사나라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보는 이런 거였어요. 두 달 만에 이 분노의 원리를 보게 된 거죠. 분노가 처음에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탁 하더니 분노가 생로병사라 해가지고 경로는 어떻고 이런 것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아, 그거는 정말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7-여]

위 사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며 생활하는 데에는 경제적 여건도 빼놓기 힘들다. 연금과 보유 자산, 가족의 소득, 사례자의 수입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생활하기에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 생계가 다급하여 경제적 활동을 반드시 해야 했던 ‘생계수단으로서의 일’ 유형의 사례자들과는 대비되는 조건이다.

[30-남]과 [66-남]은 퇴직 후 진로로 귀농을 선택하였다. 2014년 1차 본조사를 실시할 무렵부터 귀농을 준비, 작년에 부모님 연고지로 귀농하여 적응기에 있는 [30-남], 2년 전부터 귀농을 준비했지만 연고없는 귀농의 어려움을 체험하다 이제 막 귀농지와 아이템을 결정한 [66-남]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은 일이라기보다는 활동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당하다. 또한 이 사례자들은 더 이상 취업은 고려하지 않고 귀농을 목표로 이미 주거지, 생활 등에 변화를 주었으므로 ‘활동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귀농이야말로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므로 ‘나 중심의 활동’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귀농활동을 하는 사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한 것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세 사례자들과는 달리 ‘귀농’의 특성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하는 중이다.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퇴직한 [30-남]은 부모님의 고향에서 정착할 목적으로 귀농을 준비해왔다. 원하는 활동이었던 것은 맞지만 막상 귀농을 해보니 육체적인 노동에 지치고 농촌의 상황을 몰라 전반적으로 힘든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 [30-남]이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은 농사일, 농사 관련 교육,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이다. 고향으로의 귀농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도 부모님

을 돌봐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 부양하면서 어려움도 많지만 보람도 있고 맡아들로서의“죄책감”도 많이 덜어낼 수 있었다.

도시 출신으로 연고지 없이 귀농을 결정한 [66-남]은 우연하게 농촌 관련 프로젝트에 관여하면서 귀농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심 초기에는 이전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농촌의 계몽과 발전을 중심에 두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고민을 하였으나 점차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의 결과, 현재 가장 중요한 활동은 감 농사를 발효사업까지 연결시키는 사업 구상과 전통주 주조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수강이다. 사례자는 귀농의 방향을 ‘감 농사’와 ‘발효사업’으로 결정하고 나서 자신의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구술했다. 사례자는 그것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설정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뭔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와 방향이 정해졌을 때하고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중략) 저도 돌아보니까 방향이 정해졌을 때, 감하나 들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부터 자세가 달라지고 막 여러 가지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바뀌게 되고, 일단 고민도 크게 되고. 이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식은 어떻게 내버려 뒀야 하지? 그게 가서 정녕 가서 실패하고 돌아올지언정 일단 방향이 설정된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66-남]

귀농활동 사례자들도 앞서 소개한 사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는 일정 정도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앞선 사례자들과 같이 원하는 방향을 세우고 그 길을 간다면 “정녕 실패하고 돌아올지언정” 힘차게 자신의 길을 내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3.2. 일상생활 중심의 삶

이 유형의 사례자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일 이외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알았다고 구술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외부활

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오래 동안 담아두었던 꿈을 꺼내기 시작한 사례도 있다. 또한 중요한 활동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이 일상생활 중심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요한 것도 의미 있는 일도 없다고 호소하는 사례자도 있었다. 베이비부머 연령대를 고려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상생활 중심의 삶을 살기에는 좀 이른 결정이 아닐까 싶지만, 거기엔 몇 가지 서로 다른 이유가 있다.

[65-남]과 [2013-b4-여]는 각각 대기업 임원과 교사로 퇴직했다. 이들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가교 일자리를 경험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대기업 임원까지 해보았으니”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아쉬움 없이 다른 일을 시도한 사례이다. [65-남]은 경비직을 선택했고, 본인은 “어렵지 않았고” 즐겁게 “내 일처럼” 일할 수 있었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이었다. [2013-b4-여]는 “소처럼 맨날 발만 갈고 일하다가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식당알바, 기간제교사, 학습지교사를 경험해보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쉽지만은 않았다. 모두 만족도가 낮아 그만두고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다. 한국 사회에서 퇴직한 55-60세의 연령대가 그나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을 경험한 셈이었는데, 무작정 일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위의 설명만으로는 재취업의 실패 경험이 마치 사례자들을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한 것 같지만, 사실 두 사례자는 일상생활의 여유와 일 이외의 활동에서 기쁨을 누리며 잘 살고 있다.

두 번째는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면서 재취업을 아예 하지 않을 결심을 한 경우이다. [61-남]은 주된 일자리에서 너무 힘들게 일해왔기 때문에 동종 분야 취업은 제외, “재취업을 해 봐야 2년”뿐인 고용 환경, 실패가능성이 높은 창업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을 하는 데 대한 득실을 계산한 결과 “열심히 놀자”는 결론을 내렸다. 27년의 금융맨다운 계산법이다. 사례자가 이런 명쾌한 결론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꾸려갈 정도의 여건은 되었던 [2016-3-남]도 같았다. 사례자는 “이 나이에”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지만 “체면”도 유지하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다. “그래도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10년 후에는 만족스럽진 않겠죠. 내가 아무래도 일거리를 가져가지고 즐겁게 사는 게 편하죠. 그게 어디 쉽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떤 직업이라든지 가져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본인이 느끼면 괜찮은 건데 그걸 못 느끼면 싫잖아요 (중략) 내가 적성에 맞는 직업 같으면 70이 아니라 80까지도 하고 싶죠.”[2016-3-남]

앞선 두 경우의 사례자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는 반면, 세 번째는 재취업을 하고 싶어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포기한 경우이다. [53-여], [58-여], [59-여], [26-남]은 모두 자신이 일해왔던 분야에서 지금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자부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면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예전과 같은 직장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는 가능성에 기대고 있기보다는 염원에 가깝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조금씩 포기도 들어가면서 아쉬움과 후회는 멀어져 가는 중이다.

이 유형의 사례자들이 이처럼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데에는 서로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일상생활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여건의 뒷받침이 있었다. 이 유형의 사례자들은 연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가족의 소득, 퇴직금, 주식, 월세, 상가 임대 수입, 부동산이 있어서 대체로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는 편은 아니었다. 일부 사례자 중에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소비 행태를 바꾸는 지혜로운 소비를 함으로써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유형 사례자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대략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뉜다. 먼저 [65-남], [2013-b4-여]은 일상 기쁨을 즐기며 뭔가 배우는 활동을 좋아 한다. [2013-b4-여]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즐거움을 느낀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교직에서 남보다 일찍 명예퇴직을 한 것도 “자유”를 찾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이다. 사례자는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일정 정도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얻은 지금의 “여유”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은 너무나도 만족스럽다.

“좋은 계절에 내가 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거예요. 봄인데 봄을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대낮에 어디 고궁에 가가지고 봄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이런 자유가 주는 어떤 즐거움, 기쁨, 이런 거죠.”[2013-b4-여]

또한 [2013-b4-여]는 벌써 3년째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요양병원 같은 작은 무대에서 선생님을 거들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불러도 불러도 재미있는”완전히 흥미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사례자는 깊은 희열을 만끽하는 중이다. 노래 부르기 활동 이외에도 사례자는 교회 소식지 만드는 활동,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도 사례자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직업이라서 선택했다. 이렇듯 사례자는 온통 자신이 좋아하는 즐길거리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

[58-여], [59-여], [61-남], [2013-b1-남], [2016-3-남]은 외부활동과 취미활동을 즐기는 부류이다. 이 부류의 사례자들은 저마다 즐길거리를 가지고 있다. [58-여], [59-여]는 종교봉사활동, [61-남], [2013-b1-남], [2016-3-남]은 친구들과의 친목활동을 중요한 활동으로 구술하고 있다. [61-남]은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동창 및 이전 직장 임원들과의 골프 모임을 들었다. [2013-b1-남]은 골프, 산악회 모임 등 친목단체활동만 34개이다. 남자 사례자들이 구술한 친목활동은 퇴직한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고 편하게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교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58-여]는 2015년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왔다. 뇌경색이라는 진단에 충격을 받았지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동시에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된 계기도 되었다. 덕분에 내면의 “성장”을 경험하고 욕심과 집착을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족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통해 경제적 풍족함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마음의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

“아, 내가 좀... 저는 성장한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그거 제가 만약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냥 혼자 머물렀다고 하면 더

이렇게 아집스럽게 제 고집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편협하고 제 생각이 맞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58-여]

[58-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은 역시 무의하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이 없는 상황에서 “쓸모없는”, “무능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신앙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중심의 삶에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구술한 사례자도 있다. [53-여]는 배우자의 연금과 부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퇴직 전과 비교하면 물론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생활할 만한 수준은 된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위낙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 처지를 비교하게 된다. 퇴직했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계속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남편이 부럽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아직까지 현업에서 일하는 부자 친구들이 부럽기만 하다. 주변에 소문난 영어선생님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자신의 능력은 고작 영어로 된 원서를 읽는 데에만 활용될 뿐이다.

게다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일이 독서인데, 건강증도 생기고 책 읽는 능력도 달라졌음을 실감하면서 그마저도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사례자는 나이가 들어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더 이상 세상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까지 보태져 복잡한 심경이 되어버렸다. 허전한 마음으로 “저물어가는 인생”과 직면하고 있어 외부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을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내 스스로 서글프고 정말 속상하고 민망해요.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한 게 있을까요?”

“참 세상이 서운하기도하고 제가 서운하기도 하고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근데 또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을 즐겁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점점 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저물어가는 인생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하하.” [53-여]

제3절 소결

본 장은 베이비부머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지 2~3년이 지난 본 3차년도 조사 결과, 사례자들의 경력경로는 직장의 이동, 경력의 전환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의 궤적은 경력경로 분석으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일 이외의 활동에 관해서는 아직 다룬 바가 없었다. 이에 본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삶을 아우르는 경력경로와 경력발달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일과 활동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삶 전체를 조망하며 베이비부머의 삶이 일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은 무엇이고, 그 양상은 어떠한 맥락에서 전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본연구는 인생의 중요한 활동은 일 중심에서 점차 활동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였고, 중요한 활동을 직업(job)을 의미하는 일과 일 이외의 활동(activity, work)으로 구분하였다. 일과 활동의 변화 양상에서 중요한 활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 중요한 활동은 일 중심, 일과 활동의 병행, 활동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사례자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일과 활동의 시간적 분배, 일과 활동에 대한 중요도 및 의미 부여 정도, 일 행위의 내용, 활동 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베이비부머 중요한 활동의 양상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중요한 활동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결같이 일 중심으로 살아온 베이비부머의 삶에 일과 활동의 변주(變奏)가 시작된 것이다.

중요한 활동이 ‘일 중심’인 경우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 유형과 ‘생계수단으로서의 일’ 유형이 나타났고, ‘일과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는 ‘일과 활동의 분리’ 유형과 ‘경력개발 활동’ 유형이 나타났다. 중요한 활동이 ‘활동 중심’인 경우는 ‘나 중심의 활동’ 유형과 ‘일상생활 중심의 삶’ 유형이 나타났다.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과 각 유형에서 나타난 일과 활동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3〉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 특징 요약

| 구분 | 유형 | 일 | 활동 |
|----------|----------------|--|--|
| 일 중심 |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며 일하고, 경력의 통합감을 느낌 일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성장을 경험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활동을 함 여가활동에 관하여 아직은 생각만 할 뿐이고 취미활동은 나중으로 미룸 |
| |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 무관의 저임금 일자리, 구직,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음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미는 사치라고 생각함 여가활동, 자기계발을 할 경제적·심리적·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느낌 즐거움을 유예하고 있음 |
| 일과 활동 병행 | 일과 활동의 분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제는 일에서 성취감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욕심을 비움 중요한 것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것은 일 외의 활동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에 일 이외에도 행복한 일은 많음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음 일과 여가가 균형된 삶을 지향함 |
| | 경력개발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고 싶은 일이 있음 일을 하면서 다음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외 활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력개발활동을 주로 함 |
| 활동 중심 | 나 중심의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원하는 삶,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함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는 삶을 살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연구, 학습활동을 주로 함 |
| | 일상생활 중심의 삶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 중심으로 살고 있음 일상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목활동 등 외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주로 함 중요한 것도 의미 있는 것도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음 |

제8장

삶의 변화

제1절 경력경로 변화가 베이비부머의 가치관에 미친 영향

1.1. 내려놓기

1.1.1. 강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금까지 너무나 바빠 달려 온 삶과는 다른 현실과 마주하고 이를 인정한다. [01-남]의 경우 퇴직 후 시골에 잠시 거주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킨다.

“그러니까 좀 사실 험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직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한 3개월 지나면서 저도 이렇게 못 보던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도 앞서 **에 집 지으려고 한 달 동안 있었어요. 핸드폰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밤늦게 쏟아지는 별을 볼 때, 아 나도 좀 살았네.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나도 각박하게 살았네. 느낀 거예요.” [01-남]

이처럼 베이비부머는 ‘지금에서야’ 자신의 과거가 각박했음을 체험한다. [65-남]은 이런 인식적 변화를 부연 설명한다. 그는 자연스럽게 재직 당시의 삶을 반추하는데, 이 시기에 대한 기억은 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골치가 아팠던 것으로 떠오른다. 이와 비례하여 지금은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줄었고 그래서 이 여유를 즐겁게 받아들인다.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프로젝트 하는 걸 시작하면 결과를 만드는 것에 심취해서 했었는데 세컨핸드로 갔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뒤에 직급이 높아지니까 처리하는 일 때문에 그걸 갔다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무슨 뭐 국정원 저기,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이런 것이 그냥 골치가 너무 아파서 남. 오너들이 저 질러놓은 문제를 처리하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게 너무 싫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떠났으니까 머리는 아주 깨끗하고 맑아졌죠.” [65-남]

“머릿속에 옛날에는 저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전전긍긍했던 것이 이제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게 골치 아파서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걸 갖다고 꼭 성공시켜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것이 없어진 거죠.” [65-남]

[27-여]는 이 차이를 ‘직장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녀에게 “지긋지긋”하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고 만족스럽다.

“행복하죠. 그냥 좀 불안함은 있기는 한데요. 그 불안함이 절실하지 않잖아요. 아, 내가 끝까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가 내 일의 끝이야. 뭐 이런 정도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죠. 이 이상 현실에서 더 좋게 만들기는 힘들 거 같네요.” [27-여]

물론 [27-여]는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해방감’으로서의 여유를 강조한다. 이는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에서 성공하겠다는 강박과는 조금은 다르다.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에서 여성은 필연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게 되며, 그렇기에 일을 그만두었을 때의 해방감은 지금껏 (남성과 같은 성공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정도까지. 더 이상 나가는 것까지는 경험을 안 해 봤으니까. 이 정도까지 나이 드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라는 게 권력 같아요. 누구도 나한테 터치하지 않아. 이전에는 괜히 가다가 얼마나 스트레스받아요. 젊은 애가 말이야, 여자애가 어찌고저찌고 뭐 이런 이야기를 쓸데없이 들어가면서 내가 폭력에 시달렸잖아요. 그런 것이 확 줄죠. (한마디로 자유를 얻으신 거 같네요.) 맞죠. 흐흐.” [27-여]

강박관념이 사라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재 일상은 자신의 꿈을 소박하게 줄여나가는 식으로 형성된다. [12-남]의 경우 과거에는 늘 돈, 권력, 욕심이 가미된 ‘5년 후 미래’를 생각하면서 목표를 가졌다. 하지만 사십대 중반이후 이런 것을 내려놓는 삶을 지향한다. [12-남]은 이를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 당연한 적응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 가야지만 행복에 근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젊었을 적에,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보통 제가 학원 강의를 하면서도 5년 후에는 내가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45세가 넘어가니까 그게 참 별 의미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돈, 권력, 욕심 이런 것이 많이 가미가 되니까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데 45세가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면 새벽에 응급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위경련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위경련이라는 거는 내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줄이

죠,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줄이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내가 느끼는 행복 쪽으로 좀 돌리고.” [08-남]

[13-남]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맥락이 발견된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데서 살고 먹고 입는 것보다는 인간 내면의 가치나 내면의 즐거움, 내면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치가 변했음을 강조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 거 좋은 데서 살고 먹고 입는 것보다는 이제 하여튼 그... 인간 내면의 가치나 내면의 즐거움이나 내면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가치관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지금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하는 게 뭐 하여튼 싫지는 않고, 그런 쪽으로 욕심도 많지만 (...) 꼭 그것만이 좋고 잘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13-남]

이런 태도의 변화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놀이 나면 허전해요. 뒤돌아서면...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골프 치거나, 또 요새는 당구 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당구 치고 하다 보면 희희덕거리고 웃고 시간은 잘 가는데 끝나고 왔을 때, 뭐 허무함이라고 할까? 이런 게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죽을 때까지 그러고만 지낼 수도 있겠지요. 돈 있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내 인생이 뭘까?’ 이런 것도 있고, (...) 우리 세대, 퇴직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은 다 받고 이래 했으니까 ‘뭐가 삶의 보람인가?’라는 것은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30-남]

[30-남]은 자신에게 찾아온 일상의 여유가 때로는 허무함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만들어냄을 밝힌다. 정리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면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일상의 여유에서 ‘과거의 여유롭지 못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이런 성찰을 통

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비우면서’, ‘내면의 기쁨’에 만족하는 삶의 방향을 ‘실천’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추구’는 하는 중이다.

1.1.2. 타인에게 너그러워짐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떨쳐버리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65-남]은 이런 변화를 “성숙”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옛날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아닌 건 아닌 거야”라고 했다면, 지금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로 바뀌었다.

“성숙해졌죠. 어떤 면으로 성숙해졌냐 하면 옛날에는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내가 되게 엄격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우리 둘째딸 말에 의하면 내가 되게 쿨해졌대요. 옛날에는 아등바등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포기도 빨라요. 아닌 건 아닌 것 같애. 그러면 빨리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지하도나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나쁜 놈들이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옛날에 나, 돈 안 썼거든요. 기부하는 것에 인식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불투명성. 그런데, 요새는 그건 그다음에 일이다. 그들이 지네끼리 지지고 뵙고 나쁜 놈이 갖고 가도 그래도, 지금 현실에 이 사람이 안되었고, 지하도에 있으면 돈 기부하고, 옛날에 정말 지하철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거 물건 안 샀어요. 오죽하면 저걸 팔까. 만 원짜리라면 쓸데없는 거 안 사지만, 일이천 원. 그게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소리야. 저런 거는 쓸데없다. 비효율적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엄격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래,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만 안 먹어도 6천 원, 5천 원인데. 그냥 천 원짜리 있으니까 하나 주고, 그걸로 돈을 뺏길지 모르겠으나 저 사람도 하루 종일 공치는 것보다 누군가 나에게 천 원을 주고 가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예전에는 ‘무슨 소리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지금도 강하긴 해요. 강

하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옛날에 비해서 물어보시니까. 그런 면으로 생각을 많이 바꾸려고 그래요. [65-남]

[65-남]은 스스로의 성숙을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언급한다. 그 예를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통해 드러낸다. 예전에는 ‘이 돈으로 뭐할지 몰라’라는 식의 각박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배풀고 보자’는 식으로 달라졌다. 경력경로에 대한 강박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일상적 탈(脫)강박’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런 변화는 [59-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젊었을 때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 지금 뭐 생각이나 행동이나 뭔가가 나한테 달라지거나 변화된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근데 지금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 (...) 장사를 잘 하시네 하고 걱려를 할 수도 있고 여유로움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59-여]

“예전에는 바빠서 뭐 그럴 여유도 없었을 텐데 결국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좀 약간 옛날 어른들이 그러듯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많이 있지는 않지만 또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디 가면 농담도 좀 건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 걱려도 해주기도 하고, 조금 이제 제가 특별한 이렇게 나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 혼자 우리 마트 가서 고기 살 때 어우 너무너무 장사도 잘하신다. 우리 총각님 보고 한마디씩 위로해주고 싶어요.” [59-여]

[59-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거와는 다른 ‘여유’ 덕택에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넓어졌음을 말한다.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에도 판매자를 걱려하는 여유로움이 생겼고 아이들에 대한 아량도 커졌다. 그녀는 이 과정을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진’ 변화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신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타인을 위해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도 나타난다.

“그래도 언제든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하긴 할 텐데. 아... 지금 내 자신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충만해지고 다 좋는데 그걸로 다 채워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남을 위해서 정말 이 고요해진 마음을 남을 위해서 쓰는 거를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네, 배려. 제 시간을 많이 배분해야 하는 거죠.” [2013-b6-여]

[2013-b6-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유와 배려가 구체적인 시간적 투자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단순히 감성적 배려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삶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30-남], [2013-c02-남]에게서도 드러난다.

“첫째는 개인적인, 경제적으로 뭐 소득을 창출한다거나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기여, 공동체에 대한 기여,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남]

“내가 사실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런 멘토링 하는 걸 좋아해, 상담하는 거를. 그것도 이제 설명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잘하는 편이여가지고.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지. 요즘에는 탈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힘든 거 이럴 때 멘토링 멤버로 들어가서,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나중에는 다 할 생각이예요.” [2013-c02-남]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는 과거에 지녔던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일상의 여유를 회복하고 이를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발전시킨다. 일부에서는 이런 심정적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는 미래에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다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1.3. 가족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베이비부머가 가족에게 ‘너그러움’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강박을 떨쳐낸 현재의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가족

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진다. [28-남]이 이런 변화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가족관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과거에는 직장생활을 핑계로 자녀들의 학교에 한 번 간 적이 없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삼아 아들 학교에 가서 대입설명회도 듣고 담임선생님도 만나본다.

“이제 아들이 이제 고2가 되고 내년엔 고3이니까 이제는 딸은 이제 알아서 어? 자기 일도 하고 이제 아들한테 가능하면 이제 대입이라든가 또 시간 되면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설명회 이런 것도 한번 가고, 그리고 이제 담임선생님도 한번 만나보고 제가 남자들이 별로 이렇게 못 하는 거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별로 못 하잖아요. 대부분 엄마들이 하지. 근데 엄마가 그렇죠. 엄마가 바쁘니까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거는 아니고 한 번씩 가끔 또 옛날에 못 갔던 거를 이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행동으로 한 번씩 옮겨보죠. (웃음).” [28-남]

“가보면 필요하다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랄까 내가 왜 옛날에는 그렇게 못 했을까? 맘만 먹었으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걸 너무 좀 못하고 바쁘게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시간을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뽑으면 하는 건데.” [28-남]

[28-남]은 자녀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아내하고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지금까지는 ‘소통하는 법’을 너무 몰랐다. 직장생활에 충실하다가 하루 놀러 가면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다. 이런 ‘무늬만 소통’인 과정을 너무 오래 경험해서 여러모로 힘들지만, 현재의 ‘여유’는 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보려는 의지를 가능케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잘 이해를 못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방법을 모르는 거야. 대화는 하고 싶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대화가 아닌 거라는 걸 깨달은 거 같아. 정말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걸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정말로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젊었을 때 직장생활만 이렇게 쪽 하다 보면 그냥 한번 이렇게 시간 날 때 같이 놀러 놀러가 주고 이게 다, 다인 줄 아는데 막상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닌 거 같더라고.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내용 대화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못했잖아. (...) 그래서 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 그게 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못 했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이제 느꼈어요. 그걸 느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홈 캐스트 나와서 시간을 가지고 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거 같아 그런 부분을.”[28-남]

[01-남]의 경우 관계 개선을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갑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찰적이다. 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에게 ‘삶의 구체적인 변화’임이 분명하다.

“내가 참, 애 엄마한테 너무 갑질을 많이 했네. 이런 죄책감. 그리고 애 엄마가 간이 안 좋을 때 애 엄마가 나한테 내가 못 했던 이야기 막 하면 저는 가슴에 안 담아두거든요. 근데 여자는 가슴에 담아두더라고요. 막 얘기를 들어보면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 이것이 옛날의 내가 아니다, 그런 걸 느껴요.” [01-남]

이처럼 베이비부머는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게 되면서 가족관계의 재설정을 하게 된다. 즉 생애 처음으로 갖게 된 ‘여유’를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되던 가족관계도 낯설게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2. 어쩔 수 없는 내려놓기

1.2.1. 애써 만족함

앞 절에서 베이비부머의 ‘달라진 삶의 변화를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어른이 되어간다’, ‘철들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자신 모

습, 그러니까 과거처럼의 강박성을 버리고 내려놓기를 실천하는 여유로운 삶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의 이런 결정이 어떤 철학적 고뇌 끝에 이루어진 결정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퇴직 그리고 확연히 달라지는 현실 앞에 속수무책으로 내던져지면서 이들은 애써 만족하는 것 외에는 딱히 선택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의 ‘삶의 변화’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와이프랑 뭐 남들은 해외여행 다니는 걸 갔다가 뭐 우리는 경기도 내에서 다니는 그런. 줄이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속에서의 행복감을 내가 추구하기 때문에 뭐 큰 불만 이런 건 전혀 없어요.” [08-남]

“젊었을 때는 목표를 크게 잡아보고 서서히 다운되어가고. 그런 부분, 현실 적응이죠. 현실을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 보면 장기간 놀아요. (...) 적어도 50이 가까운 그 이후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큰 욕심부리다가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당연히 가져야 될. (...) 돈 많은 친구들이 자랑한 적이 있거든요. 여의도 가서 해라 너, 자랑. 여기서도 지갑만 열고 그런 자랑은 짧게 하고 여의도 가서 해, 그래요. 친구들 돈 자랑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바로 해버리죠. 우리는 과거 40년 전 얘기하러 나왔지 너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러 나온 건 아니니까.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내가 마음을 비우듯이 너도 좀 마음을 비워 살고 그러면 아마. 나도 마음을 비워가니까 멀어져갔던 행복이 조금 근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소박한 데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친구들도. 그러면서 서로 간에 위안도 얻고. 사실상 막상별거 아니거든요.” [08-남]

“어, 즉 뭐냐 하면 대기업 출신이라든가 좀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연봉을 많이 받던 친구들이 은퇴 후에도 그거에 근접한 걸 벌라 그래요. (...) 그렇게 목표를 크게 잡는 게 문제예요. 소박하게 가야 되는데, 소박해지려고 했을 때 내 소득이 없다. 즉 뭐냐 하면 8천~9천 받던 소득에서 3천으로 줄이면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08-남]

[08-남]은 자신의 내려놓기 선행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밝힌다. 그는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국내여행을 가면 뒀을 강조한다. 또한 [08-남]이 지닌 ‘소박함’에는 돈 많은 친구의 자량을 경계하는 날카로움까지 배어 있다. 그에게 ‘내려놓기’라는 것은 8천만 원 받던 연봉을 더 이상 못 받는 현실에 적응하는 것에 불과하다. 강박을 내려놓아 연봉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연봉’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베이비부머의 삶의 변화에는 예전과는 다른 경제적 상황이 선행되어 있다.

“저는 2014년도 그해에는 솔직히 아우,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도전을 했잖아요. 다 도전을 했다가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 점차로 포기의 성향으로 이제 가면서 그냥 지금은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아 이거를 잘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 어,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59-여]

“근데. 참 지혜롭더라. 예전 직장 다닐 때는 쉽게 옷도 다 드라이 맡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직장을 안 다니니까, 옷도 드라이가 세탁소 갈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예, 이런 차이점이 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예전보다는 옷도 좀 덜 사 입게 되잖아요. 어찌다 옷을 안 사진 않지만 예전처럼 뭐. 어, 안 사도 되니까. 기본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런 차이점이구나.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그 삶의 지혜라고 할까.” [59-여]

[59-여]의 지혜로운 내려놓기 역시 마찬가지다. “포기”라는 말을 언급한 그에게 있어 지금환경에 지혜롭게 ‘감사’하는 것은 예전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요인 발생 이후의 결정일 뿐이다. [59-여]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예전처럼 옷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상황을 애써 삶의 차이점으로 부각시킨다. 그만큼 현재의 내려놓기를 굉장히 능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반증으로 보여 진다.

베이비부머가 언급한 ‘내려놓기’의 이면에는 이들의 약해짐이 존재한다. 앞

서 각박하게 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한 [01-남]의 경우, 인터뷰과정에서 자신의 현재를 ‘과거에 비해서’ 괜찮은 것이 아닌 부족해진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이 ‘열정이 죽은’ 경우다. 그래서 ‘잘못 넘어지면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앞서 언급된 ‘성찰’은 이런 약해짐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제가 좀 기가 많이 죽었달까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전역하기 전까지는 뭔가 눈에 불을 켜고 살다가 전역 후 눈빛이랄까요. 열정이 좀 죽었다고 봐야죠.” [01-남]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거 복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복구가 안 된다는 말은 자식들도 리스크를 안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30대 초반 정도는 중반은 한번 꼬꾸라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대 후반, 60대 중반은 한 번 꼬꾸라지면 영 꼬꾸라지고, 이것이 그 리스크가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까지 넘어간다고. 그래서 지금은 아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돼요.” [01-남]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삶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베이비부머 세대는 “앞만 보고 달리지 않고 이제는 뒤 돌아본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했다. [50-남]도 마찬가지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 있는 깊은 상처다. 그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업 실패를 떠올리면서 ‘패기만 믿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창 일할 때와 비교해서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아, 아 그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전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은 뒤돌아봐요. (...) (아쉬웠던 거는 어떤 거죠?) 많죠, 많죠. (그 반대보다 더 많아요?) 아 그럼요. 아이 그니까 좋았던 기억도 많고 아쉬웠던 부분이 훨씬 더 많죠. (...) (선생님이 사업도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거죠. 차라리 그 돈 갖고 내가 딴 걸 했으면. 그야 말로 부동산이래도. (그렇죠. 그때도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그니까 너무 이제 그 저기 경험도

없으면서 그 때는 30, 30대 중반에 경험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때 뭐 패기만 있으면 될 줄 알았지. 천만에 말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 [50-남]

자신의 과거를 “바보 같은 짓”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때의 결정이 ‘지금에도’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사학적 표현에서만 ‘너무 앞만 보고 다녔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정적인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 ‘나빠졌기에’ 내려놓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1.2.2. 약해짐

그렇다면 정말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 [32-남]은 ‘무기력해졌음’을 숨기지 않는다. 지금의 ‘삶의 변화’는 그에게 ‘주저앉는’ 느낌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일 뿐이다. 과거에 비해 촌촌하지 않은 시간은 그에게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무기력한’ 기간이며, 이 시간이 길어지니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덩달아 증가한다.

“그렇죠. 일단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야. 게으러지게 됐고. (...) 뭐가 좀 돼야 뭘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 주저앉게 되고 집에 뭐. 또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기도 하면서 무기력해지니까. 아 이게 좀 그러네. (...) 예전에야 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술 먹고 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도 가고 뭐 열심히 살았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뭘 해야 될 만한 아침 시간이 어떤 타이밍이, 타임 스케줄이 없으니까. 눈을 뜨면 뭐 뭐하고 뭐 집 사람도 그렇고 아들도 좀 나가서 뭐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아니면 뭐 하라고 하긴 하는데 그 사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많이 눈치 보이면 내가 맨날 나오면 되겠지만 그것도 괜히 남을 위해서 뭐 괜히 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좀 없던 사람이었었다. 이런 자괴감도 들고. [32-남]

이런 무기력은 평소 소신을 포기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34-남]은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 과거 같으면 회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포기하고 퇴사를 결정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감 상실을 경험한다. 현재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자신이 지금 요구하는 기초적인 것을 “진짜 쓴맛을” 못 본 자의 사치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런 심리적 위축 속에서 [34-남]은 자신이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일을 (대리운전, 세차 등) 곧 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두렵다. 그래서 갑갑하다.

*** 인사실장 할 때만 해도 정말 회사의 많은 점을 개선하고 직원들한테도 존경을 받을 정도라고 자부도 하고 나름대로.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자심감이 많이 죽죠. 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죽고. [34-남]

진짜 어쩌면 제가 아직도 진짜 쓴맛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순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두려워요. (…) 여유 있게 내가 강의 준비하고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당장 다음 달 일거리를 찾아 갖고 진짜 뭐 밤에 대리운전을 하든 세차장을 하든 몸으로 뛰어야 되어 가지고 바로 노가다 쪽으로 내가 전향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죠. 불안감이. 참 갑갑해요. [34-남]

현재의 불안정함을 지속될수록 자신의 미약함을 크게 느끼고 이것이 스스로의 과거를 평가절하 하는 특징은 [15-남]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는 퇴직 이후의 지난한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온실 속의 꽃’으로 규정해버린다.

“딱 나와 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인 걸 몰랐다가 3~4개월, 4~5개월 지나니까 그때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제 이게 아니구나 세상이. (…)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편하게 너무 살았구나. 그냥 앉아서 펜대만 사인만 했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했기는 했지만 막상 나와 보니까 내가 너무 편한 생활을 했구나.” [15-남]

“(마음가짐 같은 게 퇴직했을 때 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르죠. (어떤 식으로?) 대기업에 있었을 때는 딱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너무 온실 속에 꽃처럼 자라났구나. 딱 나오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5-남]

결과적으로 베이비부머의 ‘내려놓기’ 삶은 개인들의 능동적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나빠진 상황을 경험하고 이에 무기력하게 적응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런 지점은 자신을 한없이 나약하게 바라보는 고정관념으로 이어지고 이와 비례하여 평소의 소신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정점에서는 자신이 현재 원하는 것을 ‘자격 없는 자의 무리한 요구’처럼 이해하는 역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2.3.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

앞서 언급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을 대하는 달라진 ‘훈훈한’ 태도에서도 그 이면의 압력이 존재한다.

“집안의 분위기는 옛날에는 몰라요. 직장생활 한다 해서 많은 스트레스 쌓인 걸 집사람한테 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톤 수가 높았어. 그게 어떤 갑질인가? 집안에서도? 지금은 울로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톤이 많이 떨어진 거 같아. 그리고 가능하면 마나님 이야기를, 집 식구 이야기를 존중해줘.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강자였고 지금은 약자 입장이어서 그런 거 같아요.” [01-남]

[01-남]은 배우자를 수평적으로 대해야 하는 당연함을 깨달아서 변화를 한 것이 아니다. 그가 표현하고 있듯이 “이전에는 강자였고 지금은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아내(나아가 가족)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제 뭐 여유가 있을 때는 내 생활 주도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다음 주엔 여행을 같이 떠나야겠다 해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주도를 할 수가 없죠.” [06-남]

“가족들끼리도 휴가 내서 여행도 가고 뭐 앞서서 이렇게 갔는데 그걸 이제 현재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때는 좋은 직업이라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나 공기업이나 그 친구들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 똑같은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 챙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니까 친구들끼리 이런 부분에서 뭐 경제적, 그런 부분에서 안정된 애들이 이끌어가더라고요. 지금 모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안정계층에서 하는 거죠. 너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정됐으니까. 안정이 안 된 상태는 힘들겠죠.” [06-남]

[06-남]은 자신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안정이 안 된 상태’라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력을 가졌을 때 가 능했던 가정에서 ‘주도하는 역할’이 사라졌음에 대한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런 점은 [34-남]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자가 경제권을 잃으면요. 옛날에는 가장으로서 대우를 받고 이랬었는데, 웬지 좀 주눅이 들고 눈치 보고 이런 게 있죠.” [34-남]

“옛날에는 그냥 좀 뭐랄까. 회사에서 하는 리더십 그런 거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자. 뭐 끌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눈치를 보죠. 왜냐 하면 이게 경제권이 없다 보니까, 또 여행을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계획을 짜고 끌고 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의견을 묻고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좀 양보해라 하는 식으로 좀 의견을 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졌죠.” [34-남]

“아들이 제대하고 나왔는데 상황이 바뀐 게 없거든요, 지금. 2년간, 지난 2년간 근근이 먹고살았던 말이에요. 그냥 조금 미안하죠. 미안하고 개 옛날에 불러갖고 네가 뭘 어떻게 해라, 뭐 준비해라,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해봐라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학교 다니는데 네가 나중에 사회 나와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도 좀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위축감을 상시적으로 느낌이 많이 받으세요?) 네. (...) 그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야기할때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사회 나오면 이거 한번 해봐라. 아빠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시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코치를 해주고, 진로에 대한 코치를 자신감 있게 해줬는데.(...) 애들이 가장 필요한 게 용돈이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배워보고 싶고 학원도 한 번 가보고 싶고 해외여행도 한 번 가보고 싶고. 한창 이런 꿈이 많을 때인데 그걸 서포트를 못 해줘요. (...) 오히려 결핍된 생활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다행스럽단 생각도 들지만 그건 변명.” [34-남]

[34-남]의 구술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족들을 과거처럼 대하지 않는다’의 맥락이 정확히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34-남]는 경제력이 없기에 자신감도 없다. 과거에는 집에서도 ‘회사에서 보여주던 리더십’이 통했다. 특히 자녀들에게 사회생활 및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할 때 적극적이었던 모습이 지금은 양보를 구해야 하는 과정으로 변했다. 풍족한 지원을 못 해주는 현 상황이 야속할 뿐이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지 못한다. 무슨 대단한 성취 끝에 가족을 대하는 개인의 스타일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해왔던 ‘경제적 부양’을 제대로 못 한다는 자책이 가족을 과거처럼 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1.3. 체념적 득도

지금까지 두 측면에서 베이비부머의 삶의 변화를 살폈다. 이들은 ‘내려놓기’를 희망했고 실천했다. 하지만 이것은 달라진 경제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두 지점을 합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삶에서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고 달라질 상황도 아님을 잘 안다. 그래서 일종의 ‘체념적 득도’의 상태에 이른다. 무엇에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삶에 과도한 의미부여가 뒤따르는 걸 지양한다.

“(활력 있게 살았다 이런 느낌에서 만족이신 거죠?) 어, 그렇게 느끼고 내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이런 성취감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이런 건 순간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임펄스(impuls)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얻고 거기 자체에서 얻어야 되는 거고. 아, 내가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목표를 큰 폭을 만족. 막상 이렇게 우리 그 순간은 일부분이지, 뭐. 예를 들어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하는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막상 가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과정 속에서 가끔 가끔은 햇살이 비추니까 햇살을 보니 이런 기분이지. (일종의 득도?) 그런 느낌이지. 뭘 해서 만족하다 그건 뭐 특별히.” [06-남]

“(하루에 어떤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지만 전체 그림을 종합을 해보면 경제적인 것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더 좋게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부담감, 이런 게 또 부담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전체적인 해법을 하나 딱 찾아야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06-남]은 ‘체념적 득도’의 맥락을 잘 설명한다. 그는 순간순간 만족할 만한 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전체’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까지는 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가끔 햇살이 비춘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큰 의미를 붙이길 거부한다.

“이제 조금 달라졌다는 거는 그 뭐라 그럴까. 용서라 그럴까? 크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좀 과거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불같이 화를 내는?) 네. (그런 게 지금은 뭔가 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약해진 거지, 내가. 약해지면서 그래, 다 용서하자. 이런 쪽으로.” [15-남]

[15-남]은 자신의 달라진 태도를 “크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서 찾는다. 그런데 이것의 이유는 어떤 내면적 성찰 때문이 아니다. 이 역시 ‘경력경로’에 따른 자신 지위의 ‘약해짐’에 따른 측면이 분명한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달라진 상황’으로 인해 ‘달라

진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보다 불만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결국에 눈높이를 낮추면 되는 거니까. 네가 갖고 싶은 거를 이만큼 있던 거를 이렇게 낮추면 지금도 만족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간단한 이치 같아도 쉽지는 않죠.) 지금은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내가 더 바라면 바랄수록 내 몸의 병도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22-남]

[22-남]은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필연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어야지만’ 그다음의 만족을 해나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가 의미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이는 ‘욕심을 버리고’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이는 시대적인 물줄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전복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대한’ 체념이 선행되지 않으면 ‘득도’는 불가능하다.

“그전에는 내가 앞장서서 아직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생각을 2년 전까지는 했어요. (사업하실 때 의욕이 그거였던 거죠?)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2년 동안 변화된 거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앞장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뒤에서 서포트해야 되는 시대구나. 그게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이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내가 뭐 베이비부머로서 앞서, 우리가 시대를 이끌던 그런 시기는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뒤에서 잔잔하게 따라가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나는 바뀌었어요.” [22-남]

“내가 바라는 바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게 시대적인 배경도 도와줘야 되고 내 운대도, 내 능력이 이게 삼박자가 되어 이게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꿈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워낙 청년 실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 시대는 다인 것

같다. 우리 시대는 다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역할로 가야지. 내가 나를 따르라 하던 시기는 이제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22-남]

[60-여]의 경우 자신의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의심하기까지 한다. 그녀는 자신의 긍정성이 ‘주류가 아님’에 패배의식을 느낄 것을 대비하는 방어기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 [60-여]는 지인이 늦은 나이에 (계약직)대학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억지로 ‘나도 행복한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저는 그냥 긍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 그런 성향은 좀 있어요 제가 원래도. 그니까 제가 저를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나는, 나란 사람은 원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본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어떤 내가 사회에 뭐 주류가, 어떻게보면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패배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장치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할 때도 있거든요? (애써 만족하려고 긍정한다?) 네. 그런 생각을 진짜 할 때가 있어요.” [60-여]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는 나는 어떤 거지? 그러면서 또다시 나를 돌아가지고 그래도 나는 행복한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런, 내가 이런 어떤 열등감을 안 느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써 행복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거든요.” [60-여]

결과적으로 베이비부머는 현재 자신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변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의식적으로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과거의 강박으로부터 내려놓기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보고, 가족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너그러워졌다. 구체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희망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런 ‘너그러움’은 더 이상 과거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냉철한 현실인

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내려놓기’란 과거수준의 물질적 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며, 주로 ‘생계부양’을 책임지던 가장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신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약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 기간이 지속되면 현재 자신의 고생을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로 애써 이해하려는 심리적 위안이 등장한다. 즉 이들의 ‘내려놓기’의 이면에는 위축된 일상이 존재하며, 이는 일종의 ‘체념적 득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2절 생애사적인 ‘늙어감’에 따른 삶의 변화

2.1. 건강이상에 따른 변화

2.1.1. 신체의 변화가 감지되는 가벼운 불안감의 증가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코호트적 특성에서 그 삶의 궤적을 특별한 점도 있지만, 생애사적으로 볼 때 노년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연령대로 존재하는 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체의 변화’를 느끼고 건강에 관한 걱정이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7-여](1960년 생, 56세)는 2014년도 인터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무릎관절염과 목디스크 등의 신체 노화를 경험하고 있다.

“모든 게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목디스크 판정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무릎에는 퇴행성관절염도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오고 나서 서너 달 운동을 안 했더니 팔목도 시큰거리고 이것저것 있죠. 나이가 이 정도 되면, 60 정도 되면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오고 있어요.” [27-여]

“(건강상태가) 10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조금씩 이렇게. 요즘은 또 어깨가 안 돌아가 가지고. 오십견이 왔는지.(웃음) 이빨도 시원치 않고. (그렇다고 나머지 질병

이나 진단받으신 적은 없으신 거죠?). 그런 건 없어요.” [46-남]

[46-남](1961년 생, 55세) 역시 특별한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십견, 치아불량 등의 문제가 신경 쓰인다. [28-남](1962년 생, 54세)은 오십견수술을 받았고 목디스크 증상이 있는 상태다. 그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오십견 같은 것도 왔고. 근데 그랬는데, 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어요. 이렇게 병원에도 막 가서 수술도 받고 인제 그러면서 유튜브(YouTube) 같은 것도 많이 보면서, 보면서 아 이게 뭐 꼭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헬스클럽 가면서 이렇게 웨이트가 아니면 걷는 거를 해가지고 이 몸을 풀어주는 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많이 어떤 면은 굳고, 이 헤드헌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막 뻣뻣해지고 그래갖고 목디스크 비슷하게 이게 왔고 (웃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 그런 걸 이제 깨우치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28-남]

[59-여](1957년 생, 59세)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한 뒤로 덜 움직이면서 근육량 감소가 신경 쓰인다.

“퇴직하니까 좀 더 빠졌어. 근육이 퇴직을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근육량이 직장 다닐 때는 막 움직였잖아. 이게 좀 덜 움직이니까 오히려 근육이 이제 또 폐경도 되고 쉽게 말하면 폐경된지는 좀 됐지만, 그 많이 활동을 하다가 직장을 다닐 때는 근데, 퇴직을 하면 그게 좀 줄어드니까 근육도 감소한다더라고요. 좋은 건 아니죠. 뭐, 근육도 좀 있어야 되는데.” [59-여]

이처럼 베이비부머는 건강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세대 전반적으로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2014년도 연구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가 단 2년 만에 소소한 변화가 발견된다는 것은 이후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찰

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1.2. 구체적인 질환을 경험한 이후의 삶의 변화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질환을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견된다. [14-여](1961년 생, 55세)의 경우 관절염, 노안, 폐경을 이미 경험한 이후 2016년도 2월에는 갑상선암 수술을, 4월부터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런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힘들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혹시나 더 악화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한 걱정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 60까지는 최소 60까지는 해야 되고, 이제 가능하면 한 70까지...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의 일은 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허허허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 희망사항...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막막한 거 하죠.” [14-여]

“좀 더 심해지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언젠가는 못 하게 될 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빨리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려나? (일을?). 내 건강을. ㅎㅎㅎ 자꾸 망가지는... 벌써부터 50중반인데, 이케 막 여기저기 아픈 데 생기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쵸? (...) 나이 들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그게 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뭐 옛날에 돈을 중요시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일단은 건강을 먼저 챙겨야지, 그래야 뭐래도 할 수 있으니까 아프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14-여]

[14-여]는 소소한 질환을 경험하면서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런 경우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정도의 일반적인 인식의 강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픔’ 이후, 구체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도 있다. [50-남](1956년 생, 60세)의 경우, 주유소에서 일을 하

는 도중에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는다.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받고 수개월간 재활에만 몰두하여 현재는 어느 정도 호전된 상황이다.

“(갑자기 아프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네, 네.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 젊었을 때는 아프면 치료받으면 뭐 나올 거고 뭐 치료 안 받아도 자연 복원이 될 테니까 그런 거에 두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아프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니까, 아 이게 고질병이 되면 내 자신한테도 힘들고 우리 식구들한테도 다 힘든 게 되니까 갑자기 되게 두려워지더라고. (막연한 두려움이 지금 훨씬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또 어떤 재활을 한 동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직장하고 병행하면서 치료하려고 할 텐데 이거는 돈 몇십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해서 내가 고질병이 되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고 하니까 이걸 포기하고라도, 직장을 포기하고라도 치료를 해서 완치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강했던 거죠. (...)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아, 그렇죠. 다들 애들 일을 해야 되고 할 거고 올 집사람, 물론 제가 아프면 우리 집사람이 간호는 해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안 된다. 건강을 잘 지켜서 내 아프지 않고 있다가 애들한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50-남]

[50-남]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으면서 두려움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뭐 자연스레 낫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고질병이 되어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병행하는 걸 포기하고 치료에만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53-여](1960년 생, 56세)는 2005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했고, 2010년에는 담낭제거 수술을 2014년에는 근육염증 진단을 받았다. 그 외에도 손, 어깨, 꼬리뼈 관절염 및 심한 안구건조증으로 일상생활에 여러모로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상의 체력적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중이다.

“저는... 뭐... 유의미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남은 것만으로도 고맙기는 해요. 사실은, 요새는 그런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게, 야... 이게 나중에 가면 눈 아파서 좀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힘들어서 책도 못 읽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하하. 몸이 안 받쳐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니까요.” [53-여]

“언제까지 이것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을 즐겁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점점 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저물어가는 인생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하하하. (...) 자신을 잘 깨달아야 돼요. 서글플 서글프지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겠냐고. (내 자신이 지금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잘 그거를 수용을 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에 맞게 자신을 즐길 방법을 생각해야죠.” [53-여]

[53-여]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자신의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저물어가는 인생을 바라”본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는 ‘건강에 대한 신호’가 왔다고 해서 신체상태를 예전으로 돌릴 수 없다. 서글프지만 이를 수용하고 적응해야 한다. 이 연장선에서 ‘죽음’이 떠오를 수 있다. [62-여](1959년 생, 57세)는 관절염 및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며 최근 자궁적출 수술을 했다. 이런 과정을 에너지가 고갈되고 “죽음에 직면”하는 경우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점점 힘이 빠져나가면서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고, 이제. 죽음에 직면하는 일과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62-여]

물론 ‘죽음을’ 생각하는 삶의 변화 사례는 [62-여] 경우에서만 발견된다. 하지만 건강이 변화하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비록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건강 이상신호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도 퇴행성질환을 경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즉 수년 후 ‘건강악화’는 베이비부머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관찰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2.2. 종교를 매개 삼아 생각이 달라지다

과거와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 ‘종교’와 관련되어 변화를 설명하는 베이비부머가 있었다. 가톨릭 신자인 [13-남]의 경우, 과거에는 의무적인 미사참여를 했지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딱히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사회가 좋은 쪽으로 변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된다.

“미사도 지내고 주일학교 하고 그런 게 거의 생활이다시피 어렸을 때 해왔었는데 어느 정도 성장기 지나면서 그런, 이게... 거의 생활처럼 해오다 보니까 종교가 내 신앙 자체에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 그래서 한동안 방황, 저희 이제 천주교 용어로 ‘냉담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나이 먹고 이제 같이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변에 교우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이 많으신 형제분들, 사시는 것도 보고 하면서 이게 본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어렵듯이나마 좀 알아가면서.” [13-남]

“요즘에 제일 중요한 활동은 종교활동이에요. (...) 그, 뭐 매일 뭐 주일미사 참여하고 뭐 헌금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매일 성경 읽고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것이 근간이 되어서 하여튼 그런 사회나 그런 그 소속 단체 같은 데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 자체가 이제 하여튼 이제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하여튼 귀감이 된다고 하냐? 하여튼 그런... 역할을 이제 신앙인들의 역할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 내 삶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생각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신앙적으

로 보면 그렇게 해서 내세에 천국에 가고 뭐, 이제 이렇게 된다고 있지만 뭐 지금 여기 현세로 봐서는 이제 그런 남들 돕고 격려하고 이제 그런 활동 자체가 현세에 있어서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의 그런 의무가 아닐까 싶어요.” [13-남]

즉 몇몇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종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8-여]의 경우, 요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종교활동을 꼽는데, 그 이유는 종교공동체에서 일하면서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저희 신랑도 같이 역여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한 석 달 정도를 진짜 성당에서 막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아. 성당에서도 이렇게 끈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렇게 서로 친목 도모도 물론 되지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 신앙생활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나도 아직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걸 저 자신에게 확인시키고 싶음.” [58-여]

“물질적으로는 제가 직장 다닐 때가 훨씬 더 풍요로웠지만 지금이 마음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운 것 같아요. 오히려 물질은 더 적어졌지만 제 마음이 그런 걸로 이렇게 채워지니까 훨씬 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겠죠.” [58-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낀다는 [58-여]의 구술은 이런 변화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결과물임을 드러난다. 즉 과거와는 달라진 물질적 결핍을 ‘채워주는’ 정신적 풍요로서의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상황에 적응하고 부족한 현실에 괜한 결핍을 느끼지 정신적 소모를 예방함에 있어서 종교가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0-남]의 경우는 ‘없었던’ 종교적 태도가 형성된 경우다. 그는 최근의 가장 큰 변화를 묻자 ‘하지 않았던’ 종교적 행동을 가끔 한다고 말한다. 이는 제도권 종교의 구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평생 보아왔던 달을 보고도 ‘고난을 이기

게 해주세요’라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좀 약해지는데 여담으로 이런 애길 한번 하죠. 예전에는 저는 소위 뭐 기도를 한다, 기원을 한다 뭐, 내가 어떤 종교가 있든 없든. 무한한 존재인 신에게 뭐 갈구하고 그런 게 나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를 많이, 기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종교는?) 없어요. (지금도?) 없죠. (그럼에도 뭔가 초자연적인 실체에 대한?) 갈구를 하죠 (...) 심지어는 이렇게 집에 어떤 날 밤에 들어갈 때 달이 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꼭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고난에서 나를 좀 해칠 수 있게. (평생 보셨던 달 일 텐데) 그렇죠. 이길 수 있도록, 난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뭐 직장 제대로 잡게 해주십시오. 예전에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그런 부분이 많이 내 자신이 약해진 것 같고 좀 약해지고 겸손해졌다?” [50-남]

“(깜짝 깜짝 놀라시겠어요, 그런 모습에) 많이 놀랐죠,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너무 건방지고.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뿔도 아닌 게 지만 잘랐다고 까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뒤를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해요. 문득 문득 팍 팍 떠오르고.” [50-남]

[50-남]에게는 종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자신의 고난과 청년실업 대란 앞에 놓인 자녀들 문제로 인해 자신의 불안이 커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는 ‘현재 상황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는’ 매개일 뿐이다. [50-남]은 종교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과거에 대해 겸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물론 제도권 종교를 새롭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39-남]의 경우 평생을 무교로 살다가 최근 가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도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앞선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 시기 때 관두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어머니가 상당히 악

화되고, 큰애가 결혼도 했고, 또 작은애가 몸이 안 좋아요. (...)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해서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장남으로서 만이로서 가장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뭘 해오긴 해왔는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뭘 만들어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뚜렷하게 만들어놓았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도 경제생활을 넉넉히 일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금 가진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뭐했나, 30년을 허송세월 보냈나 이런 자책을 많이 하게 됐어요.” [39-남]

“여태까지 만이로서 모든 것을 책임만 진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나 자신 우리 식구들이나 아이들 아프거나 하는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손을 못 대는 부분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 못 하는 부분 말로만 해결할 수도 없고. 아, 내가 신앙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댈 수 있는 심적 고통을 좀 기대서 누군가에게 신한테 의지를 해볼 수 있는 그걸 한번 가져야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39-남]

[39-남]은 2014년 1차년도 조사에서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난 바 있었는데, 일련의 상황, 이를테면 퇴직 이후 공백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고 큰딸이 결혼을 하고 둘째 딸이 몸이 안 좋아 투병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장남으로서 만이로서 가장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뭘 해오긴 해왔는데” 도대체 해놓은 게 무엇인지, 긴 시간 일을 해왔는데 왜 지금도 경제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지, “30년을 허송세월 보냈다”는 “자책”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책을 회색시키기 위해 종교적 신앙이 선택된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앙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즉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신앙으로써 조금 덜고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례에서 종교를 바탕으로 한 삶의 변화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종교’가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부여된 변수는 아니라는 점을 볼 때, 언급된 사례는 나름의 유의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목한 것은 종교자체에 의미를 둔 삶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 소속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일을 하지 않는 현실,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괜찮은 일자리를

언지 못하는 상황,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 -
 애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름 극복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종교가 매개체
 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3절 주변관계의 변화

3.1. 자신 때문에 일을 하게 된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2차 본조사는 2014년도 1차 본조사에 비해 베이비부머의 달라진 경력경로
 궤적을 추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 궤적이 몇몇 사례를 제외하
 고는 예외 없이 뚜렷한 하향세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직
 후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2014년도에는 어렵지 않게 예전 수준의 직장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던, 혹은 쉽지 않더라도 결코 도전을 포기 않겠다던 이들의 결
 심은 이후 대부분 좌절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이 남성중심 생계 부양을
 실천하고 있던, 혹은 그런 정체성으로 가족을 대하던 이들이었다. 그래서 베
 이부머 세대는 가족, 특히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 많이 좀 안정적으로 아직 못 올라오니까, 과거하고 달라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아무래
 도 이제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크죠. (왜 배우자 분하
 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 졌습니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24-남]

문제는 남편이 예전 소득수준을 회복할 수 없음을 직시한 배우자들이 생
 계안정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 경우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신이 과거부터 해왔던 가장 노릇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위축은 물론이고, 배우자가 자신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모습
 에 굉장한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34-남]은 과거에 생계부양자로서 당당했
 지만 그 이후 자연스레 위축되었다. 특히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로 있다가 최근

소득활동을 시작했는데 [34-남]은 이에 대해 여러모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돈을 버실 때는 좀 이렇게 생계부양자로서 좀 당당했다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그때 ‘아내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똑같죠. 이제 뭐 달라진 거는 저희 집 사람은 생활전선에 뛰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돈 몇 푼을 버는지는 몰라도 일하러 다닌다고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미안함이 드시는지?) 미안했죠, 당연히. 젊을 때 좀 그래도 더 벌어봤으면 그랬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니까. 나야 뭐 놀 수 없으니까. 돈을 떠나서 일단 일 한다는 게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생 안 하던 집사람이 생활전선에 뛰어들다는 건 좀 마음이 아프니까.” [34-남]

[06-남]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카페는 2년 전 [06-남]의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오픈했는데 현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한 명도 고용하지 못할 형편이다.

“와이프가 이제 지칠 때도 됐죠. 왜냐면 카페 운영을 맡겨놨는데 막상 카페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 나겠죠. (...) 내 문제일 수 있는데 와이프가 나한테 느끼는 문제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겠죠. 나는 똑같은데. (그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제일 크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06-남]

인터뷰 과정에서 주목된 점은 이들 남성 베이비부머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상호 간에 관계가 틀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은 없었다. 다만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돈을 잘 벌지 못하고, 그래서 배우자가 돈을 벌러 나가는 상황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이 지점은 연구설계단계에서 주요지점이 아니었기에 현장에서 직접적인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술과정에서 유사한 몇몇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귀납법적으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성 베이비부머가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삶의 변화를 추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의 <표 8-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1> 남성 베이비부머 배우자의 직업 변화

| 구분 | 배우자 변동사항 | |
|-----------|-------------|------------------|
| | 2014년 | 2016년 |
| 01-남 | 전업주부 | 사주카페 |
| 02-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03-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06-남 | 카페오픈 | 카페운영 |
| 08-남 | 공무원 | 공무원 |
| 10-남 | 전업주부 | 아르바이트 |
| 12-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15-남 | 전업주부 | 백화점 아르바이트 |
| 16-남 | (배우자)고깃집 운영 | 주방 아르바이트 |
| 17-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18-남 | 전업주부 | 요양원운영, 원룸임대, 옷가게 |
| 19-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22-남 | 전업주부 | 아르바이트 |
| 23-남 | (어린이집 준비) | 어린이집 운영 |
| 24-남 | 영어학원교사 | 영어 과외 |
| 26-남 | 방과후 보조교사 | 전업주부 |
| 28-남 | 교사 | 교사 |
| 30-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32-남 | 병원 코디네이터 | 병원 코디네이터 |
| 34-남 | 전업주부 | 아르바이트 |
| 37-남 | 전업주부 | 보습학원 운영 |
| 39-남 | 아르바이트 | 신생아관리사 |
| 40-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46-남 | 전업주부 | 간호조무사 |
| 47-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48-남 | 전업주부 | (배우자)공인중계소 보조 |
| 49-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50-남 | 직장인 | 직장인 |
| 51-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52-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61-남 | 교사 | 교사 |
| 63-남 | 전업주부 | 아르바이트 |
| 65-남 | 전업주부 | 아르바이트 |
| 2013-b2-남 | 숯해설가 | 숯해설가 |
| 2013-b1-남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임대업 |
| 2013-c1-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 2013-c4-남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표 8-1>은 2016년도 연구에서 신규로 포함된 사례를 제외한 총 37명의 남성 베이비부머의 배우자가 직업변화를 나타낸다. 2014년도에 새로운 일을 막 시작했거나 준비하는 경우를 ‘전업주부’에 포함시킨다면 모두 27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12명(44.4%)이 배우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즈음부터 지금까지의 시기에 경제활동을 위한 새로운 인생계획을 시작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앞으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남성 베이비부머가 느끼는 감정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이들의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배우자가 동일 세대가 아닐 수도 있으나, 경력단절여성으로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남편의 예기치 않은 하락세에 적응하기 위한 반응으로서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남성 중심으로 설명되는 성격이 강한 베이비부머 연구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2. 자녀들 삶에 대해 깊어지는 고민

베이비부머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이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이들의 부모는 장수하고 있고 당연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 부양의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물론 과거처럼 연공서열 철저히 보장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큰 고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삶이 예기치 않게 빨리 무너졌고, 그런데 여전히 부모님은 건강하시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부양의 무게감이 과거에 비해 남달라졌다는 점은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일차적으로는 사교육이 과거보다 많아졌고 빨라졌기에 베이비부머는 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한다. 이차적으로는 대학 진학 이후 학비는 물론이고 취업준비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의 기본준비과정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창 돈을 벌 때는 그런대로 자녀들이 필요한 만큼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이들도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이런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생계부양의 책임감이 강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어떻게든 자녀들을 뒷바라지한다.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녀들을 대학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하나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얻었지만 노동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다. 급여, 근속년수 등 고용안정성이 없는 곳에서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이 이직을 결심하고 퇴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베이비부머들은 다시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경제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마냥 즐거울 리 없다. 이들은 자신을 자책한다.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쉽사리 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베이비부머는 ‘아버지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기에, 쉽사리 자녀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를 아쉬워하고 있다.

[19-남]은 달라진 시대의 특징을 몸소 체험 중이다. 그의 장남은 32세지만 취업준비 중인 상태다. 장남은 비정규직으로 ○○공단에 2년간 다녔으나 비전(기회)이 없다고 여겨 3년 차에 퇴직을 결심한다. [19-남]의 차남은 29세지만 아직 대학원 재학 중이다. 이 역시 사회전반적인 취업난으로 인한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등장한 일이다. [19-남]은 58세다(1958년 생). 하지만 그녀의 서른 전후의 두 아들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다. 2013년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한 후, 중소기업에서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19-남]에게 이 상황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수밖에 없다.

[51-남]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다. 그의 아들은 해외명문대 출신이지만 만족스러운 취업을 하지 못했고, 또 영업부서인 현재의 업무에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아들은 갑자기 로스쿨을 가겠다고 해서 [51-남]은 ‘직장 관두면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 포기하라’고 설득을 겨우겨우 했을 정도다.

“우리 큰애도 마찬가지예요. (...) 본인도 외국인회사에 다니는데 대부분 뭐, 그래서 A는 안 돼도 B 정도는 되니까 만족하면 될 것 같았는데 본인도 거기에 만족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느낌. 공대 전자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엔지니어 쪽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요. (...) 그래서 영업부로 들어갔는데, 국내에 있는 회사가

다 국내 영업회사 아니에요.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니까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영업을 좀 많이 다니고 그런 게 좀 마음에 좀 안 들겠죠.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삼성, 엘지 들어가려고 지원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있어서 불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니다가 작년인가 갑자기 로스쿨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대충 알아보니가 아닌 것 같다. 근데 기어코 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근데 직장 관두지 마라.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떨냐, 내 보기에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 로스쿨 가겠다 그러면 1년을 죽어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시간 낭비라고. 너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안 됐어요.” [51-남]

아들이 갑자기 로스쿨을 희망한다는 것은 어릴 때 꿈꾸던 법조인의 삶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탈출의 욕구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가 처한 공통의 상황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사회진출을 최대한 늦추면서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4-남]의 경우 갑자기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아들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

“우리 애는 조금 부모에 대해 조금 원망을 하는. 이제 대학 4학년인데 자기가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대학원을 간다고 했어요. (...)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자기는 하여튼 그런 쪽은, 일반 기업체는 안 가겠다는 건 확고해요. 기업체 가서는 자기가 오래 할 수 없다고 하고. 제가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채는 어떤 틀에 얽매이는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로스쿨 가는 걸로 결정을. (어떤 면에서 좀 원망이라는 지점을 느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 계속 있었으면 지가 좀 덜 신경 쓰였을 거 아녜요. 뭐 대기업에 그냥 있었으면, 물론 대기업에 있었어도 지금 퇴직은 했겠지만 자기가 뭐 로스쿨 간다 해도 학비 걱정은 이런 건 안 했겠죠.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부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 있죠.” [24-남]

[24-남]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자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순탄하게 넘기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하다.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처럼 ‘수저만 들고’ 결혼할 수 없다.

“요즘은 워낙 뭐 젊은 애들 결혼하려면 주택 임대가 제일 고민이죠,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애 엄마는 어쨌든 아들내미 하나니까 집이라도 좀 해주고 싶죠. 근데 이제 워낙 뭐 집이 한두 푼이라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아파트 정도에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하면 뭐 이제 대출, 분양 추첨이 당첨된다고 치면 그럼 한 2년 뭐 반 정도는 넣고 받은 대출 받아서 대출 받은 거 내가 갚고 처음에 출발할 때 뭐 40%든지 이렇게 요즘 하니까 그 정도는 돼서, 돼서 출발하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 (...) 또 닥치면 어쩔지 모르지만 부모가 많이 보태줬을 하겠죠...” [32-남]

[32-남]은 자녀가 결혼할 때의 주택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4억의 절반은 부모가 절반은 자녀가 대출 받아 마련했으면 한다. 물론 이는 예시를 든 것이고 그만큼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도와주고 싶다. 문제는 이런 고민이 결국에는 주된 일자리를 더 유지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직에 있으신 분은 고민이 다르겠죠?) 네, 현직에 있으면 또 고민이 다를 건데. 그런 부분이 아 조금만 좀 더 있었으면. 한 2~3년 정도라도. 충분히 뭐 그래도 한 1억은 더 안 만들어뒀겠냐는 고민도 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죠.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32-남]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문제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직면한 상태다. 죄책감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신의 처지를 볼 때, 가족들에게 신세 한탄을 털어놓을 수도 없다.

“(오히려 신세 한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신세 한탄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세 한탄을 하게 되면 내가 다 받아줘야지. 내가 신세 한탄을 가족들한테 할 수 있겠어요.”

[06-남]

[06-남]가 밝히듯이 지금까지 베이비부머는 생계부양자로서 다른 가족들의 한탄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디선가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끝없는 미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제4절 소결

베이비부머의 대표적인 삶의 변화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과거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금까지 너무나 바빠 달려온 삶을 성찰하면서 ‘내려놓기’를 다짐하고 ‘일상의 여유’를 실천한다. 이 과정은 마음을 비우면서 자신의 꿈을 소박하게 줄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는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타인에게 너그러워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심정적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는 미래에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다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앞만 보고 달려 온 베이비부머가 가족에게 너그러울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강박을 떨쳐낸 현재의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진다. 이들은 가족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자신들의 기존모습을 반성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생애 처음으로 갖게 된 여유를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되던 가족관계도 낮설게 보는 중이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의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어쩔 수 없는 퇴직 그리고 확연히 달라지는 현실 앞에 속수무책으로 내던져지면서 이들은 애써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만족하는 것 외에는 딱히 선택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는 강박을 내려놓아 연봉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연

봉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베이비부머의 삶의 변화에는 예전과는 다른 경제적 상황이 선행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의 내려놓기 이면에는 이들의 약해짐이 존재한다. 베이비부머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정적인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 나빠졌기에 내려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지점은 자신을 한없이 나약하게 바라보는 고정관념으로 이어지고, 이와 비례하여 평소의 소신은 사라진다. 가족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도 오랫동안 해왔던 경제적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내려놓기는 일종의 ‘체념적 득도’다. 이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

한편 이들 베이비부머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은 대학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부양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얻었지만 노동의 질이 좋지 않아 이직을 생각하고 퇴직한 경우, 졸업을 해도 취업이 쉽사리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든 취업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등의 문제에서 부모가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베이비부머가 자신의 자녀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자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베이비부머는 생계부양자의 정체성을 굳건히 가졌기에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미안함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9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는 질적 패널 자료를 통하여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차 본조사에 해당하는 본연구에서는 총 60명의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3~5년 정도 경과한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경력경로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경력경로상에서의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발달은 단지 직업으로서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 및 관계의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과 활동, 삶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와 관련하여, 퇴직 후 재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 유무, 실제 재취업 여부, 재취업 시 하기 원하는 직무, 실제 재취업 시 수행하는 직무라는 4개 요소를 기준으로 연구참여자의 퇴직 후 경력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를 ‘경력연계형’, ‘경력무관형’, ‘새경력시작형’, ‘새경력준비형’, ‘취업포기형’, ‘은퇴형’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유형의 인적사항, 경력경로, 경력경로에 영향 미친 요소, 취업한 또는 새롭게 시작한 일자리 실태, 경력경로에 대한 만족도 및 소회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는 모두가 같은 동일집단이 아니며, 재취업에 대한 인식 및 희망 분야가 서로 다르고, 실제로 퇴직 후 전개되는 경력경로도 매우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연계형’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가교 일자리로 진입 시 일반적으로는 만족도 하락이 예상된다. 이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거나 주된 일자리보다는 일자리 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연구에서도 과거에 비해 급여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담당하는 자리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보다는 일부의 능력만 활용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일자리 만족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이들은 자신의 기술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성별에 따라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자리 만족도 차이도 드러났다. 즉 동일하게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경우, 남성의 일자리 만족도는 공통적으로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의 가능, 노하우의 축적으로 인한 편안함, 이전 직장과의 별 차이 없는 기대감, 경력단절 후의 재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오히려 일자리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연구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의 취업을 원하지만, 용이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된 일자리 직무와 관련 없는 직무로 취업한 ‘경력무관형’ 사례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경력연계 일자리로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는 흔히 알려진 대로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력무관형’ 사례 발생 사유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특정한 기술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가 아닌 간접 부서에 해당하는 관리 업무 종사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 주된 일자

리에서 수행한 직무 및 기업 규모 등이 경력연계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무관형’의 대부분은 재취업 후 일자리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며, 이는 기업 규모나 수입 등 외적인 조건 외에도 전문성과 상관없는 일을 ‘마지못해’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의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용이하지 않아 취업을 포기한 ‘취업포기형’은 주된 일자리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중소기업 혹은 계약직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 재취업에 단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경력연계형’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중소기업 또는 계약직 일자리로 하향 취업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은 더 이상 하향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경력무관형’과 달리 취업을 포기하는 사유 및 배경은 경제적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고, 남성에 비해 직업이 없는 것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여성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넷째, 연구참여자의 대다수가 ‘경력연계형’ 및 ‘경력무관형’에 해당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경력을 전환하여 새로운 경력을 찾기 시작한 ‘새경력시작형’과 ‘새경력준비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력전환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또는 ‘퇴직이라는 인생 사건을 맞이하여 이전과 다른 일로 제2경력을 수립해야 할 필요를 깨달아서’라는 적극적인 측면과, ‘이전 경력에서 하던 직무를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는 ‘이전 경력에서 하던 직무로 재취업이 안되기 때문에’라는 다소 소극적인 사유로 구분된다. 이들의 새 경력준비 및 시작과정에서는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필요로 하는 자격과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관련 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 경력준비와 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관심사를 봉사활동 또는 공부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통해’ 새 경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력경로상에서의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차 본조사(2014) 이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나타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변화 양상이 보다 다양하게 개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오랜 시간 축적된 고유한 경험과 함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맞닥뜨리는 일련의 변화 상황에 각기 다양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양상 가운데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 변화를 중심으로 공통된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성장욕구형’과 ‘결핍욕구형’이라는 두 개의 상위 유형하에 자아실현의 지속과 성장을 추구하는 ‘자아실현형’, 경제적 위기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균형분투형’, 일의 통제권과 여유를 강조하는 ‘자유추구형’, 새로운 시작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만족감과 보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원점출발형’, 일의 즐거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아확장형’, 영성의 추구하고 비움 및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추구하는 ‘개조전환형’, 좌절과 퇴행을 경험하고 있는 ‘생계하락형’이라는 총 7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차 본조사 이래 2년이 지난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지 약 3~5년) 현시점에서 나타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변화 양상이 보다 다양하고 개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적 혹은 개인적 상황을 대면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거나 유지하거나 계속 실현하기 위한 나름의 적응전략 또는 변화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적응과정에 도움이 된 주요요인은 베이비부머 사례자의 지속적인 배움, 인간관계,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건강, 운(luck), 종교생활(영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에 따라서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련의 경험과정을 통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일련의 정체성과 어떤 관성적인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일과 삶에 대한 그동안의 관점을 스스로 과감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개조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하나의 위기인 동시에 진정한 자신을 찾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다양한 차원의 변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과 발견은, 향후 베이비부머 개인 여하에 따라 그들을 특징짓는 틀이 언제든지 재구조화될 수 있고 성장 및 성숙을 향한 인간적 욕구의 발현을 통해 의미 있는 생산성의 성취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의 궤적은 경력경로 분석

을 통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베이비부머의 삶을 아우르는 경력경로와 경력발달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일과 활동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삶 전체를 조망하며 베이비부머의 삶이 일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중요한 활동의 변화 양상은 무엇이고, 그 양상은 어떠한 맥락에서 전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중요한 활동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전히 ‘일 중심’의 삶, ‘일과 활동의 병행’, ‘활동 중심’으로의 변화라는 세 가지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일 중심’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과 ‘생계수단으로서의 일’로 구분된다. 이들 두 유형 모두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일을 언급하지만, 그 배경 및 일과 활동에 대한 태도, 일과 활동의 내용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 유형의 사례자들은 경력의 통합감을 느끼며 일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 반면,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부족하여 불안해하는 상황의 사례자들로 ‘취업만이 힐링’에 해당된다.

둘째, 일과 활동의 병행’은 ‘일과 활동의 분리’와 ‘경력개발활동’으로 구분된다. 이들 두 유형 또한 일과 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점은 동일하나 일과 활동의 내용 및 태도는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과 활동의 분리’ 유형의 사례자들은 일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반면, ‘경력개발활동’ 유형은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셋째, ‘활동 중심’은 ‘나 중심의 활동’과 ‘일상생활 중심의 삶’으로 구분된다. 이들 두 유형 역시 일 중심의 삶에서 활동 중심의 삶으로 전환한 점은 유사하지만 활동에 대한 태도, 생활방식, 활동 내용은 서로 다르다. 즉 ‘나 중심의 활동’ 유형의 사례자들은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 중심의 삶’ 유형은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가를 포기하는 대신 ‘일상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 혹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 등 여전히 일 중심의 태도와 삶을 이어가는 사례도 확인한 반면, 일과 활동을 점차 분리하거나 일 외의 활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력개발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등 일

과 활동을 병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하였다. 또한 중요한 활동의 분석을 통해 친목 도모 등 취미 위주의 활동사례도 확인하였으나, 원하는 삶을 살고 좋아하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준비활동, 연구 및 학습을 중심으로 한 활동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 지금까지 너무나 바빠 달려온 삶을 성찰하면서 ‘내려놓기’와 ‘일상의 여유’를 실천하고 있는 삶의 변화도 관찰하였다. 이 과정은 마음을 비우면서 자신의 꿈을 소박하게 줄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 베이비부머는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타인에게 너그러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런 심정적 변화가 미래에는 주변에 기여를 하며 살고 싶다는 다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공에 대한 집착과 강박을 떨쳐낸 현재의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진다. 이들은 가족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자신들의 기존모습을 반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일자리 질의 하락, 건강상의 변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수용하고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베이비부머의 삶의 변화에는 예전과는 다른 경제적 상황과 니약해짐의 경험의 전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많은 베이비부머는 생계부양자의 정체성을 굳건히 가져왔기에 소위 ‘체념적 득도’라는 내려놓기의 과정이 이들의 경력발달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갈지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 2차 본조사를 통해 수행한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경력경로,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상의 변화, 중요한 활동 및 삶의 변화에 관한 심층 분석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중장년층의 후기 경력 발달 이해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과 재취업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많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인지·정서·행동적 변화를 폭넓게 파악하고 경력 변화의 다양한 양상과 원인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발달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는 비단 개인의 경력과 일자리 특성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니며, 중요한 활동 및 삶의 변화 전반에 걸친 특성과 맥락을 파악할 때 비로소 충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삶의 통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장년층의 후기 경력발달 이해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가 살아온 시기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급속한 변화를 거치게 되었으며, 이에 이들의 후기 경력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상과 롤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의 결과는 베이비부머의 후기 경력발달 양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바람직한 경력발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2절 제언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경력경로,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 중요한 활동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에 따라 다양한 양상과 유형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보다 세분화·정교화된 고용서비스와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베이비부머 대상의 생애경력개발과 고용서비스 제공, 후속연구 수행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중 대다수는 자신이 평생 해온 직무와 같거나 유사한 직무를 활용하여 취업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직무로 취업하거나 또는 취업이 안 되어서 이전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로 취업하거나 혹은 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경력연계 일자리로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는 흔히 알려진 대로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한 직무, 퇴직한 기업의 규모 등이 경력연계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소집단이 가진 특징에 기초하여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시 당면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이비부머 퇴직자 중에는 기존 경력을 더 이상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업종과 직무에 대해 완전 ‘신참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서비스는 다른 유형이 필요로 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이들 중에는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한 경우도 있고, 단지 과거에 했던 일이 싫어 다른 것을 막연하게 찾는 사람도 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한 경우에도, 그 일에 진입하고 시작하는 방법과 구직 실마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막상 원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의 실체가 기대한 것과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이전 경력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 ‘새경력시작형’과 ‘새경력준비형’의 요구를 더욱 세밀히 분석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돈벌이’로서의 노동을 지양하고 자신이 원하고 즐기는 활동을 하기 원하는 ‘은퇴형’은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자로 최적화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 업종에서 수십년을 일하면서 조직의 실무 및 관리 총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돈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그리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일했던 직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제2경력으로 수립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은퇴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아쉬움이 크게 남으며, 이들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 베이비부머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같은 직무 또는 같은 업종에서 오랫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례도 있지만, 경력 단절과 잦은 이/전직을 경험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사례도 있다. 이들의 경력 패턴은 남성들의 경력과 전혀 다르고, 퇴직 후 재취업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베이비부머 퇴직자로

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들의 경력경로는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점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오랫동안 ‘일 중심’으로 살아온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가 억눌려진 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쉽게 찾기 어렵다. 이 점은 본연구에 참여한 사례자들의 구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설계 프로그램 및 재취업 프로그램에서는 검사나 회상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대신 숨겨진 욕구와 욕망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연구에서 발견된 ‘나 중심의 활동’ 유형, ‘일과 활동의 분리’ 유형, ‘경력개발 유형’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면의 욕망을 알고 있어야 원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대상의 고용서비스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시 자기이해와 내면의 욕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직 가족을 부양 중이며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은 여전히 일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제적 활동의 압도적 중요성 때문에 일 이외의 다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중요한 활동의 양상과 삶의 변화도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일과 활동이 분절적이지 않은 경우 일과 활동은 서로 넘나들며 일은 활동을, 활동은 일을 촉발시키기도 하면서 경력의 발달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자신이 즐기고 있는 활동을 일로 발전시키려고 하거나 은퇴 후 주요한 일거리로 삼고자 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이후의 경력경로는 그 전과 비교해볼 때 아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과 활동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여 일과 활동의 전환과정에 관한 추후 연구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경력발달에 대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생애사적으로 볼 때 노년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시기에 해당한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연령대로 존재하는 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체의 변화를 느끼고 건강에 관한 걱정이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구체적인 질환을 얻게 된 베이비부머들은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느낀다. 젊었을 때처럼 ‘뭐 자연스레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처럼 돈도 못 버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병이 가족들에게 엄청난 짐이 될 수 있다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들은 실제로 아프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강악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이다. 즉 수년 후 건강 악화는 베이비부머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추적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남성 베이비부머는 아내가 경제활동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함을 느낀다. 총 37명의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배우자 중, 2014년도에 새로운 일을 막 시작했거나 준비하는 경우를 전업주부에 포함시킨다면 모두 27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중 절반에 육박하는 12명(44.4%)이 배우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즈음부터 지금까지 시기에 경제활동을 위한 새로운 인생계획을 시작했다. 앞으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가 느끼는 감정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중요한 활동과 삶의 변화 양상에서 사례자들이 행복을 느끼는 다양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행복감은 매우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본연구가 코호트 연구임을 감안할 때 연구에서 드러난 행복감은 그 세대를 관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30년 정도 경력의 소유자들인 베이비부머에게는 일을 하면서 경력의 통합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생활의 기쁨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배움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을 주기도 한다. 이에 추후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행복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 수립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권혜자 (2011). 중고령자의 취업구조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 김영민 (2006). 베이비붐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석, 오찬호, 심우정, 하지영(2015).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중단연구(2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석, 장서영, 심우정(2013).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 설계.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석, 장서영, 심우정, 오찬호, 하지영, 송순영(2014).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보고서(1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석, 하지영(2016).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선택동기와 준비경험: 대졸 남성 퇴직자를 중심으로, 36(2), 419-442.
-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10). 한국베이비붐세대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광경, 주영아(2016). 노년기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자전적 글쓰기 프로그램 효과 연구, 36(2), 295-313.
- 이상학(2016). 베이비부머 세대- 불안한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서울: 간디서원.
- 장원섭(2015). 장인의 탄생. 서울: 학지사.
- 정호성, 강성원, 문외술, 박준, 손만중, 이찬영, 이은미, 이민훈, 박변순 (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최성재(2016). 100세 시대 생애설계 필요성. 한국노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 3-11.
- 최수현, 김혜리(2016). 노년기 자아통합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노년학, 36(2), 199-214.
- 한경혜 (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42(3), 86-118.
- 한경혜, 손정연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과정, 경제적·관계적 자원과 심리적 복지감: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91-330.
- 한정란(201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준상(2001). 학습학. 서울: 학지사.
- 한준상(2009). 생의 가: 배움. 서울: 학지사.
- Ciulla, J. B. 안재진 역(2005). 일의 발견(The working life). 서울: 다우.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ew York: Free Press.
- Baxter Magolda, M.(1992). *Knowing and reasoning in colleges: Gender-related patterns in student intellectual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axter Magolda (2001). *Making their own way*. Sterling, VA: Stylus.
- Birch, M. & Miller, T. (2000). Inviting intimacy: The Interview as therapeutic opport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3(3), 189-202.
- Car, W., & Kemmis, S.(1986). *Becoming critical: Education, knowledge and action research*. London: Falmer Press.
- Card, N. A., & Little, T. D.(2007). Longitudinal modeling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4), 297-302.
- Creswell, J. W. (2008).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xter, L. A. (1970). *Elite and specialized interviewing*.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Epstein, T. S. (2002). Mysore villages revisited. In Kemper, R. V. & Royce, A. P. (eds.) *Chronicling cultures: Long-term field research in anthropology*.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New York: Norton.
- Greene, J. C. (2007). *Mixed methods in social inquir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uba, E. G. (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Annual Review Paper*, 29, 75-91.
- Holland, J., Thomson, R., & Henderson, S. (2006).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A discussion paper*. Families and Social Capital ESRC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No. 21. London: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 Huber, G. P., & Van de Ven, A. H. (1995). *Longitudinal field research methods: Studying processes of organizational chang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Kraus, W. (2000). Making identity talk: On qualitative methods in a longitudinal study.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 2. retrieved on May 15, 2013 from <http://www.qualitative-research.net/fqs-texte/2-00/2-00kuehnwitzer-e.htm>.
- Krefting, L. (1991).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The assesment of trustworthiness.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5), 214-222.
- King, P.M., Kendall Brown, M., Linsay, N. K., & VanHecke, J. R. (2007). *Liberal arts*

- student learning outcomes: An integrated perspective. *About Campus*, 12(4), 2-9.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Molly, D., & Woodfield, K. (2002).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in evaluation studies. A report to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Lewis, J. (2007). Analysing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in evaluations. *Social Policy and Society*, 6(4), 545-556.
- McLeod, J. & Yates, L. (1997). Can we find out about girls and boys today – or must we settle for talking about ourselves? Dilemmas of a feminist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project. *The Australian Educational Researcher*, 24(4), 21-43.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Saldana, J. (2003).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nalyzing change through tim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 27-37.
- Thomson, R. & Holland, J. (2003). Hindsight, foresight and insight: The Challenges of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6(3), 233-244.
- Yates, L., & McLeod, J. (1996). And how would you describe yourself? Researchers and researched in the first stages of a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project.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40(1), 88-103.
- Young, C., Savola, K., & Phelps, E. (eds) (1991). *Inventory of longitudinal studies in social sciences*. Newbury Park, CA: Sage.
- Valiant, G. E. (1983). *The natural history of alcoholism: Causes, patterns, and paths to recove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aliant, G. (1995). *Natural history of alcoholism revisit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aliant, G. E. (2012). *Triumphs of experience: The men of the Harvard Grant Study*.

-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Willis, J. W. (2007). Founda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pretive and critical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부록

부록 1: 심층면담 사전 설문지

부록 2: 본조사 질문지

부록 3: 연구참여 의뢰서 및 동의서

부록 1: 심층면담 사전 설문지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앞으로 진행될 개별 면접을 위한 사전 조사에 해당하며,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6월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연구진 일동

문의: 043) 870-8307

1.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성 별: 여성 () 남성 ()
- 2) 연 령: 만 () 세
- 3) 최종학력: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
- 4) 가족 배경

| 관계 | 연령 | 하는 일 | 결혼 유무 | 동거 여부 | 부양 여부 |
|------|----|------|----------|----------|----------|
| 부 | | | | | |
| 모 | | | | | |
| 배우자 | | | | | |
| 자녀 1 | | | | | |
| 자녀 2 | | | | | |
| 자녀 3 | | | | | |
| 기타 1 | | | | | |
| 기타 2 | | | | | |

(작성 예시)

| 관계 | 연령 | 하는 일 | 결혼 유무 | 동거 여부 | 부양 여부 |
|----|-----|------------|----------|----------|----------|
| 처 | 54세 | 초등학교교사 | - | 동거 | - |
| 장남 | 26세 | 학생(대학원 재학) | 미혼 | 분가 | ○ |

5) 주거 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

6) 가구연간소득: () 만 원

※ 가구연간소득은 귀하의 연간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실제 소득)입니다.

7) 가구연간소득 외에도 별도의 수입원(월세/전세, 상속, 이자소득 등)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소득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용: () 금액: ()원

2. 귀하의 마지막 퇴직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3. 지금까지 근무하시거나 종사하셨던 직장, 직업, 사업장 관련 정보를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988년 1월~1995년 9월, 한국 상사, 영업1팀 과장

주요 업무: 신규 계약 추진 및 기존 거래처 관리 등

-

-

-

4. 귀하의 업무 및 경력과 관련하여 보유한 자격 및 기술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안전기사, 중등정교사 1급, 영어회화 상 (TOEIC 900점 수준) 등

-

-

-

심층면담 시 사진(또는 그림, 좌우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귀하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사진(또는 그림, 좌우명)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2: 본조사 질문지

1. 도입 질문

| | | |
|----------|---|----------|
| 주요 영역 | • 주관적인 인생의 만족도 | 문1 |
| | • 객관적 건강 측정 | 문2 ~ 문6 |
| | • 주관적 건강 측정 | 문7 ~ 문10 |
| 진행 요령 | 해당 질문에 응답 후, 필요에 따라 그 이유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추가 탐색 | |

1. 다음은 귀하의 여러 생활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1, 가장 만족한 상태를 10으로 놓았을 때, 귀하는 현재 다음의 각 분야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해당 없음 | 전혀 만족 못 함(1) ↔ 매우 만족함(10) | | | | | | | | | |
|------------------|----------|---------------------------|---|---|---|---|---|---|---|---|----|
| 이전 직업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현 직업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배우자와의 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부모와의 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자녀와의 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친구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취미, 여가생활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종교생활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건강상태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경제적 여건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2. 다음 중 해당되는 만성질환 또는 건강상의 문제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해당 여부 | 진단명 | 진단 시기 |
|-------------------|----------|-----|-------|
| 고혈압 | | | |
| 당뇨병 | | | |
| 암 | | | |
| 폐 질환(기관지염, 폐기종 등) | | | |

| 구분 | 해당여부 | 진단명 | 진단 시기 |
|--|------|-----|-------|
| 고혈압 | | | |
| 당뇨병 | | | |
| 암 | | | |
| 폐 질환(기관지염, 폐기종 등) | | | |
| 간 질환 | | | |
| 심장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증, 기타 심장 질환) | | | |
| 뇌혈관 질환(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 | | | |
| 정신과적 질환(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스트레스 과다, 알코올 남용 및 중독, 대인관계 곤란, 정신 질환 등) | | | |
| 관절염 및 류마티스 질환 | | | |
| 사고 및 외상(교통사고, 낙상 등) | | | |
| 비뇨기과 질환(전립선 질환, 요실금 질환 등) | | | |
| 안과 질환 | | | |
| 시력·청력·치아 상태 | | | |
| 그 외 질병 및 건강상의 문제 | | | |

3. 위에서 말씀하신 만성질환 또는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치료 또는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 상황에 대한 상세 기술:

4.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 이유 :

II. 경력경로

| | | |
|----------|---|---------|
| 주요 영역 | • 1차 본조사 이후 경력상의 변화 | 문1 ~ 문3 |
| 진행 요령 | • 경력경로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인식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과 실제 현황에 대한 파악 • 경력상의 객관적 변화에 따른(혹은 경력변화를 초래한) 개인의 고유한 인식과 평가, 정서, 인지, 행동 등 이면의 맥락을 심도있게 파악 | |

1. 지난 조사 이후 경력상의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조사원 참고사항: 인지적 · 정서적 · 활동(역할)적 · 환경적 변화 등 가능한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확인. 특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일상의 구체적인 실사례에 대해 추가 탐색

-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셨습니까?
- (구직활동 중인 경우) 구직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전략이나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입니까?
- 귀하의 자격과 기술, 능력에 기초하여 귀하께서 일하기 원하는 분야는 ○○이며, 희망 연봉은 ○○정도였습니다.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 귀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2.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지난 2년간 귀하께서 경험하신 경력상의 변화를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귀하

의 삶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기서 경력이란 직장만이 아닌 모든 활동을 의미함(광의의 의미에서의 경력)

3.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지난 2년간 경험하신 경력상의 변화로 인해 본인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III. 현재의 활동 및 일의 의미

| | | |
|----------|--|------|
| 주요 영역 | • 1차 본조사 이후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 문1 |
| | • 일/활동의 의미 | 문2,3 |
| 진행 요령 | • 1차 본조사 이후 변화 내용 파악과 변화를 초래한 원인 및 맥락 파악을 중심으로 함 • 여기에서 ‘일’이란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을 포함하여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개인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제반 활동을 포함(취미, 봉사 등을 비롯한 제반활동 포괄) | |

1. 지금 하시는 활동 혹은 일 중 중요한 것을 말씀하여주시고 각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 왜 그 활동(일)이 중요하십니까?

- 왜 그 활동(일)이 하고 싶으십니까?

2. 귀하에게 앞에서 중요하다 말씀하신 일/활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귀하께서 해당 활동 혹은 일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3. 지난 조사에서 귀하께서는 일/활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당시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생각이 바뀌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조사원 참고사항: (1) 삶의 주요 구성요소로서의 일(삶의 활력소와 원동력, 물두할 수 있는 무엇, 삶에 규칙을 제공해주는 것, 삶의 모든 것), (2) 경제적 도구로서의 일(생계유지 수단, 노후대비 수단, 체면유지 수단), (3) 심리적 만족과 보상으로서의 일(성취추구→사회적 기여, 자신의 가치 인정받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소속됨→사회적 관계망 창출)

부록 3: 연구참여 의뢰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 의뢰서

한국고용정보원은 베이비부머의 경력이동과 은퇴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향후 중장년층의 경력관리 및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1:1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연구를 위해 엄선된 전문 조사원이 귀하께서 원하시는 일정과 장소를 방문하여 약 2시간 내외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원은 귀하께 경력경로와 퇴직 경험, 현재의 활동 및 경험, 일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해 질문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심층면담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의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기타 본연구와 관계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 연구진 일동

(문의: 043-870-8307)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는 「베이비부머 질적 중단 연구」의 연구참여자로 1:1 심층면담에 응할 것입니다. 본인은 본연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인터뷰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인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2016년 6월

이름: (인)

집필진 **김은석**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양안나 (커리어팜(Career Farm) 대표)
 오찬호 (서강대학교 연구원)
 장서영 (일연구소 소장)
 하지영 (연세대학교 연구원)
 송스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3차년도)

인 쇠 2016년 12월 30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 행 인 이재 흥
발 행 처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 1577-7114
홈페이지 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751-9